



요한 1

요한 1
Tape #8069
By Chuck Smith

성경을 죽 훑어가는 중에 이제 요한복음 제 1 장에 이르게 되었다.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1:1)

창세기 1:1(“”)과 매우 흡사하다. 요한일서의 첫 부분과도 흡사하다. “”(요일 1:1).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는 제 2 절에서 강조한다(1:2).

우리는 하나님은 3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분이시다(성부와 성자와 성령) 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1:1 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수 형태(엘로힘)로 사용되고 있다. 이 복수 대명사는 창세 이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창 1:26). 우주 창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서 제 1 장에서 예수님은 물론 조물주시라고 말한다. “”(골 1:15-17).

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룹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소리는 듣게 된다. 그러자 장로들은 그 노래 소리에 화답한다. “”(계 4:8,11).

그러므로 여러 민족이 경배하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 단 한 분이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성경에 의하면,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행위이다.

무리에타 온천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정결을 위한 씻음인데, 사실 씻어버려야 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동성 연애자들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로 내려가서 지하 5 만 피트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이다. 그 온천의 깊이가 5 만 피트라는데 말이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발을 담그는 이유는 지구라는 어머니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지구를 경배하는 태도인데, 뉴에이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지구를 예배하면 청결함을 얻게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조물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지금 이런 태도가 유행병처럼 세상에 번지고 있다.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제 3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1:3).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 피조되었다.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듯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1:3).

바울은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나열한다. 정사와 권세 등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열거한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골 1:16).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사도가 공회의 위협을 받은 뒤 사도행전 제 4장에서 기도를 드린 내용대로, 이 전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것이다.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행 4:24). 생명 있는 모든 형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조물주라는 내용이다. “”(1:4).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요일 5:12). 여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10:10).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영구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다. 이 생명은 그분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1:4).

빛은 이 세상의 어두움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어지는 요한의 말이 그런 의미이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비취나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1:5).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보아도, 이 구절의 희랍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잘 알 수 있다. 꼭 맞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희랍어가 몇 개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곳이 그런 경우이다. 한 번역본에는 “어두움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으나, “깨닫다”나 “이해하다”나 모두 인식하여 하는 것을 나타냄은 물론이다.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두움이 그것을 잠재우지 못하더라” 또는 “어두움이 그것을 삼키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취고 있는데도 어두움은 그것을 제거하거나 삼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아니다. 어두움은 빛을 잠재우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빛을 제거하려고 애썼다. 사람들은 늘 그래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요 3:19,20). 주님은 여기서 이 빛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빛으로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빛을 없애고자 한다. 빛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것이 어두움 속에서 비취고 있었으나 어두움은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다. 애를 쓰지만 빛을 가릴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마 3:14).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1:6).

이것은 하나의 작은 괄호에 해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인으로 왔으며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고 왔다(1:6,7).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은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데 있다.

요한은 제 20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20:30,31). 그러므로 요한이 얘기하는 바는 그 의도적으로 이 글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예수님 생애의 몇몇 사건을 기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다.

그가 증인으로 온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를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 빛(예수)은 참 빛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은 자기 사람들에게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1:8-11).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강조하기를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비극이었다.

그런 비극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조물주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 생명의 빛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서 등장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비춰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말씀하셨다. 음부의 권세는 빛을 없앨 수가 없다.

중국에서 빛을 없애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얘기는 흥미롭다.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은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을 투옥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구금되었다. 수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빛을 없애려던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죽의 장막이 걷혔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니 중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수백 만 명의 신자들이 가정 교회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수년 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나는 한씨라고 하는 정부 지도자 한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자 그는 차 한 잔을 하자고 권했다. 그는 우리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했다. 그는 중국의 한 지방에서 주민의 90% 가량이 기독교 신자가 되게 된 한 사연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가 들려준 기독교인들 얘기 중 재미난 부분이 있었다. 그 당시 중국 각 지방은 추수기가 되면 모두 일정량의 곡식을 정부에 바쳐야 했다. 그들이 공출한 곡식을 싣고 갈 트럭들이 10 마일, 때로는 15 마일을 늘어서곤 했다. 당국자들이 그 모든 곡식단들을 조사하며 점검하는 데 수 시간이 걸리곤 했다.

그러나 그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은 곧바로 앞으로 나와서 짐을 부려놓고 가곤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만 신속히 짐을 부리고 가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다. 당국자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다: 그 신자들이 가지고 오는 쌀은 언제나 품질이 최상품이기 때문이다. 돌이나 자갈 같은 게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곡물의 무게를 더하기 위하여 돌이나 자갈을 첨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곡식은 오랜 시간을 들여 세밀히

검사한다는 것이었다.

기독교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부는 잘 몰랐지만, 아니 오히려 그 빛을 끄려고 애썼지만, 당국자들은 그 빛의 효험을 경험할 수는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 지역에서는 언제나 질이 좋은 쌀로 그들의 할당량을 채워 납품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한 증인이었다. 주님이 오늘날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증인들이었다.

요한이 온 것은 바로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출 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이다.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다니 참으로 비극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사 9:6,7). 그것은 오셔서 다스리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 바로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와 같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사 53:3).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싫어 버림을 당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이와 같다. “육십 이이레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단 9:26). 그렇다. 그분은 끊어져 없어지셨다.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으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1:12).

오늘 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그분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요일 3:1,2).

물론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은 함께 신음하며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느니라”(롬 8: 15,17,22,23).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 권능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1:13).

구원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신다. 거듭 난다는 것은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1:14).

도성인신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1:14).

보다 더 글자 그대로 다시 말한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셨다. 이것은 도성인신의 신비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딤후 3:16). 예수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을 함에 있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매우 단호하다.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라는 인격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점을 성경은 누차 강조한다.

저 경이로운 책 히브리서는 그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런 교훈을 제공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주 창조 시에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음을 재차 선언하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골 1:17)]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히 1:1-6).

히브리서는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흡사한 선언을 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표출된 형상이시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And that is why 예수님 in the fourteenth chapter of 요한복음 제 14 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14:9).

이렇듯 그분은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일 1:1). 말씀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도다(1:14).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다(1:14).

“”(요한 3:16).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시 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을 뿐이다. 그에 비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압지의 독생자”이시다.

물론 교도들은 예수님을 루시퍼의 형제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면 루시퍼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은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요한은 그분을 증거하였다(1:15).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책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은 그 사실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을 우리 앞에 내세울 것이다. 마치 재판정에 서서 한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처럼 그는 여러 증인들을 불러들인다. 그가 데려온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 그는 또한 성령을 증인으로 내세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한다. 이렇듯 그는 이 복음서 안에서 자기가 진실이라고 긍정하는 바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들을 모아오고 있다.

첨가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이 쓰여진 이유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책은 불신자들에게 읽으라고 권고할 만한 것이다. 이 책의 의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에는 매우 흥미진진한 성구가 있다. “”(사 55:10,11).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확정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그 말씀을 읽을 경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심겨질 것이다. 요한은 그분을 증거하였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1:15).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으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므로 요한은 예수님보다 선배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확인하였다: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여기서 그는 영광 가운데서 선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그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1:16,17).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요한은 자신이 그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1:18).

여기서 다시 한 번 “독생자”가 강조되고 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이다(1:18).

다시 말하면, 완전한 계시 가운데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쳐다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모세야 너는 나를 보고서도 살 수는 없느니라. 네가 바위 틈에 거하면 내가 지나갈 터이니 그 때 너는 나의 후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출 33:18,20,22). 그런데 그 후광은 너무도 강렬해서 그의 얼굴은 빛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자기 얼굴을 천으로 가려야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가 없음이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고 물었을 때의 기록이다(1:19).

요한이 세례를 주고자 요단 강으로 내려갔을 때 많은 이들을 그를 따랐다. 그는 인기 있는 선지자였다. 사람들은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종자들을 그리로 보내어 그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네가 누구이며 너는 어떤 권위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들이 물은 질문이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1:20,21)?

너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신 18:15).

그는 아니라 고 대답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1:21,22)?

여기서 그들이 요한보고 네가 엘리야? 고 물었을 때 재미 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다. 요한은 아니라 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이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제 1 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가라는 두 주간에 걸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갔으며 주님께 향을 드릴 순번을 맞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러 제단으로 다가가 보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제단 곁에 서 있는지라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가랴여 두려워 말라. 네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무슨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인가?

그는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도 매우 늙어서 그들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오고 있던 터였다.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을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라 고 천사가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하였다: 그녀가 매우 나이 많이 들었으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허리가 굽어지고 골다공증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네가 표적을 원하느냐? 고 물었다. 그 아이를 낳는 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천사는 그 아들을 낳게 되는 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고 명하였다. 그 아이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받아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킬 자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하셨다. 그 엘리야는 메시아와 왕국 시대의 전조가 될 것이니라. 그 때 이후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려 왔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문을 열어 두었다. 엘리야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그들은 항상 식탁에 여분의 접시 하나를 마련해두곤 하였다. 우리도 메시아의 전령인 그를 위하여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고 싶다. 사실, 구약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약속은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한 것이었다. 엘리야가 죽은 후 즉 세레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후에---세레 요한은 헤롯 임금 앞에서 춤을 추던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 참수되었다---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11:7-10,14).

그렇다면 예수님도 세레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요한 자신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을까?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라기의 예언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분의 왕국을 준비할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성서에서 말씀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올 것이니라 너희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말하겠는데,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느니라 고 대답하셨던 것이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입고 왔지만 요한은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리라는 예언의 성취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와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였다. 어쨌든 그는 엘리야의 영광 권능으로 온 선발대였다. 그리고 엘리야는 장차 올 자이다.

요한계시록 제 11장에서 우리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그 중의 한 명은 분명히 엘리야일 것이다. 다른 한 명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하라(1:22).

우리가 보냄을 받은 목적은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하니 네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네가 누구라고 우리가 전언하면 되겠느냐?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1:22,23).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너희에게 말하기 위하여 온 자니라. 당시 국왕이 자신의 왕국을 둘러보고자 할 경우에는 선발대가 먼저 가서 사람들을 모아 길을 닦던 습관이 있었다. 돌들을 제거하고 낮은 곳을 메우고 길을 부드럽게 하여 왕이 도착했을 때 순탄하게 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왕이 지나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였다. 길을 정비하고 정돈하며 단장하라. 왕이 지나가신다.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나는 왕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언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 너는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고 하였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나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므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니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1:24-29).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선언은 이와 같았으니,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속죄제 희생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니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된 사건 말이다. 그들은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선포한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썼다. “”(벧전 1:18,19).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자 하나님의 희생 양이 되셨던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즉 그가 사랑하던 외아들 이삭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는 산에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을 부르고 아들을 대동하여 3일 길을 걸어 헤브론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리아 산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종들로 하여금 산기슭에서 기다리게 한 후 아들만을 데리고 산을 오른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없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했다. 아들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거기다 올려놓은 후 칼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되었다. 멈춰라. 그만 하면 족하도다.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렸으니 그것을 취하여 제물로 드려라.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드린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신대로 되었음이니라(창 22:3-14).

그러므로 사람들은 희생제물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고 선언했다. 그곳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며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흔쾌히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도다(1:30-33).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나는 보았고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으로 남겼노라(1:34).

여기에 우리의 증인이 있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증인이 있으니, 요한은 내가 보았고 내가 증거하였노라 고 말하였다.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있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1:35,36)!

여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물론 우리는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며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보라, 바로 이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어 있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너무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이 자기 주위에 사람들을 불러모으려고 애쓴다.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귀속시키려고 애썼다. 자기 사람들을 떼어 예수님께 보내려고 애썼다. 자기의 두 제자에게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았다. 그들이 뒤따르는 것을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사시나이까? 라고 물었다(1:37,38). [여기서 요한이 랍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한 것에 유의하라. 그의 해석에 의하면 그 단어는 주인이나 선생을 의미했다.]

선생은 어디 거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와서 보라 고 말씀하셨다(1:39).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일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하였다.

그들은 와서 주님을 거하시어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다: 이미 오후 4시 경이나 되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1:39,40).

우리는 안드레에 대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몇 번 읽게 된다. 그의 이름은 언제나 사도라 일컫는 이들과 함께 등장하지만 우리가 안드레를 만날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다. 전도하는 게 그의 직임인 듯이 보였다. 많은 이들이 산에 올라 말씀을 들을 때, 한 소년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가진 것 외에는 먹을 게 없었던 적이 있다. 예수님은 그 애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회랍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싶다고 말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저들이 예수님을 뵙고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요한 12:20-22). 이렇듯 안드레는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친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다시 한 번, 그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를 만났도다 (1:41).

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단순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메시아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용어가 상이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대할 때 우리는 성과 개인 이름 식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직책으로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아름다운 이름인데, 여호와와 구원이시다 즉 예슈아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는 말이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이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요한은 그 단어를 회랍 사람들에게 해석해주었다. 회랍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또는 기름부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왕이 치세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기름 한 병을 그의 머리에다 부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만드는 예식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셨다.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한 분이셨다.

여러분은 주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헬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명하신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복종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치자의 직위에서 해임하셨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내려갔으며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장남 엘리압은 외모가 수려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그를 보자 사무엘은 틀림없이 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모든 아들들이 지나간 후에 사무엘은 말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 아닙니다. 작은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애는 들에 나가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를 데려오세요. 다윗을 보자 사무엘은 일어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은 이 노인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동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까? 그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그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직임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리켰다. 물론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신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다. 제사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안드레는 나가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만나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리고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고 말씀하셨다(1:42):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셨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는 게바[다시 한 번 유의하라. 필자는 여기서 ‘반석’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다]라 칭하게 되리라(1:42).

이는 페트로스라는 히브리어를 희랍어로 번역한 결과이다. 여기서 이 희랍어는 영어로 번역되어 돌[stone]이 되었다. 너는 게바라 칭하게 되리라.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1:43),

유의하라.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다른 요한의 제자를 찾으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빌립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를 따라라 고 말씀하셨다(1:43).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 만나신 사람이 있다.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다(1:44),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안에 있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오천 명을 먹이신 곳 근처였다.

그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다(1:44).

소년 시절부터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빌립은 나dana엘을 찾아 나섰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주신 후, 빌립은 나dana엘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보았도다 라고 하였다. 모세가 율법서에서 말하고 선지자들이 언급한 나사렛 예수를 만났도다(1:45),

그분을 나사렛 출신이라 칭하는 게 필요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에 해당했는데 많은 이들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 매우 많은 이들이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무개는 베들레헴 출신 여호수아야, 벧세다 출신 여호수아야 또는 나사렛 출신 여호수아야 하는 식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나dana엘은 예수님을 보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1:46).

나dana엘이 그렇게 조소한 것을 보면, 나사렛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한 동리가 분명하였다.

빌립은 나dana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였다(1:46).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 사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와서 보라고 대답하였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나dana엘은 무슨 좋은 게 날 수 있겠느냐고 의심을 품었지만, 그는 단순히 와서 보라고 답하였다.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다. 맛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노력도 해보지 않고, 맛도 보지 않고, 와보지도 않고 이러니 저러니 평을 한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다. 우선 와서 보라. 체험해 보라. 성경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라고 초청한다. 이것은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멀리서 관조한다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여해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1:47)!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는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나dana엘은 나dana엘은 예수님께 말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보았느니라. 나dana엘이 대답했다: 럽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다른 증인 나dana엘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1:48,49).

기름부음을 받은 자,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고 내가 말함으로 네가 믿느냐? [기다려 보아라. 너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너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1:50,51).

여러분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낫을 피해 도망하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가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피곤함으로 등을 베개하고 눕게 되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이다. 땅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꿈을 꾸고 후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하였다. 어제 밤 내가 사력을 다하여 달려 피신함으로 인해 녹초가 되어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 황폐한 돌작 밭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말이다. 나는 피곤에 지쳐 잠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황폐하고 황량한 곳에 계셨구나. 그분이 여기 계시는도다. 보라, 그분이 여기 계시는도다. 과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도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는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황량한 여러분의 인생의 별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길으로 보이서는 전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깨달았을 경우,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된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는 듯하다: 나는 사닥다리니 나로 인하여 하늘이 땅과 이어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느니라.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들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였다. 그들은 사닥다리인 나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욥이 찾아 헤매던 것이기도 하다. 그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으며 그의 친구들도 그랬다. 그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게. 그러면 일이 잘 될 걸세. 욥이 응수했다: 고맙네, 친구여.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분을 만날 수 없었다네. 하기가 내가 감히 누구관대 내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겠나?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겠나?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광대하신 분이라네. 그분이 어딘가엔 계시는 게 분명하지만 그분은 너무 광대하여 내가 그분에게 이를 수가 없다네. 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재자가 있었으면. 우리 양자를 모두 접촉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욥은 자기의 곤경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나는 너무도 왜소하구나. 내 존재는 너무도 초라하구나.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 커서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 나는 그분께 이를 수 없으며 그분을 만질 수가 없다. 나는 내 사정을 호소할 수가 없다. 오, 우리 사이를 중재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모두에 손이 닿는 존재가 있었으면.

말씀은 하나님이였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었으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께서 나를 만져주신다. 이는 바로 욥이 찾아 헤매던 것이며, 욥이 필요로 하던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이해하고 만지실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아버지와 또한 접하실 수가 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분은 우리 양자를 모두 접촉하실 수가 있다.

제 1 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이와 같다.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동안 예수님의 이적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제시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그 중에서 몇 가지 특별한 것만을 고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을 섭렵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한히 감사하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접하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접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을 접할 때 우리는 당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옵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 2

요한 2
Tape #8070
By Chuck Smith

이제 요한복음 제 2 장을 봅시다.

지난 주에 살펴본 제 1 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어졌는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좇으라고 종용하였다. 그것이 제 1 장에 나오는 제자들 규합의 초기 내용이었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나dana엘에게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dana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였다: 형제여 좀더 두고 보라. 아직 볼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여기까지가 제 1 장의 끝이었다. 장차 너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분이 언급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하늘로 놓여진 것을 야콥이 꿈속에서 본 일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 나는 사닥다리다. 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된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더라(요 2:1).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조그만 동리인 나사렛을 떠나 계속 가다 보면 낮은 언덕을 만나게 된다. 그 언덕을 넘어가면 갈릴리 지역인데 거기 가나가 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에 있다.

거기서 결혼식이 있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결혼식은 언제나 화려하고 대단한 예식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는 달리 그것은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해 기간 동안 지속되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아 거기 참석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2:1,2).

그들은 모두 이 특별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사람들이 한참 흥에 취해 있을 무렵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2:3).

이로 보건대 마리아는 자신의 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 천사가 그녀에게 전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여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자 하신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그녀를 잉태 시키실 것이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는 천사에 의하면, 태어날 아들은 진정 메시아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분이 자라시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분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하셨다. 나는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능력을 좀 과시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마리아에 대해 약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아이가 너무 일찍

출생하였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한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은근히 비방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간음이나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빗대어 한 말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시 마리아가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든 이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린 의도는 와서 그 집 주인을 도와달라는 청구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고 말했다(2:4).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관계가 먼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친근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 즉 자기 어머니가 저 아래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용한 말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 때 예수님은 여자여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이 단어는 친근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애칭이었다. 오늘날 영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약간 관계가 소원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을 뿐이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의 아내를 여자여 라고 부르다거나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다면 그것은 관계가 소원한 것을 의미하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는 다정스럽고 애정 섞인 표현이다. 아마도 이 표현을 귀하신 어머니 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듯 이 단어는 따스하고 애정이 담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2:4).

예수님은 때에 대한 감각이 지극히 예민한 분이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도래할 날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 날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483년 후의 일이 될 것이다. 그 날은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를 계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드는 선부른 운동이 일어날까 봐 매우 조심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조심스럽게 폐달을 밟으셨다.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분은 공중이나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입성 시에는 도무z 당당히 나아가셨으며 입성 직전에는 용의주도하게 준비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셨는데, 이는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슥 9:9).

제자들은 그것이 메시아 노래인 줄을 알고 메시아 찬양 시인 시편 118 편을 인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감람산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여호와 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 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시 118:26) 라고 하며 메시아 노래를 불렀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주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당신은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십니까? 저것은 불경스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37-40).

그런 식으로 지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므로 어머니, 지금은 너무 이르며 너무 빠릅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 7장에 의하면, 요한은 그분이 서너 번에 걸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제 8 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제 12 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 12 장에 이르면 어감이 약간 바뀐다. 그분은 때가 가까웠다 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제 17 장에 이르면, 자기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셨음인지 그분은 아버지여 때가 도래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시게 된다. 그분은 계획된 시간에 대해 매우 민감하셨으며 매우 깊이 인식하고 계셨다.

제 20 장에 이르면, 예수님은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이적들도 행하셨다고 요한은 전한다. 요한의 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 20:31). 혼인 잔치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최초의 이적이었다. 그는 지난 주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다고 전하였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여러 증인들을 우리 앞에 제시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요한이 특별히 선택한 여러 이적들이 제시될 것이다. 요한은 갖가지 이적을 제시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한 21:25).

요한은 신중하게 이적을 선택을 하였는데, 가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첫 번째 이적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 때 그분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2:5).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잘 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다(2:6),

그 돌 항아리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것들이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였다. 물을 대야에 담은 후에 정지된 물로 씻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 물로 씻으려면 물을 부으면서 씻어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큰 항아리들을 준비해 놓고 물을 담아두었던 것이다. 물을 퍼 가지고 가서 쏟으면서 씻기 위함이었다. 언제나 흐르는 물로 씻어야 정결케 되었다.

그 항아리들은 하나가 두 세 통 드는 것들이었다(2:6).

한 통은 9 갤런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물통 하나는 18-27 갤런 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균을 내 보면, 그 여섯 개의 물통에는 대략 120 갤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겠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통들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2:7).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한다. 뭐든지 충분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넘치도록 채워라. 만일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게 좋다. 반쯤만 받아들이고 중단하지 말라.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2:8).

나는 그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지 궁금하다. 포도주는 떨어지고, 이제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다니 말이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2:9,10).

너는 일을 거꾸로 하는구나. 그렇지 않니? 대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는 법인데 말이야. 뭔가를 좀 먹고 나면 사람의 미각이 약간 흐려져서 이전처럼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지. 그러므로 고급 음식점에서는 식사 도중에 가끔 과즙 음료를 내놓아서 손님들의 구미를 돋구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미각이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예민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포도주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손님이 약간 취하게 되면 미각이 흐려지게 되고 그럴 때면 물론 값이 싼 것을 내놓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자 연회장은 놀랐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이적은 최초의 것이었다(2:11).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의 시작이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적이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다니 말이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권능이 여기서 현시되었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2:11).

이것은 시작이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운동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지속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분께 영광과 영예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안(北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2:12),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의 제자들과는 별도로 언급되고 있음에 유의하라. 성서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수 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야고보, 유다, 시몬이 예수님의 형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여동생들도 등장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나서 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의 형제들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분개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탓이었다. 바로 그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마 13:57).

그들은 거기서 여러 날 거하지 않았다(2:12).

하지만 그분은 훗날 가버나움을 자신의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다. 이곳은 예수님 활동의 중심이 될 곳이었다. 그분이 갈릴리 전역을 돌면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은 그분께 본거지와 본부 역할을 하였다. 어쨌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일들을 정비하였으며, 거기서 잠시 동안만 머물렀다.

그 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2:13).

예수님은 유대인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모세의 법을 준수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에 참석하신 예수를 보게 된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으시다. 그분이 12 세 정도 되셨을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일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분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셨다. 하눅카 즉 겨울철 축제에 참석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도 있다. 이렇듯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들을 지키곤 하셨다.

그분은 성전으로 들어가셨다(2:14).

여기서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안쪽 뜰이 아니라 바깥 뜰을 가리키는 말이다. 안쪽 뜰을 가리키는 희랍어는 따로 있다. 여기서 사용된 “히에론”이라는 희랍어는 바깥 뜰을 일컫는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뜰이기도 하다.

이 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아 있었다(2:14).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었다. 예로부터 내려온 이런 관행은 대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종의 영업권이었다. 그 대신 대체시장은 희생제물로 사용된 동물의 판매 대금과 환전 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겼다.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을 구입하려면 그 동물이 흠 없는 것이어야 하였다. 하나님은 아무런 동물이나 다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온전치 못한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와서는 안 되었다. 먹다 남은 것을 드리셔도 안 되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야 하였다. 그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서 희생제물로 쓰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였다. 성전 안에서는 이미 그런 검사를 통과한 동물을 팔고 있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동물을 가지고 온다면 제사장은 그것에 흠이 없는지를 검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경우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살펴 약간의 흠이 발견되면 그것을 거부하곤 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여기 여러분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러 왔다고 가정하자. 한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거부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짐승 파는 이에게로 가서 이미 검증을 끝낸 양을 사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인증을 받은 제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값을 배나 치려야 할 것이다. 이미 인증을 받아 놓은 비둘기도 살 수 있을 것이지만, 역시 아주 비싼 값을 치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곤 하였다.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는 동전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 화상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성전 헌물로는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돈 바꾸는 이들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성전 헌물로는 사용될 수 없는 로마 동전을 받은 후에 그것을 성전 화폐 즉 은 세겔로 바꿔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아주 큰 금액의 환전료를 내야 하였다. 그 비용이 원금의 25% 정도는 되었을 것인데, 물론 그 차액은 환전상들의 몫이었다.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치부를 했던 것이다. 종교를 빙자하여 폭리를 취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경건을 치부나 돈벌이의 수단으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있다. 그들은 경건을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딤후 6:5), “그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부터 기인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안이한 신앙 자세를 가져온다는 점이었다. 대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인생 사 편리했다. 양 우리로 돌아가서 다시 양 한 마리를 끌고 온 종일 걸어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건 참 편리한 제도였고 안락한 관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2:15).

아마도 그것은 판매 용 소를 묶어 두었던 채찍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둘러보시다가 소들을 붙들어매었던 노끈을 발견하시고는 그것을 갖다가 채찍을 만드셨을 것이다.

그분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셨다(2:15).

예수님을 겁쟁이로 만들고 싶어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분이 아무와도 다툰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것이다. 나는 그분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왜 저를 제지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분이 거칠었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험악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구역질 나는 일을 보았을 때, 그분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상과 돈을 둘러엮으셨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분에게 대항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돈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다니 이게 무슨 추태인가? 사람들은 그 돈을 주우려고 앞 다투어 달려들었다. 그분은 소들을 내어쫓으며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내어쫓기 시작하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다(2:16).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요한이 선택한 두 번째의 표적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다. 그리스도 사역의 말기의 마지막 주간에, 아마도 그분이 도무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에, 그분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전 청결케 하는 일을 공생애 초기에 한 번 하시고 공생애 말기에 한번 더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성전을 깨끗케 하심으로 성전 안에서 일상화 되어 버린 상업 행위를 금지하셨던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 그들 모두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성전을 깨끗케 하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다(2:17).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훼방하는 훼방이 내게 미쳤나이다(시 69:9).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였다(2:18).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네가 여기서 행한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너는 이 건물이 네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무슨 표적이라도 있느냐? 물론 그분은 그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자아,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내보여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이것이 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2:19,20).

요한은 물론 제 1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2:21,22).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했다. 성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영구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장막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일시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이 천막에 대해서 말할 경우, 천막은 일시적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한두 주의 휴가 기간에 사용하기에는 좋으나 오래 사용하기에는 합당치 못하다. 여러분은 천막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방금 천막을 새로 사왔으니 공원에다 그것을 치고 거기서 살림을 차려야 하겠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 번 우리 몸을 천막에다 비유하였던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후 5:1-8).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몸은 우리의 진실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다. 몸은 우리가 잠시 거하는 장막일 뿐이다. 진실한 자아는 영이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기묘하게 만들어진 도구이다. 그 도구를 사용하여 내 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내게 만일 순수한 영만 있고 몸에 없다면, 나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에게 몸이 없다면 여러분은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우리는 몸의 중개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다른 사람이 그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전해줄 때 나는 비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 사람을 인식하며 존중하기 시작한다. 사랑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몸을 매개자로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몸을 인격과 연관 지어서 보기 때문에, 몸과 분리된 인격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진실한 나는 영인 것이다. 이 몸은 단지 천막일 뿐이다. 이것은 빠격거리며 낡아지다가 구멍이 뚫리고 헤어져서 너덜거리게 된다. 잠시 잠깐 후면 나는 이 장막을 벗어 던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글퍼 하지 말라. 나는 대궐 같은 집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건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말이다. 나는 이 장막에 대해 감사 드린다. 이 몸을 경이롭게 조성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빼어난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 하늘에 있는 건물을 사모한다. 내 영이 거할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천막을 벗어나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할 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요한 14:2). 그분이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은 새로운 장막이다. 언젠가 나는 그리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여러분은 내 주소가 바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천막에 살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1,52). 우리가 변형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이 천막으로부터 주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리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재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 14:2,3). 아주 매우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이 제한적인 천막으로부터 주택으로,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건물로 이주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칭하셨다.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 말이였다. 예수님이 메시아며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라는 진리와 사실을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은 바로 부활이였다.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은 그 궁극적인 표적의 확증이였다.

마태복음 제 12 장에 의하면,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소서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언급하는 것도 바로 그 표적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하나의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지가 얼마 안 되므로 사람들은 그분이 방금 청결하게 하신, 상인들을 내어쫓으신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이 건물을 46년째 짓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 그것은 거대한 건축물이였다. 거의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이였다. 거대한 돌들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덮여 있던 그것은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20 년은 더 그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 그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66 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 일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을 상상하면서 네가 이것을 3 일만에 지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막 14:56-58). 이 구절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에 대한 마가복음의 해석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헤롯의 지상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이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노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는 알겠느냐? 라고 물었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그 본뜻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분께서 하신 예언 중 몇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언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예언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그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취된 이후에야 그 예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이 이전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회상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성서를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다(2:22).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거부 당하고 버림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리라는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후 그들은 메시아가 거부를 당하고 죽게 되리라는 성경을 믿게 되었다. 그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 때 그들은 성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 이제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요 2:23).

그 때부터 그분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신 게 분명한데, 그분 사역의 상당 부분이 그런 일로 채워졌다. 많은 이들은 그런 이적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적을 보고 나서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려 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신앙이 현란하게 전시된 이적에 근거할 수는 없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지만 그분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그분께 의탁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2:24).

그들의 신앙과 신뢰가 현란하게 드러나는 이적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사람을 신뢰할 때 가지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경이로운 사건이었는데, 그로 인해 나는 온 몸이 흥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께서 자신을 의탁하실 수가 없다. 그것은 흥분된 감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적적인 일에 기초할 수는 없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신앙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쾌감과 흥분을 느낀 큰 경험에 대해 증거한다. 나는 느낌을 반대하지 않는다. 나도 느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쾌감과 흥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광스러운 평화를 경험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울며불며 애통할 때 느꼈던 그런 순간을 나도 경험했으며, 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바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을 두루 하였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내가 얻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내가 놀라운 종류의 경험을 하여 흥분되어 보기도 했지만 내가 심히 비참한 기분을 가졌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영광스러웠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으로 비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가 죽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느낌은 너무도 변화무쌍하여 거기다 우리의 신앙을 의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 더 견고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신앙을 예수님은 신임하려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희랍어 원문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탁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도 않고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였기에 갖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2:24).

그분은 그것이 알팍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다. 흥분된 순간에만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다. 거기에는 강력한 기초가 없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한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 2:25).

그분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가룟 유다를 조심하세요 그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분께 첩보를 전해줄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사람들을 알고 계셨으며 사람들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고 계셨다.

사실상, 제 3 장은 연속되는 이야기에 해당한다.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 후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들을 행하셨다. 많은 이들이 그 이적을 봄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여기 제 3장에서도 유대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온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를 필두로 이제 논쟁이 전개되는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제 3 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들이 몇 가지 나열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제 3 장에는 공부할 것도 많이 들어 있고, 명상하고 묵상할 것도 많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진리가 들어 있다. 이제 제 3 장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될 터이니, 단단히 준비를 하도록 하라.

이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교제하는 동안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주간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마음에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이해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 삶을 바쳐 그분을 섬기고자 하오니 참된 영적 발전이 이뤄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John 3

John 3
Tape #8071
By Chuck Smith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제 3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3:1).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통치자였거나 영적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공회회의 일원이었으며 따라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유대인의 통치자였다.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예수께서 너는 선생이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선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제 19장에 의하면 그는 매우 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타났었는데 100 파운드나 되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건 굉장히 값이 비싼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부자였으며 또한 바리새인이었음이 틀림없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고 세 사람의 바리새인 앞에서 선약을 하곤 했다. 바리새파에 소한 사람들은 대략 6,000 명이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전 생애를 투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3:2).

밤에 찾아온 걸 보면 그가 비겁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들이 있으나 나는 달리 생각한다. 낮에는 예수님 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분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것이다. 몰려드는 군중이 없는 시간을 택했던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좀더 개별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3:2).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3:3).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만한 게 있다. 이 응답의 말씀은 한 줄기의 생각과 이해를 도출하기에는 너무도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았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3).

기본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최근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 구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말라기 이후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계셨다. 하늘로부터 침묵만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게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 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에 그가 이제 다가온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일성은 이와 같았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진실된 의미에서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와 흡사한 얘기를 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라고 말했다(고전 2:14).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였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 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얘기는 신약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주제이다. 바울은 비유를 빌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다(롬 6:4).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의 차원에서 살게 된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3중적 존재였다—영, 혼, 육.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우월한 삼위 일체인데 비하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된 열등한 삼위 일체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 혼 육으로 된 인간을 살펴보면, 혼 즉 정신은 영에 의해 지배 받으며 영은 최고의 존재였다. 그러므로 영이 지배를 할 때 인간의 생각과 지성은 하나님의 것들을 향하게 된다. 몸도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지만, 몸은 영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몸 즉 육과 영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는 법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전투는 우리 생명을 지배하기 위함이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배할 것인가? 육이나 영인가? 육체적 정욕인가 아니면 신령한 욕구인가? 여러분은 그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려 하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은 육체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든지 성령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든지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어느 것이 최고 우위에 있게 되느냐에 달릴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우월한 삼위 일체인 하나님이 영 혼 육으로 된 열등한 삼위 일체인 사람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역은 영이었다; 영의

영역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다; 영의 영역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알 수가 있었다. 영의 영역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영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 할 수가 있다. 에덴 동산 시절부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까지 이런 방식이 통했다. 그러나 아담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그것이 영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이후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아담이 금단의 과실을 먹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었다. 영이 죽고 나니 그는 건방진 사람이 되었다; 영은 죽고 이제 육이 최고가 되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의식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내려오셔서 아담과 교제하고자 하셨으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인간 즉 자연인은 몸과 지성 뿐이다. 그렇게 되고 보니 지성이 육체적 탐욕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었다. 육신의 것에만 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의 삶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하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런 것들 즉 육신의 것들이다.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야만 한다. 그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기 그런 자연인 니고데모가 왔다.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왔다. 오랫동안 침묵해 오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느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육신에 의해 지배 받는 몸, 육신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자 애쓰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얘기이므로, 니고데모는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질문 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3:4)?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3:5).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물 세례이다. 우리는 물 세례가 옛 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다”(롬 6:3).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옛 사람은 장사 되었다. 육신의 생명은 죽었으며 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고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비유에 의하면, 우리가 물 세례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함께 살아 일어난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비유에서 물은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로 인해 육신의 옛 생명이 죽어 버리고 성령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나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의 해석은 물이 육신적 출생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기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물 주머니에 싸여 보호를 받다가 그 주머니가 터지면 물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물로 아기도 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물은 육신적인 출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의 출생이 필요하다. 한번은 육신 즉 물로부터 출생했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출생은 성령으로부터의 출생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씩 출생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만 태어나면 당신은 두 번 죽게 될 것이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도 될 것이다. 두 번째의 출생은 영적인 출생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3:6).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육신적 출생과 영적 출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듯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그 누구도 여기서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은근히 두 번째의 개념으로 맘이 이끌리는데, 이는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부터 출생하는 것과 성령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3:7).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오늘 밤 우리가 진지하게 상고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그것은 내가 진정 거듭났는가? 하고 질문 해 보는 일이다. 나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는가?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만일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자 한다면 너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네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설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단어는 또한 “바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희랍어로는 “프뉴마”가 “공기”나 “영”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람[“루아흐”]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3:8).

여러분은 바람의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은 바람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바람을 볼 수는 없다.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태도다. 여러분은 바람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바람의 효과는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은 나무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바람에 나무끼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영의 효력은 볼 수가 있다. 그것을 보고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리 할 수 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3:9)?

이것은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거듭 날 수 있느냐? 는 말이다. 거듭난다는 말의 개념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그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3:10)? [이것은 간접적인 어조로 약간 꾸짖는 듯한 표현이다.]

나는 너에게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기초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도 영적인 생활의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3:11).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보라.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해 증거하는 바이며 내가 본 것에 대해 내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의 삶에 대해 알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 알고 계셨다. 그분은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을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3:12)?

내가 좀더 깊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들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2 + 2 = 4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삼각법(三角法)을 가르친들 알아듣겠느냐? 나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하려 하는데, 너는 하나도 못 알아 듣는구나. 내가 어찌 더 심원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3:13).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신적 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셨다. 그것은 앞서 니고데모가 인식했던 사실인데, 그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긍정하셨다.

우리는 지상 차원의 일들만을 취급한다. 우리는 사람과만 상대한다. 사람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사람은 그 영적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도다”(사 59:1). 인간은 영을 죽인 죄 때문에, 즉 영적 사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 내가 땅의 차원에서 너희에게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니 만일 내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너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니냐? 나는 하늘에서 온 자이므로 하늘의 일을 잘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 여행을 해 본 적이 있다. 그는 그 여행에 대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언급을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 14년 전에 한 여행이었는데, 그 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삼층천에 올라갔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그는 술회했다. 거기서 그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발설하려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예수님도 지금 그와 흡사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로서 지금 지상적 수준에서 네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늘의 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하더라도 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질문이 주어졌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무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 다만 질문자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 계시는 것 뿐이다.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하신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4,15).

예수님은 질문자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부터 꺼내셨다. 그는 이스라엘 중의 선생이었다. 그는 민수기 제 21 장의 얘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이 광야에는 떡도 없고 만나 먹는 일도 이제는 질렸다 하고 그들은 투덜거렸다. 그 불평 소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였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불뱀에 물려 수십 명씩 죽어 나자빠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달려와 말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소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진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지는 않고 치료의 방책만

마련해주셨다. 그 치료의 방책을 따르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사 그들을 치료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흥미 있는 조건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뱀을 하나 만들라. 모세는 구리로 불뱀을 만들었다. 그것을 진 가운데 있는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본다면 그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진 가운데 있는 장대에다 달아놓았다.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한 사람이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본 즉 그는 살고 죽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상징성을 띄고 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중생의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답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던 것이다. 구리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 구리 뱀은 죄의 상징이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표상 하는 말이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다.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 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너희는 불뱀에 물렸다. 너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희는 죄에 물렸으며 죄는 너희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다면 너희는 이 불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리 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너희 죄는 이미 심판되었느니라. 물론, 이 그림을 예수님께 대입시켜 보면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다음에 그분은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므로 우리 죄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십자가를 쳐다보며 거시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내려졌음을 깨닫게 된다. 내 죄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살게 되었고, 이제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지 않는다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놓으신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 중앙에 미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쳐다보지 않고는 여러분의 치명적인 고질병 즉 죄로부터 치료를 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봄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당신은 설명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 설명할 길은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쳐다봄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길은 참으로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건 사실이다.

여기서 흥미 있는 사항을 잠깐 부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세가 장대에 매단 이 구리 뱀은 후에 우상으로 바뀌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들은 훗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히스기야 임금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한 이 구리 뱀을 찍어다가 파괴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불렀는데, 이는 구리로 만든 것이란 의미였다. 이것은 구리로 만든 물건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예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것은 과거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 나도록 하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유물을 보고 여러분이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열심을 부추길 어떤 것을 찾아보려고 과거를 더듬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낡은 천막 한 조각을 찾아가지고는 옛날이 좋은 천막 안에서 살던 그 좋은 날을 기억하는가?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것을 보면 그 옛날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것을 세워 놓고 섬기는 것이다. 그 속에 사는 동안 낮 동안에는 얼마나 뜨거웠으며 밤에는 또한 얼마나 추웠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 나게 하는 과거의 유물을 과거로부터 제거해버리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늘 밤 그분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이다.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관계로 이전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오늘 밤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가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주간에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가 중요하다. 과거의 상념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밤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다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바를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한다. 그는 30년 전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오늘 밤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하여야 한다. 과거는 과거다. 가치가 있는 것은 현재이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이다. 미래는 우리 앞에 있다. 미래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 7,8,10,12-14).

그 과정은 이렇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죄를 심판하신 것을 인식할 때 나는 거듭나게 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6).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내주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6).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적인 생명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질적인 생명을 가리키다. 한 번은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막 10:17)?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질적인 생명을 보았기에 그것을 찾아 구하였던 것이다. 그는 바로 그런 생명에게 이끌렸던 것이다.

삶의 질이 없는 삶의 양은 지옥이다. 혼수 상태에서 수 개월이나 수 년을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양 주사를 맞으며 버티는 것이 지옥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삶의 양이 아니다. 삶의 질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향유하고 있는 삶은 질은 물론 양 또한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삶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또한 영광스럽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사랑스러운 목적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긴다. 이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하여 너댓 살 된 우리 손자도 이해할 만한 진리다. 그런 애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도 심오하여 나같이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도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다. 나는 단지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뿐이다: 그것은 단순하고 동시에 매우 심오하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3:17);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도 자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계시다 라고 느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17).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곧 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잡아가지고 와서는 이성을 잃은 듯이 예수님께 소리질렀다. 우리는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셨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못들은 척하시며 땅에다 똥가를 쓰셨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재촉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을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분은 허리를 굽히고 다시 한 번 쓰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다 가버렸다. 그분은 일어서셔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이 다 돌아간 듯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요 8:3-11).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고 계시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됨은 웬일일까? 언제나,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무슨 까닭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를 믿는 자는(3:18)

물론 이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3:18).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 구절인가. 우리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하리라. 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중에 로마서 제 8장에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 개가 정죄하는 자이다 라는 식으로 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정죄하기는커녕 그분은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간구를 하고 계시다.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죄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3: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지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느니라.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왔느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겔 18:20). “죄의 삯은 사망이다”(롬 6:23).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아놓고 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3:19,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오를 표시하는 사람들은 늘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는 언급하기조차 싫은 주제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도 큰 적개심을 드러낸다. 예수님에 대해 왜 그렇게 증오심과 적개심을 느끼게 되는지 그들조차도 설명하기 어렵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진실을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해주실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펼치는 분이시다. 따라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3:20).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빛에 의해 드러나 꾸지람을 듣게 될까 봐, 그들이 그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빛은 악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봐 그들은 예수님께 오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3:21).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듯 전체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사람이 거듭 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태어난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듭 나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즉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다. 하나님과 교통 하게 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은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그리고는 막간 이야기가 나온다. 제 22 절이다.

이 일 후에(3:22).

우리는 지금까지 니고데모 방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3:22).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렸다고 한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랑 받는 자 요한이 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 한 것이라고 전해주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세례 요한과 유사한 사역을 행하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3:23).

거기에 물이 많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면, 그 당시의 세례는 분명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그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물을 뿌리기만 한다면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3:24).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였다. 여기서 그 두 사람이 서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고 선지자 중에서 최종 주자였으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 마지막 말씀이셨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히 1:1). 그러므로 여기서 구 시대의 마지막 인물과 신 시대의 처음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을 곳에서 두 사람이 모두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 한 사람 요한은 옛 시대의 끝이요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은 새 시대의 시작이셨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 유대 요단 강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요 3:25).

유대인들에게는 결례에 대한 율법이 아주 많았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며, 물을 얼마큼 사용해야 하며, 손을 쥐는 방법, 손을 비비는 방법 등이 규정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흘러가는 물처럼 많은 규정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결례 문제를 가지고 입씨름을 하곤 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요 3:26).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전했다: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신 자 즉 선생님이 증인을 서 주신 자가 지금 세례를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요 3:27).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7)?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선한 일이 생겨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네가 어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마치 너는 특종인 것처럼 어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성령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행세를 할 수 없는 법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말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높이라는 말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요 3:28).

요한의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진짜 종이였다. 그는 참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요 3:29).

나는 신랑이 아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신부였다. 하나님은 남편에 해당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신부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말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는 즉 저 사람들은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니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요 3:29).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올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신랑 친구의 몫이었다.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오곤 했다. 신랑은 신부를 보기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부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침묵을 지켰다. 신랑이 말을 떴다 하면 그것은 그가 신부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였다. 본문에 나오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 신랑은 신부를 맞아들인 후 “이로써 내 기쁨이 이뤄졌구나”라고 소리치게 되는데, 신랑 친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다.

내가 이제 내 임무를 완성하였구나.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30).

얼마나 맞는 말인가.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몫을 구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완성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말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리라.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래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큰 기쁨이 생겨난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였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애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애쓴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고자 애쓴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할 증인 몇 사람을 선발한다. 세례 요한이 그 증인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도 몇 가지 사건과 몇 가지 기적을 선발해 낸다.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들이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증인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애쓸 것이다. 지금은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 31 절 이후의 기록이 누구의 얘기인가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 받는 제자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 기록하였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세례 요한의 말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로 끝이 났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사역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말치고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였다. 나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였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기쁨은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였으며, 이제 그분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의 필자인 요한이 다음에 나오는 말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3:31).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신 일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자”이시다. 여기서 현재 시제에 주의하라. 과거 시제가 아니다: ‘내려오신 자가’가 아니다. 예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위에서 내려오시는 이이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3:31,32).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에게 하신 얘기가: 너는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미 너에게 하늘 일을 말하였으나 너는 믿지 아니하였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3:33).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증거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3:34)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조금만 주신 게 아니었다.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생명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3:35).

시편 제 2 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 2:8). 빌립보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3:36).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올곧고 손쉬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3:36).

너희는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결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3:36).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7).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아버지여,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진리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좇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에 착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이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나이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오며,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방도를 믿나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다 하나님의 손이 저들의 삶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4

John 4
Tape #8072
By Chuck Smith

이제 요한복음 제 4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요 4:1).

여러분은 제 3 장 마지막 부분을 기억할 것이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했다(요 3:26).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요 3:30).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신 후 세례 요한과 흡사하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 실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갔던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께로 왔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계시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 즉 이 복음서의 필자는 여기서 약간의 주석을 다음과 같이 달았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4:2).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자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은(4:3)

그분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아시고는 유대를 떠나셨다(4:3).

그분은 지금은 저들과 맞부딪치고 싶지 않으셨기에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다. 그런데 먼저 사마리아를 지나고자 하셨다(4:3,4).

예수님이 꼭 사마리아에 들리셔야 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는 경로는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던 길이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이 아주 컸기 때문이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자 앗수르는 그곳 사람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그 대신 타 민족을 데려와서 북왕국 지역에 거주케 하였다. 그러나 북왕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주해온 사람들은 짐승에 의해 유린되었는데,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판단하였다: 이전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규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몇몇 유대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북왕국은 혼혈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했다. 서로 통혼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족속으로 취급했다.

그 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북왕국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도와주려고 하였다. 성전 재건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사람들의 제의를 거절했다.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양측 사이에는 사그러들지 않는 적개심이 짝트게 되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아주 나빠졌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움을 주겠다는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 당하자 퇴박맞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 산에 예배의 장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만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리심 산이 참된 성전 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심 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심 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까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 지금은 약 200명의 사마리아인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너무도 잦은 통혼이 있어 왔기에 그들 대부분은 정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기 직전에 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유월절이면 그리심 산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곤 한다.

이렇듯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은 노골적인 적대감에서 시작되었다.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 그들은 요단 강으로 내려가 강을 건너 요단 강 반대 편으로 갔다가 여리고 근처에서 다시 요단 강을 건너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갖가지 절기에 참석하곤 했다. 갈릴리로 돌아갈 때도 동일한 길을 따라서 갔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를 통해 지나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시도하지 않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는데,”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생수에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을 만나 보기 위해서였다.

그분 일행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오늘날에는 세겜이라 불린다]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4:5).

창세기 제 33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으로부터 땅 한 조각을 사서 요셉에게 준 일이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유골에 대해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뼈를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가서 조상의 땅에다 묻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그들은 요셉의 시신을 갖다가 본분에 나오는 그 땅에다 묻었던 것이다. 그 땅은 오늘날 세겜이라 불리는 땅으로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이다. 그 우물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 시쯤 되었더라(4:6).

우물 아구에는 보통 높이가 24 인치 정도 되는 돌을 얹어 놓았었는데, 그 돌 중앙에는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 두레박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야곱의 우물 아구도 높이가 24 인치나 되는 돌로 둘러싸여 있었다. 물론 거기에 가면 오늘날에도 그것을 볼 수 있다. 야곱의 우물이 나타나려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나 예수님은 여행 길에 지치신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행에 지치신 것을 보면, 이 우물은 예수님의 인간적 본질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때는 6 시쯤 되었다(4:6).

히브리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 우리 방식대로 하면 점심 때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로마 시간이었다고 하면 로마 사람들은 정오

때부터 시간을 계산했으므로 오후 6 시쯤이 되었을 것이다. 어느 것이 적당한 해석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것이 좋게 보이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라.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곤 한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다.) (4:7,8).

요한의 글 쓰는 방식은 재미있다. 왜냐하면 써 내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 약간의 주석을 첨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이야기를 오랜 후에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써 내려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주석을 가미했을 것이다. 여기서의 주석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이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 드렸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4:9)?

요한은 다시 한 번 여기서 약간의 주석을 삽입한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4:9).

이로써, 우리는 그 여인이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꾸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4:10).

야곱의 우물은 샘이 아니었다. 그것은 빗물이 스며들어 우물을 형성한 것으로서 당시 전형적인 우물이었다. 야곱이 판 우물에는 고여 있던 물이 스며들었던 것이다. 그 우물은 깊이가 100 피트나 되기 때문에 물을 길으려면 두레박을 상당히 깊이 내려야 하였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샘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물, 신선한 샘물을 의미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4:11)?

여기서, 예수님께서 통상적인 수준 즉 물질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게 흥미롭다. 먼저 마실 물 한 그릇을 구하셨다. 그것은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렇듯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이 익히 아는 수준에서 출발하신 후 즉시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시곤 하였다. 그분이 생수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시는 순간 그분은 이미 그녀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파악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우물은 깊은데. 게다가 물을 길어 올리는 도구를 하나도 가지지 않으시고서 말이다. 도대체 어디서 그 생수를 가져다 주실 거란 말인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4:12)?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대답을 주셨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4:13).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야심도 초월하는 말씀이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취하거나 달성하고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앞으로 돌진해 나아가는가?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목적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위에다 이렇게 써 놓도록 하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질 세계에는 아니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치는 그 깊고도 절박한 외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그 마음의 공허를 메우려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다시 목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말 몇 마디를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들어 보자.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가졌던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도널드는 자기 인생의 공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쾌락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쾌락을 얻는 순간 실망이 몰아 닥쳤다. 그 목표는 추구하는 동안만 신이 났었을 뿐이다. 오직 그런 과정상의 쾌락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테드 터너도 그와 흡사한 말을 했다: 추구하는 일은 신이 나지만 일단 성취하고 나면 실망스럽다. 성공은 그것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법이다. 그것은 성공을 성취하고자 애쓰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성취하고 나면 실망만 남을 뿐이다. 그것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심적 공허를 채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물을 마셔라. 그러나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4:14).

흥미 있는 얘기가.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들어서셨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쯤은 영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분은 흥미 있는 분이시다. 그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는 어려웠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수수께끼였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그분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물을 내가 마신다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것은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우물과 같은 샘이 될 것이니라. 어쨌든 그녀는 그분의 말씀을 좇아가 보기로 하였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4:15).

제가 그 물을 좀 먹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 데리고 오라. 그녀는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4:16-18).

갑자기 가면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보이고 싶어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들이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우리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여인 역시 가면을 쓰고 있었으나, 갑자기 그녀는 이 분을 속일 수는 없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분은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내 맘속에 공허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내게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내 속에는 커다란 갈증이 있다. 내 인생에서는 성취된 것이 없다. 공허만이 있을 뿐이다. 이분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시며 그 공허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 과장된 인간 모습이 아닌 실제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이분을 우롱할 수는 없었다.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내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분은 내 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계시구나. 그녀가 가면이 벗어 던지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제가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는 증거다.

그녀는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4:19-22).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종교가 있었다. 아니, 그들은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 자신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 “너희는 너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에 비하여 유대인은 최소한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좇고 있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4:23).

지금 이 바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4:24).

제 3 장에 의하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 관원, 유대인의 선생, 구약 성서를 좇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밝히 아는 자였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요 3:3).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네가 두 번째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태어나야, 영이 살아야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진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월한 삼위일체이시다---성부, 성자, 성령. 인간은 열등한 삼위일체이다-

--영, 혼, 육.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은 영의 영역에서 이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영의 영역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로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살아 일어나게 되기 전에는 향유할 수가 없는 관계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그분을 믿을 때 진행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은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자연인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해야 분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여기 사회,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계층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한 사람은 끔찍한 평을 듣고 있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혼인 서약을 어긴 사람이었다. 그것도 다섯 번씩이나 어긴 후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사회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종교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두 같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이 단어도 요한이 첨가한 사적인 주석이다]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4:25).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크 이스트만이 금요일 밤에 와서 얘기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오실 시간이 거의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성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메시야가 오실 시간이 거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많은 랍비들이 그에 대해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스트만이 그 글을 인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야 강림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야가 멸시와 거부를 당하며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성구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다른 성구들은 메시야의 영광스런 통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구절들에게 더 맘이 끌렸던 것이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하노라.” 우리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능력, 난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노라”(빌 3:10).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설 것이다: 오, 아닙니다. 아니예요. 능력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것 뿐입니다. 유대인도 이런 식으로 권능만을 원하고 있었다. 로마 정부의 붕괴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군사적인 메시야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여인은 메시야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는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메시야가 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 도달하는 통로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저는 메시야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가르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4:26).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처럼 초라한 여인에게 계시하시다니 말이다. 그렇듯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다니 말이다.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었으며 지금도 어느 남자와 간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에게 말이다.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어떤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신 사건을 기록한 첫 번째의 구절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적은 있다. 나dana엘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메시아이신 게 분명합니다”(요 1:49). 빌립은 “와서 보라(요 1:46)”고 말했다. 이 분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이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인정하신 적은 없었다.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갖가지 의견을 전해드리자 그분은 물으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니라(마 16:13-17). 그분은 베드로야 네 말이 옳도다 라고 긍정하시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이는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이니라, 즉 메시아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4:27).

나는 그들이 분명히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확신한다. 전통에 따르면 랍비는 혼자 있는 여인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는 법이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금해된 사항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쇼크를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말이다. 랍비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왜 저런 여인과 얘기를 하시나이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4:28).

그녀는 이제 물을 얻었다. 그녀는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4:28).

내가 보기에 동네 여자들은 그녀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동리의 모든 여지들에게 위험한 인물로 비쳐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들은 다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4:29).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4:29-31).

마침내 우리가 성안으로 들어가서 저 미친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 이 음식을 사왔습니다. 와서 잡수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4:32-34).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충만한 만족을 주는 떡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할 것이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는 일을 할 것이니라. 그분의 이 말씀은 흥미롭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왔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사함과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을 아버지와의 교제 속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깨뜨린 것은 바로 죄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으며, 사람을 다시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아주 흥미로운 일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다: “다 이루었다”(요 19:30).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뤘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길을 닦아 놓으셨기에, 여러분과 나는 아버지께 이를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죄를 용서 받게 되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4:35).

우리는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오 이런, 이 지역에는 할 일이 많이 있구나. 곡식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려면 4개월이나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눈을 들어 보라 고 말씀하신다. 눈을 들어 들판을 내다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 당시 흰 모자를 쓴 사람들이 도성으로부터 나와 들판을 지나서 예수께로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세 겹 사람들이 쓴 흰 두건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보라 밭이 이미 희어져 추구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께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밭도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4:36,37).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그러므로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이도 아무 것도 아니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를 불러 씨를 뿌리라고 하신다. 우리는 심겨진 씨의 결과를 보지 못할는지 모른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물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수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빌리 그레함의 대중 집회에 참석하여 보고는 야아 이젠 대단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저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간증을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복음 집회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였다. 씨를 뿌리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물을 주는 일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리 그레함이 그것을 거두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지금 투망으로 훑듯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레그 로리도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애너하임에서 그의 집회가 열릴 것이다. 씨를 뿌리는 일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씨를 뿌리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을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그들에게 간증했을 것이다. 그들은 죽 여러분을 지켜보아 왔으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들 보고 집회에 참석하자고 권할 경우 그들은 아마도 거기에 순응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참석할 것이다. 우리 가서 저녁이나 함께 한 후에 복음 집회에 참석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일이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흥분 시키는 것은 초청을 한 친구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저 단 앞에 서게 되는 일이다. 그것은 얼마나 축복 된 일이겠는가. 한 사람이 뿌렸지만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기뻐하는 것이다. 수확이 거두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즐거울 것이다. 뿌려진 씨가 거둬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말이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한다.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한다.

예수님은 말씀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4:38).

또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된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4:39).

그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단합니다. 이 분이 메시아일 겁니다. 그들은 그녀의 증거를 믿었으며 그녀의 간증을 믿었다.

그녀의 말은 이랬다: 그분이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앞이니라 하였더라(4:39-42).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 때 많은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미 그를 위해 씨가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장차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길이 닦여 있었던 것이다.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동리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4:43,44).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갈릴리 지역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유대 지역을 가리키신 것임이 틀림없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그분이 유대를 떠나신 것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떠나신 것은 그 충돌을 피하시기 위함이었다. 유대는 그분 자신의 고향이었다. 그분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등록된 호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지금 갈릴리로 들어오셨는데, 물론 그분은 거기서 자라나셨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된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4:45).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유대 지역에 대한 언급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분이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축제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 계셨던 일과 그가 거기서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4:46).

이 마을은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가버나움에서는 30 마일 아니 27 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분은 다시 가나로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으로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곳이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그분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그 사정을 말씀 드렸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4:46).

왕의 신하를 희랍어로 바실리코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헤롯 궁정의 대신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구사’라는 설도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구사의 아내 요안나 얘기가 나온다. 그녀는 예수께서 시골 동리로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동행했던 여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예비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고관에게는 딱한 사정이 하나 있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4:46).

가버나움은 거기서 대략 27 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4:47).

이 사람의 처지는 절망적이었다. 그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기적과 병 고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만겨주시기만 한다면 그 아들이 낫게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4:48).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청을 일단 거절하신 셈이었다. 네가 표적을 보지 못한다면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니라. 표적이거나 기사를 보고 믿는 신앙은 알팍한 신앙이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요 2:23,24). 왜 그랬을까? 그들의 신앙은 표적과 기사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놀라운 일을 보았기에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굳건한 기초이다. 우리는 경험에 기초해서는 강건한 집을 세울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런 기초는 연약해서 비바람이 불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다 집을 세워야만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그런 것보다는 더 깊은 신앙을 찾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사실에 기초한 신앙을 찾고자 하셨던 것이다.

느낌은 변할 수가 있다. 느낌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은 오늘 엄청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며 대단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다가도 내일은 비참하고 좌절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만일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런 가정이 성립된다: 오늘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내일은 아마도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비참하고 낙담하고 좌절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정에 기초해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다 신앙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은 변할 것이다. 여러분은 신앙을 경험 위에 쌓을 수는 없다.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거짓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4:49).

다시 한 번 그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27마일을 걸어오셔서 제 아들을 만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4:50).

기어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쌓을 기초가 되는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자기 믿음을 건축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다. 그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여보 우리 내가 건강해 졌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신앙이 언제나 서 있어야 하는 기초인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4:50).

이것은 도전이다. 그는 그 도전에 응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다: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칠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4:51,52).

그는 아마도 아들의 치료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되기 시작했는가? 언제 그가 고쳐지기 시작했는가? 라고 물었던 것이다.

어제 제 칠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4:52).

오후 한 시를 말한다.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4:53).

그의 믿음은 이제 그의 모든 가족에게로 전파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4:54).

요한은 이렇게 선택된 기적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는 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흥미 있는 기적이다. 예수께서 가나에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27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즉시 효과를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거리가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그분이 여기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저기 27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 믿음의 결과로 한 역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 아들은 치료를 받았다.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열이 떠나갔던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가노라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 주변의 목마른 사람들을 축이게 되기를 기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란다.

C8073

John 5

이제 요한복음 제 5 장으로 넘어가자.

요한복음 제 2 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분은 거기서 니고데모를 만나셨다. 그분은 그분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하기까지 여전히 그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 가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다가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행 얘기는 요한복음 제 4 장에 나오는데, 그 노중에서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주셨다.

이제 제 5 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절기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그 때가 오순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물론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다. 본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이 일 후에(5:1).

이는 그분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 사역을 시작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는 뜻이다.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가 있으므로(5:1).

이 절기가 어느 절기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 시장 곁에 (5:1,2).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약간 설명한다. 그의 얘기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양(羊) 시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히브리 말로 베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5:2).

베테스다는 ‘금홀의 집’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연못은 금홀의 집이라고 불렸다. 이 연못에는 행각 다섯이 있는데 양문 곁에 있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 도성 북동쪽 어디쯤 되었다.

그[거기 있던 문들을 말함]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3,4).

이는 흥미 있는 현상이었다. 그 못 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물이 동하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엄청난 각축전을 벌이곤 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동할 때마다 얼마나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겠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 즉 눈 먼 자와 저는 자들이 그 물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는지 말이다.

나는 신앙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다고 믿는다. 성서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는 것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안다. 베드로가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길옆이나 길바닥에다 눕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경우 그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어서 그 결과로 병자들이 치료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은 신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촉발되는 것이다.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을 덮을 때 그들은 치유를 받았던 것이다.

여러분은 군중 속을 뚫고 예수께로 다가왔던 한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 예수님은 죽음에 처해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였다. 그녀는 사람들을 헤집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어인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서로 밀치고 떠밀고 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고 물으시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서 능력이 나아간 것이 감지되었느니라. 그러자 한 여인이 떨며 나아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 여인은 자기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자기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웃는 순간, 내 눈이 그분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분이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때 바로 내 믿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된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니 그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나는 이것 역시 믿음의

역사(役事)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손수건을 가져다가 내 위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피동적인 신앙이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 신앙이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이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여 고침을 받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장로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때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접촉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신앙을 촉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고로 연못의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었던 것이다. 믿음이 촉발되자 치료가 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거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물이 동할 때는 먼저 들어가고자 쟁투를 벌이곤 했다.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5:5-7).

흥미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께서 묻는 말에는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 대답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치유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뿐이다. 이는 자신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했어야 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원하고 말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제가 원하고 말고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 그는 자기가 왜 여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키시면서 네가 놓임을 받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아 예, 제게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해방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가 해방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 될 일을 가지고 말이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왜 고침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늘어놓았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저보다 먼저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동하는 순간에 그가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그런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 물이 다시 동하기를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여러분의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은 주님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앓은뱅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다음 사항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5:8).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 계속 설명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 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절름발이입니다. 제가 수 년 전에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녀는 성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결과로써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풍 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를 기억하는가? 그는 지붕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내려졌다. 그도 여기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다. 그의 질병 역시 죄와 직접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도전하며 자기의 무능력에 대해,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재차 예수님께 설명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그가 시행하기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탄원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하게도 이 절름발이는 한 낫선 이의 그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 낫선 이가 다가오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다. 글썄요, 아시다시피 제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낫선 이는 여러분에게 명령한다. 일어나서 걸어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나, 그 믿음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들어 있어서 그 사람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시행 불가능한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걱정하는 순간, 그 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약점을 자꾸 반복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시행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승리자가 되라. 네 생애에 있는 악을 극복하라. 그렇지만 주님, 저는 지난 38년 동안 병어리로 지내왔는데요.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종하거나 순종하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한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은 그 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마음의 결의를 다지기보다는, 이렇듯 불가능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한다.

주님은 힘을 내라 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분과 쟁론하지 말라. 힘을 내도록 하라. 승리자가 되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걱정하는 순간,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5:9)

이제 요한은 문제 자체를 다루기 시작한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5:9-11).

그 사람이 내게 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침 받은 녀석은 절름발이로서 38세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끔 동전 한두 잎을 던져준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다가 다시 걷는다는 사실은 그들은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을 자극한 것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가 자리를 들고 갔다는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그들 모두는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예수께서 없어야 한다는 결의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결코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과정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분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사실은 말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명하신 분, 그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5:12-14).

베드로는 체험을 하고도 떠나간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진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온전하게 되었다. 그는 죄의 결과로 그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네 길을 가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보다 더 악한 것이 너에게 임할까 하노라.

(5:15,16).

그들을 질색하게 만드는 일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일이 안식일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5:17).

나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너희가 기쁘지 아니하냐? 주께서 모든 안식일을 빼앗아가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는 고약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안 그러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않으신다(시 121:4).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5:18).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으로 격하시키는 여호와의 증인, 물몬교도, 기타 많은 무리들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여기서 주장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하나님과의 동등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5:19)

그리고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강조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바와 같다: 주의해서 듣고 올바르게 알도록 하라. 이것은 일종의 주의환기이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중요하며 그것은 진실이며 따라서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5:19).

그분은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그대로 행한다.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러 여기에 왔다. 나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러 여기에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확인하셨다. 나는 나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므로 그분의 삶과 사역은 그 아버지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그분이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은 위대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役事)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으며, 그런 일을 보자마자 그분도 그 일을 따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긍정하셨다.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 일을 나 스스로 하노라. 이 얘기는 전체적인 주제에 흥미로운 빛을 던진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된다. 그것이 신체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또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은 신체적인 분야였다. 그는 38 년 동안 불구의 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이제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5:20)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다.

(5:20)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너희에게 이보다 훨씬 큰 일들을 보이실 것이다.

(5:21,22)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는 이보다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리시니 아들도 살릴 것이다. 사실,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 앞으로 죽은 지 나흘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다.

(5:23)

다시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헐뜯거나 거기에 도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문시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셨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을 존경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과 동일한 공경이 예수께도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5:23)

스스로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들어 보라. 만일 너희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5:24)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또 그분을 믿어라.

(5:25)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죽어 있었으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 그분은 나흘 동안 죽어 있던 나사로의 무덤으로 다가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 소리치셨다. 죽은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비틀거리며 일어나왔다. 예수께서는 저를 풀어주어라 고 말씀하셨다. 저를 싸고 있던 수의를 풀고 저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라. 이렇듯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는 살아났던 것이다.

(5:26)

몇 장 더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나는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요 10:18).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 번 선언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어 내 안에 있게 하셨다. 나는 그 생명을 버릴 수도 있으며 그것을 다시 취할 수도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죽은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아들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5:27)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다. 여러분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명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일할 권세를 주셨다.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5:28,29)

우리가 누가복음 제 16 장을 통독하는 동안 매일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에 대한 얘기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가난한 사람 얘기를 읽었다. 사람들이 매일 나사로를 그 부자집 앞에다 데려다 놓으면 나사로는 부자집의 밥상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연명을 하곤 했다. 그는 헨데로 뒤덮여 있던 가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다. 가난한 자는 천사들에게 인도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다.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소리쳐 말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여, 내게 공흔을 베푸소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의 손가락을 물에 담갔다가 내 혀에 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이 열기 가운데서 죽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로 가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이리로 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너는 살아 생전에

좋은 것들을 누렸으나 나사로는 험한 일들을 당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고통을 받으나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구나.

부자가 말하였다. 만일 나사로가 이리로 올 수 없다면 그를 세상으로 돌려보내어 나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무시무시한 장소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히브리말로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구렁이 끼여 있다는 것이다. 한 쪽은 다른 한 쪽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아래쪽에서 하늘 쪽을 인식할 수는 있게 되어 있다.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나사로가 부자를 알아보았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말도 걸었다. 인식할 수 있고 의사를 소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렁을 건널 수는 없다. 부자는 두고 온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있었다.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몸이 음부에 떨어져 있지만 그는 어떤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물로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 말했다.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그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다.

한 쪽은 고통을 받는 장소요 다른 쪽은 위로를 받는 장소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 의로 간주되었다. 그는 장차 믿게 될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한쪽 편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지당하였다. 사람들은 죽어 스올의 한 쪽으로 즉 음부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씨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창 22:18). 이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것은 그에게 있어 의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거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다. 이사야서 61 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묶인 자들을 풀어 주고 갇힌 자들의 옥문을 열어주고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킨다(사 61:1). 여기 있는 그들은 스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그분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음이 틀림없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그런 제사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죄를 덮거나 하나님의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게 고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그 동물 희생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고 다만 죄를 덮을 수 있을 뿐이다. 믿음 안에서 드러지면 그런 제사가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거기에 집착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다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없으면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다.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난 현상 때문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사악한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분은 죽음에 갇혀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행 2:23,24).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분께 대해 기록하던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시 16:10).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 거룩한 이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라고 했다. 이 동일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행 2:27,32).

바울 역시 에베소서 4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올라가셨던 분은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분이시다. 그분은 올라오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끌어 올리셨다(엡 4:8,9). 그분은 갇힌 자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셨다. 그분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마태복음 27 장에 보면, 그분이 부활하신 후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베드로는 그분이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지옥으로 가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거기서 구속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고 가르치는 정신 나간 이단 교사들이 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 십자가 하나면 족하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부흥회였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나는 마침내 해냈다. 내가 값을 치렀다. 너희의 죄는 대속되었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부터 데리고 나가겠다. 실제로, 그분은 올라오실 때 그들을 포로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난 후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부자와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이 사망과 죄를 이기셨음을 선언하셨을 것이다. 그리고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두 부활 사이에는 중간 기간이 있을 것이니,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난 바와 같다. 첫 번째 부활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은 1,000 년이 될 것이다.

나는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이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은 계속 될 것인데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1,000 년 후에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 장에는 그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자들의 두 가지 운명에 대한 예언이다. 다니엘은 12 장 2 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땅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깨어나게 될 것인데, 더러는 영생의 부활로 또 더러는 영구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부활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을 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단 12:2,3).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일어나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충만한 수의 구원받은 이들이 첫 번째 부활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활에서는, 구세주를 거부하다가 저주를 받게 된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가 일어나 큰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책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책에 적힌 내용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책 속에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이들은 누구나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음부가 아니라 지옥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징조를 구하였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징조를 구하느니라. 그런 세대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징조 외에는 다른 아무런 징조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삼일 삼야를 고래 뱃속에서 자낸 것과 같이 인자도 삼일 삼야를 땅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마 12:39,40). 그분은 스올로 내려가셨으나, 부활하셔서 올라오실 때 사로잡힌 자들이 사로잡힘에서 이끌어내어 오셨다. 그것은 처음이며 시작이었다. 부활의 첫 열매였다.

나는 믿는다: 내가 이제 이 몸으로부터 떠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이 몸에 갇혀 있는 우리는 그 몸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진지하게 바라면서 종종 신음을 한다. 내가 벗고자 하거나 몸이 없는 영이 되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으로 덧입혀지고자 함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 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으로부터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노라(고후 5:1-8). 그러므로 그는 몸이 없는 어떤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갈등이 있다고 고백했다. 나에게서 여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나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끼여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얼마간 더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다(빌 1:23,24). 나는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나는 이곳으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이곳에 잠시 더 머물게 하시는 것이다. 내 일이 아주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는 자기가 죽었었는지 살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고린도후서 12 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삼층천으로

불러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는 그가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죄가 될 것이다(고후 12:2-4).

그러므로 첫 번째의 부활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 부활은 마지막 순교자가 대 환란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부활이 끝나게 된다. 종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지상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후 천년만에 두 번째 부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큰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 지옥 불의 심판은 기다리는 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5:30)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연계시키셨다. 그분의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분의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 두 분은 너무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셔서 마치 한 분처럼 일을 하신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5:31)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말마다 확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이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뒷받침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5:32)

세례 요한은 뭐라고 증거 하였는가?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3 장에서 그런 말을 읽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인자에 대해 증거 하는 이가 또 한 사람 있는 것이다.

(5:33)

요한은 말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다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참된 증거를 하였다. 이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5:34-36)

여기 절름발이가 한 사람 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루살렘 주변을 걸어다니게 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 하는 자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 한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요 3:2).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빌립이 예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거늘 너희는 나를 몰라보느냐,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어라(요 14:8-11).

베드로가 오순절 날 예수를 소개하며 설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는 그분께서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증명되신 분이시다(행 2:22). 여기서도 그분은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거 한단다.

(5:37)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인자가 세례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느냐. 인자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형상으로 강림하여 인자 위에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했다.

아버지가 증거하신 것이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아들의 순종을 보셨기 때문이다. 세례 시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나는 그를 대단히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의 증거가 있고,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나온 증거가 있고, 아버지의 증거가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5:38)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너희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불러내신 증인은 성경 자체였다.

(5:39)

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성서를 살피는구나. 너희는 성서를 파고드는구나. 너희는 성서를 연구하는구나. 너희는 성서 연구를 부지런히 하는구나. 너희는 성경을 살피는구나.

(5:39,40)

예수께서는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 중에서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구절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300 가지가 넘는 조건들이 있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취해야 할 조건들 말이다. 이 300 가지의 조건들을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우연히 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중 16 가지를 우연히 성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연적 요소가 300 가지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우연적 요소를 너무 과신한 것이다. 우리의 두뇌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가 16 가지도 상상할 수 없는데, 하물며 300 가지라니 말이다.

우주에는 2 만 개의 은하계가 있으며 2 조 개의 성운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다. 그 별들 중의 하나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잡게 될 확률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나는 우주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 나는 은하계의 성운을 상상할 수가 없다. 천억

개나 되는 별들을 상상할 수 있는가? 잠깐 생각해 보라. 나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 별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결단코 그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께로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5:41,42)

이것은 강력한 고발이다. 나는 너희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안다. 너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5:43)

오늘날 여러분이 유대 랍비에게 말을 걸 경우, 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들을 낼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5 장에 나와 있다.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모세의 예언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일어날 것이며,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신 18:15). 모세는 사람이었으며 선지자였으니, 메시아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그런 메시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추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편 2 편을 읽지 않은 모양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 이런 구절도 있다: 그분이 아들에게 말씀하셨다(히 1:8).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낳으신 바 되었으며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사 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속일 것이며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환영할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교인들 중에,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고 진지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메시아가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메시아를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 9 장에 비취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얘기다. 거기에 보면 백성들의 임금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언약에는 물론 그들의 성전 재건이 포함될 것이며, 그는 그들의 메시아로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7년 기간의 중간에 그 언약은 깨어지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5:44)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보아왔다.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은 혼시를 한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잠시 후에 자기들에게 말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런 저런 사람들을 존경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구나.

바울은 만일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 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칭찬을 바란다면, 어떻게 믿는 자가 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이 없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5:45)

내가 너희를 고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법을 어겼다. 다시 제 3 장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던 장면을 살펴본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 하려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요 3:17,18). 율법이 그(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모세가 그를 정죄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의 죄와 잘못을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삶의 표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고자 함이다.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아댄다(갈 3:24).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과산을 깨닫도록 만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죄니 곧 빛이 세상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요 3:18,19).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빛에게로 다가오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거기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도고를 하고 계시다. 아버지여, 저 사람의 몫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들은 나의 사람들이옵니다. 저들은 나를 믿고 신뢰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내게로 돌리소서. 내가 죽을 때 저 사람의 몫도 담당했나이다. 내가 저들의 죄도 지고 갔나이다.

바울은 죄의 용서를 받은 다윗을 인용하여 말한 적이 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의 얘기다. 다윗이 죄를 짓자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다. 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나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으며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나이다 라고 말했다(삼하 12:1-13). 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물을 묻지 않으시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허물을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인쳐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에게서는 전혀 정죄함이 없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도다(롬 8:1). 그런 연유로 해서 나는 매일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 하나님이 허물을 묻지 않으시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가지 않으려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모세라. 그는 바로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자로다.

(5:46)

너희는 참으로 모세를 믿지 않는구나.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도 했을 것이다.

(5:46)

예수께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마다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를 인용하시곤 했는데, 이는 참으로 흥미로운 사항이다. 모세가 쓴 신명기에는 예수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5:47)

이것은 그들을 정면으로 고소하는 말에 해당했다. 이것은 사실상 첫 번째의 대결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대결이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심각한 대결이 있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직접적인 대결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와 유대인 사이의 이런 대결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대결이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그들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선언한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안전한 곳, 든든한 곳, 소망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안락한 곳이 있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고 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당신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의를 우리에게로 이전(移轉)시켜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쳐 그분을 믿고 신뢰하였음이니이다. 주여, 비옵나니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곳은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니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끌려 와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John 6

John 6
Tape #8074
By Chuck Smith

Let's turn to John chapter six as we continue our journey through the Bible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여 요한복음 제 6 장으로 넘어가자.

After these things (6:1)

That is, the things of Jesus being to the feast in Jerusalem and the healing of the lame man at the pool of Bethesda and the discussion that came up with the Jews over that on the sabbath day. 여기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절기에 참석하신 일, 한 절름발이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쳐주신 일, 그리고 유대인들과 가진 안식일 논쟁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He went over the sea of Galilee, which is the sea of Tiberias (6:1).

In chapter six, we have John's account of the middle part of the ministry of Christ which begins more or less at the death of John the Baptist and will take us through to Peter's confession at Caesarea, Philippi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Actually chapter six encompasses about two years of Jesus' life. This is all that John gives us out of this two years of the middle ministry of Jesus. Other gospels give us other events. But you remember John is selective. He is giving just certain of the signs that Jesus did. And so here in the sixth chapter, we have a couple of signs, but this is all that John tells us of this middle ministry of the life of Jesus, a two-year period of time. He picked out these two events in this particular two years. 6 장에서는 그리스도 사역의 중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중기의 사역은 대체로 세례 요한의 참수 때 시작이 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던 때까지 계속된다. 사실상 이 6 장은 예수님의 생애 중 약 2 년의 기간에 해당하는데, 예수님 사역의 중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사는 6 장 뿐이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기사들도 들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필자 요한은 기사들을 선택적으로 수록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서 단지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다. 여기 6 장에서는 뒤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사역의 중기 2 년에 대해 요한복음이 전하는 사건은 그것들 뿐이다. 요한은 이 특이한 2 년 기간에 대해 두 가지 사건만을 선택했던 것이다.

A great multitud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his miracles which he did on them that were diseased (6:2).

At this point the popularity of Jesus is growing. Everywhere He goes He's followed by a multitude of people. And you remember that the other gospels tell us that the occasion of going over the sea of Tiberias was the fact that the disciples had come back that He had sent us. They gave the reports of how the Lord had worked with them. Devils were subject and so forth. And He said,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that we might just relax a bit. There were multitudes of people thronging Him everywhere He went. And so they went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o get a little rest and relaxation. But the people saw the direction they're ship was going and they ran around the upper part of the sea of Galilee so that by the time they landed in this deserted area near Bethsaida, it was deserted. There was a crowd of people waiting for them. 이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 보면, 여기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서 좀 쉬자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잠시 안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윗쪽으로 에둘러 달려가 벳세다 근방으로 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황량한 광야였다.

And so Jesus ministered to that crowd of people all day up until the evening. John puts in this fact that,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온 종일 저녁 때까지 봉사하시게 되었다. 요한은 이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The passover, feast of the Jews, was close (6:4).

They were in that time of the passover feast which means that it was a full moon. 그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월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And Jesus went up into a mountain, and there he sat with his disciples (6:3).

When Jesus then lifted up his eyes, and saw a great multitude or a great company come unto him, and he said unto Philip, Where can we buy bread, that these may eat? And this he said to prove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ould do (6:5,6).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 거대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와야 이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일부러 하신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6:5,6).

It was just sort of a test of Philip's faith and confidence in Him. Philip really didn't pass the test. He sort of looked at it from purely a natural standpoint. He said, Lord, I don't think that we could buy bread. I think it would cost about eight thousand dollars to buy enough bread for all of these people.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다. 빌립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순전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 드렸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많은 떡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대략 6 천 달러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Jesus was wanting to know the kind of confidence they had in Him. If Philip would say, Well Lord, You know You can do anything. What do You want to do? But Philip just looked at it from purely a natural standpoint. Andrew was a little braver. He made a slight suggestion but then he immediately dismissed it. He said, 예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께 대해 어떤 종류의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셨다. 빌립이 이런 대답을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글쎄요, 주님,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일을 순전히 인간적인 견지에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안드레는 좀 더 용감했다. 그는 뭔가를 약간 제안했다가는 이내 그것을 철회하고 말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렸다.

There's a little lad here with five loaves and two fish. But what is that with this multitude (6:9)?

In other words, it was, Here's a little bit but. And then he immediately dismissed his thought.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다. 여기 뭔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내 자기 생각을 접고 말았다.

But Jesus said, Make the men sit down. Now there was a lot of grass in that place (6:10).

At the passover season, you're in early spring. And the area around Bethsaida, covered with grass and wild flowers, is very beautiful in the early spring up in the upper portion of the Galilee region there. Beautiful fields covered with grass and flowers. And so Jesus said, Have them sit down. 유월절은 초봄에 해당했다. 초봄에는, 풀과 들꽃으로 뒤덮인 벳새다가 매우 아름다웠다. 벳새다는 갈릴리 지역 윗쪽에 있었는데, 풀과 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들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 들판에 앉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So the men sat down, and the number of them was about five thousand. Jesus took the loaves;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to those that were sat down; and likewise also the fish as much as they would. When they were filled (6:10-12),

The Greek word there is literally gluttoned. They were really filled. They were like you are after the Thanksgiving dinner when you feel like, I can't eat another bite of pumpkin pie or I'll burst. So "when they were filled,"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는 문자 그대로 포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참으로 배불리 먹었다. 그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와 같은 포만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호박 파이를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하겠습니다. 더 먹으면 아마도 배가 터질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배

불렀을 때,”

he said unto his disciples, Gather up the fragments that remain, that nothing be lost. They gathered them together, and filled twelve baskets with the fragments from the five barley loaves, which remained over and above unto them that had eaten. Then those men, when they had seen the miracle that Jesus did, said, This is of a truth that prophet that should come into the world (6:12-14).

They saw this marvellous miracle. They began to say, “This is in truth that prophet.” Moses had prophesied that there shall come another prophet like unto myself, and to him you shall give heed. When Jesus did this miracle, the people were saying, “This is the prophet that Moses said was going to come into the world. Truly this of a truth is the prophet which was to come into the world.”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분은 진실로 그 선지자로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라 고 예언했다.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모세가 장차 세상에 오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 진실로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다.”

When Jesus therefore perceived that they would come and take him by force, to make him a king, he departed again into a mountain himself alone (6:15).

They were ready to acclaim Him forcibly as the Messiah. But they were seeking to acknowledge it on the wrong basis. The basis of the miracle of His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The fact that their stomachs were full. He had met their physical needs.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ission of the Messiah at His first coming.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piritual aspect of His mission that He was to lay down His life. He was to give His flesh. And thus, He did not allow them to, this popular movement of acclaiming Him as the Messiah on the basis of their having their physical needs met.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여 메시아로 모실 차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릇된 기초 위에서 메시아를 인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분이 오천 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에 근거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자기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분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으므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자 애썼다. 그들은 초림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메시아의 영적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은 자신의 살을 내어주셔야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 필요가 충족된 사건에 근거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려 하던 운동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The other gospels, and interestingly enough,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is the only miracle that is mentioned in all four of the gospels. The other gospel writers tell us also about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They fill in a few details that John doesn't give to us. John just gives us the bare essentials. But the other gospels tell us that Jesus went with the disciples down to the seashore and He had them get in the ship and He constrained them to go back over to the other side. Commanded them, go on back over to the other side. And then He dismissed the crowds. Okay, you've eaten, you're full now. Go home. And then He went on up alone into the mountain and Luke tells us that He was there praying unto the Father.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4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다른 복음서 필자들도 이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준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세부사항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다. 요한복음은 요점만을 전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배에 태우신 후 재촉하여 다른 편으로 가게 하셨다 고 되어 있다. 그들에게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 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인 무리들을 해산 시키셨다. 자아,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다음에 그분은 홀로 산에 오르셨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다.

The disciples went down unto the sea, And they entered into the ship, and they went over the sea toward Capernaum [at the command of Jesus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서]. And it was now dark, and Jesus had not come to them. And the sea arose by reason of a great wind that blew (6:16-18).

It's sort of like the Santa Ana winds that we get here. It comes down through the canyon and up at the northern end there near Gennesaret. It really follows that canyon down and when it hits the sea of Galilee, it

really whips the thing up. You must realize that the sea of Galilee is some six hundred and fifty feet below sea level. The weather is much like the weather at the Salton Sea, which is also below sea level and you have then your high temperatures there in that valley you have the coastal cool air and of course, as the hot air rises the coastal cool air comes flowing down in. And so it can create some pretty powerful winds and some rather high seas on the Galilee. One of those times when the wind really began to blow, here were the disciples out there trying to row against the wind. 이 바람은 마치 이곳 산타아나에 부는 바람과 비슷했다. 골짜기를 통해 내려오다가 북쪽 끝 게네사렛 근처에서 올라가곤 했다. 바람은 줄곧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에 부딪친 후 위로 솟구치곤 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아래 650 피트 지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갈릴리 날씨는 역시 해수면 아래에 있는 사해의 날씨와 흡사했다. 골짜기에서는 기온이 높지만 해변의 바람은 서늘했다. 물론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솟구치면 해변의 서늘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다. 그리하여 아주 강력한 바람이 형성되곤 했는데, 그것이 갈릴리 바다 물결을 상당히 높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에, 제자들은 그 바람을 안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Now they were seasoned seamen. They had spent, many of them, their lives there on the sea of Galilee. They were familiar with the moves of the sea of Galilee. In fact, it would seem that at least four of the disciples their hometown was Bethsaida. They had many of them moved over to Capernaum but they're not that far apart. The fishing is really good there on the upper end where the Jordan river comes in, brings a lot of nutrients and things and there's a lot of fish up there on the northern end. So the disciples knew that sea quite well. The natural thing for a seaman to do when you get a storm like that and you're rowing and you're not going anywhere, you've got the heavy seas, is to turn your boat around and go with the seas. The only danger is in the turning when you get crossways of being flipped over. But they were able seamen and they knew how to do it. 그들은 소금물에 전 뱃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바다의 생리를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 그 제자들 중 적어도 4 명은 고향이 벳새다였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벳새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곤 했지만, 이 두 곳은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바다의 북단 즉 요단 강물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참으로 어황이 좋았다. 많은 부유물들이 있었으므로 그 북쪽 끝에는 물고기도 많았다. 제자들은 그 바다를 훤히 꿰고 있었다. 그와 같이 강력한 바람을 만났을 때, 역풍을 만나 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뱃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런 행동은 바다에 순응하여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었다. 방향을 회전할 때 만날 수 있는 위험은 배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능한 뱃사람들이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But Jesus had commanded them to go to Capernaum. So they're out there really struggling as they're trying to row against the seas and against the wind. We are told that they had only gotten two-and-a-half to three miles at that point. From Bethsaida to Capernaum is about six miles across the sea. So it means they were out in the middle of the sea. They had only made it about halfway when their progress was halted by this wind. And as we made note this morning and it is I think significant, there is a common fallacy that we often hold thinking that if I am in the will of the Lord, if I am obeying the commands of Jesus, my life should be a piece of cake. That I shouldn't have any problems, I shouldn't have any troubles. I should always have calm seas with the wind at my back. Because after all, I'm doing the will of the Lord.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이미 명령을 내리신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서 참으로 애를 쓰면서 바다 및 바람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그 때까지 2.5 마일 내지 3 마일 밖에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벳새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뱃길로 6 마일 가량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다의 중간에 와 있었던 것이다. 반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했는데, 그만 그런 풍랑을 만난 것이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할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각의 오류인데, 만일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 삶은 아주 수월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내게 문제가 닥쳐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고민이 생겨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달고 고요한 바다를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Let's think about that for a minute. Let's think about Jesus. In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there in Gethsemane, as He was facing the cross, you remember His prayer,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thy will be done" (Matthew 26:39). And submitting to the will of the Father did not bring the wind at His back and a calm sea. It brought the cross.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여야 한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겔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셨지만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고 바다는 고요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십자가만 다가왔을 뿐이다.

Oftentimes for us, the will of God is not an easy thing. It many times is a very difficult thing. And I face adversities when I seek to do the will of God. So often I'm going against the tide when I seek to do the will of God. But Jesus saw their dilemma. Full moon, sea of Galilee, you know how clear the skies get around here when we get those Santa Anas. That's the only benefit of those things that I can see. They blow the smog halfway to Hawaii and we have some clear days. And so with the full moon and the sea of Galilee, you can see across the sea. Not that wide and He could see no doubt, as He is sitting there on the mountain, that little ship out there in the middle. And He realized it wasn't going anywhere with that strong wind. And so Jesus went out to help them. 종종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데도 나는 역경에 부딪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데도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곤경을 바라보고 계셨다. 보름날 밤 갈릴리 바다, 얼마나 하늘이 맑았겠는가. 그것은 산타아나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람이 불어 매연을 하와이 쪽으로 몰아가면 청명한 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만월이 뜬 갈릴리 바다도 그랬을 것이다. 바다 저쪽 끝이 바라다 보였을 것이다. 그리 넓은 바다가 아니므로, 산 위에 계시던 주님은 바다 가운데 떠 있던 그 조각 배를 분명히 내려다보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려다 보자니까, 그 배가 강력한 바람을 만나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러 내려오셨던 것이다.

That's the beautiful thing. I may face some adverse winds. I may face some real trials but the Lord will come to rescue me. He'll be with me in the storms. The Lord said,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they will not overflow you: when you pass through the fire, it shall not burn you" (Isaiah 43:2). He didn't say you're not going to be facing heavy waters, deep waters. He didn't say you won't be facing the fire but He has promised that He would be there with you in it.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다. 내가 역풍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참으로 큰 시련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나는 구원하러 다가오실 것이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 43:2). 그분은 우리가 격랑과 깊은 물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불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그럴 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You remember the three Hebrew children there. He didn't spare them from the fiery furnace. That's what we would have done, have we been in control. But He allowed them to go into it that He might be with them in it and show that He can preserve even in the fiery furnace those who put their trust in Him. 여러분은 불 속에 들어갔던 히브리인 세 소년을 기억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이 불 가마를 면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불 가마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셨다. 그 속에서 그분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불 도가니 속에서도 어떻게 보호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So the Lord came to them but He was walking on the water. They looked up and here, though they weren't getting anywhere against the wind, He was. Head down, into the wind, walking towards them on the water. They were frightened. They thought they were seeing a ghost (6:19). 예수님은 그렇게 물 위로

다가오셨다. 제자들은 위를 보나 옆을 보나 바람을 피할 길이 없어 찢찢매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쳐다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산을 내려오시더니 바람을 가르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다. 그들은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다 (6:19).

But Jesus said unto them, It's I; don't be afraid. And so they willingly (6:20,21)

I bet they willingly,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기뻐서

received him into the ship: and immediately the ship was at the land whither they went (6:21).

Immediately they found themselves in Capernaum. That was a miracle in itself. John doesn't tell us about Peter venturing out. He sort of leaves out, he gives us some other insights of Peter's mistakes but he's gracious to Peter on this one and doesn't mention it. Of course, he probably knew it was already recorded in the other three gospels. What's the sense of rubbing it in. 그러자 즉시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기적 그 자체였다. 요한은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전하지 않는다. 요한은 베드로의 실수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본 해석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베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요한도 이 사건이 이미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베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The following day (6:22),

This was a couple of days in the life of Jesus. The one day there going over to Bethsaida, the crowd meeting them. Him ministering to them up until the evening. His taking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feeding them. And then sending them away. Walking to the disciples on the water. Now the following day,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의 이틀에 해당하는 기사이다. 첫 번째 날은 예수님이 벳새다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만났다. 주님은 그들을 저녁 때까지 섬기셨다. 주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저들을 먹이신 다음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다. 그리고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것이다.

when the people which stood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over in Bethsaida 건너편 벳새다에] saw that there was no other boats there, except that one whereinto his disciples were entered, and that Jesus went not with his disciples into the boat, but that his disciples were gone away alone (6:22);

And John gives us a little note here. 요한은 여기서 약간의 주석을 첨부한다.

(Howbeit there came other boats from Tiberias near to the place where they did eat bread, after that the Lord had given thanks:) When the people therefore saw that Jesus was not there, neither his disciples, they also took shipping, and came to Capernaum, seeking for Jesus (6:23,24).

When they came to Capernaum, they saw that there was only the one boat, the one that the disciples went in. And they knew that Jesus wasn't in it.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 그들은 작은 배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타고 온 배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동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nd so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they said to him, Rabbi, how did you get here (6:25)?

Interesting, Jesus did not answer their question but,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다.

He did answer them saying,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You seek me, not because you saw the miracles, but because you did eat the loaves, and were filled (6:26).

You seek Me. You didn't really see the real miracle. You ate and you were filled, that's why you're seeking Me. But you really didn't see the miracle, the real purpose behind it.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너희는 진짜 기적을 보지 못하였구나. 너희가 먹어 배가 부른 경험을 했기에, 나를 찾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진정한 기적은 보지 못하였다. 이 일 배후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은 깨닫지 못하였다.

Labour not for the meat which perishes, but for that meat which endures unto everlasting life, which the Son of man shall give unto you: for him hath God the Father sealed (6:27).

God has placed His seal upon Him. "Labour not for the meat that perishes." Jesus is going to seek to bring them from a purely materialistic thinking into the spiritual realm. He's going to try to help them understand and to see what they didn't see of the spiritual nature of what happened. As He talks to them in

the realm of the Spirit, their thinking still in the realm of the flesh.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을 치셨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예수님은 순전히 물질적인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내려고 애쓰고 계셨다. 일어난 사건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 시키고 보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분이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생각은 아직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And this often is a problem that we have. As the Lord seeks to teach us things of the Spirit and we're always thinking in realms of the natural, the physical; and the Lord is constantly trying to draw us into the spiritual. In a little while He's going to say, The flesh profits nothing. “Don't labour for the meat that perishes. The flesh profits nothing. But for that meat which endures unto everlasting life which the Son of man shall give unto you: for him hath God the Father sealed.” 이것은 우리도 종종 봉착하게 되는 문제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일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시나, 우리는 언제나 자연적이며 물리적인 것들의 세계에서 생각한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항상 애를 쓰신다. 잠시 후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육은 무익하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Then they said unto him, What shall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6:28)?

They knew the law. They knew what God required of them in the law. But they knew their inability to keep the law. So “what must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What can we do that we might keep the law? They recognized that they needed help. I cannot keep the law of God. I want to do the works of God. So what shall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The desire to work the works of God but recognizing my inability to do so.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물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Is there a dynamic? Is there a power? Is there something that you can lead us to that will help us that we might do the works of God? 당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할 뭔가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on him whom he hath sent (6:29).

Through believing in Jesus, you will come into a new dimension of life. The life of the Spirit. In the life of the Spirit, there is the dynamic to enable you to be what God wants you to be. As Jesus was promising the Holy Spirit to His disciples, He said, “But you will receive power, [dunamis, dynamics] after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witnesses unto me” (Acts 1:8). That which you cannot be in and of itself or through your own abilities or through your own efforts, through your own results. He can help you to be through the dynamic of the Spirit that you receive by believing on Jesus Christ. “This spake He of the Spirit, which was to be given to those that believed on Him” (John 7:39), the scripture says. So through the Spirit is the dynamic. Through believing in Jesus there is the receiving of the Spirit. “What must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This is that work of God” in your life that will enable you to keep God's divine ideals.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생명이다. 성령의 생명 속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들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이룩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다. 저절로 이뤄지는

삶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성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9)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진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는 곧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이다.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In Deuteronomy he said, “This is what the Lord your God requires, that you love God, and that you serve Him with all of your heart and all of your soul” (Deuteronomy 11:13). The prophet Micah said, “He has shown you, what is good; what does God require of you, that you do justice, love mercy,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God’s requirement. 주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신 11:13).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Jesus said, “Be y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Matthew 5:48). I can’t be perfect. I know me well enough to know that I’m not perfect and I can’t be. Doesn’t mean I wouldn’t like, I would like to be perfect. However, I wouldn’t have much tolerance for the rest of you if I were. But we all of us realize that we can’t be perfect. I can’t keep the law of God.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나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도 잘 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As Peter, when they were talking about the Gentile believers, what relationship do they have to the law and what should we rule as far as the Gentiles and the law? Peter said, “Why should we put on them a yoke of bondage, that neither we nor our fathers were able to bear” (Acts 15:10)? Why load it on them? We haven’t been able to keep it. It’s pretty honest confession by Peter. 초대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 이방인들이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이방인들 및 율법과 관련하여 어떤 규칙을 이방인들에게 정해주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행 15:10)? 왜 그런 멍에를 그들의 목에 메우고자 하느냐? 우리도 그 멍에를 감당하지 못하였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직한 것이었다.

God’s divine ideal I am incapable of keeping even though I desire to keep it. So what must I do that I can work the works of God? And Jesus said, This is it, believe on the One that God has sent.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will enable you then to do the works of God. God doesn’t give up on me just because my flesh is weak. But He gives to me that dynamic, that power of His Spirit whereby I can be what God would have me to be. 하나님의 신령한 목표---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지만 그를 능력이 없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

It isn’t that God’s standards have been lessened for me. It isn’t that God has stooped down to my lower level. He still seeks to bring me to His high level. Knowing I can’t attain it and achieve it in myself, He gives to me the dynamic, the power of the Spirit by believing in Jesus. God hasn’t given up on you. And the Lord is going to perfect that which concerns you. “Having began a good work in you, He’s going to continue to perform it until He has accomplished it” (Philippians 1:6).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표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준으로 떨어지신 것도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그분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 애쓰신다.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에게 대한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 1:6).

And so day by day, we grow in grace as we grow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as we yield more and more to the Spirit, as we learn to walk after the Spirit and to be led by the Spirit. As we reckon the old life to be dead, crucified with Christ, more and more the life of the flesh has less power over us as we walk in the Spirit and we are being conformed by the Spirit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된다.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며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더 받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간주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대해서 지배력을 더 많이 잃게 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닮게 된다.

As Paul wrote to the Corinthians, “We, with open face beholding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changed from glory to glory into the same image, by His Spirit that works in us” (2 Corinthians 3:18). How beautiful that is. No, I haven’t yet arrived, Paul said. “I’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of Jesus Christ. Neither do I count myself perfect. “But this is what I’m doing,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th 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The things which were behind were the things of the old life of the flesh, leaving that, pressing on to the life of the Spirit, “I’m pressing towards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3,14).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다만 나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는 중이다. 뒤에 있는 것이란 육신의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놔두고 성령의 생명을 향하여 달려 나아간다는 말이다. 나는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12-14).

I’m not yet what God would have me to be but I’m on the way. I’m getting closer. Thank God I’m not what I was a year ago. Or two years ago. There’s progress, there’s growth. The Spirit of God works in me. He’s not through, He often puts up “Under Construction” signs as He shows me those areas of the life that still need to be yielded and surrendered to Jesus Christ. But He’s working. And so that dynamic. That’s what they were seeking, Jesus told them how to get it. Believe on the One whom God hath sent. 나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나는 날로 더 그런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1년 전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2년 전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발전이 있었고 진보가 있었다. 하나님이 영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분은 아직 일을 마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직 “공사중”이란 간판을 내 걸고 계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굴복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내 삶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쨌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아주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저들이 추구하고 있던 바가 바로 그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성취하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They then said unto him, What sign do you show us then, that we may see, and believe you? what do you work (6:30)?

They said,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Our fathers did eat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6:31).

The idea is that, Moses gave us the bread from heaven. He said there will be another prophet like unto

himself. Yes, you gave us bread yesterday but that was just one day. Moses did it for forty years. They're thinking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physical realm. They're still thinking of the full stomachs, and the kingdom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hysical realm rather than the spiritual kingdom.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or drink; but righteousness, peace, and joy" (Romans 14:17). But they're thinking of meat and drink. "Our fathers ate manna in the desert or in the wilderness. What sign do you show us?"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주었다는 것이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한 명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제 우리에게 떡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루에 불과하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떡을 주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왕국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저들은 배가 부른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왕국도 신령한 왕국이 아니라 물리적인 영역에서 건설되리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 그러나 저들은 떡과 음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And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6:32),

That "Verily, verily" is always an attention-getter. It's sort of, Listen carefully to what I'm going to say.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언제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는 의미이다.

Moses gave you not that bread from heaven (6:32);

Moses didn't give you that. 모세가 그 떡을 준 게 아니다.

but my Father is giving to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6:32).

Taking it from the manna, the physical sustenance that God gave to them in the wilderness, to the spiritual again. God gives you the true bread. My Father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예수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육신적인 양식인 만나 얘기로부터 신령한 양식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실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떡을 주실 것이다.

For the bread of God is he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and giveth life unto the world (6:33).

That's the true bread. 이것이 바로 그 참된 떡이다.

Then they said unto him, Lord, evermore give us this bread (6:34).

Like the woman of Samaria, Give me this water, that I don't thirst and have to come out here anymore. 저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과 유사한 말을 했다. 나에게 이 물을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길러 이곳으로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Jesus said un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6:35):

They're talking about Moses and they're thinking of the comparison of the prophet with Moses. But you remember that when Moses came to the burning bush, and the Lord spoke to Moses out of the burning bush, telling him to go to the Pharaoh and to demand the release of the Israelites from their bondage and slavery in Egypt; Moses said, But they won't believe me. And who shall I say has sent me? What was God's answer? I am that I am hath sent thee. 저들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모세와 모세가 언급한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광야에서 소명을 받은 자였다. 그가 타는 숲 쪽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 숲속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생활과 속박에서 풀어주라고 요청하라.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저를 보내었다고 저들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고 하라.

And so here Jesus said, I am. This is one of those places where Jesus is using this name for Jehovah for Himself. "I am the good shepherd" (John 10:11).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ohn 8:12). "I am the bread of life" (John 6:35). "Before Abraham was, I am" (John 8:58). And in the garden when the soldiers came to arrest Him, Jesus said, Who are you looking for? They said, Jesus. He said, I am. And they fell backwards on the ground (John 18:4-6). And so, "I am that ego eimi, I am the bread of life."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임)”라고 지칭하셨다. 본문은 여호와께 적용되는 이런 명칭을 예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몇몇 성구들 중의 하나이다. 그 다른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 10:10).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 8:12).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 6:35).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요 8:58). 군사들이 그분을 잡으려 겻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분은 “내가 바로 그니라”고 답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저들은 뒤로 넘어져 자빠졌다 (요 18:4-6).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he that cometh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he that believeth on me shall never thirst (6:35).

Radical statements. Jesus said to the woman of Samaria, “He who drinks of the water that I give shall never thirst again” (John 4:14). Talking again in the realm of the Spirit. Again, He’s talking to them in the realm of the Spirit. You’ll never hunger, you’ll never thirst. Recognizing that there is deep inside of every man a hunger for a meaningful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God. 역시 과격한 발언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이 역시 영의 세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분은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영적 시각에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코 주리지 않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신 말씀이다.

As David said, “My soul thirsteth after Thee, O God. As the hart panteth after the water brooks, so pants my soul after Thee, O God. For the living God” (Psalm 42:1,2). How I thirst for God, how I hunger for a meaningful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God. And Jesus is declaring that He is the bread of life and if you will come to Him, you’ll be satisfied. You won’t hunger again. You won’t thirst again because in Him you will find that for which the Spirit hungers and thirst, the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다윗도 그런 갈망을 표출한 적이 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 (시 42:1,2).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경험과 관련을 갖고 싶어하는지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경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But I said unto you, That you’ve also seen me, and you believe not. All that the Father giveth me shall come to me; and him that cometh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6:36,37).

What a beautiful promise. “Him that cometh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Here you have both sides of the coin. “All that the Father giveth to Me shall come to Me.” That’s divine sovereignty. But human responsibility, choice—he that cometh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When we think of this in light of predestination and election, if you come to Jesus, asking forgiveness of sins, submitting yourself to follow Him as Lord, acknowledging Him as Lord, He doesn’t go down a list to find out if your name is on it. He doesn’t say, Oops, oops, somebody goofed. Sorry your name’s not here. Doesn’t happen.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동전의 양면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은 신의 주권이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도 있다. 즉,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정과 선택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만일 여러분이 예수께로 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한다면, 그분은 피택자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 큰 일이군. 누군가가 실수를 한 모양이야. 미안하지만 자네 이름이 이 명단에 없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Whosoever will, let him come and drink of the water of life freely” (Revelation 22:17). You say, Well, I

can't reconcile that. Of course you can't. No one else can and that's why they argue so much.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글썄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이유를 대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에서다.

I ca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6:38).

What a marvellous statement. And so we hear it again in the garden, “Nevertheless not My will be done, but Thy will, be done” (Luke 22:42). I didn't come to do my own will. And that should be true of every one of our lives. We shouldn't be here to do our own will. But we should be her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Life is really found when we submit ourselves into doing the will of God. That's where fulfillment comes. I was created for His good pleasure. If I seek my own pleasure and live for my own pleasure, I'm going to live an empty, vacuous life. But if I will learn to live to please Him, and if I will seek to please him, I will find a very rich and fulfilling and overflowing cup. My life will be an overflowing cup. Oh the pleasure, and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Jesus said that please the Father. “I didn't come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는 그런 말씀을 겐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 번 듣게 된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 자신을 바칠 때 비로소 발견된다. 거기서 성취감도 생겨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나 자신이 좋을 대로 산다면, 나는 공허하고 열빠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내 잔이 매우 풍요롭게 차고 넘치며 성취 감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차고 넘치는 잔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항상 행하게 될 것이다. 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And this is the Father's will which hath sent me, that of all which he hath given me I should lose nothing, but should raise them up again at the last day (6:39).

That's the Father's will. That we who have been given to Him, He'll keep us and raise us up in that last day.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를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And this is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He repeats it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신다], that every one which seeth the Son, and believeth on him, may have everlasting life (6:40):

That is, sees Him in the true light of the Spirit. Sees in the sense of comprehending, understanding the realm of the Spirit. Those that really see the Son. “It's the Father's will, those that see and believe on Him, that they may have everlasting life,” and His promise, 다시 말하면, 성령의 참된 빛 가운데서 그분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이해력을 갖고 그분을 보며, 성령의 영역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참으로 아들을 보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The Jews then murmured at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And they said, Is not this Jesus, the son of Joseph, whose father and mother we know? how is it then that he saith, I came down from heaven (6:40-42)?

Their familiarity with Him. Isn't this Jesus? We know His father and mother, Joseph and Mary. 그들은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가 그 예수가 아니냐? 우리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를 잘 알고 있다.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Don't murmur among yourselves. No man can come to me, except the Father which hath sent me draw him (6:43,44):

Another interesting statement. “No man can come except the Father draw Him.” But I believe that the Father seeks to draw all men to Jesus Christ. And all of us who came, came as the result of the Spirit drawing us, the Father drawing us. It’s my responsibility, however, to yield to the Father. “God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2 Peter 3:9). And so there is the divine operation of God but there is also that necessity of human response to the work of God. 이것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진술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 것은 모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 결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신 결과로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그러므로 신의 역사도 있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인간 편에서의 반응도 있어야 한다.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And they shall be all taught of God (6:45).

Notice “they’ll all be taught of God.” “저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에 유의하라.

Every man therefore that hath heard, and hath learned of the Father, cometh unto me. Not that any man hath seen the Father, except he which is of God, he hath seen the Father.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hath everlasting life (6:45-47).

This is basically what He said to Nicodemus who was seeking the method or the way by which he might be born again. And Jesus said, “Whosoever believeth on Him,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And so again,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hath everlasting life.”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같다. 그가 예수께로 와서 거듭 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I am that bread of life (6:48).

They murmured at that. They had problems with it. We know His father and mother, how is it that He said He came down from heaven and so forth. But He said, “I am the bread of life.” 저들은 이 말씀을 듣고 투덜거렸다. 그들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거늘, 어떻게 하여 그가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다.

Your fathers did eat manna in the wilderness, and are dead. This is the bread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that a man may eat thereof, and not die (6:49,50).

Death has two biblical definitions. One, the separation of the consciousness from the body. When your brain no longer functions, you’re dead. The other definition is the separation of your consciousness from God. If you are living without a consciousness of God, without an awareness of God, with no thought of God, you are dead spiritually. The separation of your consciousness from God, living apart from the consciousness of God. Living only with the consciousness of the flesh and the things of the flesh, the Bible says you’re dead. A person who lives only for pleasure, the Bible says, is dead while they’re still alive. Jesus is using here this second definition when He says that if we believe in Him, we will never die. You’ll never be separated from God consciously. 사망에는 두 가지 성경적인 정의가 있다. 그 하나는, 의식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죽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아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육신 및 육신적인 것들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죽었다고 말한다.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그가 비록 살아 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번째의 정의를 응용하여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I am extremely thankful and becoming more thankful everyday that He's not talking about I'm going to have to live forever in this body. That is not a happy prospect as the body is going to pieces. But He's talking about the spirit again, the things of the Spirit. 나는 내가 영원토록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더 감사하게 된다. 영원토록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전망이 아니다. 몸은 장차 분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기서 주님은 다시 영에 대해, 성령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다.

I am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if any man eat of this bread, he shall live for ever: and the bread that I will give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6:51).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through Him. He died that we might live. The bread is His flesh. He said to His disciples when He broke the brea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1 Corinthians 11:24).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셨다. 그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게 되었다.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 떡은 그분의 살이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4).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turned every one of us to our own ways; but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5,6). He bore our sins. He gave His body, His flesh as a sacrifice, sin offering for you and for me.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분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The Jews therefore strove among themselves, say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Then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these are those attention words again], I say unto you, Except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6:52,53).

If you don't partake of Me, if you don't recognize that I'm given My life for you as a sacrifice, an atoning sacrifice for your sin, if you don't recognize that, you don't have life. You don't have spiritual life. Again, He's talking in the realm of the Spirit and their thinking in terms of the flesh and this is the conflict that's going on. They're on two different levels. '만일 너희가 나의 피와 살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것을 만일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는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는데, 그분은 성령의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고 저들은 육신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양쪽 모두 서로 다른 기반 위에서 있었던 것이다.

And so often as we are trying to explain to people about Jesus Christ a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re on two different levels. They're thinking on the physical, you're talking in the realm of the Spirit and they can't comprehend, they don't understand. It's just mumbo-jumbo. And yet, to you it's very clear, it's very plain.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쓸 때, 여러분은 저들과 다른 기반 위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저들은 물리적인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령의 세계에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무의미한 주문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명백한,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So here is Jesus talking on the level of the Spirit; they're thinking on the level of the flesh. 여기서도 예수님은 영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저들은 육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다.

Whoso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hath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6:54).

Again that little promise and phrase. 다시 그 짤막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For my flesh is meat indeed, and my blood is drink indeed (6:55).

We are brought to the communion table and there we take the cup.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that is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This bread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1 Corinthians 11:24,25). Partaking of Christ. The blood of Christ cleansing us from all sin. Nourished and strengthened by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성찬상을 향해 나아가 잔을 들게 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4,25).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자양분과 힘을 얻게 된다.

As the living Father hath sent me, and I live by the Father: so he that eateth me, even he shall live by me (6:57).

There is the spiritual life; it's in partaking of Jesus Christ.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

This is that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not as your fathers did eat manna, and are dead: he that eateth of this bread shall live for ever. These things he said in the synagogue, as he was teaching in Capernaum. Many therefore of his disciples, when they had heard this, said, This is an hard saying; who can get this one? When Jesus knew in himself that his disciples were murmuring at it, he said unto them, Does this offend you? What and if you shall see the Son of man ascend up where he was before (6:58-62)?

Is this bothering you?, He said. When it actually happens. Their concept of the Messiah was materialistic. He's fed us, we're full. Let's make Him the Messiah. It was a materialistic Messiah that they were looking for. One that would feed them without any effort on their part. Jesus knows that He is to give His life, His body. He is to be a sacrifice. And so He's talking to them about My flesh being meat indeed. My blood being drink indeed. You must partake. But He's talking about the cross and the sacrifice that He's going to make for sins.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다. 이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찌 하려느냐?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배 불리셨다. 그러니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유물론적인 메시아였다. 그들 편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닥 안 해도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메시아 말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몸과 생명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하여야 한다. 하여간 여기서 그분은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So He said, Does this offend you? What's going to happen when you see Me on the cross? When you don't see Me throwing over the Roman government. When I don't lead the armies against the armies of Rome. This may offend you but when you see Me on the cross, and even the disciples that stuck with Him, even Peter who said, Lord, where can we go, You have the words of life. Even they were offended. Jesus said,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his night because of Me. He's referring to the cross and the cross was a stumbling block to them. So when He begins to talk of His cross, it's difficult. They are murmuring and many of them turned, didn't follow Him anymore. They couldn't handle that. They couldn't handle the concept of the spiritual kingdom of God because they were thinking only in terms of the material. 그분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고 말씀하셨다. 그게 걸림이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너희가 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군대들을 이끌고 로마 군대와 맞붙어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던 제자들조차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하던 베드로조차도 실족을 하였으니 말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인데,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였다. 그들은 수군거렸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돌아섰으며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We are told, Many therefore of His disciples, when they heard this, they said, It's a hard saying; who can hear it? So Jesus then said,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게 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다.

It is the spirit that makes alive; the flesh profits nothing (6:63):

Always trying to lift us from this unprofitable realm of the material world into the profitable realm of the spiritual world. The superiority of the spirit over the flesh. The spiritual realm over the material realm. Something that Jesus constantly was teaching. 예수님은 물질 세계의 이 무익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영적 세계의 유익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언제나 애를 쓰고 계셨다. 영은 육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었다. 신령한 것들은 물질적 것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령한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6:63).

“It's the spirit that makes alive; the flesh profits nothing.” God help us to really grasp that.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But there are some of you that believe not. For Jesus knew from the beginning who they were that believed not, and who should betray him. And he said, Therefore said I unto you, that no man can come unto me, except it were given unto him of my Father. From that time many of his disciples went back, and they walked no more with him (6:64-66).

If you're not going to set up a physical kingdom, material kingdom, you're not going to make me rich and feed me with the bread from heaven, then I'm going home. 만일 당신이 물리적인 나라를 즉 물질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내게 먹이지 않는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Then said Jesus unto the twelve, Will you also go away? Then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6:67,68). 그러자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6:67,68)?

Where can you turn? Where can you turn? Looking back at the world, there's really nothing to go back to. We might have difficulties. We might have problems. We might not understand exactly and fully what the Lord is seeking to teach us. But where can we go? We know that the world has nothing. It is empty, it has nothing to offer. “Lord, to whom can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는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세상을 되돌아보면, 돌아갈 곳이 사실 아무 데도 없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우리에게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애쓰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세상은 공허하다. 세상은 제공할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주여, 당신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And we believe and are sur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answered them, Have not I chosen you twelve, and one of you is a devil? He spoke of Judas Iscariot the son of Simon: for he it was that should betray him, being one of the twelve (6:69-71).

So John lets us know that Jesus all along was aware of Judas, of what he was doing and what he was going to do. And yet ordained of God for this purpose.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요한은 전한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장차 어떤 일을 할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

Next week, chapter seven. Next Sunday night, Anaheim Stadium. And so we'll have a couple of weeks in chapter seven for you to study it and really digest it well. 다음 주에는 7 장을 살펴보고 하겠다. 다음 주일 밤은 애너하임 운동장에서 집회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7 장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뒤 주 될 것이다.

Father, we give thanks for the bread of life. How wonderful that we can eat and live forever. Jesus, we pray that You will lift us from the materialistic concepts and from the concepts, Lord, that are fleshly. Recognizing that that profits nothing. And lift us, Lord, into the realm of the Spirit that we might live in the Spirit and walk in the Spirit and follow after the Spirit, being led by the Spirit, empowered by the Spirit. That we might be all You would have us to be and do all that You would require of us to do.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 우리가 비읍니다: 주여, 우리를 물질주의적인 관념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육신적인 상념에서 건져내 주소서. 그것이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을 좇으며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며 당신이 요구하시는 일만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Your interpretation of life. This is, Jesus said, You believe on Me, you're going to have life. What is your interpretation of life? To the prodigal son who came to his dad, how did he interpret life? It's fancy clothes, nice shoes, jewelry, plenty to eat and drink. Partying. I'm going to go out and live it up. That was the interpretation of life. But what did it lead him to? Pig pen. Destitute. Empty. Came home to his dad. What did he find? Clothes. Dad said, Put the robe on him. Found shoes. Put new shoes on him. Found jewelry. Put on the ring. Found plenty of food. Kill the fatted calf. He found the party. What people are searching for, life in the world, leaves them empty and destitute and all the while, that life is at the Father's house. Aren't you glad that you know the Father? And He's drawn you to that wonderful life of the Spirit that is so satisfying, so rich and so full.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말해 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 그는 생명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에게 있어서 생명은 아름다운 옷, 멋진 신발, 보석, 먹고 마실 것이 많은 것이었다.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다. 나는 집을 나가서 그런 방식으로 살겠습니다---이것에 생명에 대한 그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돼지 우리에 빠지게 되었다. 빈곤에 빠지게 되었다. 궁핍에 빠지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옷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저에게 옷을 입혀라. 신발을 찾아와라. 저에게 새 신발을 신겨라. 보석을 가지고 와라. 저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풍성한 음식을 차려라.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파티를 열어주었다.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즉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그들을 궁핍하고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한편 참 생명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은가? 그분은 여러분을 성령의 놀라운 생명이게로 이끌었다. 그것은 지극히 만족스럽고 지극히 풍요롭고 지극히 충만한 생명이다.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watch over you. May He guide you through this week as you seek to know and understand His will. And may He give you that power to work the works of God. In Jesus' name, Amen.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기원합니다. 주께서 이 주간 내내 여러분을 지도하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자 애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John 7

John 7

Tape #8075

By Chuck Smith

Let's turn now to the seventh chapter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Back in the fifth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Jesus was in Jerusalem and He went to the pool of Bethesda where there were many sick people gathered around the pool of Bethesda because of the healing powers that were manifested on the first one who could get into the pool after the waters have been troubled. And Jesus saw a man who was lying there who had been there for a long time and He asked the man if he wanted to be healed. And the man told Jesus the reasons why he wasn't healed. When the waters were troubled, as he was struggling to get into the waters someone always got there ahead of him. And Jesus told the man to take his cot and to go home. And immediately he was healed and he took his cot and started home. 이제 요한복음 7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요한복음 5 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중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치료의 권능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누워 있는 한 남자를 보셨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물이 동할 때 그가 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명하셨다. 즉각적으로 그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었으며 자기 자리를 들고 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The problem was that it was the sabbath day and when the Pharisees saw him carrying his cot on the sabbath day, they asked him why he was doing that which was not lawful to do; bearing a burden on the sabbath day. And he said, The One who healed me is the One who told me to take my cot and go home. They said, Who was it? He said, I don't know. Later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told

him not to sin anymore lest something worse would happen to him. And then he went to the Pharisees and said it was Jesus who healed me and told me to carry my cot.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이다. 그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왜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고쳐주신 이가 나보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 고 물었다. 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치료받은 사람을 만나시게 되었는데,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그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신 이는 예수님이셨다고 말하였다.

So that began the conspiracy to kill Jesus. It was determined then that He must be put to death. Throughout the book of John, Jesus keeps referring to His hour which He said had not yet come. And as He was making reference to this, it is obvious that Jesus has a timing, schedule that He is working by. That of the Father's. The perfect time for Him to be presented as the Messiah of Israel, the time in which He is to offer Himself as a sacrifice for sins. So because this conspiracy to put Him to death has developed in Jerusalem by the religious leaders, Jesus wasn't going to Jerusalem for a period of time. Actually, the time differential between chapter five and chapter seven is about two years. And Jesus is avoiding the confrontations in Jerusalem because they are still smarting over the fact that He commanded a man to carry his cot on the sabbath day. 이리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다. 그 때부터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그들은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자신의 한 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것에 준거하여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주신 시간표였다. 그분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내시기에 완벽할 정도로 좋은 시간,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실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한 동안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않으시려 하셨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과 7장 사이의 시간 격차는 대략 2년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대치하게 되는 일을

피하셨다. 안식일에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건에 대해 그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Totally disregarding the fact that the man who had been lame for years was healed, they were upset because it was on the sabbath day that the miracle was wrought on this man. So, 그들은 오랫동안 절름발이로 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도외시한 채, 오직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만 격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Jesus was not walking [according to John here] in the Jewry, because they were seeking to kill Him (7:1).

After the experience of the healing of this man, Jesus remained in the area of the Galilee: ministering up in the Galilee region and was not going down to Jerusalem because of this conspiracy to put Him to death and it can't happen before God's ordained time. 이 사람을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거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죽는 일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 이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Now the Jews' feast of tabernacles was at hand (7:2).

The feast of tabernacles took place in the seventh month of the Jewish calendar. The Jewish calendar began with the month of April, that was the first month of their religious calendar. The seventh month was in later September or early October, it varied from year to year because they went by the lunar calendar. But we read in Leviticus chapter twenty-three concerning this feast of the tabernacles. If you want to turn to Leviticus twenty-three, in verse thirty-three, The Lord spoke unto Moses saying,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Th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shall be a feast of tabernacles for seven days unto the LORD. On the first day shall be a holy convocation: you shall do no servile work therein. Seven days you shall offer an offering made by fire unto the LORD: on the eighth day shall be a holy convocation unto you; and you shall offer an offering made by fire unto the LORD: it is a solemn assembly; and you shall do no servile work therein. These are the feasts of the LORD, which

you shall proclaim to be holy convocations, to offer an offering made by fire unto the LORD, a burnt offering, and a meat offering, a sacrifice, and drink offerings, every thing upon his day: Beside the sabbaths of the LORD, and beside your gifts, and beside all your vows, and beside all your freewill offerings, which you shall give unto the LORD. And also in th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when you have gathered in the fruit of the land, you shall keep a feast unto the LORD seven days: and on the first day shall be a sabbath, and on the eighth day shall be a sabbath (Leviticus 23:33-39).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 월에 지내게 되어 있었다. 유대인 달력은 4 월에 시작이 되는데, 곧 그들 종교력의 시작이었다. 유대력 제 7 월은 우리의 달력으로 9 월 말이나 10 월 초에 해당하였다. 그들은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기는 매년 바뀌었다. 레위기 23 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칠 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팔 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와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와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 일 동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 일에도 안식할 것이요”(레 23:33-39).

Notice that the feast is in conjunction with the feast of tabernacles. That is, it's to begin also on the fifteenth day and thus, a double feast. This second feast is often called the feast of in-gathering or the feast of harvest and it is sort of similar to our Thanksgiving. That is, giving thanks unto the Lord and rejoicing in that the harvest has been brought in. 40 And you shall take on the first day the boughs of goodly trees, branches of palm trees, and the boughs of thick trees, and willows of the brook; and you shall rejoice before the LORD your God seven days. 이 절기는 초막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다시 말하면, 이 절기가 15 일에 시작되게 되어 있었으니, 말하자면 이중 절기가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절기는

종종 수장절 즉 수확의 절기로 불렸다. 일종의 추수 감사절인 셈이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 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So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a feast of rejoicing. Feast of thanksgiving and rejoicing. And you shall keep it a feast unto the LORD for seven days in the year. It shall be a statute for ever in your generations: you shall celebrate it in the seventh month. And you shall dwell in booths [or succoths; and thus it is also called the feast of Succoth because of these little booths or tabernacles]; and all that are Israelites born shall dwell in these booths: And your generations may know that I have made the children of Israel to dwell in booths, when I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And Moses declared unto the children of Israel the feasts of the LORD (Leviticus 23:41-44). 그러므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였다. 감사의 절기요 즐거움의 절기였다. “너희는 매년 칠 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칠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칠 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레 23:41-44).

Now as tradition developed concerning this little booths that they would build, they were little lean too's that they built next to their houses. And they developed sort of patterns or plans for these and according to the patterns, you would make them out of palm thatches but you would leave enough space. You had to have more shadow than sun. In other words, as you build it you had to let the sun shine through but there had to be more shadow than sun. And you couldn't make it so thick that at night you couldn't see the stars. You had to be able to see the stars up through the thatches at night. And the family would move out during this eight-day period of the feast and live in these little booths. At night when the children would be lying there and they would say, Daddy, I see a star up there. The daddy would say, Our fathers lived in the wilderness under the

stars for forty years and God preserved them and kept them that forty years. And so there were all of these beautiful things to remind them of God's preservation of the fathers through the journeying in the wilderness for a forty-year period of time. 이제 이 절기와 관련하여 작은 오두막에 대한 전통도 개발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기 집 옆에다 오두막을 짓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그 오두막을 위한 모형과 양식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 야자수 갈대로 오두막을 짓곤 했으나 자리를 넓게 잡지는 않았다. 햇볕이 드는 곳보다는 그늘 진 곳을 더 많이 두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초막을 지을 때 햇볕이 들게 해야 하지만 햇볕보다는 그늘이 더 지게 만들어야 했다는 말이다. 또한 초막을 너무 두껍게 만들어 밤에 별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밤에는 벧짚 사이로 별들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했다. 가족들은 이 8 일 축제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작은 오두막에 거하곤 하였다. 밤에 자녀들이 거기에 누워 자면서 말하기를 아빠, 저기 별들이 보이네요 했다.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응수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 년 동안 별들을 헤며 거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단다. 그렇게 하여, 초막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상기시키곤 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 년 동안 여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As time went on and the temple was built in Jerusalem, they began to have ceremonies concerning the water. And a priest would go down and fill this little silver pitcher with water. Other priests would go and fill water jugs but the high priest would take this little silver pitcher of water and pour it on the altar. It was a symbol first of all of the water that came out of the rock, but also it was sort of a prayer and a looking forward to the rainy season now, in order that the land may be watered by God during the winter months. Sufficient rain to fill the streams and the cisterns and all in order that they might survive through the next summer.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물에 대한 의식도 개발되어졌다. 한 제사장이 내려가서 작은 은주전자에다 물을 채웠다. 다른 제사장들도 가서 물을 채우곤 하였으나, 대제사장만이 작은 은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다 물을 부을 수 있었다. 그것은 우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표출된 것이기도 했다. 겨울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을 물로 적셔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충분한 비가 내려서 시내와 우물 같은 것들을 채워야만 그 다음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d so there was quite a ceremony and the people would sing Psalm 115 to 118 as this water was being poured and they were asking for God's salvation. Hosanna in Psalm 118. So it was quite an interesting ceremony. 그런 식으로 성대한 의식이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물이 부어질 때 시편 115 편에서 118 편까지를 낭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곤 했다. 시편 118 편에 나오는 호산나를 부르기도 했다. 그것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의식이었다.

The water would be poured down on the pavement there in the temple where the people would then sing praises unto God. Great rejoicing. It was a time of rejoicing in God's goodness and in God's benefits to them.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물을 성전 바닥에다 붓곤 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심에 대해 즐거워하는 시기였다.

But because the eighth day was a sabbath day, holy convocation, they could not bear any burdens. Thus there was no procession to the pool of Siloam. No water being poured out and that also was significant in acknowledging that God kept His promise. He brought them into the land, the land that was well watere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그러나 제 8 일은 안식일이요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으므로 그들은 어떤 짐도 질 수가 없었다. 물론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행진도 없었다. 물을 붓는 일도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면에서 또한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이 풍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이다.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one of the three major religious feasts that was compulsory for the adult males living within a radius of twenty miles of Jerusalem to attend. Three times a year, all of the adult males within a twenty-mile radius of the city of Jerusalem were to present themselves to God. Those that lived outside of the twenty-mile radius came as often as they possibly could.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반경 20 마일 안에 사는 남자 성인(成人)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삼대 절기 중의 하나였다. 일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20 마일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 성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보여야 하였다. 20 마일 밖에 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주 그 절기에 참석하면 되었다.

Josephus tells us that there were millions of people that would often gather during these feasts in Jerusalem. The city would overflow with the pilgrims that would come. The feast of passover which is in the first month of the Jewish calendar, beginning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The feast of Pentecost that was fifty days after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ich was at the end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They would count fifty days to the feast of Pentecost or the feast of first fruits. And then the third major feast was the feast of tabernacles.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는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곤 했다고 한다. 그 도시가 온통 순례객들로 붐비곤 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 월 14 일에 시작되는 절기였다. 오순절은 유월절 축제가 끝날 무렵 시작되는 무교절 이후 50 일 동안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50 일 간이나 오순절 즉 초실절을 지키곤 했다. 그런 다음에 오는 주요 3 대 절기의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었다.

And now the feast of tabernacles is coming up. Now this is the final year of the ministry of Jesus. In fact, the feast of tabernacles is here taking place just about six months before Jesus is to be crucified. So as we come into the seventh chapter, we are entering into the last six months of the ministry of Jesus prior to His crucifixion. 그런데 이제 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때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해였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대략 6 개월 전에 시작된 절기였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 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 개월 간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다.

His brothers [that is, the half brothers, the sons of Mary and Joseph who still at this point did not believe His claims] *said unto him, Depart from here, and go into Judaea, that your disciples also may see the works that you do (7:3).*

Go on down to Jerusalem, to the feast. Do Your miracle things down there so that Your disciples who are down there might see them also.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절기에 참석하소서. 거기 가서서 기적을 행함으로 거기에 거하는 당신의 제자들도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소서.

For there is no man that does these things in secret, who seeks to be known openly. If you do these things, show yourself to the world (7:4).

They are suggesting that Jesus go down there and demonstrate His powers. Let them see it because if You're wanting to be known, You don't hide in a corner. You do things out in the open. But John tells us, 그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분의 권능을 현시(顯示)해 보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께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로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소서. 시골구석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For neither did his brethren believe in him. Then Jesus said unto them, My time is not yet come: but your time is always ready (7:5,6).

Throughout John, Jesus is referring to the hour has not yet come and to the time that has been appointed. But here this is not the same Greek word. Jesus knew that the hour of His being offered as a sacrifice for sin was established and set by God. And His hour of being revealed as the Messiah to the nation, that was a time, a set time appointed by God. And as we have pointed out in going through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those of Daniel chapter nine, where Daniel tells the very day the Messiah will come. From the time the commandment goes forth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 Prince will be seven sevens, and sixty-two sevens (Daniel 9:25), or 483 years. Time had not yet come. The word is hora, from which we get our word hour. It's h-o-r-a in the Greek. We get our word, hour from that. The hour has not yet come.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 지정된 그 시간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동일한 희랍어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 제물로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이 메시아로 세상에 알려질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죽 살피는 동안 주목하였듯이, 다니엘 9 장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날 날에 대해 말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날부터 임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7 주와 62 주가(단 9:25) 즉 483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다. 그 시간을 가리키는 희랍어 hora 는 오늘날의 영어 hour(시간)가 유래된 단어이다. 그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This particular word here is kairos, and it isn't an appropriate time. He's not saying that He's not going to go down to Jerusalem but you go ahead and go. You go ahead. But it isn't an opportune or appropriate time for Me right now. He will be coming a little later. He will be coming after the feast is already in progress. But He won't be going down in advance. He said, 여기 요한복음에서 특수하게 쓰인 단어는 kairos 인데, 적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가라 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가라. 하지만 내가 지금 가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아니로구나. 그분은 약간 늦게 가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분은 절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가시겠다는 의미였다. 미리 내려가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The world cannot hate you (7:7);

He recognized that there was this smoldering hatred for Him in Jerusalem going back to the healing of this man at the pool of Bethesda. He realized that this was still smoldering and that they hated Him. And so He said, The world cannot hate you,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증오가 들끓는 것은 베테스다 연못에서 한 사람을 고쳐준 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아직도 그들은 자신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는 않을 것이다.

but it does hate me, because I testify of it, that the works thereof are evil (7:7).

Things haven't changed. The world still hates Jesus today because He testifies against the works that they are evil. People don't want to be rebuked for sin. They want their sin to be accepted. They want you to be tolerant of their evil. They want to sin with no rebuke whatsoever. And Jesus said, It hates me because I testify. I tell them that their works are evil. They didn't like that. And so,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 세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증오한다. 그분이 악한 일들에 대해 나쁘다고 증거 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악을 눈감아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꾸짖는 자가 없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You go up to the feast: I'm not going up yet unto this feast: for my time [again kairos] is not yet full come (7:8).

The opportune moment. 여기서 말하는 ‘때’는 적절한 시각을 말하는 것이다.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unto them, he stayed still in Galilee. But when his brethren were gone up, then went he also up unto the feast, not openly, but as it were in secret (7:9,10).

Sort of slipped in without any fanfare into the city. 말하자면, 화려한 광파르 없이 그 도성으로 조용히 들어가신 것이다.

Then the Jews sought him at the feast, and they said, Where is he? And there was much murmuring among the people concerning him: for some said, He is a good man: others said, No; he deceives the people. Howbeit no man spoke openly of him because of the fear of the Jews (7:11-13).

The Jews had already determined that if any person claim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d be put out of the temple. They wouldn't be able to worship in the temple if they claim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Interesting that to the present day, if a Jew claims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y are not considered a Jew. They will not allow a Jew to immigrate to Israel who claims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y won't allow them what they call the Alyah, the immigration into Israel. Though they may have Jewish mother, Jewish father, all the way back. They say, No, you're not a Jew if you believe Jesus is the Messiah. You can't become a citizen of Israel. And so things haven't changed that much in 2,000 years. Here they had established, if anybody said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temple.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성전에서 쫓아내리라고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까지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위 ‘알랴’(이스라엘로의 이주)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2,000 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성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There was a lot of whispering kind of thing going on concerning Jesus. Some saying, He's a good man. And others saying, Oh no, He's a deceiver. Interesting, isn't it, how that people have to be opinionated concerning Jesus. You can't be neutral. He made too many radical claims that completely removed any attempt at neutrality concerning Him. His claims were so radical that He was the Son of God, that He was sent by God. That He was the only way by which a man could come to God. That He wa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if you believed on Him, you would never die. Radical claims that do not allow any neutrality concerning Him. You either believe or you don't. 예수에 대해서는 갖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니, 흥미롭지 않은가. 여러분은 중간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 그분은 급진적인 주장을 너무도 많이 하셨으므로, 그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그 어떤 의도도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분의 주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자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도 말씀하셨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고도 주장하셨다. 그런 과격한 주장들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께 대해 결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 그분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

He was either a good man or He was a deceiver. He can't be both. He was either the Son of God or He wasn't the Son of God. He can't be both. And so there was a division as there always is concerning Jesus. And today the world is divided in their opinions concerning Jesus. And tonight, all of us have an opinion concerning Jesus. We're not neutral. We either believe that He is the Son of God, the Savior of the world or you have to believe that He is a fraud, a deceiver.

You're with the crowd that says, Oh, no, He deceived the people. 그분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기꾼이었다. 둘 다가 될 수는 없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둘 다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늘 그래 왔지만, 그분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오늘밤 우리 모두도 예수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립지대에 설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그분이 험잡꾼이며 사기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였다고 말할 것이다.

You see, Jesus said, If you're not for Me, you're against Me. He didn't leave you any neutral ground. You can't say,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I haven't decided yet just what I do believe. No decision is a decision, No. It'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You can't be neutral concerning Jesus. And so there was the division. Some say He's a good man. Others said, No, He deceives the people.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중립지대를 허락지 않으셨다. 여러분은 나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결정은 긍정적인 것이 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되든지 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분쟁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인다고도 했다.

Now about the middle of the feast (7:14)

Jesus waited as the feast was now in progress, about the middle of the feast, 예수님은 절기가 많이 진척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절기가 절반쯤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He went up into the temple, and He began to teach. And the Jews marvelled, saying, How knoweth this man letters, having never learned (7:14,15)?

How does He know all of these things and He has never been to the schools or sat under the Rabbis? In Jerusalem, there were those appointed Rabbis and the students would come and they would learn by the Rabbis. But the Rabbis had a

very unique way of teaching. They would always quote the commentaries of other Rabbis. They would bring up an issue. Say that you're part of the Yeshiva. I'm a Rabbi. So I would bring up an issue of what constitutes bearing a burden on the sabbath day. I give it over to you and you have to start discussing among yourselves, Just what does constitute bearing a burden on the sabbath day?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셨을까? 그분은 학교에 가신 적도 없고 랍비 문하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랍비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들에게로 와서 배우곤 했다. 그 랍비들은 매우 독특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랍비가 가르친 말을 인용하곤 했다.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곤 했다. 여러분이 예시바(Yeshiva)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자. 나는 랍비라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던지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We know the law says that you're not to do any labor or to bear any burden on the sabbath. So what is a burden? If you have false teeth, would it be a burden to put your teeth in on the sabbath day? And so you start going through all the commentaries and you would study the commentaries. You'd say, Well, Rabbi Hallel says that, and Rabbi Shima says this. And you'd always be quoting the Rabbis. No one would speak with authority. They would only speak as they would quote what a different Rabbi had said. And that was the way they studied. That was the way they learned. The mind sharpening mind. Iron sharpens iron. 우리는 율법이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어떤 짐도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무엇이 짐이란 말인가? 여러분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안식일에 틀니를 끼는 것이 일이 된단 말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주석서를 뒤져가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씨름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랍비 힐렐은 이렇게 가르쳤고 랍비 시마는 저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은 언제나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랍비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는 한에서만 말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이 배우는 방식이었다. 이 사람의 이론이 저 사람의 이론을 더욱 날카롭게 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다.

They're amazed at Jesus. When He gave the sermon on the mount, they were amazed because He spoke not like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ho just were always quoting the other Rabbis, but he said, He speaks with authority. Now as He's teaching there in the temple, they're amazed. They know that He hasn't sat under any Rabbi. How is it that He knows the scriptures so well? How is it that He has all of these lear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How is it that He speaks with such authority concerning the word when He didn't sit under Gamaliel or any of the other Rabbis that happened to be in Jerusalem at that present time. Gamaliel being the most renowned of them all.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분의 산상보훈을 듣는 순간 참으로 놀랐다. 그분은 언제나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도 그들은 적지 않게 놀랐다. 그들은 그분이 어느 랍비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저가 어떻게 해서 성서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저가 어디서 이 모든 학식을 얻었으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서를 알게 된 것일까? 저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을 가말리엘이나 다른 랍비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데도, 말씀에 대해 어떻게 저런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였다.

Jesus answered them, and said, My doctrine is not mine, but his that sent me (7:16).

In other words, I haven't sat under any Rabbi. I've sat under the Father. He's the One who has taught Me. My doctrine isn't mine, but it is His who sent Me.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다: 나는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웠다. 그분께서 나를 가르치신 분이다. 나의 교리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If any man will do his will, he will know of the doctrine, whether it be of God, or whether I speak of myself (7:17).

If you really do the will of God, you'll know that what I'm telling you is from God. 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행한다면, 너희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He that speaks of himself speaks for his own glory: but he that seeks his glory that sent him, the same is true, and no unrighteousness is in him (7:18).

I speak with the authority of the Father who has taught Me or the things that I'm teaching. 나는 나를 가르치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내용은 그분이 가르쳐준 것이다.

Did not Moses give you the law, and yet none of you keepeth the law (7:19)?

What an accusation to the Pharisees who spent their lives endeavoring to keep the law. But listen to the honesty of Peter when they are trying to determine in a first church council of what obligation the Gentile believers had to the law of Moses, Peter said unto them, Why should we put on the Gentile believers, a yoke of bondage that neither we nor our fathers were able to bear (Acts 15:10)? Why should we put that on the Gentiles? So Peter confessed, We haven't been able to keep the law. Jesus is making this accusation of them. Did not Moses give you the law, yet none of you keep the law?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서 평생을 살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이 얼마나 참담한 비난이란 말인가? 하지만 교회사에 나오는 최초의 공회(公會)에서 베드로가 정직하게 말한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때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도 감당하지 못했던 짐을 우리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지워야 하는가(행 15:10)? 그런 짐을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는가? 여기서의 베드로 고백과 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소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So why are you going about to kill me (7:19)?

Jesus knew that there was this conspiracy. He had been avoiding the area of Judaea because of the conspiracy to kill Him because He had healed the man on the sabbath day. So He said, You don't keep the law, so why are you going about to kill Me? Their accusation was He violated the law of Moses. He healed on the sabbath day and told the man to carry his cot on the sabbath day. 예수께서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이 유대 지역을 기피하신 것은 자기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나를 잡아죽이려고 애쓰느냐? 그들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내용이었다. 안식일에 그분이 한 사람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명하셨다는 것이다.

The people answered and said, You have a devil [you're crazy]: who's going about to kill thee (7:20)?

They didn't know of the conspiracy of the religious leaders that He must be put to death. They didn't know of it. So when He says, Why are you going about to kill Me? They said, Who's trying to kill You? You're crazy.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 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당신은 미쳤나 봅니다 라고 응수했던 것이다.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I have done one work, and you all marvel (7:21).

That was the work of the healing of the man at the pool. 이것은 연못가에서 한 사람을 고친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Moses therefore gave unto you the law of circumcision; (not because it is of Moses, but of the fathers (7:22);)

That is, circumcision antedated Moses. The rite of circumcision was given to Abraham and it was the sign of the covenant that God had made with Abraham that God would make of him many nations and the covenant of the special nation through Isaac shall thy seed be called (Genesis 21:12). Circumcision was the sign of the covenant. It was not of Moses, it preceded Moses. It went actually back to Abraham, the fathers. 다시 말하면, 할례는 모세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다. 할례라는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셨으며, 그 특별한 나라의 씨는 이삭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다(창 21:12). 할례는 그런 언약의 징표였다. 그것은 모세 때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모세 이전에 주어진 의식(儀式)이었다. 사실상 그 기원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조상들에게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이었다.

and you on the sabbath day circumcise a man (7:22).

I've healed a man on the sabbath day. You've mutilated a man on the sabbath day in circumcision. 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할례를 한답시고 안식일에 사람의 양피를 베지 않느냐.

If a man on the sabbath day receive circumcision, that the law of Moses should not be broken (7:23);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it was on the eighth day that the male child was to be circumcised. And of course, many times the eighth day would fall on a sabbath day. But because the law of Moses was to circumcise on the eighth day, they went ahead on the sabbath day and would circumcise the male child. So if a man on the sabbath day receive circumcision, that the law of Moses should not be broken;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내아이는 생후 제 8일에 할례를 받아야 하였다. 물론 그 제 8일은 안식일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제 8일에 할례를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안식일에도 나아가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거늘,

are you angry at me, because I have made a man every whit whole on the sabbath day? Then said some of them of Jerusalem, Is not this he, whom they seek to kill (7:23,25)?

They began to realize, Yes, this is the One they've been talking about. They were going to kill Him. But Jesus said,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바로 이 사람이 저들이 늘 말하던 그이로구나. 저들은 이 사람을 죽이고자 찾고 있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Judge not according to the appearance (7:24),

When Samuel went down to the house of Jesse at the commandment of God to anoint one of the sons of Jesse to be the king over Israel, as Jesse brought in his sons the first, Eliab, handsome, good looking, strong, well-built and Samuel thought, Oh yes. Surely this is God's chosen. But God said to Samuel, Man looks on the outward appearance and God looks on the heart. Jesus is saying, Don't judge according to appearance. How many times we're judging according to

appearance. Wrong.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내려가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였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들였는데 장자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하고 건장하고 체격이 든든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 그렇구나. 분명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는지. 그것은 그릇된 태도다.

but judge righteous judgment. Then said some of them of Jerusalem, Is not this he, whom they seek to kill? But, look, he's speaking boldly, and they're not saying anything to him. Do the rulers know indeed that He is the very Messiah? Howbeit we know this man whence he is: when the Messiah comes, no man knows from whence he is (7:24-27).

They thought that the Messiah was just going to suddenly, miraculously appear. And even today they believe that concerning the Messiah, just one day he's going to appear on the scene, recognized by all to be the Messiah. And so the fact that they knew Him, they knew His mother and father, they knew Him from His boyhood in Nazareth, they were rejecting Him as being the Messiah. Maybe the rulers thinking, But we know Him, we know more than they do about Him. 사람들은 메시아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믿는다: 어느 날인가 그가 갑자기 무대에 등장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분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부모를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나사렛에서 자란 그분의 유년 시절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집권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

Then cried Jesus in the temple as he taught, saying, You both know me, and you know whence I am: and I am not come of myself, but he that sent me is true, whom you don't know (7:28).

Yes, you know Me. You know I'm from, I grew up in Nazareth. And you see, they had come for the feast. They were all there and neighbors from Nazareth, neighbors who had watched Him grow up, fellows that maybe grew up with Him. They had a difficult time accepting Him as the Messiah and Jesus said, Yes, you know Me. You know whence I am: but I've not come of myself, He that sent Me is true, whom you don't know. You don't know God.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나사렛 출신이며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무리였다. 그들은 나사렛으로부터 온 이웃들이었을 것이며 예수께서 성장하신 과정을 지켜보아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분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진실하신 분이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But I know him: for I am from him, and he has sent me (7:29).

Pretty radical. He's a good man or He's a deceiver. Is He deceiving them when He declares to them, I know the Father for I am from Him and He has sent Me? 참으로 과격한 언사이다. 그분은 선한 분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라고 그분이 선언하셨을 때 그분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을까?

Then they sought to take him: but no man laid hands on him, because his hour was not yet come (7:30).

Now we have the hora again, and this is referring to that precise hour that God had established for the offering of the sacrifice of His Son for sins. 여기서 다시 hora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정해 놓으신 시간을 가리킨다.

And many of the people believed on him, and said, When the Messiah comes, will he do more miracles than these which this man has done (7:31)?

Look at all of the miracles. Will the Messiah do more miracles than these? 이 모든 기적들을 보라. 메시아가 온다한들 이보다 더한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The Pharisees heard that the people were murmuring such things concerning him; and the Pharisees and the chief priests sent officers to arrest him. Then said Jesus unto them, Yet a little while am I with you, and then I shall go unto him that sent me (7:32,33).

Going to be with you for just a little while more. And then I'm going to go back to Him who sent Me. 나는 너희와 조금만 더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You will seek me, and you will not find me: and where I am, you cannot come (7:34).

I'm going. You're going to seek Me, you won't find Me. This He is saying to the people. To His disciples, you remember in the fourteenth chapter, He said,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ohn 14:1-3). 나는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4 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집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사실대로 일렸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들일 것이다. 그리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할 수 있게 할 것이다(요 14:1-3).

To these people He's saying, Where I'm going you can't come. To His disciples, He said, Where I'm going, I'm going to come and get you. I'll prepare a place for you and then I'll come and get you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와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한 다음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거하는 곳에서 너희도 거하게 될 것이다.

So the Jews said among themselves, Where's he going, that we can't find him? will he go to the dispersed among the Gentiles (7:35),

Is He going to head out from here, maybe go to Greece? And to the dispersed Jews that are in Rome and is He going to go out to the nations to preach to the dispersed? 아마도 저 분이 이곳으로부터 빠져나가 그리스로 가려나 보다. 아니면 로마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로 가려는가?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려는가?

What does He mean, Where I'm going, you cannot come (7:36)?

And then in the last day, that great day of the feast (7:37),

This would be the eighth day, the day of the holy convocation, the sabbath day, 이 날은 제 8 일 즉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이였다.

Jesus stood and cried, saying,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7:37).

He's talking about the deep spiritual thirst, universal thirst in the heart of every man for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Down deep inside we need God. Our lives cannot be whole or complete without God. 그분은 지금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적 갈증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하거나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Man exists on three levels: body, soul and spirit. He is an inferior trinity. Made in the image of God who is a superior trinity: Father, Son and Spirit. Man was created a spirit being. Living in a body, fleshly body, possessing a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spirit. And thus, man lived in conscious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God because the spirit was uppermost; spirit, soul, body. The body was subject unto the spirit. Man did not live controlled or dominated by the flesh but controlled and dominated by the spirit and thus lived in fellowship with God. 사람은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 몸, 혼, 영. 인간은 예컨대 삼위일체를 닮은 피조물인 것이다. 삼위일체 원조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이다. 육신적 몸 안에 사는 동안 사람은 의식(意識)을 유지한다. 의식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교제와 교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영이 가장 우월하고 다음이 혼과 몸의 순서이기 때문이다. 몸은 영에게 복종한다.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영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야만 살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수가 있다.

It was through the fall when man obeying the body appetites,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because of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 and the pride of life. For that fruit was delicious, it was beautiful to look upon. And it was desired to make him as wise as God. And yielding to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 man became dominated by the flesh. The spirit died. God said, In the day you eat it, you'll surely die (Genesis 2:17). His spirit died, he lost that consciousness of God's presence. As his body was now mastered by his fleshly desires. And he began to live and walk after the flesh. Dead in his trespasses and sins. Alienated from God. Without God and without hope and without Christ in this world. 인간이 몸의 욕구에 복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는 타락하게 되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때문이었다. 그 열매는 달콤했으며 보기에 아름다웠다. 너무 탐스러워서 사람을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의 영은 죽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니라(창 2:17). 그리하여 그의 영은 죽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몸은 육신의 소욕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는 육신을 좇아 살며 거동하기 시작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도 없게 되었다.

The mind of man now dominated by the fleshly desires and the fleshly needs. This is the state of common man today. He lives for the flesh and to fulfill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his mind. He is controlled by Satan, alienated from God. Not subject to the laws of God because the flesh rules. 이제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육신적 필요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는 육신을 위하여 살고 육신 및 그의 지성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육신이 다스리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었다.

As the result, he is dead to God and the things of God and alienated from fellowship. But down deep inside, man needs God and longs for God. David said,

As the deer pants after the water brooks, so pant my soul after Thee, O God (Psalm 42:1). I thirst for the living God and such is true of every man. There is that thirst for God.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죽고 그분과의 교제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동경하게 된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나이다(시 42:1).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다.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바로 그런 것이다.

Man is trying to satisfy that thirst with physical things. Madison Avenue recognizes that and they are selling people a bill of goods with the subtle promise that, Hey, this is what you need to really be happy. This will satisfy you. This will bring you that fulfillment that you're longing for and looking for. And they're constantly holding up little bubbles. And men are trading eternal life for glass beads.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을 찾아 구하며 그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메디슨 애비뉴(Madison Avenue)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팔았던 것이다: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동경하고 바라던 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뜯구름 같은 것들을 제시할 것이다. 사람들은 영생을 유리 구슬하고 바꾸고 있다.

Man tries to fill that spiritual thirst for God with emotional experiences. Pleasuremania. Where a person goes their emotions wrung out for a couple of hours at a football game or a baseball game or a basketball game. But all of these things at best only give a temporary kind of respite from the thirst. He's not aware of it for the moment that he's engaged in the activity but quickly the activity is over, quickly the thrill of a new possession fades and the thirst is still there. The thirst goes on. Because only God can satisfy that deep inner need in each of our lives for God. There's no substitute for a relationship with God. 인간은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증을 씻어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미친 듯이 쾌락을 좇는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게임을 즐기면서 서너 시간 감정을 달랠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그런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신속히 끝이 날 것이며 새로운 것을 소유한 감각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갈증은 풀리지 않고 남게 될 것이다. 그 갈증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And Jesus, talking to them concerning this deep spiritual thirst, that thirst for God, that need for God, says to them, Come to me and drink. Jesus is here claiming to be God once again. You need God, you're thirsting for God, come to Me. I can satisfy that need for God. I can satisfy that thirst for God that is deep down inside your being. Come to Me and drink for, 예수께서는 이런 깊은 영적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 내게로 오라.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내가 충족시켜주겠다. 너희의 존재 깊은 곳에 내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내가 풀어주겠노라. 내게로 와서 마시며, 그런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라.

He that believeth on me [Jesus said], as the scripture has said, 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7:38).

Jesus perhaps is referring to Isaiah 44:3, For I will pour water upon him that is thirsty, floods upon the dry ground: I will pour my spirit upon thy seed, and my blessing upon thine offspring. Or perhaps Isaiah 58:11, And the LORD shall guide thee continually, and satisfy thy soul in drought, and make fat thy bones: and thou shalt be like a watered garden, and like a spring of water, whose waters fail not. He that believeth on me, as the scripture sayeth, out of his innermost being there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예수님께서 나는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아마도 이사야 44:3에 대해 언급하신 듯하다.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니면 아마도 이사야 58:11을 가리킨 말씀일 것이다. “나 여호와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Thirsty for God? God will not only satisfy that thirst. He'll not only fill that emptiness but He'll overflow it. The life of the Spirit is an overflowing life. Man who is going around constantly with his clamant cry and thirst not only finds full satisfaction in Jesus Christ but finds that there is a surplus. It overflows. It's like a well of living water, He said to the woman of Samaria, that is springing up within. And you'll never thirst again. Satisfaction. Complete satisfaction in Jesus Christ.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갈증을 풀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그런 공허를 단순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넘쳐흐르도록 하신다. 성령의 생명은 넘쳐흐르는 생명이다. 끊임없이 그런 절박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찾을 뿐 아니라 그런 후에도 남을 정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생명 샘과도 같다 하겠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말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Again, radical claims. He's a good man or He's deceiving the people. John wrote the gospel some fifty years after this event. Writing now with the years of experience, though at the moment he did not understand what Jesus was referring to. Once the Holy Spirit was given, which Jesus had promised to the disciples, then John realized, He was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It was through the receiving of the Holy Spirit, through his baptism of the Spirit, through this coming upon or the overflowing of the Spirit that John realized He was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여기서 다시 과격한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분은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0 년 후였다. 비록 그 사건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언급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해 보고 나니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지자, 요한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성령에 대한 것이었구나. 그분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였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였다. 성령의 강림과 넘쳐흐름을 통해서였다.

What was He saying concerning it? It would be like a river of living water flowing forth, gushing forth out of your life. 그분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너희의 생명으로부터 솟구치는,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과 같을 것이다.

(This spake he of the Spirit, which was not yet; because Jesus was not yet glorified.) Many people therefore,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said, Of a truth this is the Prophet (7:39,40).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요 7:39,40).

That is, the prophet that Moses had predicted. And there shall arise another prophet like unto myself; and to Him you shall give heed (Deuteronomy 18:15), one of the prophecies concerning the Messiah given by Moses. And when they heard Jesus say this, they were some of them said, This is the Prophet. They had this question before, Could this be the very Christ or the Messiah? This is the Prophet. 이는 곧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신 18:15). 이것은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 한 예언들 중의 하나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들 중 더러는 이 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아도 진작부터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렇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시구나.

Others said, This is the Messiah. But some said, Shall the Messiah come out of Galilee? Hath not the scripture said, That the Messiah will come from the seed of David, and out of the town of Bethlehem, where David was? So there was a division among the people because of him (7:41-43).

Notice those who took the anti side, those who said He deceives the people were basing their statement upon incomplete and false information. Jesus was of the seed of David. Both Mary and Joseph were descendants of David. He was of

the seed of David and He was born in Bethlehem. They didn't know that. They didn't have full information and they were making judgment upon incomplete information which is a mistake that a lot of people make.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거짓된 정보에 기초하여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었다.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윗의 자손이었다. 예수는 다윗의 후사였으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저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이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today who are making judgments concerning Jesus Christ on false information or incomplete information. Isn't it tragic that a person is making a judgment concerning Jesus Christ that is going to determine that person's eternal welfare and yet they don't have enough sense to study the thing out and see if these things be so. Jesus said, You do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in them you think you have life: but they are they which testify of Me. And you won't come to Me, that you might have life (John 5:39,40). But there are people today that aren't even searching the scriptures to see if these things be so.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판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영구적인 운명이 좌우될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가릴 만한 분별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39,40). 오늘날에도,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다.

When Paul went to Berea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m, they were more noble than those of Thessalonica because they went and they searched the scriptures to see if what Paul was saying is true. They found out it was. Certainly it is not wise to make a judgment until you have all of the facts available to you. Yet so many people are guilty, as were these people, thinking they knew the facts. We knew this man from whence He is. They don't know Him. We know him

from whence; no, you don't know Him. You think you know because you saw Him growing up in Nazareth. You assume He was born in Nazareth. You assume that He's from maybe the tribe of Naphtali or Manasseh, or one of those in the northern area. But no, He is of the tribe of Judah. He is a descendant of David and He was born in Bethlehem. And so division among the people because of Him, and that's always true.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가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살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자기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양 착각하여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분이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있다고? 천만에 여러분은 그분을 잘 모른다. 여러분은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그분을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분이 납달리나 므낫세 지파, 아니면 북쪽의 어느 한 지파 출신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분은 유다 지파 출신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놓고 사람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실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 왔다.

Jesus said, Don't think that I've come to bring peace. I've come to bring a sword. I'm going to divide families. There will be a mother divided against her daughter and a son against the father because the division comes in believing or not believing in Jesus. And oftentimes it brings division within families. And of course, He's talking to the Jews and when a Jewish person would accept Jesus, it would bring a great division within the family to the extent that oftentimes, the family would completely ostracize the member of the family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even hold funeral services and consider them as dead and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There was a division. There's always a division.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칼을 주려고 왔노라. 나는 가족에게 분란을 가져다줄 것이다. 어머니가 딸과 나뉠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와 나뉠 것인데, 그런 분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그로 인해 종종 가정에 불화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그분은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다. 어떤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안에는 큰 분란이 발생하게 되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식구를 전적으로 소외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심지어는 그런 식구들의 장례식을 지낸 뒤 그들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며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분란이, 언제나 분쟁이 발생했던 것이다.

And tonight there is a division. There are those of you that believe that He was a deceiver and those of us who believe that He was more than a good man, He was the Son of God who was sent by God to save us from our sins. And we believe on Him and we have receive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nd we enjoy this blessed overflowing life that comes from Him and believing in Him. 오늘밤에도 분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분을 사기꾼이라고 믿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분을 선한 사람 이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 넘쳐흐르는 생명을 축복으로 받았으며 그분께 대한 믿음을 향유하고 있다.

*Some of them would have arrested him; but no man laid hands on him (7:44).
Then came the officers to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7:45);*

That is, the officers that were sent out to arrest Jesus. They came back empty handed. 다시 말하면, 그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냄을 받았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and they said unto them, Why have you not brought him (7:45)?

Why didn't you arrest Him? 왜 그를 체포하지 않고 돌아왔느냐?

The officers answered, Never a man spake like this man (7:46).

They were entranced with the words of Jesus. He speaks not as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He speaks with authority. Never has a man spoken like this man.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혹이 되었다. 그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Then answered the Pharisees and they said, Are you also deceived (7:47)?

They were saying He deceives the people. Are you also deceived?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 너희도 속았단 말이냐?

Have any of the rulers or of the Pharisees believed on him (7:48)?

Oh yes, yes, some of them have. We are told that many of the rulers and the priests believed on Him but they did it secretly because they didn't want to lose their position in the council. And one of them who was sitting there had co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is come from God: because no man can do the thing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John 3:2). And Jesus taught him the way to be born again by believing in Jesus. Nicodemus. And so they said, Have any of the rulers or the Pharisees believed on Him?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들 중 몇몇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중 여러 사람이 그분을 믿고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싶어서였다. 그들 중의 한 사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한 사람이 밤에 예수께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이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 3:2). 예수께서는 그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셨다. 그는 니고데모였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라고 말했던 것이다.

But this people who do not know the law are cursed (7:49).

Looking down upon the people from a religious throne. This is what Jesus came to abolish. The establishment of spiritual hierarchy. Jesus came to open the door for every one of us to be able to come to God directly. He is the mediator, He is the go-between. He alone is the go-between between you and God. No one else.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Him (John 14:6).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I can't go on your behalf. You have just as much right as access to the Father as I do. I go to Him through Jesus Christ. You must come to Him through Jesus Christ and through Jesus Christ, we both have equal access unto the Father. These religious people looked down. There is a religious snobbery here. And they say

concerning those that aren't a part of their little elite group that they were cursed. They don't know the law. 이는 종교적인 보좌에 앉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바로 이런 것을 없애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관료화된 영적 계급주의 말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중보자이며 중재자이시다. 그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할 수가 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요 14:6).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딤펴전 2:5). 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갈 수는 없다. 여러분에게도 나와 꼭 같이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남을 경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속물근성인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소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다.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무시를 했다.

Nicodemus said unto them, (the one that came to Jesus by night, who was one of the religious leaders,) Does our law judge any man, before it hears him, and knows what he is doing (7:50,51)?

He's bringing up a point of law here. They were guilty of violating the law. You could not judge a man until he had first had his say. They have made judgments of Him. They had not given Him an opportunity to answer their issues or their questions. And thus Nicodemus is bringing up a point of order, point of law. Does our law judge a man, before it hears him, or knows what he is doing? 니고데모는 여기서 율법을 인용하며 논쟁하고 있었다. 저들은 율법을 범한 죄가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렸다. 그들은 그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질서의 문제, 법적인 하자가 있음을 거론했던 것이다.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기 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느냐?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Are you also of Galilee (7:52)?

It was a very cutting kind of a thing. 이것은 매우 신랄한 조롱이다.

Search, and look: for out of Galilee arises no prophet (7:52).

That's not correct, either. But that was their statement.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꾸며낸 말일뿐이다.

And every man went unto his own house (7:53).

Meeting broke up divided. 모임은 해산되었다.

Now we move into chapter eight and that's for next week. We encourage you to study it this week. A lot of interesting things and we see the controversy really developing between Jesus and the Jews, as we move on into chapter eight. 이제 우리는 8 장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음주에 상고하도록 하겠다. 금주에 미리 공부를 해두기를 바란다. 이제 8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흥미진진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점입가경의 논쟁을 살피게 될 것이다.

We pray that the Lord will be with you, bless and keep you in His love, draw you close to Himself. If you are here tonight and you have not received Jesus as your Savior, but you're aware that something's missing in your life. You've been trying to fill that void with maybe physical things or emotional experiences and there's still an emptiness. I would highly recommend that as Jesus said, Just come to Him. For He, He said,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ys, out of his innermost being, there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You can know what it is to have an overflowing cup. He is either a good man, the Son of God, or a deceiver. He can't be both. You are either a believer or a non-believer, you can't be both. But to believe in Him is to have eternal life. I would encourage that.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이 만일 아직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내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공허를 물리적인 것들과 감정적인

경험으로 채우려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넘쳐흐르는 잔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자가 되든지 불신자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니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택하라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John 8

John 8
Tape #8076
By Chuck Smith

Let's turn now in our Bibles to John's gospel chapter eight as we continue our journey through the Bible. 성경 전체를 두루 섭렵하는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며 이제 요한복음 8 장으로 넘어가 보자.

The seventh chapter ended at the end of the last day of the feast of tabernacles. That great day of the feast. And as the chapter ends, it ends with these words, "And every man went unto his own house" (John 7:53). The feast is over, the day is over, every man went to his own house. But in chapter eight it said, 7 장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끝나는 것과 함께 끝났다. 그 날은 절기의 큰 날이었다. 그 장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요 7:53). 절기가 끝나고 그 날도 끝났으니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8 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Jesus went unto the mount of Olives (8:1).

Every man went into his own house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It sort of goes back to the words of Jesus where He said, "The birds of the air have their nests, the foxes have their holes; but the Son of man has not where to lay His head" (Matthew 8:20). They went to their houses,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No doubt to spend the night there on the mount of Olives in a garden area that He was used to going to with His disciples, a place where they usually spent the night. And we find that six months later, He will again be going into that area in the mount of Olives where He will finally be arrested and Judas will betray Him. Judas knew the place that Jesus was accustomed to going there on the mount of Olives. So it's sort of poignant kind of a, Every man went to his own house and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예수님은 감람 산으로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 다들 자기 집으로 갔으나 예수님은 감람 산으로 가셨다. 분명히 감람 산 숲속에서 밤을 지내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곳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밤을 지내곤 하시던 곳이다. 6 개월 후에 유다가 배반했을 때 그분은 동일한 장소로 가셔서 계시다가 결국은 체포되시고 만다. 유다는 예수님이 늘 가던 그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구절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예수님은 감람 산으로 가셨다.

And early in the morning he came again into the temple, and all the people came unto him;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m (8:2).

Yesterday the last day of the feast, we find Jesus stood and cried saying,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John 7:37). Now He is sitting down and teaching. He is assuming now the position of a Rabbi and as we have shared with you, in that time and culture, the teachers sat and the pupils stood. And so when Jesus is sitting, He is now in the position of the Rabbi, the teacher, He is sitting to teach the people. 어제 즉 절기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서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그런데 이제는 앉으셔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분은 지금 랍비의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당시의 문화대로 하면 선생들은 앉고 학생들은 서는 게 관례였다. 따라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랍비 즉 선생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뜻이다.

When a person is heralding a truth, they would stand to herald the truth. And so when Jesus was proclaiming the way of salvation, when He was proclaiming the Gospel, a herald of the Gospel, Jesus stood and He crie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Now He's going to teach and thus, He sits there in the temple and the people have gathered to listen to Him. And as He is teaching the people, suddenly there is a commotion, 어떤 사람이 진실을 고지할 때, 그는 서서 그 진실을 선포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복음의 전령이 되실 때도, 그분은 서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그분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려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동안에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다.

As the scribes and Pharisees brought unto him a woman taken in adultery; and when they had set her in the midst, They said unto him, Master, this woman was taken in adultery, in the very act. Now Moses in the law commanded us, that such should be stoned: but what do you say? This they said, tempting him, that they might have to accuse him (8:3-6).

Early in the morning He's teaching. The scribes and Pharisees have caught a woman in the very act of adultery. Probably had spent the night with a man. And now they come dragging her to Jesus. She is probably defiant, rebellious, screaming, quite a commotion. They set her in the midst and they said, We caught this woman, very act of adultery. Moses law said we are to stone her. What do you say? But John is careful to point out, They're trying to catch Jesus. 그분이 가르치시던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들어 왔다. 아마도 한 남자와 밤을 지낸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올 동안, 그녀는 반항하고 도전하고 소리치려고 하면서 난동을 피웠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가운데 세우고 말했다: 우리가 이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 말씀하겠나이까? 그런데 필자 요한은 용의주도하여 이런 언급을 빼놓지 않고 있다: 저들은 예수를 책잡으려 하는 중이더라.

They knew that Jesus was full of grace and truth. And they're trying to put Him at conflict with the Mosaic law.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the law came from God through Moses. And as John said in the first chapter, the law came by Moses and grace and truth by Jesus Christ. And so they're trying to put Him at odds with the Mosaic law. Not only that, the Roman law. The Romans had taken from the Jews the power of capital punishment and only Rome could give the death sentence to a person. 그들은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모세의 율법과 대치시키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요한도 1장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예수를 모세의 율법과 대질(對質)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하여금 로마 법에도 대항하게끔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로마인만이 사람에게 극형을 언도할 수가 있었다.

If Jesus now advocates stoning her, then they will go to the Roman authorities and put Jesus as a rebel to the Roman authority. So they feel that they have Him pretty well trapped in this situation. He can't say, Well, be gracious and merciful, because then they'd say, He is at odds with the Mosaic law; and He can't say, Stone her, because then He would be at odds with the Roman law. 이제 만일 예수가 그녀를 돌로 치는 일을 옹호한다면, 저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를 로마 권위에 도전하는 놈으로 고발할 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참 잘 엮어 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게,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저들은 그분을 모세의 율법에다 고소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저들은 예수를 로마 법에다 고소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So Jesus stooped down, and with his finger wrote on the ground (8:6),

Some of the old manuscripts read, 몇몇 오래된 사본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

as though He heard them not (8:6).

Just sort of ignored them. Just started writing on the ground. So they persisted. They weren't going to let Him get off the hook. 저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예수님은 뭔가를 땅에다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즐라냈다. 절대로 예수님을 풀어놓아줄 태세가 아니었다.

So they continued asking him, and so he lifted up himself, and said unto them,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cast the first stone at her (8:7).

That "without sin" is sort of "who has never sinned" among you, let him cast the first stone. "죄 없는 자"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얘기다.

And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8:8).

This word “to write” in Greek is “graphin” and this is the word, “kato graphin.” The word “kato” is down, or to cast down. So it has given rise to the theory that what He is writing is incriminations against them. He is recording perhaps there in the dirt their sins. He had just said,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cast the first stone.” And then as He began to “kato graphin,” to write down, to make note of, to make a record of, from the oldest to the youngest they began to excuse themselves and leave. Probably as He was writing, first of all, their name and then starting to list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have been doing lately, they remembered other obligations that they had and they left. One by one, until they were all gone. “쓰다”라는 단어는 희랍어로 “그라핀”인데 여기서서는 “카토 그라핀”으로 사용되었다. “카토”라는 말은 아래로 또는 내던지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죄를 열거하며 땅에다 기록하고 계셨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거기 땅에다 저들의 죄를 적고 계셨을 것이다. 그분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카토 그라핀” 하기 시작하셨다. 즉 땅에다 쓰기 시작하셨다. 기록을 하신 것이다. 그러자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책감이 생겨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분이 기록하시기 시작한 내용은 아마도 우선 저들의 이름일 것이며, 다음으로는 저들이 최근에 행한 일들 중 몇 가지였을 것이다. 저들이 등한시했던 의무들도 지적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자 하나하나 다 가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

And they which heard it, being convicted by their own conscience (8:9),

It was probably related to their sins. They were convicted by their own conscience, 이 기록의 내용은 아마도 저들의 죄와 관련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they went out one by one, beginning at the eldest, even unto the last: and Jesus was left alone, and the woman standing in the midst. When Jesus had lifted up himself, and saw none but the woman, he said unto her, Woman, where are your accusers? hath no man condemned thee (8:9,10)?

I imagine there was a bit of humor in that, What happened to them? Doesn't anybody condemn you?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약간의 해학이 들어 있는 듯하다: 저들이 왜 저러느냐? 이제 너를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나?

She said, No man, Lord. And Jesus said unto her, Neither do I: go thy way, sin no more (8:11).

There was only one person in that whole crowd who was qualified to cast a stone and He refused to do it. There was only one who was sinless among them.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정작 그분은 돌 던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This goes back to the conversation that Jesus had with Nicodemus in the third chapter of John's gospel, where Jesus said,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And he that believeth is not condemned: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seeing he has not believed i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light ca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They would not come to the light, knowing that the light would expose them” (John 3:17-20). 이것은 요한복음 3 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상기시킨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17-20).

So here were men who came to the light and they were exposed. They left. Only the woman was left. I believe that there was a total change in her attitude. I believe that she came in screaming, scratching, kicking. But as the accusers began to leave, she was moved by Jesus. And when He said, “Where are your accusers? Doesn't anyone condemn you?” She said, “No man, Lord.” I think that there was that total change of her attitude; the rebellion was gone, the anger was gone, the flash in the eye was gone and I think there were tears in her eyes as she looked at the Man of compassion, full of grace and truth, and to hear His words,

“Neither do I condemn thee.” 여기 빛으로 다가와 자신들의 그 행위가 드러난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가 버렸다. 오직 그 여인만 남았다. 그러자 그녀의 행동이 180도 변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녀가 끌려올 때는 소리지르며 활쭈며 밧길질 하며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고소자들이 떠나가고 난 후 그녀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녀의 태도가 전적으로 바뀐 것이다. 반항도 하지 않고 분노도 사라지고 눈도 흘기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인자하신 분을 쳐다보는 순간 아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말이다.

Jesus said that He didn't come to condemn but to save. “The Son of man i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Here was one that He was going to die for. Here is one that He came to save. And thus, this beautiful picture.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그분은 바로 이런 여자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런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There are some who say that this does not belong in the Bible. There are a couple of older texts, mainly the Codex Sinaiticus in which this particular account is absent. And thus, Wescott and Hort who compiled a Greek New Testament from which translations are made, decided to leave it out of the text at this point. They did put it in at the end of the gospel of John as sort of an appendage. And some of the modern translations put it in brackets and an explanation of the fact that in some of the older manuscripts, it doesn't exist. They usually say some of the best manuscripts. But I would challenge that the Codex Sinaiticus was a good manuscript. I think it's a very poor manuscript. And I think that's why it has survived. No one wanted to read it because it was poor. So the others that were good manuscripts were worn out and this one remain.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기사가 원래의 성경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특이한 기사가 빠져 있는 고대 사본이 몇 개 있다. 주로 시내 산 사본들이 그렇다. 따라서, 희랍어 신약 역본을 편집한 웨스코트와 호르트는 이 기사를 성서 본문에서 제외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이 기사를 요한복음 말미에다 부록으로 붙여두었다. 몇몇 현대 역본들은 이 얘기를 괄호 속에 묶은 뒤 몇몇 고대 사본에는 이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달아 놓았다.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아주 양호한 사본들 속에는 대체로 이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감히 말하는데, 시내 산 사본은 양호한 사본이다. 한편 나는 이 사본이 매우 조악한 사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본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악한 사본이므로 이것을 읽고 싶어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다른 사본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많은 이들이 읽어 닳아 버렸지만, 이 사본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But there is a man who is much more of a scholar than I would ever hope to be, specially in the realm of the original text, Dean Burgon from England who wrote what he called the apostrophe of John in which he gives very strong, powerful arguments for the inclusion of this in the text where it is in the text and shows that the text would be incomplete without it. 그러나 나는 그 사람처럼 될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특히 원문 비평 분야에 그런 사람이 있다. 영국 출신의 딘 버곤이다. 그는 스스로 ‘요한복음의 아포스트로피’라 칭한 글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이 본문 기사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얘기가 빠지면 성경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 personally feel that it is a part and surely it is in the majority text, the Textus Receptus (???) and all, it is there because the majority of the text include this story in place. 나는 이 기사가 성서의 일부이며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레셉투스 본문 등 모든 주요 사본에는 이 기사가 들어 있다.

Then said Jesus again unto them (8:12),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who brought the woman, they've left. The people are still there. And “Jesus spoke again unto them,” 이 여인을 붙들어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떠나버렸으나 군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셨다.”

saying,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8:12).

Jesus has come to bring light into the world that is dark by the result of sin. Light illuminates. Men will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it exposes. “This is the condemnation,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And so again, the affirmation and it’s interesting that it is again related to not condemning.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Neither do I condemn the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didn’t come to condemn but to bring light. An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빛이 비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정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온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John in writing his first epistle said,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and have touched” (1 John 1:1). He came and John speaks about how that “if we walk then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But he that saith he is in the light and walks in darkness, lies, and does not the truth: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have fellowship,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cleansing us from all sin” (1 John 1:6,7). So here Jesus and John is no doubt remembering these words of Jesus when He sai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So a man and often men say, I’m in the light or I’m walking in the light. And yet, they are living in darkness. Their lives are still fraught with sin, darkness. You say you have fellowship with God but John said, You lie, you really do not.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이어서 그는 이렇게도 말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6,7). 그러므로 본문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는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또는 “나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은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와 어둠에 싸여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 한다고 말하나, 요한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나니.”

The Pharisees (8:13)

Who were still there from the, not the ones that brought the woman to arrest her, but “the Pharisees” 이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던 자들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바리새인들이”

therefore said unto him, You are bearing record of yourself; your record is not true (8:13).

Back in the fifth chapter, verse thirty-one, you remember that Jesus said, “If I bear record of Myself, My record is not true.” He is saying what they would say if He bore record of Himself. And so He said, My Father bears record of Me, John bore record of Me, the works bear record of Me, and He told of all of the witnesses that He had who bore record of Him. Now He declare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ey immediately pounds on that and they said, You’re testifying for Yourself, and thus we reject it. That’s basically what He was saying back in John 5:31, If I would testify, you would reject it. You’d say, You’re testifying for Yourself. 5 장 31 절로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분은 여기서,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다. 그런 고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고, 요한이 나에게 대해 증거하고, 나의 한 일이 나에게 대해 증거 한다. 그분은 자기에 대해 증거 하는 모든 증인들을 열거하셨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문제 삼아 심한 반격에 나섰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증거 하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그분이 요한복음 5 장 31 에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내가 증거하면 너희는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So here Jesus then defends it,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반응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신다.

He said, Though I bear record of myself, yet my record is true: for I know from whence I came, and whither I go; but you cannot tell whence I come, and whither I go (8:14).

I know who I am. And I know where I've come from. I know where I'm going, you don't.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갈 지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것들을 모른다.

You judge after the flesh; I judge no man. And yet if I judge, my judgment is true: for I am not alone, but I and the Father that sent me (8:15,16).

So there's another who bears witness with Me. Yes, I've born witness of Myself. But there's another who bears witness with Me, My Father. 따라서 여기 나에게 대한 증인이 또 한 명 있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 해 왔다. 그러나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는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It is also written in your law, that the testimony of two men is true (8:17).

There is the confirmation to My witness and that is My Father. 나에게 대한 증거를 확정하는 이가 계시니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I am one that bear witness of myself, and the Father that sent me He bears witness of me. Then said they unto him, Where is your Father (8:18,19)?

This is one of the many questions that we have in this chapter, Where is Your Father? In other words, Alright, You say Your Father bears witness, show us. Produce Your Father, where is Your Father? 이것은 이 장에서 등장하는 여러 질문들 중의 하나다: 너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하면, 오냐 네 아버지가 증거 하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 다오. 너의 아버지를 모셔와라. 그분이 어디 계시냐?

Jesus answered, You neither know me, nor my Father: if you had known me, you sh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8:19).

Where is Your Father? Produce Him. He said, You don't know Me, if you know Me, you know My Father. You remember in the fourteenth chapter of John, which we will be coming to, Philip said, Show us the Father, and it sufficeth us. This is pretty much what, Show us the Father. And they're saying pretty much, Show us the Father. Jesus answered Philip and said, Have I been so long a time with you, Philip? Haven't you seen Me?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너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분을 모셔와라.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4 장을 기억하는가? 빌립이 말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랴'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 그들도 여기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느냐?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Here Jesus is saying, If you have known Me, you would know the Father. In other words, there is such an identity, there is such a oneness that to know the One is to know the other. To see the One is to see the other. And so My Father bears witness but you don't know Him. If you'd known Me, you w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하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분은 하나이고 동일하여, 한 분을 알면 다른 한 분도 아는 것이라는 뜻이다.

한 분을 보는 것은 다른 한 분을 보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듯 나의 아버지가 증거 하시는데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니라.

These words Jesus spoke in the treasury, as he taught in the temple (8:20):

The treasury was the court of the women. That's where the treasury was. There was the outer court of the Gentiles. Then the court of the women. And then from there, the court of the men, and then on into the actual place of sacrifice. And a woman was only allowed to pass through the court of the men if she was taking a sacrifice in. But there was the outer court of the women and this is where the treasury was. There were thirteen large containers for the treasury. 연보케 앞이란 여자들의 뜰을 말한다. 바로 거기에 연보케가 있었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바깥뜰도 있었다. 그 안쪽에 여자들의 뜰이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쪽에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실제로 드리는 장소가 나타났다. 여자는 희생 제물을 들고 있을 때에 한해서 남자의 뜰을 지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대개 여자들은 바깥 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연보케가 있었다. 연보를 위해서 큰 그릇이 13 개 놓여져 있었다.

The first six of them were for designated purposes. The first one is for the half shekel, the temple tax that every Jew had to pay each year, the half shekel temple tax. But then the next one was to purchase the sacrifices; for the women the turtledoves and so forth that they had to offer for purification. And then the next one was to buy the wood for the fires that were on the altars. And so the upkeep of the vessels and so forth. 그것들 중 처음 여섯 개는 그 목적이 지정되어 있었다. 첫 번째의 것은 모든 유대인이 매년 바쳐야 하는 성전세 반 세겔을 드릴 때 사용하는 용기였다. 다음의 것은 희생 제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자들은 정결을 위한 제물로 산비둘기 등을 드려야 하였다. 다음의 용기는 제단에 바칠 뿔감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그 그릇들을 갖다 놓는 이유가 그러하였다.

So until there was I think about seven of them that had sort of designated for different, and then the rest were just for anything you have left. Drop it in. And so you had to go by the thirteen collection points and that's where Jesus was teaching now. Porches, large colonnades and porches there where Jesus was teaching. John throws that in, "He was saying these things in the treasury, as He taught in the temple,"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목적에 지정된 그릇이 7 개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13 개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곳은 큰 기둥들이 있는 복도이기도 했다. 요한은 본문 중 여기다 이런 구절을 끼워넣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케 앞에서 하신 것이다."

and no man laid hands on him; for his hour was not yet come (8:20).

This hour in which He is to be crucified, this hour in which He calls it, He was to be glorified. The hour of His full dedication and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going to the cross and bearing our sins.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를 가리킨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시간 말이다.

Then said Jesus again unto them, I go my way, and you will seek me, and you will die in your sins: for where I go, you cannot come (8:21).

They are confused by this.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 하였다.

And the Jews said, Will he kill himself? because he said, Where I go, you cannot come. And he said unto them, You are from beneath; I am from above: you are of this world; I am not of this world. I said therefore unto you, that you shall die in your sins: for if you believe not that I am, you will die in your sins (8:22-24).

"Where I'm going, you cannot come." Why? Because you don't believe that I am. The only way, the only way we can possibly hope to gain heaven as an eternal dwelling place is to believe in Jesus Christ.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He's talking about, If you know Me, you would have known My Father. Now I'm going to go away. You're going to seek Me, you won't be able to come where I'm going. Heaven will not be open to you. Though you be a practicing Jew, heaven will not be open to you. You have to believe in Me to gain entrance into heaven. "For if you believe not that I am, you will die in your sins."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히 거주할 곳인 하늘을 얻고자 바랄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분이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은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니라는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나려 하고 있다. 너희는 장차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실천적인 유대교인이지만, 하늘은 너희에게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God has made only one provision for your sins to be forgiven. And that i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You cannot atone for your own sins. You cannot do good works and bring justification. God has only one provision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that's through faith and trusting in His Son, Jesus Christ. Very narrow? Yes, it is.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life], few there be that find it” (Matthew 7:14). Jesus said, “If a person tries to come by any other way,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John 10:1). There's only one way. There's only one door to the sheepfold—Jesus Christ. 하나님은 너희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놓으셨다. 죄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구속(救贖)할 수 없다. 너희는 선행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놓으셨으니,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매우 편협한 규정이라고? 그렇다, 그것은 편협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4).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요 10:1).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So the second question,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은 이것이다.

Then they said unto him, Just who are you? And Jesus said unto them, Even the same that I said unto you from the beginning. I have many things to say and to judge of you: but he that sent me is true; and I speak to the world those things which I have heard of him.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he spoke to them of the Father (8:25-27).

He is now again laying claim that He is only declaring to them the things of the Father, the things that He heard. 그분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자기가 들은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시는 것이다.

Then said Jesus unto them,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8:28),

This is a term by which is a reference to the cross, “lifted up on the cross.” Again He'll say, “And I, if I be lifted up, I will draw all men unto Me. Signifying by what manner he would die” (John 12:32,33). 이것은 십자가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십자가에서 “들린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언급을 다시 한 번 하실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요 12:32,33).

I cringe when I hear the chorus, “Let's lift Him higher, Let's lift Him higher, that all the world may see.” Oh no, that's poor theology. It's referring to the cross and being lifted up on the cross. Here He's saying, When I am lifted up, when I'm dying on the cross, then you will come to recognize. 나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분을 높이 올리세. 그분을 더 높이 올려서 온 천하가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세.” 오, 아니다. 이것은 어설픈 신학일 뿐이다. 여기서의 얘기는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들리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때가 되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니라.

When Jesus was being nailed to the cross, Luke tells us that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Luke 23:34).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렇게 기도 드렸다고 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When on the day of Pentecost,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people gathered to observe the

phenomena. Peter stood up and he preached to them. And as he preached to them, he preached to them of “Jesus Christ, who is proved to be of God by the signs and the wonders, which He did in the midst: Whom you, according to the determined counsel and foreknowledge of God, with your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Who God has raised from the dead, and who has ascended into heaven. And has given forth this gift of the Holy Spirit, which you now see. The people being convicted, said, Men and brethren, what shall we do since seeing we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Peter said,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for the remission of sins, you’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cts 2:22,23,24,32,33,38).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설교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Acts 2:22,23,24,32,33,38).

He acknowledged, For I realize that in ignorance, you did it. Interesting,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Luke 23:34). They’re ignorant of what they’re doing.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하고 말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눅 23:34).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Now these people who were there, crucifying Him in ignorance, lifting Him up in ignorance, now they are saying, What shall we do? Peter said, I know that you did it ignorantly. But he offered to them the way of salvation because what you did, you did ignorantly. So the prayer of Jesus was really answered on the day of Pentecost. When Jesus praye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거기 있던 이 사람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무지해서 그분을 나무에 달았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을 한 줄로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주셨다.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순절 날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이런 내용이였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Jesus is saying, When I’m lifted up, you’ll understand now these things, when I’m crucified.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들림을 받게 되면 너희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리라.

And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8:28),

The word “he” is inserted. He’s just using this name of God, “I am,” the “ego eime.” 여기서 “그”라는 말은 삽입된 단어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이다(I am)” 즉 “에고 에이메”라고 칭하셨다.

and that I do nothing of myself; but as the Father hath taught me, I speak these things. And he that sent me is with me: the Father has not left me alone; for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8:28,29).

What a statement.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Would to God I could make that statement! I do so many things to please myself. Only Jesus could say,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As we read in Psalm 40 this morning, when it becomes prophetic concerning Jesus, in verses seven and eight, “Then said I, Lo, I come: in the volume of the book it is written of me, I delight to do thy will, O my God: yea, thy law is within my heart” (Psalm 40:7,8). Goes right along with,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The Father’s with Me, He hasn’t left Me alone.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시편 40 편 7 절과 8 절을 읽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적힌 구절이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 40:7,8). 이 말씀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구절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And where was this really fulfilled then? He’s talking about being lifted up. When I’m lifted up. When Jesus is on the cross, He is there to please the Father. For it has pleased Him to put Him to death for our sins. “Not what I will, Thy will be done” (Mark 14:36). It was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Father. 그렇다면 이 구절은 참으로 어디서 실현되었는가? 그분은 자신이 들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들리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다.

“This is My beloved Son,” He said, “in whom I am well pleased” (Matthew 3:17). When did He say that? When Jesus said, “It becomes Me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Matthew 3:15). That is, to be obedient in all of the issues of righteousness and the Father acknowledges, “I am well pleased.”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마 3:17).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예수께서 “내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니라” (마 3:15)고 말씀하셨을 때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의의 일들을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It should be a goal of each of our lives. What would please the Father in this? How can I please the Father? What would please the Father? It think that oftentimes we make a mistake by trying to drive a fine line of definition between right and wrong. And I think that often we are able to justify certain things like, It’s not too bad, there’s nothing really wrong about it. And we’re trying to define right and wrong, and I don’t think that really is the issue. I don’t think that that’s the question we should be asking. Is it right or is it wrong? I think the issue is, Is it pleasing? Does it please the Lord that I do this? Is He pleased with my actions? And Jesus could say,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the Father,” and that should be really our goal and our aim, to please the Father. Because I may be able to prove that it’s alright to do it, but it may not be pleasing to the Father that I do it. Does it please Him?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일을 하면 그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선과 악을 세밀히 구별하고자 애를 씬으로써 실수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종종 어떤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잘못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이진 크게 나쁜 일이 아냐 하면서 합리화시킨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쁘시게 하느냐? 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나의 행위로 인하여 즐거워하실까? 예수님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가?

As he spake these words, many believed on him (8:30).

But now He's going to address those that believe upon Him because it's, at this point, just a persuasion but it isn't a commitmen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come to sort of a persuasion that yes, these things are true. Yes, He must be the Son of God. They have a mental persuasion but there's not a commitment. And so Jesus is going to really challenge them now. He's going to really test their belief. He's going to say things that are going to upset them. Find out just what you do believe.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연설하려 하신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신념일 뿐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념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들은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헌신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도전을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화나게 할 얘기를 하고자 하신다. 너희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해 보라.

Then said Jesus to those Jews which believed on him (8:31),

He's addressing them now and He's going to get into some pretty heavy duty stuff with them. "Then said Jesus to those Jews which believed on Him," 그분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참으로 어려운 의무 문제를 그들과 논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you are my disciples indeed (8:31);

You believe now but there's more than just believing. You must continue in the word to be a disciple. Got to be more than just a head trip. More than just, Well yes, this must be the Son of God. There's got to be that commitment of the heart and the continuing in the word. Then a true disciple. 지금 너희는 믿고 있다. 그러나 그런 믿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 너희는 말씀 안에서 계속 행하여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한 정신수양의 대상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음...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계속적인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실한 제자가 될 것이다.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seed, we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how sayest thou, You shall be made free (8:32,33)?

The nation of Israel was in bondage in Egypt. They went into bondage to Babylon. They were in bondage to Syria. And now they are in bondage to Rome. What do they mean, We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Roman soldiers are walking their streets. They're paying taxes, just resenting it, to the Roman government. And yet they say, We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종 노릇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한 적이 없다고 말하다니, 그게 가당하기나 한 소리냐? 로마 군병이 지금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분강개하면서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한 적이 없다고 너희는 말하고 있구나.

In a sense, this is true that spirit was never conquered. They were always rebelling against whatever authority was over them, even the authority of God. They were never really in real submission to God. And that spirit seem to be just a part of them and thus they declare, We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Oh yeah, they might be ruling over us, they might be walking our streets and we might pay taxes to them but in our hearts, we're still not in bondage.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했다. 그들의 정신은 결코 정복 당한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지배하는 권세에 도전하곤 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반항을 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정신이 남아 있었으니, '우리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한 적이 없다'고 큰소리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 맞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거리를 누비며 우리는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는 결코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But Jesus answered them (8:34),

And of course, they're thinking of it in a physical way and Jesus is talking to them in spiritual things and

always there is that misunderstanding because Jesus is so often speaking in the spiritual realm and man is thinking in the physical realm. And so Jesus answered them and said, 물론 그들은 지금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니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예수님은 너무도 자주 영적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반면에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committeth sin is a servant of sin. And the servant abides not in the house for ever: but the Son abides ever (8:34,35).

If you commit sin, you are a servant to sin. By whatsoever a man is overcome, by the same is he brought into bondage. A servant of sin. “Whatever it is by which you are overcome, you become a slave to it” (2 Peter 2:19). So Jesus is talking about the bondage of sin, the bondage of corruption, as the scriptures call it. The servant does not abide in the house forever. He can be released at any time. But the Son, He abides forever.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사람이 무엇에 의해 정복이 되든 그는 그것의 종이 된 것이니라. 죄의 종이 된 것이니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벧후 2:19). 여기서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썩어질 것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다. 종은 영구적으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언젠가는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

If the Son therefore shall make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8:36).

The true freedom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Who breaks the power that sin had over your life. I love that song,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신 분이시다. 나는 그러므로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

He breaks the power of cancelled sin, 그분이 죄를 파하시고 깨뜨리셨네

He sets the prisoner free. 그분이 포로를 자유 하게 하셨네

His blood can make the foulest clean, 그분의 피는 가장 더러운 자도 씻을 수 있다네

His blood availed for me. 그분의 피는 내게도 효험을 말한다네.

The power of Jesus. “Whom the Son sets free is free indeed.” How we enjoy and love that freedom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And He said, 이는 예수님의 권세이다. “아들이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즐기고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I know that you are Abraham's seed (8:37);

They said, We're Abraham's seed, we were never. I know you're Abraham's seed,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종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 줄 아노라.’

but you seek to kill me, because my word hath no place in you. I speak that which I have seen with my Father: and you do that which you have seen with your father (8:37,38).

Now He's making the distinction. My Father and your father. I'm doing the things of My Father; you're doing the things of your father. You're trying to kill Me. That's the desire of Satan, to destroy the Son of God. So you're going about to kill Me and thus, you're doing the things that you have seen with your father. 이제 그분은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계시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사단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본 그대로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Abraham is our father. Jesus said unto them, If you were Abraham's children, you would do the works of Abraham. But now you seek to kill me, a man that hath told you the truth, which I have heard of God: Abraham didn't do this (8:39,40).

“Abraham believed God; it was ac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Genesis 15:6). Paul said, “Not all

who are of Israel, are Israel” (Romans 9:6). They again are thinking in the terms of the physical. I’m a physical descendant of Abraham. My genealogy goes back to Abraham,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And Jesus said, “No, if you were Abraham’s children,” now Jesus is talking in the spiritual realm, “then you’d be doing the works of Abraham.” Abraham was the father of a spiritual race, of those who believed in the word of God. And so, Abraham didn’t do what you’re doing.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창 15:6). 바울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다” (롬 9:6)고 말했다. 여기서도 저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올라 가며,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종족의 조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은 너희가 행하는 그 일을 한 적이 없다.

You do the deeds of your father. Then they said unto him, We be not born of fornication; we have one Father, even God (8:41).

Jesus is actually here pressing the issue, their father, and they are now cutting, very cutting. “We are not born of fornication.” Sort of an intimation concerning His birth. That secret of Mary was not a secret. When Mary and Joseph were married, the people counted the months. And thus, Jesus was accused of being conceived out of wedlock, which indeed, of course, He was. But they are using it now, “We were not born of fornication” as a very cutting remark to Jesus. And they said, “We have one Father, even God.” Now they are claiming God is their Father. 예수님은 여기서 사실상 ‘그들의 아버지’라는 본론을 꺼내놓으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날카로워졌다. 아주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음란의 자식이 아니다.” 이는 예수님의 출생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했다. 당시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신혼 살림의 개월 수를 세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But Jesus said unto them,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love me: for I proceeded forth and came from God; neither came I of myself, but he sent me (8:42).

You’re wanting to kill Me because your father, Satan, wants to destroy Me. You’re doing the works of your father because you want to kill Me. “If God were your Father, you’d love Me.” And so, when you see people today it’s their response and reaction to Jesus Christ is very revealing as to who their father really is. If God is your Father, then you would love Him. “For I proceeded forth and came from God; neither did I come of Myself, but He sent Me.” He said, I didn’t come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너희는 나를 죽이고 싶어한다. 너희의 아버지 사단이 나를 죽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나를 죽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가 그들의 아버지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나타낼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분은 내가 온 것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Why do you not understand my speech? even because you cannot hear my word (8:43).

There is that hardness of heart, deafness of ear. 이들은 마음이 강박하고 귀가 먹은 자들이었다.

You are of your father (8:44)

Now He’s going to get very pointed. “You are of your father” 이제 그분은 매우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자 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났다.”

the devil, and the desires of your father you will do (8:44).

They did crucify Him. They did fulfill the desires of their father, the devil, in seeking to destroy God.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마귀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하나님을 없애버리려 하였다.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and he abode not in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였다. 이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When he speaks a lie, he is speaking of his own natur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it (8:44).*

Two accusations, he's a murderer and he's a liar. He wants to murder Me. I am the truth, he wants to extinguish the truth. He's a liar and has been a liar from the beginning. You will know the truth,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But the lies of Satan will bring you into bondage, into the bondage of corruption and sin. Powers of darkness. 두 가지 죄상이 언급되었다. 마귀는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그는 나를 죽이고 싶어한다. 나는 진리인데, 그는 그 진리를 없애버리고 싶어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은 너희를 속박할 것이다. 너희는 썩어짐과 죄에 의해 얽매이게 될 것이다.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구속(拘束) 받게 될 것이다.

And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me. Which of you convinces me of sin (8:45,46)?

Which of you can point out sin in Me? I wouldn't dare say that. We could get a long line of witnesses here. But Jesus lived such a life He could say, Which of you convinces me of sin, can show sin in Me?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안에서 죄를 지적해낼 수 있겠느냐? 나도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우리 죄를 지적할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얼마나 흠 없는 삶을 사셨는지,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죄를 밝혀내겠으며 내 안에 들은 죄를 드러내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었다.

And if I say the truth, why do you not believe me? He that is of God hears God's words: you therefore hear them not, because you are not of God (8:46,47).

Very strong statements but yet very probing kind of statements by which we need to look at ourselves. Do I hear His words? Do I submit? That is, hearing in the sense of submitting to the word. Then I am of God. But if I am rebelling, not listening, then I am not of God. 매우 강력한 말씀이지만 이는 또한 매우 성찰케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듣고 있는가? 말이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반항한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Then answered the Jews, and said unto him, Did we not say well that you are a Samaritan, and you have a devil? Jesus answered, I have not a devil; but I honour my Father, and you dishonour Me. And I seek not mine own glory: there is one that seeks and judges.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f a man will keep my saying, he shall never see death. Then the Jews said unto him, Now we know that you have a devil. Abraham is dead, and the prophets; and you say, If a man keeps Your saying, he will never taste of death (8:48-52).

Again they're thinking in terms of the physical, Jesus is speaking in the realm of the spiritual. It's awfully hard to converse with a person that only thinks in the realms of the physical; hard to talk to them about spiritual things. "The natural man does 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inthians 2:14). And so we find ourselves oftentimes frustrated as we're trying to talk to people about spiritual things and they can only think in the realm of the natural. 다시 말하는데, 저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그런 사람에게 신령한 일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우리도 자연 세계에서 생각할 줄만 아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하고자 애쓸 경우 종종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When Jesus said, "If a man keeps my words, he shall never see death," He's not talking about physical death. He's not saying that you're going to go on living forever in this old corrupted body. Wouldn't it be horrible to have to live forever in this body of corruption? I could think of nothing worse than living forever in this body that's getting more decrepit everyday. Going to pieces. But you got to stay in it, man. No way! Free me. 예수께서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은 ‘너희는 이 낡고 썩어질 몸에서 영세토록 살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 부패될 몸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날로 더 노쇠해 가는, 날로 붕괴되는 이 몸을 지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인간이여, 너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Paul said, “We know that when this tent is dissolved [this body in which we presently live],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 i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ree. Not to be an embodied spirit but] to be clothed upon with a body which is from heaven” (2 Corinthians 5:1,2). And as time goes by, and as the body begins to wear out, and it can no longer fulfill the purposes and functions for which God designed it, for He designed it to be the medium by which I can express myself. But I find that my body is beginning to restrict me. I’m not as agile as I once was. I can’t jump off of walls anymore. I let myself down carefully. You learn to live with the limitations and you get to the place where you begin to long to be free. Not to be unembodied, but to receive that new body which is from heaven and to move on into the eternal aspects of the kingdom of God.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고후 5:1,2).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래서 내 몸이 낡기 시작하니, 이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기능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나, 내 몸이 나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있다. 나는 이전처럼 그렇게 기민하지 못하다. 나는 더 이상 담 위에서 뛰어내릴 수 없다. 조심해서 내리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한적인 요소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은 이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여러분은 이 몸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So Jesus when He said, You will never die, He’s talking about the second definition of death in the scriptures which is the separation of a man’s consciousness from God. The Bible says that a person who lives for pleasure is dead while they yet live. There’s no consciousness of God. That’s spiritual death. And when Jesus is here saying, “If a man keeps My saying, he will never see death,” He is saying, You’ll never be consciously separated from God. Spiritual death.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성서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망 말이다. 성경은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비록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것이니라 고 말한다.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으니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 말씀은 너희가 의식(意識)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니라 는 의미였다. 영적인 죽음은 당하지 않으리라는 얘기였다.

He’s not saying you’re going to live forever in this body. Don’t worry. But you’ll never be separated from God. And “to be absent from this body is to be present then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8). So they are thinking in the terms of the physical, and the Jews said unto Him, “Now we know that You have a devil. Abraham is dead, the prophets, and now you say, If a man keeps Your saying, he will never taste of death.” 너희가 이 몸 안에서 영구적으로 살게 될 것이니라 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고후 5:8). 그러므로 육신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네가 귀신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Abraham, which is dead? and the prophets who are dead: whom do you make yourself (8:53)?

An important question. “Whom do you make yourself?”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Jesus answered, If I honour myself, my honour is nothing: it is my Father that honoureth me; of whom you say, that he is your God (8:54):

“Who do you make Yourself?” Tell you what, My Father is the One You’re calling God. You call Him God. He’s My Father. So who’s He making Himself? He’s making Himself the Son of God.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실을 말하겠노라. 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이시다.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다.

Yet you have not known him; but I know him: and if I would say that I don’t know him, I would be a liar like you: but I know him, and I keep his saying (8:55).

Things are pretty hot at this point. They’ve accused Him of being born of fornication and all, Samaritan, You have a devil. They’re making all of these accusations. And so Jesus comes back and He said, If I said I didn’t know Him, then I would be a liar just like you are. And then He said, “Yet you have not known Him; but I know him,” and so forth. “But I know Him, and I keep His saying.” So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the Father, I do the things that I see of the Father.” And now, “I keep His saying.” 이 시점에서 논쟁은 매우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들은 예수님을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비난했으며, 사마리아인이라 칭하며 비난했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했다. 그들은 이 모든 비난을 퍼부어댔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도 한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행한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The Jews then said unto him, You’re not yet fifty years old, and have you seen Abraham (8:56,57)?

What did Jesus mean,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Of course, there could be a couple of things. God spoke to Abraham and gave to him a promise. That from his seed, all of the nations of the earth would be blessed. Abraham rightly interpreted that as meaning that he would be a progenitor of the Messiah. That’s what God was promising. And so Abraham believed God, this promise of God, and “it was ac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His faith in this promise of God that the Messiah will come from you. He’ll be a descendant of yours. His belief in that, God counted his belief for righteousness. Belief what? That the Messiah would come from him. So Abraham believed in Jesus.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가 무슨 의미일까? 물론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며 약속을 주셨다. 그의 씨로 인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것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이 약속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는 메시아가 네게서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메시아는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믿었는가? 메시아가 그에게서 나오리라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믿은 것이다.

We are told in the book of Hebrews that “these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 but seeing it afar off, they embraced it, and they claimed they were just strangers and pilgrims” (Hebrews 11:13). So hearing the promise of God, seeing it afar off, he embraced it. But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In a spiritual sense, Abraham saw His day, or saw Him.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 11:13).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분의 때를 보았으니 즉 그분을 보았던 것이다.

What do you mean Abraham has seen You? In the Old Testament, when Lot was captured by the five kings who invaded that territory and took captives, when Abraham got his servants and they pursued after the five kings and delivered Lot, as they were returning back to the area, the priest and the king, he is called both the priest and king, of peace came out to meet Abraham. His name was Melchizedek. And Abraham gave to him a tenth, a tithe of all of the loot that he had taken in the battle against the five kings. And he offered to Abraham bread and wine, the symbols of communion.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니 그게 무슨 의미냐?’ 구약에 보면, 롯이 다섯 왕들에게 침공을 받아 사로잡혀간 얘기가 나온다. 그 때 아브라함은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롯을 구한 뒤 돌아오는 길에 한 제사장을 만났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는데,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던 참이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다섯 왕들과 싸워 빼앗은 모든 전리품 중에서 십분의 일을 즉 십일조를 드렸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는 성찬식의 상징이었다.

There are many who believe that Melchizedek was one of what they call the Christophanies or the appearances of Christ in the Old Testament. We do read in the book of Hebrews that Jesus is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The declaration of Jesus was a high priest would be challenged by the Jews, He is of the tribe of Judah, the tribe of Levi was appointed as the priestly tribe. And so the book of Hebrews declares, He is a tribe, not after the Levitical order but “He is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Hebrews 6:20). And so there are those who believe and affirm, and I am one of them, that Melchizedek was an appearance of Jesus. The fact that He’s called the King of peace and the King of righteousness. And He appeared to Abraham. Abraham paid tithes unto Him. And of course, the tithes are paid by the lesser to the greater.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출현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다.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레위 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분이 레위 지파를 좇은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히 6:20)고 선언했던 것이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예수의 현현(顯現)이라고 믿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이라고 불린 사실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물론 십일조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So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So they challenged Him and said, “You’re not yet fifty years old.” 이렇듯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분께 도전했다: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I wonder if Jesus, because of the hardships in life looked older than, He was only in His early thirties at this point. But I wonder if the severity of life made Him look older. “You’re not yet fifty years old.” Have you seen Abraham? 예수님은 이 때쯤 30 대 초반에 지나지 않으셨을 것인데 살아오시면서 하도 간난신고를 많이 겪으셔서 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셨나 보다. 분명히 삶의 고달픔이 그분을 더 늙어 보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말이나?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8:58),

When He gets to these “Verily, verily,” stop. You’re going to get some important stuff here. Back in fifty-one,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keeps my saying, shall not see death.” Now again, “Verily, verily,”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진실로 진실로” 하고는 한참 쉬셨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너희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 51 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여기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신다.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8:58).

He didn’t say, I was. Before Abraham was, I was. But “before Abraham was,” and now He uses that

eternal name of God, "I am." Who are you? Who do you make Yourself? You want to know? Before Abraham was, I am. The eternal. 그분은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명칭 즉 "내가 있느니라"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알고 싶으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는 영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Their response was the response of their father, the murderer from the beginning because, 저들의 반응은 저들의 아버지의 반응과 마찬가지로였다. 저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저들은 다음과 같이 했다.

They took up stones to cast at him: but Jesus hid himself, and went out of the temple, going through the midst of them, and so passed by (8:59).

The idea or indication seems to be that He just sort of became invisible. Walked right on past them. But as we can well imagine, the tensions are hot. They're ready now. And since they believed Him, so He said these to those that believed. But boy, now they're ready to take up stones. They can't handle His words. "Before Abraham was, I am."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그분이 자기 몸을 가리는 일종의 호신술을 사용하셨다는 게 아닌가 한다. 어쨌든 그분은 저들 가운데로 지나 곧바로 빠져 나오셨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다. 저들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저들이 믿는 자들이었기에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아아,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돌로 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That either makes Jesus a colossal liar or the Son of God. To make that claim that's so radical, if it is not true, He is a colossal liar. And we may as well not meet next Sunday. 이로써 예수님은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둘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너무도 극단적인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 그분은 굉장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요 우리는 다음 주일에 다시 모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But if it is true, then we better pay close attention and submit ourselves to the truth. Receive the truth. And in receiving the truth, receive freedom from the bondage of sin. W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러나 만일 이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 때는 우리가 그 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좋을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여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한편, 죄의 사슬로부터의 해방도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Throughout this congregation tonight, one after another to the hundreds could stand up and give witness of how the truth has made them free. After the first service today when we spoke on the subject, a fellow came up, pulled up his sleeve and showed me the track marks, and he said, Jesus has set me free. I can witness to what you said. "I was a heroine addict and Jesus set me free." After the third service, a fellow came up. And he said, I have had fifteen years of sobriety, thirteen and a half years of struggle, like Ulysses bound to the mat. But a year and a half ago, I found Jesus Christ and now I am free indeed. 오늘 밤 모인 이 회중 전체 중에서, 수백 명이 차례차례 일어나 진리가 어떻게 자신을 자유롭게 했는지에 대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동일한 주제로 설교했는데, 예배 후에 한 사람이 다가와 옷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내게 깊은 상처 자국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양반이 한 말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안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3부 예배 후에도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15년 간은 술 없이 잘 지내오다 13년 반 동안은 침상에 묶인 올리세스처럼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지금 참으로 자유롭게 있습니다.

Yes,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Or if the Son shall make you free, then you are free indeed. 그렇다.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Father, thank You for that wonderful freedom that we have in and through Jesus Christ. And Lord, it is

our desire to know You, to love You, to serve You. We desire to be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You. Take us by the hand and lead us in Your path, let us walk in Your light that we would not stumble but have the light of life through Jesus Christ. In His Name we ask these things, Father, and for His glory. Amen.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웁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나이다. 아멘.

May the Lord bless and give you a good week of spiritual growth, understanding. May you be diligent in your pursuit after the will of God. And as you study the word, may God open the truth to your heart. May we by next Sunday be another step up the rung of the ladder, into His image, into His likeness, as He draws us unto Himself.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 이해력이 증진되기를 기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기를 기원하노라.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여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노라.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심을 좇아,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습을 한층 더 닮아가게 되기를 기원하노라.



John 9

John 9
Tape #8077
By Chuck Smith

John tells us that Jesus did many other signs which he did not record. But he did record these signs that you might believe that He is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by believing, have life in His name. At the end of the book John said, "I suppose if everything that could be written was written, that all of the libraries of the world could not contain the things that could be written concerning Jesus Christ" (John 21:25). John picked out eight signs that Jesus did. The eight signs that proved that He was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요한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고 말한다. 그가 이런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그분이 메시아 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렇게 믿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책 끝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 21:25).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8 가지를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그 8 가지 표적은 그분이 메시아 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Tonight in chapter nine, we are looking at the seventh of the eight signs. And in this sign, Jesus the only time recorded in the gospels healed a person of a genetic problem. Now in the book of Acts, there were two who were healed of genetic problems. Two men who were lame from birth who were healed. But the gospel. No doubt He did heal others but they are not recorded in the gospels with the exception of this man who was born blind. And this is, I said, constitutes the seventh of the eight signs that John shows. The eighth, of course, was the raising of Lazarus from the dead. 오늘 밤 9 장에서 우리는 그 여덟 가지의 이적 중 일곱번째의 이적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표적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시게 되는데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인 질병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유전적 질병을 치료 받은 사람이 둘 등장한다. 날 때부터 절름발이였던 두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던 다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본문의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기사는 요한이 제시하는 일곱번째의 표적에 대한 것이다. 여덟번째의 기사는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So we are still in Jerusalem, still during the time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the events that followed the feast of the passover.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으며 유월절 절기 중에 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에 연이어지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And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ich was blind from his birth.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Master, who did sin,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9:1,2)?

They were curious. There was a common feeling and belief that tragedy only came as the result of sin. That a person who is going through a physical, emotional hardship is doing so because of sin. And they felt there was a very direct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with sin. So when they saw a man who was born blind, the question is, Is God punishing his parents for some sin that they committed? As the scriptures said, that the sins of the fathers will be visited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the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continue in their sins. Is God punishing them for their sins through their child being born blind? Or was he guilty of a prenatal sin? Or did they believe in the

pre-existence of the human soul? And thus, who did sin? This man was born blind. 사람들은 알고 싶은 게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통설이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난은 죄를 지을 때만 다가온다. 신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다. 죄와 재난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성립된다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볼 때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질문하곤 했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벌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성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죄는 계속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후손 삼사 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소경으로 태어난 자식을 통해 그 부모의 죄를 벌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에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가 있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간 영혼의 선재성(先存性)을 믿고 있었던 말인가? 하여튼 누가 죄를 지었던 말인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말이다.

They did believe that it was possible to sin within the womb, and so the question, Whose fault is this? It's interesting how so often when we see human tragedy and human suffering, we're always wanting to find the blame, the cause. Whose fault is this? But it's interesting that Jesus discarded the question as to whose fault it was. He answered it by declaring, Neither him or his parents.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his being born blind. This is just one of those things that God has allowed in order that He might accomplish His purposes. 당시의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짓는 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재난이나 고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 책임이며 뭐가 원인인지 알아보고 싶어하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습성이다. 이 게 누구 탓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게 누구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니니라. 이들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느니라.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허용하신 일들 중 하나일 뿐이니라.

So Jesus said, Neither hath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9:3).

God at times allows us to experience difficulty, hardship, even suffering that He might accomplish His works in our lives. Paul the apostle was given a thorn in the flesh, a minister of Satan, lest he be exalted above measure because of the abundance of revelations that have been given to him. God had allowed this thorn in the flesh because God was wishing to do a special work in Paul which required special revelation.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난신고와 재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단의 사자였다. 이는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게끔 하시고자 함이었는데, 그 사역이란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었다.

Paul the apostle speaks of the hardships, the sufferings that he endured. But he said, "Yet we know that the present suffering is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s going to be revealed" (Romans 8:18).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Jesus Himself suffered. He suffered the agony of the cross, the shame of the cross. But again,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Hebrews 12:2). So the purposes of God being worked out in our lives often through hardship or through suffering.

God is working His purposes. And so in this man's life,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God's work manifested.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히 12:2). 따라서, 종종 고난과 재난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곤 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했던 것이다.

And then Jesus declared,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comes, when no man can work (9:4).

Jesus is declaring that this man's condition existed that God might manifest His works and then Jesus declared,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at was then the work of God that was manifested in this man? It was the healing of his blindness.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보이지 못하는 눈을 치료하는 일이었다.

Oftentimes there is not a direct cause and effect as far as sin and pain go. There is an indirect many times. Good people suffer sicknesses. Good people die of illnesses and of cancer and of other things. It doesn't mean that it is God punishing them because of some sin in their lives. But because of sin in the world, with sin entered death and those things that bring death. So in an overall sense, the suffering of the world is the result of sin. Not necessarily direct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ut many times indirect. If there have been no sin, there would be no suffering. There would be no death. There would be no pain. It would be a perfect world if it were not for sin. 죄와 고통에 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선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다. 선한 사람들도 질병이나 암 또는 다른 것들로 인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삶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죄 때문에 죄와 함께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볼 때, 세상의 고통은 죄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여하튼 죄가 없었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면 사망도 없었을 것이고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죄만 없었다면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So all of these things indirectly result from the fact that sin is in the world. And because we are living in this world, God does not give to us a divine immunity against sickness, against viruses, against suffering, against aging. It's just not there. But God is with us and wonderful at times, God will manifest His desire to counteract the effects of sin in the world. So each of us have experienced the touch of God upon our lives in the removing of the blight of sin. God is in the business of restoration. God is in the business of manifesting His power against the consequences of sin in a person's life. That is, again, sin in a general sense in the world.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죄가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간접적인 결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 바이러스, 고난, 노화(老化)로부터 면제 시켜 주시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저지하기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때때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는 고질병을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와 닿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 사람의 삶 속에서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현시(顯示)하고 계신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죄가 이 세상에 있다.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Jesus said. The work of God who sent Him was the healing of this man’s blind eyes. Jesus refers to the night that is coming when no man can work. The day when the opportunity of manifesting God’s power will be over. “때가 아직 낮이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란 이 사람의 먼 눈을 고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기회가 끝나 버리는 날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en he had thus spoken,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clay of the spittle,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9:5,6),

Why did Jesus use this method of healing the man? There were other blind people who Jesus healed and some of them He healed with just the word. Others He touched their eyes and they could see. Jesus used an unusual method of making a bit of clay, spitting on the dirt and stirring it up, making some clay and putting it in the fellow’s eyes. And then commanding him to go down to the pool of Siloam and to wash it out of his eyes. 왜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고치셨을까? 예수께서는 다른 소경들도 고치셨는데, 그들 중 몇몇은 단지 말씀으로만 고치셨다. 다른 소경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만 나아버리고 말았다.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으니, 진흙을 조금 개어 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은 후 짓이겨서 병자의 눈에다 넣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고 명령하셨다.

This happened on the sabbath day. It was specifically forbidden in their tradition and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make clay on the sabbath day. So Jesus is deliberately violating the tradition of their law. 이 일은 안식일에 발생하였다. 그들의 전통과 율법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 일이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저들의 율법적 전통을 어기신 것이다.

Back in chapter five when Jesus came to the pool of Bethesda and saw the man who was lying there who was lame, and He asked him if he would like to be healed. And he said, Sir, I don’t have anybody to help me. When the water is troubled, someone always is there before me. Jesus said, “Take up your cot and go home.” And the man was walking home, carrying his cot and the Pharisees caught him and said, What are you doing violating the sabbath day, carrying your cot? He said, The man who healed me told me to take my cot and go home. They said, Who was it? And he said, I really don’t know. Later on, when he found out it was Jesus, he went to the Pharisees and told them, It was Jesus. 5 장을 되짚어보면,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을 때 그분은 거기 누워 있는 한 절름발이를 발견하시고는 네가 치료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이여, 저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이다. 물이 동할 때는 언제나 누군가가 저보다 앞서 들어가나이다. 예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가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붙들고 물었다: 네가 안식일을 범하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어떤 일이나?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후에 그가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신 분이라고 말했다.

This began the conspiracy to put Jesus to death because He had violated their traditions and their traditional observance of the sabbath day. And this is what caused the initial breach between Jesus and the Pharisees in Jerusalem. 이런 일을 기화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으니, 이는 그분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기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가 벌어지기를 시작했다.

Now here He is again much later, back in Jerusalem, it is the sabbath day and He is violating their sabbath day on at least two counts. Number one, it was wrong in their estimation to heal on the sabbath day. They had a lot of interesting interpretations of the, what constituted say, violating the sabbath. The sabbath day you were not to bear a burden. They said, If your sandals were held together with nails, you couldn't wear them on the sabbath day because the extra weight of the nails would constitute bearing a burden. They had a lot of little interpretations like this. 이제, 예수께서는 오랜 후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이 날도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적어도 두 번은 범하신 것이다. 우선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에 대해 그들은 여러 가지 재미난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안식일에는 짐을 저서는 안 되었다. 안식일에 못이 박힌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었는데, 이는 그 못이 짐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아주 많은 각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And so here is Jesus healing on the sabbath day. They said you can take whatever measures are necessary to save a life but nothing towards curing, nothing towards healing. So you couldn't pour cold water on a sprained ankle. That would be helping it to heal. You had to wait until the sabbath day was over. So the making of clay, violating the sabbath. The healing of the man's blind eyes. It was the sabbath day and this was the flash point with the Pharisees. This is the thing that had so angered them with Jesus. The fact that He would use this method, it wasn't necessary. We know that it wasn't necessary to use this method. And yet Jesus did.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조치든 취해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병은 치료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뻔 발의 열을 식히기 위해 찬 물을 붓는 일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치유를 돕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따라서 진흙을 이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다.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의 초점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해 그렇게 화를 냈던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분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사실,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예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In this there is another interesting concept. And we know that faith has an important part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receiving from God. Jesus said,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that believes." We do know that so often our faith is in a passive state. Oh yes, I believe God can do it. That's rather passive. And you can go your whole life believing that God can do something but never see it done. There's a vast difference between saying, I believe that God can do it, and I believe that God will do it. And there is even a difference between saying, I believe that God will do it, and I believe that God will do it now. When you get to, I believe that God will do it now, you now have an active faith.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 있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희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자주 소극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본다. 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소 소극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당장 행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경우, 여러분은 지금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But many times, it takes something to trigger that faith into action. Believing now. So that I believe that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Lord commanded that they should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That your faith is set to be triggered when the hands are laid upon me and I'm anointed with oil, I know that God will heal me then. Like the woman who said, If I can just but touch the hem of His garment, I know that I'll be healed. And there was that place of contact where the faith was released for the healing now. The moment she grabbed the hem of His garment. The virtue went forth from Christ and she was healed, according to her testimony unto Jesus.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신의 손이 내게 얹혀지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임을 나는 압니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한 한 여인과 같은 태도라 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태도는 믿음이 풀려나와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접촉 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이 그런 접촉 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한 간증처럼, 그리스도로부터 효능이 나아가서 그녀를 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So with Paul, they took the sweatbands when he was in Ephesus and laid them on the sick and they were healed. With Peter, as his shadow would pass on the people, fall on people, they were healed. It's because they had in their minds that point of contact where their faith would be activated. I know that if Peter will just walk by and his shadow falls on me, the moment his shadow falls on me, I know God's going to heal me. And thus, they would line the people in the streets when Peter was walking down the street so that his shadow might fall on them that they might be healed. 바울에게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 치료가 된 일이 있었다. 베드로에게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그의 그림자가 사람들 위를 지나며 그들을 덮자, 그들이 치유를 받은 것이다. 이 모두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분기 시킬 접촉 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내 곁을 지날 때 그 그림자가 나를 덮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임을 나는 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베드로가 길을 지날 때 길가에 늘어서게 되었으며, 그림자가 그들을 덮자 그들은 치유를 받았던 것이다.

Nothing spiritual about Peter's shadow, nothing magical. It was just something that a person's faith was released at that point. And it became active. It could be that with the putting of the clay in the man's eyes it was an opportunity to give a place of activating the faith.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and the man had that feeling, If I wash I'm going to be able to see. And it gave him that opportunity for releasing faith. 베드로의 그림자에는 신령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마술적인

힘도 전혀 없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사자의 믿음이 풀려나 역동적인 것이 되었을 뿐이었다. 소경의 눈에다 진흙을 이겨 발랐을 때도, 그것은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을 뿐이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은 만일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나는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 명령이 믿음을 풀어놓을 기회를 그에게 제공했던 것이다.

But I personally feel that Jesus is just putting mud in the Pharisees eyes, so to speak. He doesn't back away from confrontation.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눈에 진흙을 넣으신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믿는다. 그분은 결코 그들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으셨다.

And so Jesus told the man,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and John tells us] (which by interpretation is, Sent.) (9:7)

Back in the time of King Hezekiah when Sennacherib was coming with the Assyrian army to invade Judah and to capture Jerusalem, knowing that the armies were on the way, the main water supply was from the virgin spring or called the spring of Gihon which is down in the Kidron Valley, but was outside of the city walls and thus it was very easy for the enemy to cut off their water supply. And so Hezekiah ordered these men to start digging a tunnel through solid rock that would come under the city walls into the city so that they would have this fresh water supply within the city. So a group of men began digging through the rock at the pool, of what became the pool of Siloam, and others from the spring of Gihon. They started digging towards each other. They didn't go in straight lines but sort of back and forth so that 366 feet would be straight through. It was 563 feet is what the tunnel is if you walked through it and they finally met somewhere there in the middle. They could hear each other talking, they realized they were only about nine feet apart. They began to dig towards each other until their picks met each other and the water began to flow from the spring of Gihon to the pool of Siloam. So they called it the pool of Sent because the water was sent through the tunnel from the spring of Gihon into the pool. And so that's where it got its name. Siloam means Sent, the water is sent through this tunnel that was dug by the decree of Hezekiah. 히스기야 치세 때 산헤립이 앗수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당시 주요한 샘 근원은 기드론 골짜기 아래에 있는 기혼 샘이라 불리는 처녀 샘이었는데, 유다 군사들이 나와 예루살렘 성벽 밖에 포진하여 있는 것을 보고는 원수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 물길을 차단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히스기야 임금은 군사들에게 명하여 단단한 바위를 뚫고 성벽 밑을 지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터널을 만들도록 하였다. 도성 안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일단의 사람들이 후에 실로암 샘이라 불리게 된 연못에서부터 바위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혼 샘에서부터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 두 무리가 서로 반대 쪽에서 동시에 터널을 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직선으로 굴을 판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식으로 파 들어갔는데, 직선 거리로는 366 피트가 되었다. 실제 총연장은 564 피트가 되었는데, 그들은 중간 어디선가 서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서로의 간격이 9 피트 밖에 안 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결국 굴을 파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고, 기혼 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관통하여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 연못을 보냄을 받은 자의 연못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물이 기혼 샘으로부터 터널을 통해 그 연못까지 보내졌기 때문이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갖게 된 내력이 그러하였으니, 곧 히스기야 왕의 명에 의해 판 이 터널을 통해 물이 보내어졌기 때문이었다.

So the man went his way, washed, and when he washed, he came seeing (9:7).

He could see. Born blind. Now he can see. 그는 보게 되었다.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The neighbours therefore, and they which had seen him that was blind, said, Is not this he that sat and begged (9:8)?

Isn't this the blind man who for all of these years was sitting there begging? 이 자는 오랜 세월 동안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아니냐?

Some said, This is he: others said, That sure looks like him: but he said, I am me (9:9).

I am the one.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Therefore they said unto him, [How is it that you can see?] How were your eyes opened? He answered and said, A man that is called Jesus (9:10,11)

Notice now, the progression of the revelation. He starts out, "A man who is called Jesus," 여기서, 계시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는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할 수 있게끔 되었다: "예수라 하는 분이..."

made clay, and He anointed my eyes, and said unto me, Go to the pool of Siloam, and wash: and I went and washed, and I received sight. Then they said unto him, Where is he? He said, I don't know. They brought him to the Pharisees the one that before was blind. And it was the sabbath day when Jesus made the clay, and opened his eyes (9:11-14).

So you see, here's the sticking point. This was the sabbath day. A direct violation of their interpretation of the sabbath law. You're not to make clay specifically on the sabbath day.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난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행위는 안식일에 대한 저들의 해석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특히 안식일에는 진흙을 이겨서는 안 되었는데도 말이다.

Then again the Pharisees also asked him how he had received his sight. He said unto them, He put clay upon my eyes, and I washed, and I see. Therefore said some of the Pharisees, This man is not of God, because he doesn't keep the sabbath day. Others said, How can a man that is a sinner do such miracles? And there was a division among them (9:15,16).

You can see, here are the old sticklers. Can't be of God, He did this on the sabbath day. Others were saying, But wait a minute, how can a man do these miracles?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오래된 난제였다. 저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다 라고 몇몇 사람들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좀더 기다려 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입장이었다.

You remember when Nicodemus, one of the Pharisees, came to Jesus. He said, We know that you are God because no man can do the things that you do except God be with Him. So Nicodemus and his friends were saying, Wait a minute. How can He do these miracles without the power of God? The division among them.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와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좀더 기다려 보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야 저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여하튼 그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They said unto the blind man again, What do you say of him, that he hath opened your eyes? He said, He is a prophet (9:17).

Now notice, "A man named Jesus," and now he's getting closer, "He is a prophet." It's beginning to sink in what's happened. Just a man could not have opened my eyes. He is a prophet. 자, 주목해 보라.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보다 더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은 발생한 사건의 본질에 점점 더 접근해 가는 모습이다. 보통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But the Jews did not believe concerning him, that he had been blind, an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called his parents. And they asked them, saying, Is this your son, whom you say was born blind (9:18,19)?

You say that that was the case. 너희가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해 보라.
how is it then he can now see (9:19)?

It is so difficult to argue against this kind of evidence. What can you say? The guy says, Hey I don't know. But this I do know, I was once blind and now I can see. How can you argue against that evidence? 이런 종류의 증거를 논박하기는 아주 어려웠다. 너는 뭐라고 말하려느냐? 그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응수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이런 증거를 당신들은 왜 부인하려 하는 겁니까?

When Peter and John were going into the temple and the lame man who was a beggar was seeking alms from them, and Peter said, I don't have any silver or gold but what I do have, I'll be glad to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to your feet and walk. And he took the man by the right hand, lifted him to his feet and immediately, the man was healed. He began to walk, he began to run through the temple, walking, leaping, praising God. And the people all said, Isn't that the man who has been begging all these years? Sure look like him. How is it that he can walk? Let's find out. And they followed him out to Solomon's porch where Peter was still standing and the man grabbed hold of Peter and John, began to hug them, and probably kissed them and all, and thus they began to relate the miracle to Peter. And Peter then preached a sermon. He was arrested along with the lame man and John. They were brought to trial and the question was, How did you do it? And Peter said, If we are examined this day by what means this lame man is made whole, be it known unto you that it'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that this man is standing here whole. And Peter went on to preach to them that there is no other name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And it said, And seeing the lame man standing there whole, they could say nothing against it.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절름발이가 그들을 보고 적선해 주기를 청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였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흔쾌히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저가 즉시 고침을 받았다. 그는 걷기 시작하였으며, 성전 안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은 이가 오랫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했다. 분명히 그와 모습이 같다. 그런데 저가 어찌해서 걷게 된 것일까? 가서 그 원인을 알아보자. 그들은 저를 따라 솔로몬 행각으로 갔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거기 서 있었다. 고침 받은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야단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발생한 기적에 대해 베드로에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입장 연설을 하였다. 베드로는 그 고침 받은 자 및 요한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들은 재판정으로 끌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 심문을 받는다면,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 곧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니라. 베드로는 계속하여 설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고 하였다. 그런데도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되어 옆에 서 있으니 사람들은 한

마디도 반박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That's the kind of evidence. Blind people seeing. Lame people walking. How can you argue against that kind of evidence? The greatest proof of Christianity, the greatest evidence for Christianity is you who were once blind but now see. You who were once lame who are now walking in the wholeness and the fullness of Jesus Christ. You whose lives have been transform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make the strongest evidence and the strongest case for the validity of Christianity. Lame man standing whole. Blind people seeing. Messed up lives restored. That kind of evidence, all of the argumentation of the world cannot dispute it. 이것이 증거였다.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절름발이었던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의 최대 증거는, 기독교에 대한 최대 증거는 과거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보게 된 여러분들이다. 과거에는 절름발이였으나 지금은 온전하게 되어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여러분들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다. 여러분이야말로 기독교의 정당(正當)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가장 강력한 옹호론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되어 일어서고, 소경들이 보게 되고, 뒤죽박죽이 된 삶이 회복되고 하는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다.

So they didn't believe that he was blind. Some kind of a rouse. So they brought his parents. Is this your son that you say was born blind? And how is it that he can now see? 어쨌든 저들은 그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일종의 억지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데려왔던 것이다. 이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던 그 아들이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느냐?

His parents answered them and said, We know that this is our son, we know that he was born blind (9:20):

Who has opened his eyes, we don't know: he is of age; ask him (9:21):

They're passing the buck. 그 부모는 즉답을 피하고 있었다.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because the Jews had already determined, that if anybody would acknowledge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be ex-communicated (9:22).

They would not be allowed to go into the temple or they would not be allowed to go into the synagogue. They would be ex-communicated from the religious life of the community.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나 회당에서 쫓겨나가거나 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This goes back to the book of Ezra chapter ten, verse eight where Ezra called a convocation of the people to deal with the problem and he said, "If any man does not come and gather with this convocation, he will be put out of the camp." That is, of the camp of Israel. So following that, they had determined if anybody had confess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이런 전례는 에스라서 10 장 8 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한 후 말하기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 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쫓아낸다는 뜻이었다. 그런 전례를 좇아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성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결의를 했던 것이다.

And so his parents were fearful of ex-communication. 그러므로 이 부모는 그런 파문이 두려웠을 것이다.

So they said, Look, he's of age; ask him [and he can speak for himself]. Therefore they called the man that was blind, and they said unto him, Give God the praise: we know that this man is a sinner (9:23,24).

Just praise God, we know that this man is a sinner.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니, 우리는 그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뿐이라.

He answered and said, Whether he be a sinner or not, I don't know: but one thing I know, that, whereas I was blind, now I see (9:25).

You're saying one thing about Him and I don't know. But this is what I know for certain, I was blind and now I can see. 당신들은 그분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인데 즉, 제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Then they said unto him again, What did he do to you? how did He open your eyes (9:26)?

They're pressing now again. And I think he's sort of tired of it all. 그들은 한 번 더 그에게 채근하였다. 그는 이제 아마도 그 모든 일에 지쳐 있었을 것이다.

So he answered and said, I already told you, did you not hear: why would you hear it again? You want to become one of his disciples (9:27)?

He really got them. 그는 참으로 저들을 흥분 시켰다.

And they reviled him, they said, You are his disciple; but we are Moses' disciples. We know that God spake unto Moses: as for this fellow, we don't even know where he came from (9:28,29).

The fellow's into it already so he figures he'll go all the way. 이 사람은 이미 예수께 폭 빠져있었으므로, 자기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는 암시를 했다.

The man answered and said unto them, Why herein is a marvellous thing, you don't know from whence he is, and yet he has opened my eyes. Now we know that God heareth not sinners: but if any man be a worshipper of God, and does his will, him he hears (9:30,31).

Here's a marvellous thing, fellows. You don't know where He's come from and yet He's opened my eyes. 여러분이여, 이것이야말로 놀랄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눈을 고쳐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다니, 놀랄 일이 아닙니까?

In the Old Testament, David in the Psalms said, "If I regard iniquity in my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me" (Psalm 66:18). In Job, he said concerning the hypocrite, "Will God hear his cry when trouble comes upon him" (Job 27:9)? Isaiah said, "God's hand is not short, that He cannot save; His ear is not heavy, that He cannot hear: But your sins have separated you from God" (Isaiah 59:1,2). 구약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 66:18). 욥기에 보면 위선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욥 27:9). 이사야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1,2).

It isn't that God doesn't hear, it's just that your relationship with God has been severed as the result of your sin. And then in Isaiah, God said to the people, "When you spread forth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yea, when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hear: because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Isaiah 1:15). And then in Ezekiel, "Though they cry in my ears with a loud voice, yet will I not hear them" (Ezekiel 8:18). They believed that God did not hear the prayer of sinners. But they did believe that God heard the prayers of righteous men.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너희 죄의 결과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말이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사 1:15).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갇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겔 8:18).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믿고 있었다.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cry” (Psalm 34:15). He will fulfill the desire of them that fear Him: He also will hear their cry, and will save them” (Psalm 145:19). “The Lord is far from the wicked: but He hears the prayers of the righteous” (Proverbs 15:29).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 34:15).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의 소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분은 또한 그런 자들의 소원을 들으실 것이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시 145:19). “여호와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 15:29).

So this man is using their scriptures. He said, We know that the Lord doesn't hear sinners. They've accused Jesus of being a sinner. “Give praise to God because this man is a sinner. And he sai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but I do know, I was once blind, and now I can see.” He's now saying, “We know that God doesn't hear sinners: but if any man be a worshipper of God and does His will, He hears.” 지금 이 치료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성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주께서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대답했다: 그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과거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실은 이런 의미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ve you ever heard of any man opening the eyes of one who was born blind (9:32).

Of all of the miracles of the Old Testament, we don't read of anyone born blind who was healed. So this man is calling their attention to that interesting fac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ve you ever heard of a man who was born blind being able to see? 구약의 모든 기적들 중에도, 소경으로 태어난 이가 고침 받았다는 기사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이 흥미로운 사실에게로 저들의 관심을 끄는 중이었다: 창세 이래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If this man were not of God, he could do nothing (9:33).

One of the problems of dealing with a person logically is that when you have them nailed, they become irrational. They forget argumentation and all, and they just become totally irrational. And what this man is saying makes sense. But they don't want to face facts. It's sort of, Our minds are made up concerning Him, don't confuse us with the facts.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다룰 때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이성을 잃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토론이나 변론 따위는 도외시한 채 전적으로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고침 받은 소경이 하는 말은 이치에 맞다. 그러나 저들은 사실을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예컨대 이런 태도이다: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작성한 바가 있으니, 사실을 들이대며 우리를 혼돈시키지 말라.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You were altogether born in sins (9:34),

They are declaring that his blindness was the result of his prenatal sins. You were born in sin. You were born blind. 지금 이들은 그가 소경이 된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다.

and are you trying to teach us? And they cast him out (9:34).

Ostracized him. They closed the doors to him. 저들은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를 사회로부터 추방 시켰던 것이다.

When Jesus heard that they had cast him out; and when he had found him (9:35),

The indication is here that Jesus looked for him and found him. He heard that the man had been cast out. And so He came to him and He found him, and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 만나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가 추방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그를 찾아 만나신 것이다. 그리고

he said unto him,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9:35)?

In those days, they did believe that the Messiah would be the Son of God. That was the common belief among the rabbis. There was that prophecy in Isaiah,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of given: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saiah 9:6). The Son is given. God is going to give His Son. And so,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랍비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믿어지고 있던 사실이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예언이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아들이 주신 바 되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질문 하셨던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W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m do you say that I am? Peter answered and sai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When Jesus was being questioned by the high priest at His trial, he said, Are you the Messiah? And Jesus said, You said it. He said, Are you then the Son of God? And again Jesus said, You said it. But you see, the one question followed the other. If You say that You are the Messiah, then You are saying, You are the Son of God. Because at that time, they did believe that the Messiah would be the Son of God.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메시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재판정에 서셨을 때 대제사장은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네가 말했느니라 고 응수하셨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예수께서 다시 네가 말했느니라 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질문은 연이어졌다. 네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냐? 그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물은 것은, 당시에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믿음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At the present time, they have changed that opinion. Today they say that they do not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because He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and they said, We do not believe that the Messiah will be the Son of God. That reflects a change in the whole teaching of the rabbis and a change that was brought about because of Jesus Christ. But at that time, the rabbis did believe that the Messiah would be the Son of God. Today they take the prophecy of Moses, “There shall arise a

Prophet like unto myself; to Him you shall give heed” (Deuteronomy 18:15). And they say, Moses was a man, and thus the Messiah will be a man. But again, the logical question: If the Messiah is a man, how will you know that He is the Messiah? How will you recognize Him? And their answer to that is, He will lead us in the rebuilding of our temple. 지금은 저들의 견해가 바뀌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까닭이다. 오늘날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도 믿지 않는다. 이는 랍비들의 가르침 전체가 변했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이런 변화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랍비들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15)는 모세의 예언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린다: 모세는 사람이었으므로, 메시아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 만일 메시아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이랬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성전 재건을 지휘하실 것이다.

And so the Jews today are looking for a man to come and lead them in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ready to acclaim Him as their Messiah. Jesus said, “I came in My Father’s name, you did not receive Me: another one will come in his own name, him you will receive” (John 5:43). He came declaring that He was the Son of God. A man will come, not claiming to be a Son of God. They will receive him and after that, He will then claim to be God Himself. He will come to the rebuilt temple, stand in the holy of holies and declare that he is God and demand to be worshipped as God. 따라서, 유대인들은 와서 그들의 성전 재건을 지휘할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메시아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 5:43). 그분은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영접할 것이며,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는 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지성소에 서게 될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But Jesus said to him,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on the Messiah?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침 받은 자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것은 ‘메시아를 믿느냐?’란 의미이다.

He answered and said, Who is he, Lord, that I might believe on him? And Jesus said unto him, Thou hast both seen him, and it is he that is talking with you (9:36,37).

Sort of like the woman of Samaria who said to Jesus, We know that when the Messiah comes, He is going to teach us all things. And Jesus said, Woman, I who am speaking to you, am He. So here again, Jesus acknowledges, not publicly, but to this man who had been ostracized by the religious system of the day the fact that He was the Messiah, Son of God.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아,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재차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시인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체제로부터 파문을 당한 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

And he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9:38).

How is it that you can see? A man named Jesus put clay in my eyes and told me to wash and I can see. But then it went from that, Who do you say that He is? I think He's a prophet. And now, Jesus said,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Who is He, Lord? And He said,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And he sai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The progressive revelation that ultimately brought him to the place of worship. 네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 저보고 가서 씻어라 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고 물으셨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와 얘기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가 그 분께 경배를 드렸다. 점차적으로 계시가 전개되어 가다가 마침내, 그는 그분을 경배하기에 이른 것이다.

And that is God's purpose in the revealing of Jesus Christ to us, to ultimately bring us to the place of worshipping Jesus. You remember when Jesus was in Galilee and they opened up the roof of the house to let the man down with palsy. Jesus said unto the man, Your sins are forgiven. They said,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nd Jesus said,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 What'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A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Here again, the idea of the proof by the healing of this man with palsy. Said to the man, Take up your bed and walk. And he did. More difficult to do that than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But showing that He is God.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어떤 집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사건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날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기서도 역시 예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And so here, only God is to be worshipped. Jesus allowed him to worship Him.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침 받은 자가 그분을 경배하도록 허용하셨다.

And Jesus said, For judgment I am come into this world, that they which see not might see; and that they which see might be made blind (9:39).

He's come to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at they might see the truth of God. And yet, those who are pretending to see, taking positions of leadership in a religious sense, declaring to be in the light, might be blind. 그분이 오신 것은 눈 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을 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함이었다. 하지만, 자칭 본다고 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자임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산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And some of the Pharisees which were with him heard these words, and said unto him, Are we blind also? Jesus said unto them, If you were blind, you would have no sin: but now you say, We

see; therefore your sin remaineth (9:40,41).

It's so important that we not allow ourselves to be blinded by prejudice, by pre-conceived ideas and by tradition. These are three things that blind people to the truth. There is traditional religion. And so many people are blinded by the traditions. You've met them. You've seen them. You perhaps know them. And this is within the church. People who worship by tradition but they don't know the truth of Jesus Christ. They don't know what it is to be born again. 우리가 선입견에 의하여, 편견에 의하여, 전통에 의하여 눈이 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종교적인 전통이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통에 의해 눈이 멀어 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며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른다. 전통을 좇아 경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거둬 난다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있을 것이다.

People who are blinded by prejudice. They have their own bias, their own opinions. And they can't see it any other way. And people who are blinded by pre-conceived ideas. Whenever I come to the Word of God, I pray, Lord, don't let me be blinded by prejudice, by pre-conceived ideas, by traditions. But let my heart be open that Your Holy Spirit might teach me Your truth from Your Word. And I highly recommend that as a prayer for you when you come to the Word of God. 선입견에 의해 눈이 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을 다른 시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편견에 의하여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제가 선입견에 의하여, 편견에 의하여, 전통에 의하여 눈이 멀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제게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Don't come with pre-conceived ideas. Be willing to let the Word of God speak to you over and above the traditions and over and above your prejudice. Be open to the Spirit of God instructing us from the Word of God as He leads us into the truth of God.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 하도록 하되 전통을 넘어서, 여러분의 편견을 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에게 마음을 열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라.

Father, thank You that Your word is true. And Lord, we know how easy it is to fall into tradition, into interpreting the scripture by our preconceived ideas. Or oftentimes by our early training. So that we develop a bias, a prejudice. And Lord, our eyes then are closed. We're not open to the things that You would teach and show to us from Your Word. Lord, we thank You that where we were once blind, now we see. Thank You for opening our eyes to that life in Christ that we can enjoy. Thank You, Father, that You have caused us to be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and coming into this dimension of the Spirit, we can walk in the light even as You are in the light. And so Lord, help us. Help us to ever be open to hear Your voice as You speak to us through the Word.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전통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편견에 빠져 성서를 왜곡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잘못 되어서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럴 때는 우리의 눈이 멀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맘을 닫고 있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차원에서 살게 하시며, 당신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게 귀를 기울이며 맘을 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10

John 10
Tape #8078
By Chuck Smith

John chapter 10. As we pointed out this morning, the context goes back to chapter nine. The healing of the man who was born blind and because of that healing indirectly, he was ostracized, ex-communicated from the religion of the day. They had determined that anyone who had declar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would be ex-communicated. Not allowed to worship with the people in the temple or in the synagogue. And when he had this dispute with the Pharisees, it ended in his being ex-communicated. We read that Jesus found him and Jesus asked him the question, “Do you believe on the Son of God [which is the equivalent to the Messiah]? He answered and said, Who is He, Lord, that I might believe on Him? And Jesus said unto him, You have both seen Him, and He is now talking with you. And he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Jesus. And Jesus said, For judgment I am come into the world, that they which see not might see; and they which see might be made blind. Now some of the Pharisees were nearby, they heard what Jesus said, and they said, Are we blind also? Jesus said unto them, If you were blind, you would have no sin: but now you say, You see; therefore your sin remaineth” (9:35-41). 이제 요한복음 10 장이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적하였듯이, 이 장의 내용은 9 장의 내용과 이어진다. 나면서부터 소경 된 자의 치유와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그 소경이 당시의 종교 체제로부터 파문을 당한 사건 말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자는 누구나 다 파문을 하리라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다. 그 고침 받은 자가 바리새인들과 벌인 논쟁도 결국은 그가 파문 당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 이렇게 질문 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메시아와 같은 의미이다]을 믿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그를 보았으니,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이니라. 그는 ‘주여 제가 믿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 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말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9:35-41).

So this man was being put out of one fold, that of Judaism; but Jesus is receiving Him into another fold, that of Christianity. And so Jesus said,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유대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또 다른 울타리 즉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10:1),

And probably unto the Pharisees in the context of, You say, you see; therefore your sin remains,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문맥으로 보아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듯하다: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말을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He that entereth not by the door into the sheepfold, but climbeth up some other way,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10:1).

Jesus in a moment is going to tell us that He is the door to the sheepfold. If any man doesn't

enter by the door,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Jesus is now saying that there is only one way by which a person can enter into true fellowship with God. He is not saying that John the Baptist and Isaiah and Jeremiah and David and all were thieves and robbers. He is not condemning those men of God but those false pretenders, false prophets. Those who were pretending to lead people unto God but leading them astray. 잠시 후면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어느 누구든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윗 등 모든 자들이 절도나 강도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분이 정죄하고 있는 대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잘난 체 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쭐거렸지만, 실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었다.

By the time that Jesus came on the scene, the religious system of Judaism was pretty well corrupted. The high priest and the family of the high priest were of the sect of the Sadducees which neither believed in angels nor spirits nor resurrection. They were materialists. They had learned how to profit off of people's desire to worship God. They had set up in the temple courts little booths and they controlled the franchises whereby people were sold certified sacrifices. Sacrifices that would immediately and automatically be accepted by the priest because they had the seal of certification. But it costs. They profited handsomely. 예수께서 무대에 등장하실 때쯤 되어서는,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부터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 마당에다 작은 판매대를 마련해 놓고는 거기서만 사람들이 인증된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른바 독점적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인증 마크가 있는 제물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것은 값이 비쌌다. 그로 인해 그들은 상당히게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They had money changers who would exchange the Roman currency for the temple shekel so that the people could give unto God. But it costs them handsomely to exchange the money for the temple shekel. So they were sort of skimming off the top, enriching themselves, using the religious system for their own personal gain and benefit. When Jesus came into the temple and saw them selling the sacrifices and exchanging the money, He took a whip and He drove them out and He said, "My Father's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to all people,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Matthew 21:13). He was referring to the false prophets who supposedly spoke in the name of the Lord. He was referring also to those men who have preceded Him who claimed to be the Messiah. 그들은 환전상들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로마 화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그런데 성전 세겔로 바꾸는 일 역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그리하여 저들은 사람들로 부터 알맹이를 빼먹으며 치부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저들이 희생 제물을 파는 것과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시고는, 채찍을 만들어 저들을 내어쫓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니라" (마 21:13).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체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이었다.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칭 메시아라 하던 사람들을 가리킨 말씀이기도 했다.

In Acts chapter five, Gamaliel speaks of a Theudas who rose up, making claims for Messiahship, gathered about 400 men around him, but when he was put to death the whole thing fell apart. Also he spoke of another Judas of Galilee who also made elaborate claims and how that whole system fell apart. And so counseling them concerning the apostles. He said, "Let them alone. If it's of God, we can't fight it. We'll be fighting against God. If it's not of God, it will just go to pieces like the others" (Acts 5:38,39). Jesus said, Those that came before Me, making the claim to be the Messiah. They were thieves and robbers. Those who were false prophets. Those who were profiteering off of the religion, thieves and robbers. Trying to get into the kingdom some other way than by the door. 사도행전 5 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드다에 대해 언급한다. 자칭 메시아라 하는 드다가 일어나자 400 명 가량이 그를 따랐었는데, 그들은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모두 흩어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가말리엘은 또한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꺾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좇던 사람이 다 흩어진 일이 있었다. 그런 예들을 들면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행 5:38,39). 예수께서는 그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종교라는 미명 하에 폭리를 취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다.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었다.

But he that entereth in by the door is the shepherd of the sheep. To him the porter will open; and the sheep will hear his voice: 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he leads them out (10:2,3).

We were sharing with you this morning how this is a sheepfold that was in the city. In the evening when the shepherds would come in from the fields with their various flocks, they had sort of a common sheepfold. It was a secure place. It had a gate on it. And the porter would open the gate to the shepherds and their flocks would go in and mingle during the night. 오늘 아침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던 양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녁에 목자들이 자기 양 떼를 이끌고 들에서 돌아오면, 양들을 일종의 공동(共同) 우리에다 넣었다. 그곳은 안전한 곳으로서 문이 달려 있었다. 문지기가 목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면 양들이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곤 하였다.

In the morning, the shepherd would come to get his flock to lead them out to the pastures. And he would call and his flock would respond. The sheep knew the voice of their own shepherd. You could go and stand and call all day and not one of them would follow you. They don't know your voice. But they knew the voice of their shepherd. And so Jesus is. And it would be an interesting thing to go and watch the shepherds stand there and call and all of his sheep just leaving the others coming out and the others just still not paying any attention because they didn't recognize the voice. But when their shepherd came, then you'd see them perk up and they would follow out. So this is the picture that Jesus is giving here.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어 초장으로 가곤 했다. 한 목자가 부르면 그의 양들이 응답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가 서서 하루 종일 양들을 불러 보라. 양 한 마리도 여러분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양들이 여러분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양들도 그럴 것이라는 말이다. 목자들이 거기 서서 자기 양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흥미진진할 것이다. 다른 양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그의 양들만이 우리 밖으로 나아올 것이다. 다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목자가 다가오면 다른 양들도 신이 나서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광경에 대한 것이었다.

He is the Shepherd. He comes to the fold, He calls and His sheep hear His voice and they respond. And He leads them out.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로 다가오셔서 부르시면, 그분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And when he puts forth his own sheep, he goes before them, and the sheep follow him: for they know his voice. And a stranger they will not follow, but they will flee from him: for they know not the voice of a stranger. This parable [John tells us] Jesus spoke unto them (10:4-6):

That would be unto the Pharisees and all that were there when He was receiving this blind man into fellowship. Ex-blind man.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소경을, 아니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양의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실 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things which He spake unto them (10:6).

It was a mystery. They couldn't figure it out. What's He talking about? So Jesus went on to explain. 이 말씀은 신비한 얘기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가 지금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그 내용을 설명하셨다.

Then said Jesus unto them again,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10:7).

Now we have another type of sheepfold. This is one that is out on the countryside. In the summer months, as they had to go far for pasture, as the grass of course would be eaten around the area they'd have to go farther and farther to find pasture in the dry summer. So they had out in the wilderness sheepfolds which were just walled in areas. They were protected in the walls from the wild animals and from the wind but there was no door to it, just an opening in this walled enclosure of rocks. And in the evening when the shepherd would bring the sheep to this enclosure, he would hold his staff down low making the sheep come under it to give him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m, to see if there were any briars stuck in their wool, to see if there were any cuts that he might anoint with oil. And once the sheep were brought in, examined and counted, then the shepherd himself would lie across the opening of the enclosure. So he became the door. You could not enter in except you enter in by the shepherd. In the same token, the sheep could not leave. He became the door to the sheepfold. 이제 여기 다른 형태의 양 우리도 있다. 들판에 있는 양 우리다. 여름이 되면 목자들이 목초지를 찾아 다녀야 했다. 주변에 있던 풀들을 물론 다 먹어치웠을 것이므로, 여름 건조기에는 그들이 보다 더 먼 곳으로 나아가 풀밭을 찾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들판에 양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저 울타리를 대강 두른 것이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야생 동물이나 비바람을 피했을 것인데, 거기에는 문이 없었다. 돌로 담을 쳐 두른 곳에 열린 구멍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저녁에 양들을 이런 우리로 데리고 돌아온 후, 목자는 지팡이를 낮게 드리운다. 그러면 양들이 지팡이 밑으로 다가와 자기 몸을 보인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이 어디 찢린 데는 없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서 기름을 발라준다. 일단 양들을 안으로 들여 놓고 검사하고 그 수를 세고 하고 나면, 목자는 우리의 그 터진 곳을 가로막아 드리눅는다. 말하자면, 양 우리의 문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그러면 그 누구도 목자를 건너지 않고는 그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또한 양들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서 나갈 수가 없다.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And so He is declaring now, “I am the door of the sheep.” 이런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로다.”

All that ever came before me (10:8)

That is, claiming to be the Messiah. 다시 말하면, 와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a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hear them. I am the door: by me if any man enter in, he will be saved (10:8,9),*

So you can come into the safety, the security of the sheepfold by Jesus Christ. And of course, talking to this blind man who had been kicked out of the one fold, Jesus is saying, He has come into another fold and there he is safe.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전하고 든든한 양 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양의 한 우리로부터 추방을 당한 이 소경이 다른 우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안전한 우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he shall go in and come out, and find pasture. The thief [these false claimants] they came to steal, to kill, and to destroy (10:9,10):

There are still those today who lay some kind of Messianic claim upon themselves. In India, there are those men who claim to be God-men. They have passed through an evolutionary transitional state from man into God, the Avatar and they claim to be God. They draw huge followings and they build themselves palatial mansions. They live in the labs of luxury. They drive fleets of Rolls Royces. They are using their position and their power over the people for their own personal gain and enrichment. 오늘날에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 인도에는 자신을 신인(神人)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간으로부터 신 즉 아바타로 변화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며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산다. 궁궐 같은 곳에 거하면서 롤즈 로이스 같은 아주 비싼 차들을 몰고 다닌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며 치부하는 사람들이다.

There are those who claim to be the Messiah.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one such claimant. He has his followers selling peanuts in parking lots and flowers on the street corners. Making merchandise of the people that he might live a very luxurious lifestyle. But they are all interested in their own personal comfort and in taking advantage of their followers to enrich themselves.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거리에서 땅콩이나 꽃을 판다. 그렇듯 사람들을 상품으로 만든 그는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이런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이며, 추종자들을 이용하여 치부를 하고 있을 뿐이다.

Jesus said, “They are thieves and robbers,” and “the thief comes not but for to steal, to kill and to destroy.” Not really interested in the flock of God. Wants to steal from them. Kill them if necessary. Sell the meat and destroy. But Jesus, in contrast, said, “I am the door,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며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양 무리에게 진실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양들을 벗겨 먹고, 필요한 경우 죽이며, 그 고기를 팔기도 하는 등 양들을 파멸시킨다는 말이다. 그에 비해,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신다.

I have co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10:10).

Jesus came to give, not to take. The true servant of Jesus Christ will give, rather than take. He will minister rather than being ministered to as he follows the example of his Lord. He’s more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the flock of God than he is his own welfare. You will not find him begging the people for funds but he will just trust the Lord to provide for the things that God desires to do. Jesus came to give you life. 예수께서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은 주려고 하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범을 좇아 섬기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양 무리의 복리에 관심이 있지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고 단순하게 믿을 것이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I've often said that people have such a wrong concept of Christianity. And perhaps for good reason. Because of some of the false prophets. Jesus came that you might have life on the highest plain. He did not come to take from you. He came to give to you and to bring you to life on the highest plain. Take life at its best, add whipped cream, chopped nuts and a cherry and you've got Christianity. He's the whipped cream. He's just that added touch. It's life plus, more abundantly. 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아 왔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몇몇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평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취하려 오신 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극히 복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을 취하여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바르고 땅콩이나 체리를 가미해 보라. 그러면 기독교가 얻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거품이 이는 크림이시다. 그분은 향미를 더해주시는 분이시다. 삶이 풍성해지고 또 더 풍성해지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gives his life for the sheep (10:11).

I didn't come to kill. I came to give My life for the sheep. 나는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다.

But he that is a hireling, and not the shepherd, whose own the sheep are not, he seeth the wolf coming, and he leaves the sheep, and flees: and the wolf catches them, and scatters the sheep. The hireling flees, because he is a hireling, and he doesn't care for the sheep (10:12,13).

Those who have their own interests. They really don't care for the sheep. They're hirelings. When danger comes, they'll flee. They'll forsake the flock. Why? Because it's not their flock and they really don't care for it, all they care is the wages that they can get from keeping the flock. Jesus said, 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양들에게는 원래 관심이 없다. 저들은 샅꾼들이기 때문이다. 위험이 다가오면 그들은 도망갈 것이다. 그들은 양들을 포기해버릴 것이다. 왜 그런가?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며 양들에게는 진실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경을 쓰는 대상은 양들을 쳐서 얻게 되는 샅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I am the good shepherd [again He repeats it], and I know my sheep, and am known of mine. As the Father knoweth me, even so know I the Father: and I will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10:14,15).

Later on in the fifteenth chapter, Jesus will say,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his, that a man will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John 15:13). He is saying here, "I will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It's a prophecy because in six months, within six months, He will actually lay down His life for the sheep. And then Jesus said, 나중에 15 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본문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의 예언이었다. 왜냐하면 6 개월쯤 후에 예수님은 진짜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Other sheep I have, which are not of this fold (10:16):

He's talking about you. In the seventeenth chapter of John as He is praying for His disciples, He prays that God will not only bless them but all who will come to believe in Me through their word. So that includes us, we who have come to a faith in Jesus Christ through the reading of the Gospels, the New Testament. The prayer of Christ is all inclusive. It includes us.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들에 대한 언급이다. 요한복음 17 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 뿐만 아니라 장차 저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비셨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니, 신약의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된다.

When Paul is writing to the Ephesians in chapter two, he talks about how Jesus has broken down the wall that once existed between the Jew and the Gentile. That wall that had been built up to exclude the Gentile from salvation. That wall of separation that kept you outside. But he talks about how Jesus has broken down the wall and made us all one. And here Jesus is declaring that. “I have other sheep, they're not of this fold.” 바울은 에베소서 2 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예수께서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그 담은 이방인들을 구원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쳐진 것이었다. 말하자면, 분리와 격리의 담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신 예수님의 선언도 그런 사실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them also I must bring, and they shall hear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old, and one shepherd (10:16).

And so as Paul lays this out to the Ephesians, how that the church is one and we Gentiles who were onc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is world: have been brought nigh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Ephesians 2:12,13). We've been made partakers of the promises of God and of the covenants. We've been brought into this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한다. 이방인들이 즉,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던” (엡 2:12,13)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So then He goes on to declare, “For there is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Ephesians 4:4,5), and so the Lord has made of the two one. He has brought us together so that we are all of the one fold Jesus the Chief Shepherd, Jesus the Good Shepherd and has brought us Gentiles into the fold of God. How glorious that is. 그런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며” (엡 4:5), 따라서 주님은 그 둘(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우리에게 들게 하셨으며, 목자장 되시는 예수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가.

And He said,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Therefore doth my Father love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ight take it again (10:17).

The laying down of His life was an act of submission to the Father. As Paul told the Philippians,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Yet He emptied Himself, took upon himself the form of man, and He came in the likeness of men as a servant: and was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Wherefore God has also highly exalted Him, given Him a name above all names: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ippians 2:6-11). So the emptying of Jesus and then the exalting of Jesus by the Father because of His obedience,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Father. 그분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한 행위였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한 말 그대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6-11).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자,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In the garden He prayed, “Father, if it’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Thy will be done” (Matthew 26:39). And one occasion God sai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Matthew 3:17).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7).

He speaks about His Father’s love for Him. “My Father loves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ight take it again.” Here should settle an age-old issue as to who crucified Jesus. There has been sharp tension between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Jews because both of them seek to lay upon the other the blame for the crucifixion of Jesus.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persecuted the Jews. They called them Christ killers.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서는 깊은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예수 살해자들이라고 불렀다.

I was talking with a friend in Israel who was saying that as he grew up in South America, everyday he had to run home from school because the boys would throw rocks at him. He said the Christian boys would throw rocks at me, calling me a Christ killer. And he said, So that was my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내게는 이스라엘 출신의 친구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미국 남부에서 자랐는데, 학창 시절 학교가 파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야만 했다고 한다. 친구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며 예수 죽인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그는 술회했다.

But the Jews said it was the Romans, clearly the Romans who crucified Him. It was under the edict of the Roman court and the Roman soldiers were the ones that did it. And so the argument goes on and on, each trying to throw the blame on the other. But they’re both wrong.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인들, 분명히 로마인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로마 법정의 판결에 의해 로마 군사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진행되어 내려오는 동안, 서로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곤 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모두 그릇된 것이었다.

Jesus said,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self (10:18).

So it isn't the Jew who is to blame; it's not the Roman soldiers who are to blame. In a sense you might say, It is God who is to blame. "For God so loved the world," including you and me,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It was my sin that took Him to the cross. I am the guilty one. He died for me. I'm so glad He did. But He said that He did it, He laid it down Himself. "No man takes it from Me, I lay it down of Myself." 이는 유대인 책임도 아니고, 로마 군사들 책임도 아니라는 말씀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과 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요 3:16) 때문이다.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도록 한 것은 바로 나의 죄이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We remember when Jesus was hanging on the cross and because it was the day of the preparation for the sabbath, the next day was the special sabbath of that holiday, the beginning of the unleavened bread, and so they didn't want the bodies to be hanging on the tree on the sabbath day which began at sundown. So they came to Pilate. They asked permission to break the legs of those that were hanging on the cross, Jesus and the other two, to break their legs in order to hasten the death. And they were granted permission. And so they came and they broke the legs of the two thieves. But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found that He was already dead so they did not break His leg but the soldier just put his spear through His side into His heart and there came forth blood and water. But you remember as Jesus was hanging on the cross, He said, "Father, 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And then it says, "He bowed His head and dismissed His Spirit" (Luke 23:46).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를 기억한다. 그 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 즉 무교절이 시작되는 휴일이었다. 저들은 일몰과 함께 시작되는 안식일에는 나무 위에 매단 시신을 그대로 두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갔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예수와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꺾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였다. 다리를 꺾어 저들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 허락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두 도적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다가갔을 때는 그분이 이미 죽어 있었다. 따라서 군사들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심장까지 관통하게 하였다. 그러자 물과 피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 (눅 23:46).

No man, He said, takes My life from Me, I give My life. 그분은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the power to lay it down, I have the power to take it up again (10:18).

And He proved He had the power to lay it down. As He bowed His head, He dismissed His spirit. He said, Okay, you can go now. I have the power to do that. He also said He had the power to take it up again. And on the third day He did that. He rose from the dead. So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I lay it down of Myself. I have the power to lay it down, I have the power to take it again.”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음을 입증하셨다. 그분이 고개를 숙이시자, 그분의 영은 떠나버렸다. 그분이 자기 영에게 이제 되었으니 너는 떠나도 된다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 그분은 그 목숨을 다시 취할 권세가 있다고도 말씀하셨다. 제 삼일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This commandment I have received of my Father. There was a division again among the Jews because of these sayings. And many of them said, He has a devil; why do you listen to him? He's crazy. Others said, These are not the words of him that hath a devil. Can a devil open the eyes of the blind (10:18-21)?

They're faced with this miracle. They can't give an explanation for it. Obvious miracle. A man born blind is now there, he sees. And so it creates the division. 저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처리할 지 몰랐다. 그것에 대해 해석을 내릴 수가 없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분명히 기적은 기적이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인해 분란이 생기게 되었다.

Now some two months later or so. You see, this all took place around the time of the feast of the tabernacles which takes place in October. On December the twenty-fifth, they have the feast of dedication, also called the feast of light, and today known as Hanukkah. And so John jumps over a couple of months of the life of Jesus without any comment and we are back again in Jerusalem some two and a half months later at the feast of dedication. This is one of the feasts of the Jews that does not appear in the Mosaic law. It is not one of the required feasts for them to be in Jerusalem. They can observe the feast of dedication anywhere. And it is the feast by which they were commemorating the rededication of the temple after it had been profaned by the Syrian ruler, Antiochus Epiphanes. 이는 대략 2 개월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일 모두는 10 월에 있게 되는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 12 월 25 일에는 빛의 절이라 불리는 수전절이 있었다. 오늘날 하누카라 불리는 절기였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수 생애 중 서너 개월을 건너뛸 셈이다. 2.5 개월이 지난 뒤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 절기는 모세의 율법에는 나오지 않는 유대인의 축제 중 하나였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하는 절기는 아니었다. 수전절은 어디서나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은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한 뒤 이뤄진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He in cold and callous disregard for the Jews put the image of Jupiter in their temple in the holy of holies. He offered a pig as a sacrifice upon the altar of God. He profaned the temple of God. There was a family, the Maccabees. And Judas Maccabias, one of the boys, led a rebellion against the rule of Syria and they overthrew the Syrians. Drove them out. And they decided to rededicate the temple to cleanse it from the impurities of Antiochus Epiphanes. And so they had the feast of dedication that followed year after year to celebrate the dedication once again of the temple and the cleansing of the profaning of the temple under this Syrian ruler.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전혀 무시해 버린 채 제우스 신상을 성전의 지성소에다 갖다 놓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단에다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그런데 한 가문이 나타났으니 곧 마카비 족속이었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소년이 주도하여 시리아에게 반기를 들고 시리아인들을 타도했던 것이다. 그들을 내어쫓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한 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부정으로부터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수전절을 지키며, 성전을 재차 봉헌하는 한편, 그 시리아 통치자가 더럽힌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을 기념하곤 했다.

So Jesus was at Jerusalem, and [John tells us] it was winter (10:22).

That feast does take place right at wintertime, December twenty-fifth. 이 절기는 겨울에 즉 12월 25일에 지켜졌다.

And Jesus walked in the temple in Solomon's porch (10:23).

This was a large colonnaded porch of the temple. It was on this porch that Peter healed the lame man and the crowd assembled and Peter preached to them and several thousand were converted. So a large area. And Jesus, as He was there on Solomon's porch, 이 행각은 큰 기둥으로 둘러싼 성전 현관을 말한다. 절름발이가 고쳐졌을 때 모여든 군중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곳도 바로 여기였다. 그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심했다. 그만큼 이것은 넓은 곳이었다. 이 때 예수님은 이 솔로몬 행각 위에 계셨다.

There came the Jews round about him (10:24),

That is, they encircled Him. They hemmed Him in. They cornered Him. 다시 말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포위해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댔다.

and they said unto him, How long do You make us doubt (10:24)?

Or, do you leave us in this question.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의문 속에 가두어두려 합니까? 라는 뜻이다.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10:24).

How long do you leave us just hanging? Make Your claim. He did and they picked up stones to kill Him. 언제까지 우리를 어리벙벙하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주장을 밝히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 그랬더니 저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지 않았던가?

But He said unto them, I told you, and you did not believe Me: the works that I do in my Father's name, they bear witness of me (10:25).

The works that I've done, they answer your question. Now there were those who recognized that. Nicodemus when he came to Him said, "No man can do the work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John 3:2). In the fourteenth chapter when Jesus is talking to His disciples, "Philip saith unto Him, Lord, just show us the Father, and it sufficeth us. And Jesus said, Have I been so long a time with you, Philip, haven't you seen Me?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how is it that you say, Show us the Father?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very works' sake" (John 14:8-11). So again He calls upon the works that He does as the evidence. Not just laying claim. Not just saying, Yes, I am the Messiah. Anybody can say that. 내가 행한 일, 그것이 너희의 질문에 대해 답을 줄 것이니라. 이런 사실을 인식한 사람도 있기는 했다. 니고데모란 사람은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 3:2).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 14:8-11).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자신의 행위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던 것이다. 단순히 주장하거나 말만 하신 게 아니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의 주장을 행위로 증명해보이셨다.

As when the man with the palsy was let down there in the house and they removed the roof and let the man down, and Jesus said, Your sins be forgiven. And there was a real hubbub by the Pharisees when they heard that. And Jesus said, What's hard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Rise, take up your cot and go? But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 (He turned to the man with palsy and said), Take up your cot and go home. And the man took up his cot and walked out the door (Matthew 9:2-7).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 소리를 듣자 바리새인들은 소란을 피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고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명령하나니,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마 9:2-7).

The works bore witness that He had the power to say, Thy sins are forgiven. When they said, No man can forgive sins but God. That's blasphemy. What's He saying, Your sins are forgiven, that's blasphemy. Jesus is proving that He has the power. No man can forgive sins but God. He's proving that He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proving that He is God. And so He calls now again upon His works. 내 행위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증거 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어. 저건 불경한 행동이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하다니, 저건 참람한 말이야'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분은 자신의 행위를 증인으로 채택하신 것이다.

You want to know if I am the Messiah? The works. I told you but you didn't believe Me, so the works that I do, they bear witness of Me.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지 알고 싶으냐? 내 행위를 보라.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을 보라. 그것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 할 것이다.

But you believe not, because you are not of my sheep, as I said unto you (10:26).

Interesting verse. The reason why you don't believe, because you're not My sheep, as I said to you. There's a fascinating verse in the book of Acts that talks about an invitation that was given and it says, "And as many as were ordained to eternal life believed" (Acts 13:48). When we start getting into the subject of predestination and fore-ordination and all, I believe we are trampling in areas that our human brains are not capable of really filtering out and coming to a complete understanding. And I think those who dogmatically claim to know the most, know the least. 흥미 있는 구절이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복음으로의 초청에 대해 말하면서 멋진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영생을 얻게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행 13:48). 우리가 예정설이나 미리 작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할 때, 우리는 인간의 두뇌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교리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또한 생각한다.

The Bible clearly declares that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The invitation

was to all to “come and drink of the water of life freely” (Revelation 22:17). And yet, there are those that are of the fold, His sheep; and those that are not. And they did not believe because they were not His sheep. I don’t understand it. I openly and honestly confess to you I don’t understand it. There are always those who are trying to get you on one side of the fence or the other. To get you to commit. I drive them crazy because I’m not committed on this.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 22:17)는 초청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든 양 즉 그분의 양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나는 저들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를 우리 한쪽 끝으로 몰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 그들은 우리로 범죄 하게 하려는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신경질이 나서 미치려 한다.

I believe that the Bible teaches the sovereignty of God, divine election and predestination. But I also believe that the Bible teaches the free moral agency of man. How that man is a self determinate being,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how that we can choose and God offers us the choice and that God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2 Peter 3:9). How to reconcile it? I can’t. Maybe you’re smarter than I. I wouldn’t question that and I wouldn’t challenge that. But I’ll just stay blissful in my ignorance and you can fight.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다고 믿는다. 신이 예정하시고 신이 선택하신다는 교리를 가르친다고 믿는다. 나는 성경이 인간의 자유로운 도덕적 기능에 대해서도 가르친다고 믿는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결단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지에 대해 가르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벧후 3:9)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겠으며 내용들을 조화시키려고 도전하지도 않겠다. 다만 나는 나의 무지 안에 거하며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행하라.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10:27):

I’m glad that I’m one of His sheep. That’s all I can say. I have heard His voice, I follow Him. 나는 그분의 양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게 전부이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분을 따를 것이다.

And I give unto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10:28),

What a glorious promise! And I revel in it, I rejoice in it.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가! 나는 이 약속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neither shall any man pluck them out of my hand (10:28).

Paul the apostle in the eighth chapter of Roman, the latter part, asked a series of questions that I absolutely enjoy every time I read them and contemplate and meditate upon them. Paul said,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Romans 8:31)? That’s a great one to meditate on. First of all, to know that God is for you. If God is for me, then just who can be against me? As Martin Luther said, The prince of darkness grim, we tremble not at him. One little word will fell him.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사도 바울은 로마서 8 장 후반에서 일련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읽고 명상하며 묵상할 때마다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으리요”(롬 8:31)? 참으로 명상하기 좋은 구절이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틴 루터의 말처럼, 어두움의 사자가 입을 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마디의 말씀이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으리요?”

And, “Who is he that condemneth? It is Christ who has died, yea rather, that is risen again, who is eve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making intercession” (Romans 8:34). Who shall lay anything to the charge of God’s elect? It is God who has justified. 그러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하나님의 선민을 감히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감히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

And then,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I love that one. “For I am persuaded, that neither life, nor death, principalities, or powers, things present, things to come, nor any other created being, is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Romans 8:35,38,39). I love that. Jesus said, “No man will pluck them out of my hand.”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롬 8:35)?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이 구절도 나는 좋아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My Father, which gave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10:29);

Principalities, powers, anything else.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

and no man is able to pluck them out of my Father's hand. I and my Father are one (10:29,30).

Are you the Messiah? Tell us plainly. He goes one step further. He said, “I and the Father are one.” Substance, We are one. ‘네가 메시아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Then the Jews took up stones again to stone him (10:31).

Alright, You told us plainly. We got the message. I think almost a humorous way, ‘옳다. 네가 이제야 분명하게 말을 했구나. 우리가 네 말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 들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해학 수준에 가깝다고 본다.

Jesus said to them, I have done many good works from my Father; for which of these works are you going to stone me (10:32)?

He had healed the lame man at the pool of Bethesda. He had now opened the eyes of a blind man. For which of the works are you going to stone me?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절름발이를 고쳐주었다. 나는 방금 한 소경의 눈도 열어주었다. 이것들 중 어느 일 때문에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They answered him, saying, For good works we don't stone you; but for blasphemy; because thou, being a man, continually make yourself God (10:33).

They were there. They clearly understood the claims that Jesus was making, even though the Jehovah Witnesses don't understand what Jesus was saying to the present day. Jesus was saying He

was God. He was saying, I and the Father are one. He was continually avowing the fact that He was God. And for this they were ready to stone Him. 거기 서 있던 자들은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공언하셨다. 그것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다.

Jesus answered them,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10:34),

Notice, this is, I find it quite interesting, that “I said.” In other words, Jesus is saying, I authored the law. They always thought the law came from Moses. Jesus said, “Isn’t it written in your law that,” 나는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주목해 보라.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 라는 의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다고 항상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고) “너희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고 반문하셨다.

I said, that You are gods (10:34)?

“I and the Father are one.” That’s pretty brave statement with the guys having stones in their hands. To claim to be the Author of the law. So often at this point, people will point you to Psalm 82:6. But Psalm 82:6 is not the law. It’s the psalms. Jesus is saying that He said it in the law that they were gods.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말 치고는 참으로 담대한 말씀이다. 자신을 율법의 창시자로 주장하다니 말이다. 종종 사람들은 이 구절이 시편 82:6 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편 82:6 은 율법이 아니라 단순한 시이다.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미이다: 내가 율법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니라.

Incidentally, the Mormons pick up on this as a proof text that if they are faithful to the Mormon church and their marriages are sealed within the temple, that they will be gods, they will ascend into the next state of godhood and will be able to go to their own private little planet and begin a race of people and the family is forever and they can have their own celestial family on some planet someplace. This is their proof text. Jesus declaring that “Ye are gods.” 부차적인 얘기지만, 몰몬교도들은 이 구절을 들어 자기네 교리의 근간을 삼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몰몬교회에 대해 성심을 다하고 그들의 결혼이 성전 안에서 인침을 받는다면, 그들은 신이 될 것이며 신격(神格)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 교도들은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행성으로 가서 영원히 한 족속과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어떤 행성의 어느 곳에선가 그들만의 천국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모든 주장이 본문의 구절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예수께서 “너희는 신들이니라”고 선언하신 내용 말이다.

Now in turning, first of all, let’s turn to Psalm 82 and see what the psalmist says. But we need to see it in the context. Just don’t start with the sixth verse, start with the first verse. “God standeth in the congregation of the mighty; and He judgeth among the gods. How long [He said] will you judge unjustly, and accept the persons of the wicked?” And now, speaking to the judges or to the gods, He said, “Defend the poor and the fatherless: do justice to the afflicted and the needy. Deliver the poor and the needy: rid them out of the hand of the wicked. They know not, neither will they understand; they walk on in darkness: all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out of course. I have said, Ye are gods; and all of you are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Psalm 82:1-6).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선 우리는 시편 82 편을 살피면서 이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맥에 비춰서 이 시편을 고찰해야 한다. 6 절부터 보지 말고 1 절부터 읽도록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데도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 82:1-6).

Notice here again He said, “I have said.” So this is a quotation, “I have said that ye are gods.” That’s a quotation. So Jesus is saying, “Did I not say in the law?” So where in the law did He say that ye are gods? You have to go back to Exodus chapter twenty-one and chapter twenty-two. And here is where it doesn’t really become obvious in our King James bibles but in the Hebrew, it is there. 여기서 다시 살펴보자.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은 이미 말한 내용을 인용한다는 얘기다. 인용하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율법에서 말했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이다. 율법 어디에서 너희는 신들이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21 장과 22 장으로 가 봐야 한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뜻이 분명하다.

Chapter twenty-one, first of all, verse twenty-two. Here God is laying out the law and the judgment that is to be meted out in certain cases. If this should happen, then this is the judgment. And so He is instructing the judges concerning the law and the penalties that are to be evoked for certain crimes. In verse twenty-two, “If men strive, and hurt a woman who has a child [who’s pregnant], so that the child departs from her [the child is aborted], and yet no mischief follow: he shall surely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woman's husband will lay upon him; and he shall pay as the judges determine.” The word “judges” there, interestingly enough, is the Hebrew word, “Elohim”, which is gods, plural. So “he shall pay whatever the gods determine.” The judges were called gods, small “G”, plural, because they had the power of life and death over people or they had power of people’s destiny who were brought before their courts. 우선적으로 21 장 22 절을 살펴보자. 여기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며 몇몇 경우에 관시할 판례를 열거하신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판결은 이러하니라 는 식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재판장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시며 몇몇 범죄에 적용할 형벌을 가르치고 계셨다. 22 절의 내용은 이렇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재판장”이란 용어는, 아주 흥미롭게도,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 ‘신들’을 가리키는 “엘로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벌금을 내되 신들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는 뜻이 된다. 재판장들은 ‘신들’로 불렸는데, 이는 복수형이면서 소문자로 시작되는 ‘신(god)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판정에 선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s God has the power over us, life or death, or power concerning our destiny, these men were to act in God’s stead. They were to see that God’s law was fulfilled and so the judges were called “Elohim,” gods. And you have it then in chapter twenty-two, beginning with verse eight, “If the thief is not found,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shall be brought to the judges [again in Hebrew “Elohim” or gods], to see whether he has put to his hand unto his neighbour's goods. For all manner of trespass, whether it is for an ox, or a donkey, or sheep, for raiment, or for any manner of lost thing, which another challenges to be his, the cause of both parties shall come before the [Elohim] judges [or gods]; and whom the judges [or gods] shall condemn, he shall pay double unto his neighbour” (Exodus 22:8,9). So the word there is “Elohim” or gods, that’s where in the law Jesus

said, “ye are gods,” referring to the judges who had the power over a person’s destiny really because they were determining the innocence or the guilt and the punishment that should be meted out for the guilty. So there it is. Next time you’re talking to a Mormon and they bring that up, you can take them back and show what Jesus was talking about.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지배하시며 운명을 좌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행동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그들을 “엘로힘” 즉 신들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다음으로 22 장 8 절부터 읽으면 이렇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은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서도 재판장은 신들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게 된다. 재판장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무죄와 유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에게 내릴 형벌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신들이었다. 다음 번에 여러분이 물몬교도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거든, 이 얘기를 꺼내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며 그들을 한번 설복시켜 보라.

If he called them gods, unto whom the word of God came (10:35),

These are the judges, to whom God’s edicts for certain crimes were given.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재판장들을 가리킨다. 그들에게는 어떤 죄에 대해 하나님의 판결이 주어졌 있었다.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10:35);

Interesting passage.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or the Son of man, that He should repent: hath He not spoken, and shall He not make it good” (Numbers 23:19)? That comforts me.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God will stand by His word. He’ll honor His word above His name. 흥미 있는 구절이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 23:19)? 이 말씀은 나에게 위안이 된다. “성경은 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기필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씀을 시행하실 것이다.

Do you say of him, whom the Father hath sanctified, and sent into the world, That You blaspheme; because I said, I am the Son of God (10:36)?

Why are you going to stone Me? for what good work? Not for your good works but for blasphemy; because You being a man are making Yourself God. So Jesus is again sort of showing them their own scriptures. And He said that, Are you going to accuse Me of blasphemy because I said I am the Son of God? The One who the Father has sanctified and sent into the world. He said, ‘너희는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한 선행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너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너의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읽는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으로 인해 너희는 나를 참람하다 하려느냐?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를 참람하다 하려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f I do not the works of my Father, then don’t believe me (10:37).

If I haven't done the works, then don't believe Me.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나를 믿지 말라.

But if I do, though you don't believe me, believe the works: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am in him (10:38).

Let the works again bear witness. As He said to Philip, "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very works' sake." He called upon His works, His miracles, as a proof that He was the Son of God. 예수님은 다시 한 번 행위를 불러 증인을 삼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분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불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삼고자 하셨다.

On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church and many Jew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were there for the feast of Pentecost gathered because of the phenomena that accompanie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hen Peter stood up in the midst and began to address the people: "You men of Israel, hearken unto me: For these people are not drunken, as you suppose, it's only nine o'clock in the morning. But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when he said, in the last days, saith the Lord,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And upon my servants and handmaidens will I pour out of my Spirit in that day, saith the Lord; and there shall be blood, and fire, vapour of smoke: moon turned into blood, sun into darkness, before the great and notable day of the Lord come: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Now let me speak to you, he said,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o was approved of God by the signs and the wonders that He did in your midst" (Acts 2:14-22). More literally from the Greek, Who was proved to be of God. So Peter is there again using the same witness, the works of Jesus proved that He was of God. Proved to be of God by the signs and the wonders that He did in the midst of you. So here again once more, Jesus is calling upon the works as the witness that He was from God, that He was in harmony with God in the works that what the Father was doing is what He was doing, manifesting the works of the Father among them because He and the Father were one together. 오순절 날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였으며, 오순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다. 그들은 성령의 강림에 수반되는 현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그 때 베드로가 군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행 2:14-22). 보다 희랍어어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으로 증명되었느니라' 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동일한 증인을 내세웠던 것이니, 즉 예수의 행위를 들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던 것이다.

그분은 너희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증명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자기의 행위를 들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 하셨으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그분과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셨던 것이다.

Therefore they sought again to take him (10:39):

He is again making it clear and so once more they attempt to take Him. 예수께서 다시 한 번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시니, 사람들은 그분을 또 다시 붙들려고 하였다.

but he escaped out of their hands (10:39),

because His hour was not yet come. Got a couple more months before the hour comes. 아직 그분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뒤 달은 더 지나야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And He went away again beyond Jordan into the place where John at first baptized (10:40); Down near Jericho. 그분은 다시 요단을 건너, 처음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내려가셨으니 곧 여리고 근처였다.

and there He stayed (10:40).

Leaving now the place of hostility, Jerusalem, going back to the area of the Jordan where He will remain until called by Mary and Martha to come quickly because of the serious illness of their brother, Lazarus. 적대감이 서려 있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그분은 요단 지역으로 다시 가셨다. 그리고는 훗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의 남동생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으니 속히 와 주소서 라고 청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셨다.

But many resorted unto him, and said, John did no miracle: and all things that John spake of this man were true (10:41).

John said there is one that is coming after me who is mightier than I am, whose sandal latchet I'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John said of Him, Behold the lamb of God who will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And so the people are saying, John didn't do any miracles. And yet we accepted him as a prophet. Everything that John said of this man is true. 요한은 나 뒤에 나보다 더 강력하신 한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 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 말했다. 사람들은 요한이 아무런 기적도 행한 바가 없다 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기 때문이다.

And so many did believe on him there by the Jordan river (10:42).

Where He will stay until His final journey to Jerusalem. We have Him coming back to Jerusalem at the call of Mary and Martha.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까지 요단 강가에 머무셨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청할 때에야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실 것이다.

I love that eleventh chapter. Get into it. Study it. You'll really enjoy it. It's got a lot of fascinating interest for us. So I encourage you to really study it this week and next Sunday night, continue on going into the eleventh chapter of John's gospel. 나는 제 11 장을 좋아한다. 성경에 몰입하여 11 장을 공부해 보라. 여러분도 진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한 탐험여행을 해 왔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이 주간과 다음 주일 밤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11 장을 깊이 탐구하도록 하라.

And now may the Lord be with you. May His hand be upon you to guide and to direct you this week in His path. May the Spirit of God just assure your hearts of your place in Christ, knowing

that He is the door and we have entered in by Him. And there sheltered and protected by Him, He will watch over us, He will keep us. He will see that no harm comes to His sheep for He loves His sheep. He knows His sheep. I'm so glad that I'm one of the flock of God. May the Lord just enrich your walk in Christ. May He fill your mind and heart with an understanding of His truth. And may you continue to grow in grace and in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이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얹으셔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셔서 그분의 길로 가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은 문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양의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돌봐주실 것이며,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양을 사랑하시므로 그 어느 누구도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양을 압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양 무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행보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그분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채우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John 11

John 11
Tape #8079
By Chuck Smith

Let's turn in our Bibles to the eleventh chapter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이제 요한복음 11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Now there was a certain man who was sick, who was named Lazarus, of Bethany, the town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11:1).

We read in another place where Jesus came to the home of Martha. It was the town, though, of Mary. Martha was a homebody. She was a real home person. Martha was, I would say, busybody in a nice sense. She was one who was just, knew everybody. Everybody knew her. So it's interesting it says, the town of Mary. It's the house of Martha but the town of Mary.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곳은 마리아의 동네였다. 마르다는 주로 집에만 들어박혀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기 가정을 돌볼 줄만 아는 사람이었다. 그에 비하여 마리아는, 좋게 말하면, 남의 일을 봐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동리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리아를 알고 있었다. 이 동리가 마리아의 동리로 불리는 것은 흥미롭다. 집은 분명히 마르다의 것이었지만 동리는 마리아의 동리였다.

(It was that Mary which anointed the Lord with ointmen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whose brother Lazarus was sick (11:2).)

John in the twelfth chapter will tell us about the anointing with ointment. John is writing years later and so as he is identifying her, he says, It's that one who anointed Jesus with this costly perfume. Matthew's gospel tells about it in the twenty-sixth chapter and how that Jesus said she had anointed Him for His burial. But we'll get that in chapter twelve, the first part. We come to the anointing of Jesus by Mary. 요한복음 12 장은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 말한다. 요한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었다. 요한은 그녀를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으로 소개한다. 마태복음 26 장에 보면, 그녀가 예수께 기름을 부은 것은 그분의 장사(葬事)를 위함이었다고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12 장 초두에 나온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다.

Now this is not to be confused with the anointing of Jesus by the sinful woman when He was at the house of a Pharisee whose name was Simon. The woman came up and she stood at His feet and her tears falling upon His feet,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and then she anointed His feet with perfume. You remember Simon the Pharisee said, If this man were really a prophet, He would have done something about that because the woman is a sinner. He wouldn't let her touch Him. But Jesus, demonstrating to Simon His knowledge of her, and yet His willingness to let her touch Him, He said, Simon, I have something to ask of you. He said, Go ahead. And Jesus said, There was a certain man that had two servants. One owed him a thousand dollars, the other owed him fifty dollars. He forgave both of them their debts. Which one loved him the more? Oh I suppose the one he forgave the more. Jesus said, That's right. Then He started to rebuke him. He said, But I came to your house, you didn't kiss Me, which was the custom, the oriental greeting. You didn't wash My feet. But this woman has kissed My feet. She has washed them with her tears. She has put the perfume on them.

Now I say to you, 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en (Luke 7:36-47).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을 죄 많던 한 여인이 예수께 기름을 부었던 사건 즉 예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다가와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았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은 그 바리새인 시몬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양반이 진실로 선지자였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저 여자로 하여금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음을 시몬에게 보이시면서도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록 허용할 뜻을 비추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물어볼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라고 시몬이 응답했다. 종을 둘 데리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다. 종 하나는 그에게 일천 달러의 빚을 졌고 다른 종은 50 달러의 빚을 졌다. 그는 그 두 종의 빚을 다 탕감해주었다.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네 말이 옳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시몬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내가 네 집으로 들어올 때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다. (입을 맞추는 것은 동양적인 인사 예법이었으며 당시의 관례였다.) 너는 내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 입을 맞췄다.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는 거기다 향유를 발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눅 7:36-47).

So this is not that Mary. This is a different, we don't know that woman's name. But this is the Mary who just before the crucifixion of Jesus, just a short while before, anointed His feet. And then she, of course, poured the perfume on His head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John identifies her, we'll get that in the twelfth chapter.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여자가 아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에 비하여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예수님의 발에다 기름을 부은 여자이다. 물론, 그런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도 향유를 붓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어드렸다. 요한은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 얘기는 12 장에 가면 나올 것이다.

Therefore his sisters [sisters of Lazarus] sent unto Jesus, saying, Lord, behold, he whom you lovest is sick (11:3).

The word "lovest" there is the Greek word "phileo". It's actually more of an emotional kind of a love that you have. Jesus loved him. He loved the family. It was a place where Jesus often would stay. He didn't have His own home. He didn't have His own bed but there was always the welcome mat out at the house of Martha and her sister, Mary and brother, Lazarus. And Jesus often when in Jerusalem would stay there with them. He loved them. And so it says, "Lord, the one whom You love is sick." Notice, it's just information. There's not really a request here at all. It isn't really saying, Jesus, come, because they knew Jesus and they knew His love and they knew that He would respond to their need. They didn't feel it necessary to make a request. Just informing Him, the one that you love is sick.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희랍어는 "필레오"이다. 이것은 보다 더 감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 집안을 사랑하셨다. 그 집은 예수께서 종종 머무시던 곳이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집이 없으셨다. 그분은 자기 침대도 하나 없으셨다. 그러나 마르다 3 남매의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종종 그 집에 머무셨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리는 말씀이라는 데 유의하라. 여기서는 전혀 어떤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와 보십시오 라고 전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굳이 어떤 요청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단지 그 분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When Jesus heard that, he said, This sickness is not unto death, but for the glory of God, that the Son of God might be glorified thereby (11:4).

Jesus is saying that death is not going to be the final issue. In reality, Lazarus was already dead. It is a day's journey, that is, if you really are moving from the area of the Jordan river on up to Jerusalem. Usually they took it in two days. They usually figured ten miles as a good day's journey. It's a little over twenty miles from the Jordan river up to Jerusalem. So if it took a day for the messenger to come down, Jesus waited two days before He began to go to Bethany. If He made it there in a day, this is only three days. He heard the message, He went there, it means that Lazarus was already dead but yet Jesus is saying, "This sickness is not unto death," meaning that death is not going to be the final issue. But there is a purpose in this. God has a purpose in this sickness. And the purpose is that God might be glorified and that the Son of God might be glorified through the sickness. 예수께서는 이 사망이 최종적인 사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실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다. 그것은 하루가 걸리는 여행 길이었다. 다시 말하면, 요단 강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경우, 하루가 걸린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틀에 걸쳐 그 길을 가곤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10 마일이면 하루 여행 길이 족히 된다고 보았다. 요단 강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0 마일이 약간 넘는다. 그러므로 사자(使者)가 예수께로 오는 기간이 하루 걸렸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후에야 비로서 베다니를 향하여 출발하실 수가 있었다. 그분이 하루 만에 그 길을 가셨다 할지라도 삼일은 걸린 셈이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은 사망이 최종적인 사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사건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셨다. 그 목적은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었다.

God has a purpose for the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He doesn't operate apart from a purpose and a plan that He has for us. And God said through the prophet, "I know my thoughts concerning you. They are good, not evil, to bring you to an expected or desirable end" (Jeremiah 29:11). So Jesus is saying, There's a purpose for this.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목적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렘 29:11). 예수께서는 이 질병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Now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11:5).

Here is a different Greek word. The one that you love is "phileo." Emotional thing. Now Jesus loved, this is "agapao," from which we get, of course, the agape. The "agapao," Jesus was devoted to them. He loved them divinely, spiritually. There was a deep, deep love for Martha and Mary and Lazarus.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 단어는 다른 것이다. 누이들이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 즉

감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은 “아가파오”였다. 물론 여기서 아가페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룩하면서도 영적으로 사랑하셨다. 마르다 3 남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깊고도 깊었다.

When he had heard therefore that he was sick, he stayed two days still in the same place where he was (11:6).

He didn't just say, Let's take off. But He remained there for two days. 예수님은 당장 떠나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다.

Then after that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into Judaea again (11:7).

It was as though He wasn't going to respond at all to the need. Staying there for just a couple of days. And then He says, Now let's go to Judaea. 마치 저들의 필요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더니 예수께서는 ‘이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다.

His disciples said to him, Master, the Jews of late sought to stone You; and You're going to go there again (11:8)?

In the last chapter we remember they were taking up stones to stone Him because they said He was claiming to be the Son of God. But He escaped out of their hand. Now the disciples say, Lord, You want to go back up there again? The last time we were there, You remember they were going to stone You.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으나 예수께서 저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10 장의 내용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주여, 다시 그리로 올라가시려 합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저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을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Jesus answered, Are there not twelve hours in the day? If any man walk in the day, he stumbleth not, because he seeth the light of this world. But if a man walks in the night, he stumbles, because there is no light in him (11:9,10).

Jesus said, I know what I'm doing. You walk in the daylight because you can see where you're going. Jesus is more or less saying, I know where I'm going. I know what I'm doing. I'm aware. I'm not walking in darkness. I'm not oblivious to what's going on. He was in control of the situation.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낮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기에 너희가 돌아다니지 않느냐.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대강 이런 뜻이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셨다.

These things He said: and after that he said unto them, Our friend Lazarus sleepeth; but I go, that I may awake him out of sleep. Then said his disciples, Lord, if he sleeps, he's probably getting better. Howbeit Jesus was speaking of his death: but they thought that he had spoken of taking of rest in sleep. And so Jesus said unto them plainly, Lazarus died (11:11-14).

It's actually there in the past tense, “Lazarus died.” It's interesting that the term “sleep” has been used for the death of the child of God to distinguish it from the death of a sinner. If you're a child of God, you really don't die. It's more like sleeping than death. And so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It's really wrong to say concerning a child of God, He died last week. No, he moved last week out of a tent and into the house. Someday you might read in the paper, Chuck Smith died. Don't believe that. That's poor reporting. To be accurate, they must write, Chuck Smith moved out

of an old worn out tent into a beautiful new mansion.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inthians 5:1).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잠자다”라는 말을 쓴 것은 흥미롭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진실로 죽지 않을 것이다. 죽는다 라기보다는 자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가 지난 주에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틀린 말이다. 그렇다. 그는 지난 주에 장막에서 벗어나 집으로 입주해 들어갔다 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신문에서 척 스미스가 죽었다 라는 기사를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사를 믿지 말라. 그건 서툰 보도이다. 정확히 말하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 척 스미스가 오래되고 낡은 천막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사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고후 5:1)으로 옮겨갔다고 기사를 써야 한다.

So they used the term “sleep.” You remember when the daughter of Jairus had died. When Jesus came to the house, they were wailing and He said, She’s not dead. She only sleeps. And they laughed Him to scorn. So He put them all out. Now He is using the same term concerning Lazarus and the disciples don’t understand it. They said, If he’s sleeping, he’s probably getting better. And so Jesus just said plainly, He died. But then He said, 그러므로 여기서도 “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다. 여러분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집에 당도하셨을 때 그들은 울고 불고 야단이었다.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내어쫓으셨다. 여기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그가 자고 있다면 잠시 후에는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가 죽었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 am glad for your sakes that I was not there, to the intent that you might believe; nevertheless let us go to him (11:15).

When Jesus does come, they say, Lord, if You’d only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And they were probably correct. Had Jesus been there when he was sick, He probably would have healed him so that he would not have died. But Jesus is saying, I’m glad for your sake I wasn’t there. Remember He is in this state for the glory of God that the Son of God might be glorified. This is the sixth of the signs that John gives to us to prove that Jesus was the Messiah. 예수께서 오시자, 누이들은 말했다: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마도 옳았을 것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면 그분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터이므로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쁘게 생각하노라.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자 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제시한 증거들 중 여섯 번째의 것이다.

On two other occasions, Jesus raised the dead, little Talitha, the daughter of Jairus, but she had just died. She wasn’t dead very long. There was the widow’s son of Nain. They were carrying the body out for burial when Jesus stopped the funeral procession and healed him or brought him back to life. It would probably be better to say, resuscitated them rather than resurrected them because they came back into the same body. In the resurrection, we’re going to have new bodies, different

bodies. But they came back into the same body. Their spirits returned to the same body.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는 이 외에도 두 번 더 있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 그 딸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었다. 다음으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소생했다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그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부활 시에는 새로운 몸, 다른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저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소생하였던 것이다. 저들의 영이 동일한 몸 속으로 되돌아왔다는 말이다.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Jesus in all of the cases talked to the dead. Now you wouldn't think of doing that, would you? He said to her, Little maiden, arise. Or little gazelle, arise. And He said to the son of the widow to arise. Later on, we'll find Him saying, Lazarus, come forth.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여 살리셨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꿈도 못 꿀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분은 처녀야 일어나라 즉 소녀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후에 그분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게 될 것이다.

So Jesus is now deliberately waiting so that there will be no question. You could say, Well, maybe they hadn't really fully expired. Maybe she had just gone into a coma and it appeared that she was dead and maybe. In fact, there are some commentaries that suggest when Jesus came up to the casket and saw the widow's son, He saw a flicker of his eye or something and realized that he really wasn't dead so He called him forth. And so these kind of commentators wouldn't have an opportunity to really deal with this issue. He waited two days so that by the time He arrived, he had been dead for four days so that there could be no mistaking that this guy is really gone. And then the miracle becomes even more prominent because of the time that lapsed between his death and between the resuscitation by Jesus.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일부러 느장을 부리신 것이다.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들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나 봐. 혼수 상태에 빠진 걸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나 봐.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주석서도 있다: 예수께서 관 쪽으로 다가와 과부의 아들을 쳐다보시니, 아이의 눈동자가 깜빡이는지라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일어나라 고 명하셨다. 이런 종류의 주석자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분은 이들을 더 기다리셨다.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있었다. 그런 고로 이 아이가 죽었는지에 대해 오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있었다. 나사로가 죽은 시각과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 시각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이 기적은 한층 더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I'm glad for your sakes that I was not there, to the intent that you might believe." Purposes of God in this is that it might confirm the faith of the disciples in Jesus. "Nevertheless," He said, "let us go to him."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Then said Thomas (11:16),

And Thomas is sort of that douer kind of a guy, 도마는 이렇듯 얼간이 같은 사람이었다.

which is called Didymus [which means a twin], unto his fellow disciples,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11:16).

In other words, they're going to kill Him. They were ready to stone Him and they're objecting.

Lord, don't you remember they were ready to stone You. And so Jesus said, Let's go. And Thomas says, Let's go, fellows, we might as well die with Him. This is the end kind of a thing.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이다. 저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만류하였다. 주여, 저들이 돌을 들어 당신을 치려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도마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갑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생각이다.

And when Jesus came, he found that he had already been in the grave for four days. Now Bethany was near to Jerusalem, about fifteen furlongs off (11:17,18):

A furlong is about an eighth of a mile so Bethany is just a little less than two miles from Jerusalem. 우리는 1/8 마일에 해당하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 마일이 조금 못 되는 거리였다.

And many of the Jews ca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concerning their brother (11:19).

Quite often when a person would die, they even have professional mourners. People who were particularly adept at wailing. And they would hire them and you would have to stay in the house for seven days wailing after the death of a person to really demonstrate your love. And so Mary and Martha were there in the house and other Jews had come to wail with them over the death of their brother, Lazarus. 종종 사람이 죽을 때마다, 유족들은 직업적으로 곡하는 자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우는 데는 선수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였다면, 여러분은 고인이 사망한 후 7일간 집에 머물면서 저들이 곡을 다 마치도록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고인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인해 마리아와 마리다의 집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저들의 남동생 나사로의 죽음을 서글퍼 하며 곡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이다.

And Martha, as soon as she heard that Jesus was coming (11:20),

Broke protocol. You weren't to leave the house for seven days but she broke protocol. 이것은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다. 7일 간은 집에서 떠나갈 수 없었지만, 마르다는 그 의례를 깬 것이다.

and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remained there in the house. Then said Martha unto Jesus, Lord, if You would have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11:20,21).

I think, though we can't be dogmatic, I think that with Martha there was surely disappointment and perhaps even a slight rebuke of Jesus. It was more or less saying, Lord, what took you so long to get here? Surely by our message You realized it was serious. If You'd only come earlier, if You'd only come more quickly, You could have averted this tragedy. You could have averted our sorrowing and our grief. If You'd only have been here, things will be different. But then she said something interesting, 교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분명히 실망한 기색이 있으며 아마도 예수님을 좀 원망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이런 내용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주여, 무슨 일을 보시느라 바쁘셨기에 이렇게 늦게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전갈을 드린 내용으로 보아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더 일찍 오시기만 했더라면, 더 빨리 걸으시기만 했더라면, 주께서 이 비극을 바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저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여기에 계시기만 했더라면, 만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후에 그녀는 흥미로운 얘기를 한 마디 했다.

But I know, that even now, whatsoever You will ask of God, God will give it to you (11:22).

That's quite a statement. Is she suggesting that Jesus could actually raise her brother from the dead? Or that God could if He would just ask Him? "I know that whatsoever You ask of God, He will give it to You." It would appear that that's what she was perhaps suggesting. However, when they came to the tomb and Jesus said to roll the stone away or to take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to the tomb, it was Martha who said, "O Lord, you better not because he's been dead there for four days and it's smelly." So sort of an ambivalence. I think we all understand that. 이건 대단한 말이다. 마르다가 한 얘기가 진정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르다의 말은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무덤 가까이로 가서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다였다: "주여,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이른바 양면적인 태도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There is with each of us sort of an ambivalence at times where we say, O Lord, we know You can do anything but Lord, don't you realize what's really happening here? It's sort of, the faith sort of wavers. 때때로 우리에게서도 이런 양면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우리는 '주여, 당신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은 모르십니까?'라고 종종 묻는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인 동요(動搖)이다.

Jesus saith un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11:23).

I believe that Jesus is telling her, I'm going to raise him. But she understands Him to be talking of the resurrection of the last days. The one that Daniel prophesied.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내가 그를 살리려 하노라 라는 의미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 있는 그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시는 줄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So Martha said unto him, I know that he sha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Jesus said unto her, I am (11:24,25).

And this is the sixth "I am" of Jesus. "I am,"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의 "나는 ...이다" 이다.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11:25,26)?

She had said, "Lord, I know that whatever You ask the Father, He will give it to you." And now He is making this statement, radical statement indee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s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Lazarus had believed in Jesus. Though he was dead, yet he will live. "And he that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Jesus in that second part, "He that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is referring to spiritual death which is the separation of a man from God. The separation of a man's consciousness from God. That's spiritual death. To live without the thought of God, without the consciousness of God. To live your life without consulting God. Thinking about God. You're spiritually dead. "If you live and believe in Me," Jesus said, "you will never die." That is, you will never be consciously separated from God.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진술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과격한 것이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즉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말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죽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식(意識)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

Paul the apostle teaches that “we know that when this earthly tent, the body in which we presently live, is dissolved, goes back to dust, we have a building of God,” a new house, this is a tent. You never think of a tent as a permanent place to stay. Couple weeks vacation. But boy, it’s nice to get home.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reed from them. Not to be an embodied spirit but to be clothed upon with the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know that as long as we are at home or living in this body, we are absent from the Lord. But we would choose rather to be absent from this body, that we might be present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1,2,3,6,8) Never consciously separated from God. Paul the apostle said,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I’m in a strait between two.” I’ve got these mixed emotions. “I have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And yet I know that you still need me. And so I’m held here, the desire to continue to minister to you and to strengthen you. But I would choose rather to just depart and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Philippians 1:21-25).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땅의 집은 천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은 장막을 영구적인 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천막은 한 뒤 주 방학 때 이용할 수는 있어도, 좋기로 말하면 내 집이 더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이것은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영원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는 종종 신음하며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위가 육신을 입은 영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으로 옷 입고자 함이다. 우리가 집에 즉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줄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에서 떠나기를 오히려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함이다” (고후 5:1,2,3,6,8).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적으로는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나니” (빌 1:21-25).

So Jesus is saying, You live and believe in Him, you will never be separated from God’s love. Consciously separated from God. “Do you,” He said, “believe this?” Notice that she didn’t really affirm her belief in His being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She affirmed her belief that He was the Messiah, the Son of God.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다. 그분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녀가 실제로 긍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She said unto him, Yes,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which should come into the world (11:27).

A little less than what He had said.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신앙이다.

And when she had so said, she went her way, and called Mary her sister secretly, saying, The Master is come, and He is calling for you (11:28).

John does not record the full conversation with Martha because it doesn't record that Jesus said, Go, get Mary. Nor does it record where Jesus said, If you can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And later Jesus said to her, Don't you remember I said, If you will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So John doesn't record that but we know that He did say that to Martha. So we're getting an abbreviated account of their conversation. 요한은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게 아니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가서 마리아를 데려 오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생략한 것이다. 또한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고 말씀하신 것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 후에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고 내가 네게 이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한이 그런 기록들을 빠뜨리기는 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 어쨌든 우리 앞에 놓인 기록은 생략된 것이 있는 대화 내용이다.

And the Jews which were with her in the house, who were comforting her, when they saw Mary, that she rose up hastily and went out, they followed her, saying, She going to the grave to weep there (11:31).

Or to, the word “weep” is “wail there.” 여기서 “곡하다”는 “소리쳐 울다”를 뜻하는 말이다.

Then when Mary was come where Jesus was, and saw him, she fell down at his feet (11:32),

Typical of Mary. The worshipper. You remember on an earlier occasion when Jesus was at their house and Martha was busy in the kitchen fixing things and getting things prepared. Where was Mary? She was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Just talking to Him. And Martha said, Lord, send my sister in here to help me. She has left me to do all the work. And she's just sitting there and talking to you. And Jesus said, O Martha, Martha, you're cumbered with many things: But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Luke 10:39-42). Typical for Mary at the feet of Jesus. Next chapter we'll find her anointing Jesus and wiping His feet with her hair. Typical of Mary, the worshipper. And so she fell at the feet of Jesus. 마리아는 대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앉았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할는지 모르나, 이런 일이 있기도 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한다. 그러면 그 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가? 그녀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눅 10:39-42).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은 마리아의 일상적인 모습이였다. 다음 장으로 가면, 그녀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이다.

And she said unto Him,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had not died. She said the same words that Martha said. I think that this reflects that they had talked about that. When Lazarus died, I'm sure that they kept talking about it and said, If the Lord had only been here. If the Lord had only have made it. He wouldn't have died if the Lord was only here. I'm sure that that was one of the subjects that they were talking about when Lazarus died. Oh, how disappointing. If He'd only been here, he wouldn't have died. 마리아는 예수께 이렇게 말씀 드렸다: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도 마르다와 꼭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 둘이 사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주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주께서 이곳으로 오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야.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그분이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So Mary is saying the same thing as Martha. However, you really don't know what a person is saying often unless you hear the tone of voice. I think that Martha's tone of voice was sort of a rebuke. Whereas Mary's is just sort of, Oh Lord, You could have done it, I know You could have. It wasn't so much of a rebuke, just a declaration and one of just affirming her belief in His powers and in His ability. 그러므로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그가 진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마르다의 어조는 꾸짖는 듯한 어조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에 비하여 마리아의 어조는 '오, 주여 당신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것은 꾸짖는 듯한 어조라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것을 선언하는 어조였을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신뢰하는 그녀의 믿음을 긍정하는 선언이었을 것이다.

When Jesus therefore saw her wailing, and the Jews also wailing which came with her, He groaned in His spirit, and was troubled (11:33),

The Greek there is interesting, it was, "He was filled with indignation." He became angry. Not at their wailing. But He became angry at the consequences and the result of sin. When He saw the pain that sin brings. When He saw the grief and the sorrow that has been brought upon mankind by sin. He was troubled, He was angered, He was filled with indignation seeing the consequences of sin. What sin does, the sorrow and the grief that sin brings.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는 흥미롭다. 그것은 "그분은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다. 그분은 화가 나시게 되었다. 사람들이 곡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신 게 아니었다. 죄의 결과를 보셨기에 화가 나셨던 것이다. 죄가 가져온 고통을 보시고 죄로 인해 인류에게 초래된 고통과 슬픔을 보시는 순간, 그분은 경악하시게 되었고 화가 나시게 되었고 분노로 가득하시게 되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죄로 인해 어떤 슬픔과 고통이 닥치게 되었는지를 보시게 되셨을 때 그분은 화가 나셨다.

And He said, Where have you laid him? They said unto him, Lord, come and see (11:34).

And there that short verse. When you were in Sunday School and they asked for a scripture memory verse, this is one we all knew, wasn't it? 그런 다음에는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온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다니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구절을 하나 외우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Jesus wept (11:35).

The word here, “Jesus wept,” is different than their weeping which I mentioned was wailing. This just speaks of tears began to course down His cheeks. He wasn’t weeping as they supposed because Lazarus was dead. Because He knew that in a few moments He was going to glorify God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But again I believe He was weeping because He could see in the sorrow and in the bitterness the pain that sin does bring. 여기에 나오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곡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단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곡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곡을 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몇 분 후가 되면 자기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는 그분이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슬픔과 비탄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In another occasion we find Jesus weeping over Jerusalem. And it was for the same cause. He could foresee what their rejection of Him was going to cost them. He began to prophesy the destruction that was going to come upon Jerusalem by the Roman soldiers. He began to talk about how the children were going to be dashed in the streets and how the Roman army was going to encircle Jerusalem and how it was going to destroy the city and how the temple would be destroyed. And as He looked over Jerusalem, He saw the desolation and the devastation that their rejection of Him was going to bring. And He wept. Not because they were rejecting Him, but He wept because He could see the consequences of that rejection. 또 한 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적이 있다. 그 때도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이 그분을 거부한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실 수 있었기에, 그분은 장차 로마 군사들로 인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파멸에 대해 예언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거리에다 내동댕이 쳐질 것인지, 어떻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될 것인지, 어떻게 그 도성이 파멸될 것인지,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것인지를 묘사하기 시작하셨다. 예루살렘을 굽어보실 때, 그분은 그분을 거부한 일로 인해 장차 닥치게 될 파멸과 황폐를 내다보실 수 있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셨던 것이다. 저들이 그분을 거부한 일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다. 그 거부가 가져올 대가를 예측할 수 있으셨기에 그분은 우셨던 것이다.

Again, weeping over the consequences of sin. The sorrow, the pain, the suffering that it brings. We are brought by Jesus into the heart of God. You remember He said,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John 14:9). And we see the Father weeping over the pain and the suffering that sin brings into a person’s life, into the world. The effects and the consequences of sin. The pain, the suffering that sin brings. Jesus wept. 다시 말하지만, 죄의 결과를 내다보시고 우신 것이다. 죄가 초래할 슬픔, 고통, 괴로움을 보시고 우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 14:9).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 사람의 생활 속으로 가져올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아버지도 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죄의 효과와 결과, 죄가 가져올 고통과 괴로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신 것이다.

The Jews, misunderstanding said, Look how much He loved him! And some of them said, Could not this man, which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have caused that even this man would not have died (11:36,37)?

They’re, more or less, saying, If He had only been here, maybe He could have kept him from

dying. 사람들의 말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다: 만일 저분이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Jesus again groaning in himself came to the grave. It was a cave, and there was a stone that was laying upon it. Jesus said, Take away the stone. And Martha, the sister of Lazarus that was dead, said unto him, Lord, by this time he stinketh: he has been dead for four days (11:38,39).

They didn't have any embalming. In fact, even to the present day, the Jews do bury the body the day the person dies. They don't have the same kind of procedures that we have here, the embalming the body and lying in state and so forth. They just take the body out and bury it immediately the day they die, the person is buried. And so the decomposition of the body had started. He's been dead for four days. 저들은 나사로의 시신을 방부처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날 시신을 매장해버리고 만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방식과 절차를 저들은 따르지 않았다. 시신을 향료나 약품으로 처리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죽는 즉시 그 날로 시신을 지고 나가 매장해버릴 뿐이다. 그러므로 시신의 분해가 이미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말이다.

Jesus said unto her, Said I not unto thee, that, if you would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11:40)?

As I said, John didn't record Jesus saying that to her but Jesus is reminding her. Don't you remember I said to you, If you would believe. She had expressed earlier, "Lord, I know that whatsoever You ask of God, He will give it to You. She said, I believ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Now though in practical reality, her doubts are coming forth. Lord, he's been dead for four days, we better not. And Jesus said, Didn't I say to you, If you would just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내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은 모든 대화를 다 수록해 놓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을 것이다: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신 것이다. 앞에서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의 말은 나는 주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란 뜻이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 그녀가 실제로 현실에 부딪치게 되니까 의심이 솟구치게 된 것이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How true this is. If we would just believe, we could see the glory of God. 이것은 얼마나 참된 말씀인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Then they took away the stone from the place where the dead was laid. And Jesus lifted up his eyes,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And I know that You hear me always: but because of the people which stand by I said it,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11:41,42).

His own little personal conversation with the Father. "Father, I know that You heard Me, I know that You always hear Me. It really isn't for My, it's not for Me, but for the people's sake that I say it, that they might know that You have sent Me." 주님은 잠깐 동안 아버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셨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And when he had thus spoken with the Father, he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11:43).

Quite often, the witch doctors and all sort of mumble incantations over the dead. Soft little incantations that you can't understand. Jesus didn't just sort of mumble, "Come forth," in case nothing happened. Nobody would know. But He said it with a loud voice so that they could all hear. And I can imagine. And again notice, He's addressing a man who's been dead for four days. He's calling him by his name, commanding him, speaking to the dead. And He commands him to come forth in a loud voice that all can hear. And don't you know for a moment there was great tension. I'm sure that those that were wailing suddenly stopped with their mouths still wide open. What is He saying? He's putting it on the line. He said,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Now He's putting it on the line. Is that just an empty boast? Or is it reality? He's putting it all on the line right here. In a loud voice, He says, Lazarus, come forth. Now if Lazarus doesn't come forth, then we can discount all He said. If Lazarus does come forth, then we better pay attention to what He said. What happened?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주술적 행위라든가 온갖 종류의 마술적 행위가 너무도 자주 죽은 사람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주술은 남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다. 예수님은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하신 게 아니었다.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들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건대, 그분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죽은 자에게 명령을 발하셨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다. 잠시 동안 큰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다.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 크게 벌렸던 입도 제대로 다물지 못한 채 모든 행동을 갑자기 중지했을 것이다. 저 사람이 한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지금 큰 실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아날 것이니라" 고 말씀한 바가 있다. 이제 그분은 그 말씀을 실험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허풍이었는가? 아니면 사실이었던가?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도마 위에 올려 놓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일 나사르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언행을 평가절하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사르가 나온다면 그 때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분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해 놓으셨으니 말이다.

And he that was dead came forth, bound hand and foot with graveclothes: and his face was bound about with a napkin. Jesus saith unto them, Loose him, and let him go (11:44).

You remember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it was different. The graveclothes were still lying there in place and the napkin was folded and lying separately. But here, Lazarus, still bound hand and foot in the graveclothes, probably had to sort of jump out. And Jesus commanded, "Loose him, let him go." 여러분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일이다. 그분의 수의가 그대로 제 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머리를 찢던 수건은 판 곳에 개켜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나사르가 여전히 손과 발이 묶인 채 수의에 싸여 나왔던 것이다. 아마도 경충경충 뛰면서 나왔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명령하셨다: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Then many of the Jews which came to Mary, and had seen the things which Jesus did, believed on him. But some of them went their ways to the Pharisees, and told them the things that Jesus had done (11:45,46).

They went and reported Him. 저들은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보고하였다.

In the sixteenth chapter of Luke, Jesus tells the interesting story of a rich man and Lazarus and how that they both died but were separated in the grave or in hell by a gulf. Lazarus was being comforted in Abraham's bosom and the rich man was tormented. Seeking that Abraham would send Lazarus with water to touch his tongue to alleviate the torment of that heat. And Abraham said, Son, remember you in your lifetime had the good things, Lazarus the evil. And now he is comforted while you are tormented. Beside that, there is this gulf between us and it's impossible for those that are there to come over here, or those that are here to go over there. And he said, I pray thee then, if Lazarus cannot come to me, send him back to the earth that he might warn my brothers lest they come to this horrible place. Abraham said, They have the law, they have the prophets. If they will not believe them, neither will they believe even though one comes back from the dead (Luke 16:19-31). 누가복음 16 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들 모두가 죽었는데 그들의 사후 처지가 구렁을 사이에 두고 음부와 낙원으로 갈리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했다. 나사로를 통해 물을 좀 보내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해줌으로써 그 뜨거움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이 너는 평생 좋은 것만 누렸으나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도, 우리 사이에는 이 구렁이 있어서 그 편에 있는 자들이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자들이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게 되어 있단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한 가지 청하겠나이다. 만일 나사로가 이곳으로 올 수 없다면 그를 땅으로 돌려보내어 나의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하셔서, 저들로 이 무시무시한 곳에 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느니라. 만일 저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눅 16:19-31).

We have, I think, a mistaken notion that if our friends could just see a miracle, then they would believe. If you are disposed not to believe, if you are determined and you've set your mind not to believe, no amount of miracles is going to convince you. It takes the Holy Spirit to convince us of sin and to plant faith in our hearts. 우리는 만일 우리 친구가 어떤 기적을 본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했거나 결심했을 경우, 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

And so, here are those, there were those that did believe, but there were those that actually ran to tell the Pharisees. He's at it again. To report Him. 한편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 얼마는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갔다. 저가 또 이적을 행하고 있다 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였다.

So there gather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a council, and they said, What shall we do? for this man is doing many miracles. If we let him thus alone, all men will believe on him: and the Romans will come and take away both our place and nation (11:47,48).

Notice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their positions. And Jesus was a threat to their positions. They were lording over the people in a religious manner. They were profiteering over the people's religion. They were using it to set themselves up in an aristocracy. They lived in the finest homes in Jerusalem. They were wealthy because of the way they had manipulated the religious practices so that they could profit from them. And Jesus was a threat for their positions. 이들은 지금 자기의 지위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 지위에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는 말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종교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출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안의 멋진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적 관습을 그들 멋대로 변경시킴으로써 부유한 자가 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 예수가 위협이 되고 있었다.

You remember later when Paul was preaching in Ephesus. It was Demetrius, the silversmith, that stirred up the crowd against Paul. He got together with the other silversmiths and said, Look fellows, these people are converting the people to Christianity and telling them that these little gods that we're making, these little silver gods that we're making and selling to the people, that they're not really gods. And so many people are believing them. Our business is being threatened. We're apt to be out of business, no one will be buying the little silver idols of Diana. And so they stirred up a riot against Paul and against those that were working with him because their trade was threatened (Acts 19:24-27). 여러분은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한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행 19:24-27).

They had been thriving and prospering off of the religious superstitions of the people. And they knew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would bring an end to that. 이들은 사람들의 미신적인 종교 성향을 이용하여 번영하며 번창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모든 영화가 끝장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Unfortunately, there are those who have learned since how to profit off of these things. But Jesus was a threat to their position. "If we leave Him alone, the Romans will come and take away both our place and nation." 불행하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때뿐 아니라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의 지위에 위협이 되신다. "우리가 그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지위와 나라를 모두 탈취해버릴 것이다."

And one of them, whose name was Caiaphas, he was the high priest that same year, he said unto them, You know nothing at all (11:49),

Here they are, having this big discussion, and of course, this guy says, Hey, you know nothing at all. Boy, that immediately just puts down everybody, doesn't it?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가야바란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구나. 이 말을 하자마자 모두 잠잠해졌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으니 말이다.

Nor do you consider it that it is expedient for us (11:50),

That word "expediency." How many horrible things have been done in the name of expediency? Today they call it political correctness. Expediency. "Don't you realize that it is expedient for us," 그는 "유익하다"란 말을 사용했다. 이런 "유익"이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졌는지 모른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유익"이란 말 대신에 '정치적 정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that one man should die for the people, and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not (11:50).

This is politics at its worst. Politics is bad, but this is at its worst. Notice how he says it in such a politically correct way. He didn't say, Don't you realize we got to kill Him? Now that's what he's saying. But he couches it, Don't you realize it's expedient that one should die for the people, that the whole nation doesn't. The national interests are greater than individual persons. It's hypocrisy, it's politics. 이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정략이다. 정략이란 원래 나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런 형태는 가장 고약하다. 그런 고약한 일을 그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리화시키는지 주목해보라. 그는 우리가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이런 말로 매끄럽게 포장했다: 한 사람이 국민을 위해 죽어 국가 전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국가적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위선이다. 이것은 책략이다.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ough this was a politicized kind of a speech, because he was the high priest, there was a certain kind of anointing of God that went with the office. And this man was actually uttering a prophecy not even realizing it. And so John tells us in verse fifty-one,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비록 이것이 정치술로 위장된 연설이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의 말은 실제로 하나의 예언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요한은 51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한다.

This he spake not of himself: but being the high priest that year, he prophesied that Jesus should die for the nation (11:51);

Prophecy that Jesus wasn't going to die for Himself, He was going to die for the nation. 이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다.

And not for that nation only, but that also he should gather together in one the children of God that were scattered abroad (11:52).

That Jesus would die for the world. He didn't realize that that's what he was predicting. And that's exactly what was going to happen in not many days. 이는 예수께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다. 그는 자기 말이 예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후일 발생하게 될 사건을 정확히 꼬집는 말이었다.

Then from that day forth they took counsel together to put him to death. Jesus therefore walked no more openly among the Jews; but went from there unto a country near the wilderness, into a city called Ephraim, and there continued with his disciples (11:53,54).

In the previous chapter, it was in the wintertime that Jesus was in Jerusalem at the feast of dedication, December 25th, when He healed the blind man which resulted in this confrontation with the Jews in which they were going to stone Him. He then left, went on down to the Jordan river until summoned by Mary and Martha because of their brother's illness. He cam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but then He then returned to Ephraim to be away from the Jews because He knew that His crucifixion was to take place at the passover as He would fulfill all of the symbolism of the passover. And that took place in April. So these events are taking place between the first of the year and April, the first couple of months. We don't have just the exact dates. But He goes to Ephraim and there He waits until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when He comes back to Jerusalem for the final time. 10 장에 의하면, 수전절을 당해 예수께서는 12 월 25 일에 예루살렘에 계셨었는데 그 때는 겨울철이었다고 한다. 그 때 예수께서 한 소경을 치료해 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렇듯 대결하게 되었는데 저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였다. 그 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요단 강가로 내려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들의 동생이 병들었다고 전갈을 할 때까지 거기 머무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동리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 유대인들을 피하려고 다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의 모든 상징들을 완성한 다음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은 4월에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 해의 1월과 4월 사이에 즉 그 해 초기의 수 개월 사이에 발생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이 에브라임으로 가셔서 유월절 6일 전까지 거기 머무신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최후를 맞으신 것만은 분명하다.

Now the Jews' passover was nigh at hand (11:55):

In other words, we now are moving and how long He was there at Ephraim, we don't know. But not too long. How long He was at the Jordan river before Mary and Martha called, we don't have. We just know that this is compacted into a space of about two months or three months, January, February and March. So "the Jews' passover was at hand," 다시 말하면, 이제 그분이 주거를 옮기시기는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에브라임에 계실지는 우리도 모른다. 아주 오래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할 때까지 계셨는데, 그 분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요단 강가에 계셨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이 모든 일들이 대략 두세 달 동안에 즉 1,2,3 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뿐이다.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and many went out of the country up to Jerusalem before the passover, that they might purify themselves (11:55).

It wa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rites of purification in order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temple precincts on the feast days. So they would go early so that they could go through the purification rites. 가까이 다가오는 그 절기에 성전 경내에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곤 하였다.

Then they sought for Jesus, and they spoke among themselves, as they stood in the temple, What do you think, will He show up at the feast? Now both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ad given a commandment, that, if any man knew where Jesus was, he should show it, that they might arrest him (11:56,57).

So word was out. Know where He is, report Him. We want to arrest Him. The plot was hatched. They were ready to put Him to death. The conspiracy has been established. And so the people were wondering. The buzz around. You suppose He'll show up? 그런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라. 우리는 그를 체포하기 원한다.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모(共謀)를 꾸미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이렇게 묻곤 했다: 그분이 과연 올라오실까?

And so as we move into chapter twelve, we find that Jesus does show. Not in secret, He comes riding in on a donkey amidst the shouts of His disciples. So our next study will take us into chapter twelve. And again we always encourage you to read in advance what we will be studying. 12 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비밀리에 나타나신 게 아니었다.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환호성 소리에 묻혀 당당하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 12 장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은 언제나 다음에 배울 내용을 미리 학습해 오기 바란다.

Once in a while when I read the newspapers and I see the tragedy that sin has brought into the world, I see the grief and the pain and the suffering. I understand a little bit the heart of Jesus who wept over the pain that sin brings. And I'm sure that you also must feel that way sometimes when you read of what's happened and what is happening. The pain, the sorrow that sin brings. But Jesus came that He might cancel out the results of sin. And in your life as you surrender your life to Him, He can cancel out the pain and the sorrow and the suffering that sin has brought. And He can give you, as the prophet said He would, "beauty for ashes and the cup of joy for mourning" (Isaiah 61:3). Oh how I love Him, how I appreciate His love for me. 신문을 읽을 때 가끔 나는 죄가 이 세상으로 가져온 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죄가 초래한 고통, 슬픔, 재난을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가 가지고 온 고통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비극적인 기사를 읽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죄가 가져온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읽을 때에 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의 결과를 없애버리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이 삶을 그 분께 맡긴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죄가 가져온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없애주실 것이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분은,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사 61:3) 하실 것이다. 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May you go in the love of Jesus. May you be enriched in the love of Jesus. May you become very conscious and aware of His love, of His presence with you this week. Sustaining you, helping you, guiding you, keeping you steadfast in His love.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풍요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의식(意識)하고 깨달으며,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변함없이 보호를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John 12

John 12
Tape #8080
By Chuck Smith

Let's turn to John chapter twelve. John tells us here, 이제 요한복음 12 장으로 넘어가 보자.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which had been dead,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12:1).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The next day was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which would be then Sunday, five days before the Passover. Which would make Monday four days before the Passover, Tuesday three days before the Passover, Wednesday would be two days before the Passover. And of course, the Passover would be Thursday. The reason why they have called Friday the day of crucifixion and they call it Good Friday is that we know it was followed by the sabbath day. And thus, the ladies did not come to the tomb until early in the mor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유월절 엿새 전에.” 다음 날 즉 유월절 닷새 전에는 예수께서 도무z 당당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되는데, 그 날은 일요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월요일은 유월절 나흘 전에 해당하고, 화요일은 유월절 사흘 전에 해당하고, 수요일은 유월절 이틀 전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물론 유월절은 목요일에 해당하게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금요일이라 하며 사람들이 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週)의 첫날 새벽이 도래하기 전에는 무덤에 와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But John tells us that that particular sabbath was a high sabbath. That is, it wasn't the regular weekly sabbath but it was the sabbath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or the day after the Passover began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a sabbath day. And it was to be observed as a sabbath day so in reality, you would have had a double sabbath. Jesus was crucified on Passover. He had had the Passover meal with His disciples the evening before. But with the Jews, the day began at sundown. So He had the Passover feast with His disciples. The next day would have been Passover day and of course, it was significant, symbolic, and necessary that He be crucified on Passover, fulfilling then this Old Testament feast day or holiday. 그런데 요한은 그 특별한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한다. 다시 말하면, 그 날은 통상적인 주(週)의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의 안식일이었던다는 말이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그 날도 사실상 안식일처럼 지켜지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안식일이 겹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셨다. 그분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날은 일몰 후에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신 게 된다. 그 다음 날은 유월절 당일이었는데, 물론 그 날은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인 날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므로써, 이 구약의 절기 즉 축일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We get it also in Mark's gospel, beginning in chapter eleven where Mark tells us of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into Jerusalem there in chapter eleven. And then we read in verse twelve of chapter eleven, that is the triumphant entry on Sunday, and “on the morrow,” which would be Monday, they returned from Bethany to Jerusalem and Jesus saw this fig tree and it had no fruit so He cursed it. And then He went into the temple and cleansed the temple. And when the even was come, He went out of the city [verse twenty] and in the morning, as they passed by they saw the fig tree dried up from the roots. This would be on Tuesday. On this day Jesus talked to them about faith. He then had a confrontation with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and also with the religious rulers. So the Olivet discourse taking place, and then in chapter fourteen after two days was the feast of the Passover. So the two days would bring you again to Thursday. 이 사건을 마가복음을 통해 읽을 경우, 거기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11 장부터 시작된다. 11 장 12 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요일에 있었고 “이튿날” 즉 월요일에는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오셨다고 되어 있다. 그 날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셨다고 한다. 그런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날이 저물때 그분은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20 절] 아침이 되어 지나가시다가 그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셨다. 이 날은 화요일이었다. 이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후에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맞부딪치게 되셨다. 그러다가 감람산 강화(講話)가 베풀어지게 되고, 이어서 이틀 후 14 장으로 넘어가면 유월절이 닥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틀 후면 다시 목요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So not dogmatic but it's sure a lot easier to se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grave if you have Thursday as the day of crucifixion, rather than Friday. If you have Friday, you have to really struggle to get Him in the grave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before He raised from the dead. But if you have a Thursday crucifixion with the double sabbath, then it fits in quite easily. 교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3 일 3 야를 그분께서 무덤에 계셨다고 할 때 더욱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다. 만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가정한다면, 그분께서 3 일 3 야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내신 후 살아나셨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목요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고 가정하면 일이 쉽게 풀릴 것이다.

Both John and Mark would seem to indicate that the Passover was on Thursday of that week. So Jesus,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lived and his two sisters.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모두 유월절이 그 주의 목요일이었다고 시사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월절 6 일 전에 나사로와 그의 두 누나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던 것이다.

And they made Him a supper; and [guess what] Martha served (12:2):

And guess what, Martha served. You're just true to character. We remember the earlier incident when Jesus had visited in the house with Mary and Martha. How that Mary was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worshipping, and Martha was busy fixing things, getting things, serving and she said, Lord, send Mary out here to help me. Left me to do all the work while she just sits there. And you remember how Jesus sort of chided Martha. Martha, Martha, you're cumbered about with many things. But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한 번 생각해 보라.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여러분은 이전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 날도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원가를 만들고 준비하며 봉사하느라고 바빴다. 그녀는 주여 마리아를 제게 보내어 저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 애는 거기 앉아 있는데 저만 혼자 일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그 때 예수께서 마르다를 약간 꾸짖으신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하느라 노심초사하는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하였단다.

So it seems like a person is sort of true to his nature. There are those who just love to serve. And they just come by it naturally and then there are others who are more contemplative. They love to just sit and worship. So we read here that, “Martha served:”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처신하는 것 같다.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편을 택한다. 한편 명상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앉아서 예배하기를 즐긴다.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but Lazarus was one of them that sat at the table with him. Then took Mary [and true to form] a pound of ointment of spikenard, which was very costly, she anointed the feet of Jesus,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odor of the ointment (12:3).

Both Matthew and Mark tell us of this incident. We are told that it was in the house of a man by the name of Simon. And we are told how that there was an objection from the disciples about the cost of this perfume.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모두 이 이야기가 들어 있다. 시몬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한다. 향유의 값 때문에 제자들이 반발하였다는 기록이 들어 있다.

This incident is not to be confused, however, with Luke's account where there was a Pharisee named

Simon who invited Jesus to supper and the woman who was a sinner came and stood at His feet weeping and wiping then His feet with her hair from her tears, and anointing His feet with perfume and kissing His feet profusely. Simon the Pharisee said, If this man were really a prophet, He wouldn't have allowed that woman to touch Him because she's a sinner. And Jesus' confrontation with Simon the Pharisee over the woman declaring that because she was forgiven much, she loved much and He's offering the forgiveness of her sins (Luke 7:36-47). 그러나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시몬이라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는데, 죄인인 한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며 그분의 발을 눈물 젖은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며, 그분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입을 맞추었다. 바리새인 시몬은 말했다: 만일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는 죄인이니 그녀로 하여금 자기 발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일로 시몬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녀는 용서 받은 바가 크기 때문에 사랑도 크게 하는 것이니라. 그분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눅 7:36-47).

That was a different incident. This is again just six days now before His crucifixion. Mary who is perceptive. Mary who is sensitive has picked up on the heaviness that the Lord is going through at this time as the time of the cross has come. And she is sensitive to His spirit. And so she is desiring to do something that is special, a special demonstration of her love for Him. So she took this ointment or perfume of spikenard which was very costly and anointed the feet of Jesus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odor of the ointment. 이것은 다른 이야기다. 다시 말하지만,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의 일이었다. 마리아는 지각이 있는 여자였다. 사려 깊은 마리아는 이 때 예수께서 지고 가실 짐을 가볍게 해 드리고자 맘 먹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 드리고 싶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녀는 매우 값이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았던 것이다. 그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다.

Then said one of his disciples (12:4)

and John identifies which of the disciples who objected. It was,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누가 반감을 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는 가룟 유다였다.

Judas Iscariot, Simon's son, the one that would betray him, and he said, "Why was not this perfume sold for three hundred pence, and given to the poor (12:4,5)?"

The other gospels record him as saying, Why this waste? A pence was an average pay for a day's labor. So three hundred pence would be the salary that you would earn working three hundred days. If you worked a six-day week, it's the salary that you would get almost for a year's work. And thus, as John said, it was very costly. And so Judas spoke up in objection to this. But John, not going to gloss things for Judas, he said,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가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평균 품삯이었다. 그러므로 삼백 데나리온이면 여러분이 삼백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열세를 일한다고 치면 거의 일년 내내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그것의 값이 지극히 비쌌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유다가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 유다의 행동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This he said, not because he cared for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and he had the bag, and bare what was put therein (12:6).

Judas was the treasurer of the group. He kept the bag of money but John said he was a thief and he was taking from the bag for his own personal use. He was filching out of the bag. He bared what was put there. So he was taking from the bag. 유다는 예수님 선교 집단의 재무 담당자였다. 그는 돈 자루를 맡고 있었는데, 요한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도적이었다고 한다. 그 돈을 사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는 그 돈 자루에서 조금씩 훔쳐내고 있었다. 자기가 돈 자루를 메고 다녔으므로 얼마든지 빼어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And so Jesus said, "Let her alone: against the day of my burying has she done this (12:7).

This is an anointing for my burial. 이 여인의 행위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느니라.

For the poor always you have with you; but me you will not have always. Many of the Jews who knew He was there came not only for Jesus' sake, but they wanted to see Lazarus,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But the chief priests consulted that they might put Lazarus also to death; because that by reason of him many of the Jews went away, and believed on Jesus (12:8-11).

In the last chapter, we find the high priest Caiaphas in their counseling of what they should do about Jesus and in their conspiring to put Him to death, the high priest Caiaphas said, Don't you realize that it is necessary that one man should die for the nation (John 11:51). 11 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 때 저들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를 모의하고 있었다.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 11:51)?

Now it has gone from one to two. It's an amazing thing how sin can compound. It starts out with one, but now it's necessary as they see to put two to death. Let's put Lazarus to death also because of the number of people that are being attracted to him because of the fact that he had been dead for four days. So sin has that way of compounding. David sinned with Bathsheba, compounded into the murder of her husband. 이제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난 것이다. 죄가 복합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사로도 죽입시다. 그가 나홀 만에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죄는 그런 식으로 가중되어진다.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은 후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를 더하였다.

On the next day many people that were come to the feast (12:12),

That is, the feast of the Passover. They were beginning to gather now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coming early, spending the days in purification, going through the rite of purification so they'd be able to enter into the temple and join with the worship in the temple precincts. So "many people that were come of the feast," 이 절기는 유월절이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일찍부터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일을 정결하게 지내며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성전에 들어가 성전 구내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큰 무리가 명절을 당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coming to Jerusalem, They took the branches of the palm trees, and they went forth to meet him, and cried, Hosanna: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that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Jesus, when He had found a young donkey, sat thereon; as it is written, Fear not, daughter of Sion: behold, thy King cometh, sitting on a donkey's colt. These things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t the first: but when Jesus was glorified, then they remembered that these things were written of him, and that they had done these things unto him (12:12-16).

So His day of presentation to the nation as their Messiah.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Zechariah, He was riding on a donkey. The people began to cry a Messianic psalm, Psalm 118. Hosanna, Hosanna. They were crying it in Hebrew, the translation is, Save now. And as you read in Psalms, it is translated there, "Save now!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So this psalm that they were crying out is a prophetic psalm of the Messiah. The prophetic part begins with,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Psalm 118:24). This is the day that God has established for the presentation of the Messiah, the promised Messiah, to the nation. And then that psalm goes on to talk about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is become the chief stone of the corner. This is the work of the Lord; It is marvellous in our eyes." And then it goes on to "bind the sacrifice unto the altar" (Psalm 118:22-24, 27). So it is a psalm that is speaking of Jesus being presented to the nation as the Messiah, tied together with Zechariah, coming in on a donkey.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세상에 내보이시던 날의 모습이다.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 즉 시편 118 편을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다. 시편을 보면 이 말이 잘 번역되어 있다.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소리쳐 외우던 이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이었던 것이다. 그 예언 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 118:24).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일을 위하여 정해 놓으신 날이다’라는 의미이다. 그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뿔지어다” (시 118:22-23, 27). 이 시편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출현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스가랴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다.

And tied together, of course, with the prophecy of Daniel chapter nine where the angel said to Daniel, “From the time that the commandment goes forth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 Prince will be seven sevens and sixty-two sevens” or four hundred and eighty-three years (Daniel 9:25). And so it is all tied together.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on this day, this day of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as the people are waving palm branches and crying out, Hosanna, or Save now,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that cometh in the name of the Lord. 물론 이것은 다니엘서 9 장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단 9:25). 여기서 말하는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는 483 년에 해당한다. 이 모든 내용들은 서로 일치한다. 바로 이 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인 것이다. 예수께서 도무당당히 입성하실 것이며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라고 소리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You remember that the Pharisees said to Jesus, “Rebuke your disciples, this is blasphemy. And Jesus said, I tell you that, if they at this moment would hold their peace, the very stones would cry out” (Luke 19:39,40). Luke tells us how that Jesus looking over the city wept and He said, If you’d only known the things that belong to thy peace, at least in this thy day but they are hid from your eyes and He spoke then of the desolation that was going to come.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기억할 것이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는 참람한 말이니이다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눅 19:39,40).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굽어보시면서 어떻게 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장차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황폐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So this is John’s account of the triumphant entry. It is an abbreviated account in comparison to the other gospels but John had, of course, in hand the other gospels and so he knew that it was covered sufficiently there so did not see the need, I’m sure, to cover it as thoroughly as the others had. 본문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요한의 기록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간결한 기록이다. 그 당시 요한의 손에는 다른 복음서들이 들려 있었을 것이므로, 그는 ‘나도 다른 복음서들 필자들처럼 완벽한 기록을 남겨야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But John does give us this little insight. They didn’t realize what they were doing when they were doing it. It was just sort of a spontaneous thing. In verse sixteen, “these things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t the first.” But later on, when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they remembered then the scriptures. He’s coming on a donkey. And Psalm 118, they remembered in the scriptures, “the things that were written are the very things that we did.”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작은 통찰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즉,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일은 그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16 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는 시편 118 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성경 내용을 회상해 볼 때 제자들은 “우리가 행한 일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The people therefore that were with Him when he called Lazarus out of the grave, and raised him from the dead, they were bearing record (12:17).

They were going out around and saying, We were there, we saw him come out of the grave. They were witnessing of what they saw Jesus do. 저들은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거기 있었는데, 그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들이 본 대로 증거하고 다녔다.

For this cause the people also that met Him, for that they heard that He had done this miracle. And the Pharisees therefore said among themselves, Do you perceive how we prevail nothing? behold, the world is gone after Him” (12:18,19).

Here is a movement now towards Jesus by the people. But the builders, the religious leaders, are conspiring to set Him at nought. And they will soon have Him hanging on the cross but God will raise Him from the dead. And “the stone which was set at nought by the builders will become the chief or the head cornerstone” (Luke 20:17). The rock upon which the church will be built.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좇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자들은 즉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경멸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달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눅 20:17). 이 돌은 교회가 세워질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Now there were certain Greeks among them that came up to worship at the feast: The same came therefore to Philip, which was of Bethsaida of Galilee, and they desired him, saying, Sir, we would like to see Jesus. Philip came and told Andrew: and again Andrew and Philip came and told Jesus (12:20-22).

There are Greeks here. They want to see You. 이들은 희랍인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싶어하였다.

But Jesus answered them, saying, The hour is come, that the Son of man should be glorified (12:23).

From the beginning, Jesus talked about this hour.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when in Cana of Galilee, there in the second chapter of John, the first recorded miracle of Jesus, the turning of water into wine. When Mary came to Jesus informing Him that they had run out of wine, the gentle suggestion that maybe He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He said, What is that to Me? My hour is not yet come. The hour of His being presented to the nation as their Messiah, the hour of His being glorified by the crucifixion and the resurrection.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이 ‘때’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다.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말이다. 요한복음 2 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적 즉 기록된 것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이적 사건 때부터 그분은 이 ‘때’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예수님께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부드럽게 부탁하는 말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분이 세상에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In chapter seven, when they wanted to arrest Jesus, they could not lay their hands on Him because His hour had not yet come. In chapter eight, as He was teaching in the treasury portion of the temple, again no one could take Him because His hour had not yet come. But now Jesus knows that the hour has come, that the Son of man should be glorified. Glorified through Hi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7 장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 장에 보면, 예수께서 연보케 앞에서 가르치실 때 아무도 그분을 잡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기의 시간이 된 것을 알게 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 말이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a kernel of wheat fall into the ground and die, it abides alone: but if it dies, it brings forth much fruit (12:24).

So He gives to them a classic kind of an illustration. Here’s a little grain of wheat. Set it on the shelf, it will just abide there alone. The potential is there of bearing much fruit. But it has to die in order to multiply.

And so Jesus is referring to Himself that through His death, there will be much fruit, the multiplication. The wheat abides alone unless it dies and if it dies, then it brings forth much fruit. 그분은 한 고전적인 예화를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여기에 작은 밀알이 하나 있다. 그것을 전반 위에다 얹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 있게 될 뿐이다.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밀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He that loveth his life shall lose it; and he that hateth his life in this world shall keep it unto life eternal (12:25).

When Peter first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 Son of God, Jesus then said to His disciples,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For he who seek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he who will lose his life for My sake the same shall find it” (Matthew 16:24,25). So Jesus is saying very similar things here. He who loves his life, he who lives for this life, you’re going to lose it. But if you will live your life for Jesus Christ, you’ll discover what really living is.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 16:24).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아주 흡사하다. 자기 목숨을,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생명을 잃는다면, 너는 진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If any man serve me [Jesus said], let him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shall also my servant be: if any man will serve me, him will my Father honour (12:26).

Beautiful words of Jesus of encouragement to those who will be giving their life for Him. Those who love not their own life but were willing to give their lives for Him, Jesus said, “My Father will honor them.” Special place of honor for those who have given their lives for the cause of Jesus Christ. 이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격려의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실 특별한 영예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Now [Jesus said] my soul is trouble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12:27):

Jesus was reluctant to go to the cross. In Hebrews we are told,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Hebrews 12:2). He went only in obedience to the will of the Father. When in the garden as He was in agony in prayer, sweating as it wer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He was praying,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but thy will, be done” (Luke 22:42). It was total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Jesus in now troubled because the shadow of the cross is now falling across the path that He will be walking in just a couple of days. And He’s troubled, He’s concerned about this. “Now is my soul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 12:2). 그분은 단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셨을 뿐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굴복이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우는 길을 이제 이삼 일 안에 걸어야 하는 예수님은 당시 고통스러워 하고 계셨다.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고민하기도 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 12:27).

There are many things that cross our paths that cause our souls to be troubled.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o us or to those we love that we do not understand. And as we try to reconcile these things with the love of God and believing that God is love, we find great difficulty because at the present moment, as I look at this situation I cannot see the purpose that God is working out and I’m troubled. I wonder if God loves me,

then why am I suffering like this? Why have these things happened? Why am I being afflicted if God loves me and I cannot see the purposes of God and my soul is troubled. What should one do when their soul is troubled? Do exactly what Jesus did, He prayed about it. He said,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 보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일을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 내가 왜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민망하구나. 이렇듯 내 영혼이 괴로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럴 때는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하라.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But He did more than just pray, He then began to reason. 그분은 기도만 드리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논리적으로 사고하시기 시작했다.

but for this cause came I unto this hour (12:27).

This is the purpose. God is working an eternal purpose through my suffering. It's for this cause I came into the world. I'm her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to drink the cup. And so He began to see the situation from the eternal perspective. And when our soul is troubled over our immediate problem, it is so good if we can put the problem in the light of eternity. And if we can see it from the eternal perspective, then as Paul the apostle we can say, We know that the present suffering is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shall be revealed. And this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is working an exceeding eternal weight of glory” (2 Corinthians 4:17). God is working out eternal purposes and His eternal plan though it may mean temporary suffering or pain or hardship, difficulty. But I see it in light of the eternal. And then there was finally that submission as Jesus said,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 영구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잔을 마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닥쳐진 상황을 영원의 시각에서 보시기 시작했다. 우리의 영혼이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영원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것을 영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고후 4:17). 우선은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환란을 가져오는 듯이 보이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중이다. 내가 그것을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쳐다볼 때, 나는 결국 예수님처럼 그 영원에 굴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Father, glorify thy name (12:28).

The submission. From the prayer, “Save Me from this hour,” to the submission, “Lord, glorify Thy name.” You receive glory, Father. Though it may bring pain and suffering to Me, glorify Thy name. That's the submission to the will of God. 복종하게 된다는 말이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드리는 자세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굴복하게 된다. 아버지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소서. 비록 그것이 내게 고통과 괴로움이 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다.

I think that this is so important that we come to the place where we submit the issues to the Lord. Lord, You work. Glorify Your name. And then I have peace. Lord, whatever You want. I'm Yours. And if this suffering is serving an eternal purpose; fine, Lord. I'll accept it. If this trial is going to bring out eternal benefits, then fine, Lord.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위임해야만 할 것이다.

주여, 당신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주여, 그것으로 족하옵시다. 저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이 시련이 영원한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면, 주여, 그렇다면 좋습니다.

Paul the apostle in writing the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said, “May the God of all comfort; comfort you with the comfort wherewith we were comforted when we were going through affliction.” And then he went on to say, “If I’m afflicted, it’s for your benefit, that as I experience God’s comfort in my affliction, so I’m able then to comfort you (2 Corinthians 1:3-6). It’s very difficult for us to truly comfort or sympathize with someone unless we have gone through that experience ourselves. You don’t really understand the pain and the hurt unless you’ve been there. And when you’ve been there and have experienced that blessed work of the Holy Spirit in comforting your heart, strengthening you to go through, then you can comfort someone else because you’ve been through it.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후 1:3-6).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떤 이를 진실로 동정하며 위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진실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 보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축복 된 위로를 경험한 후 힘을 얻어서 헤쳐 나왔다면, 우리는 이미 겪은 일을 통해 타인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I know that whenever I read of someone being killed in a plane crash, I understand what the family is going through because of losing my dad and my brother in a plane crash. And I know the emptiness that they feel. I know the ache that is in their throat. I know the taste of those bitter tears. And thus, I’m able to comfort people in the time of the loss of loved ones, having lost loved ones. 나는 비행기 사고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나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느낄 공허감을 안다. 그들이 느낄 목이 타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이해한다. 그 비통한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

So the commitment to the will of God. And Jesus committed Himself, “Father, glorify Thy name.” It was at this point that the Father responded. 하나님의 뜻에 위임하는 것이 그 방책이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아버지께 위임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셨다.

Then there came a voice from heaven, and it said, I have both glorified it, and will glorify it again (12:28).

God’s response to that total commitment to His will.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이다.

The people that were standing by, and heard the voice of God, said that it thundered: others said, An angel spoke to him. Jesus answered and said, This voice did not because of me, but for your sakes.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now shall the prince of this world be cast out (12:29-31).

The time of the judgment of this world. The judgment of God for man’s sin. The time has come for that. Jesus is going to take upon Himself the sin of the world.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ve turned every one of us to our own way; but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6). He is going to bear our sin and is going to die for our sin, going to suffer for our sin. Is going to experience that being forsaken of God for our sin. He’s going to go to the cross bearing our sin, taking the judgment of God against sin for us.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God is going to judge the sin of the world as it is laid on Jesus and He bears that judgment for us.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된 것이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 때가 도래한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6).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며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를 예수에게 물으실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심판을 담당하실 것이다.

And “the prince of this world,” that is, Satan, “is going to be cast out.” His power over mankind will be broken so that I now do not have to live after the bondage and corruption of my flesh. I can now live after the Spirit. Jesus spoiled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of darkness through His cross, His triumphing over them through the cross. So Jesus announces, the judgment of this world of sin is going to come and the prince of this world, his powers against you as a child of God are going to be eliminated. “이 세상 임금” 즉 사단이 “쫓겨나리라.” 인간을 지배하던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나는 내 육신의 속박과 부패를 좇아 살지 않아도 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영을 좇아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패퇴시키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상에서 그것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이다: 이 죄 된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억압하던 그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And I,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unto me. This he said, signifying what death he should die (12:32,33).

Being lifted up is a reference to being lifted up on the cross. “I, if I be lifted up,” and He’s talking about how He’s going to be lifted up from the earth on the cross, “will draw all men unto Me.” “The preaching of the cross is to them that perish foolishness; but unto us who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1 Corinthians 1:18). 들림을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어떻게 들림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Now there are some who take that “lifted up” as sort of exalting Jesus. If we exalt Jesus, if we’re talking about Him and lifting Him up in our conversations, exalting Him, that that is what will draw men unto Him. Perhaps so but that’s not what Jesus is meaning here. There is that chorus, Let’s lift Him higher, let’s lift Him higher, that all the world may see. I cringe when they sing that because He’s signifying He’s going to be lifted up on a cross and it’s as though we’re going to join in and lift Him higher. But in reality, He’s just talking about how it is God’s love was manifest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It’s the love of God that draws us, that attracts us. And it is in the cross that that love was manifested. “들림을 받는다”는 말을 예수님의 승귀(昇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인다면, 만일 우리가 대화 중에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로 인하여 사람이 그 분께로 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도 사실일지 모르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의 의미는 아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다: 그분을 보다 더 높이 올려서 온 세상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만드세. 나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겁이 나서 움찔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여 그분을 높이 달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God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1 John 4:10). “God has manifested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Romans 5:8). That’s where the love of God was manifest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The manifestation of God’s love is there at the cross where God gave His Son to take your sins and to die in your place and that is the attractive power of the Gospel, the love of God for us. Willing to sacrifice or give His own Son in order

to save us from our sins.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상에서 나타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흡인력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자기의 친 아들을 내어주며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랑이다.

The people answered him (12:34),

He’s talking now of His death. He says, a grain of wheat, unless it falls in the ground and dies and so forth, and I’m going to be lifted up, and they understood He’s talking about the cross. So they said, 그분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계시다. 그분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We have heard out of the law that the Messiah abides for ever: how come You’re saying, That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who is this Son of man (12:34)?

So the confusion that they have because of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that tell of the reign of the Messiah. How that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shall be no end” (Isaiah 9:7). The eternal kingdom. In Psalm 72 verse seventeen, “His Name shall endure forever: His Name shall be continued as long as the sun: and men shall be blessed in him: all nations shall call him blessed. 이런 혼란은 메시아 통치에 대해 얘기한 구약 성구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사 9:7)는 구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시편 72:17 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보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The scriptures that speak of the eternal kingdom, the reign of the Messiah. How is it that you say He is going to be put to death? “Who is this Messiah, this Son of man?” 성서는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하며 그 나라가 영구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 메시아는 누구며 이 인자는 또 누구냐?”

Then Jesus said unto them, Yet a little while is the light with you (12:35).

I’m going to be here for just a little while longer.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 더 있게 될 것이다.

Walk while you have the light, lest the darkness come upon you: for he that walketh in darkness doesn’t know where he is going. While you have the light, believe in the light, that ye may be the children of light. These things spake Jesus, and departed, and hid himself from them (12:35,36).

So He really didn’t answer fully their question, “Who is this Son of man?” who You’re talking about that’s going to be put to death. There were many passages of scripture in the Old Testament that spoke of Him being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His being put to death. That the Messiah would suffer. And thus, they were confused. The confusion came because He came first to suffer and die for our sins but He is coming again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and then He will reign and rule forever and ever. The conflict of thoughts and ideas of the Messiah are resolved in the two comings of the Messiah. So I’m here. While I’m here, I’m the light. Walk in the light. If you walk in darkness, you’ll stumble. Believe in the light. You might be the children of the light.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네가 말하는 “이 인자가 누구냐?”라는 저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다.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의하여 거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후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후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메시아에 대한 상반되는 사고와 개념들은 메시아가 두 번 강림하게 된다는 데서 해결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으니 그 빛 안에서 행하라. 만일 너희가 어둠에서 행한다면 너희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And then John tells us, 그런 다음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But though he had done so many miracles before them, yet they believed not on him (12:37):

That is, the religious leaders. They have rejected Him. They are conspiring to put Him to death. 종교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그분을 거부하였다는 말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었다.

That the saying of Isaiah the prophet might be fulfilled, which he spoke, Lord,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and to whom is the arm of the Lord revealed (12:38)?

This is the beginning of Isaiah 53 in which Isaiah speaks of the suffering of the Messiah and of the death.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turned every one of us to his own ways;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5,6). So that chapter begins with,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To whom is the arm of the Lord revealed” (Isaiah 53:1)? Who believes it? 이것은 이사야서 53 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그 장은 이런 말로 시작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사 53:1).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는 말이다.

Therefore they could not believe (12:39),

This morning we dealt with this issue of a person coming to a place where they have said no to the gospel of God’s grace so many times, they’ve hardened their hearts so many times that God finally just confirms that. As with the Pharaoh, he hardened his heart against the Lord. He hardened his heart against the Lord. And finally, God hardened the heart of the Pharaoh or as I pointed out in the Hebrew, God made stiff the heart of the Pharaoh. He just sort of confirmed it, He said it. After the Pharaoh had hardened his heart so many times, God then just sealed it, the hardened heart.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여러 번 아니오 라고 말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상고하였다. 그들은 너무도 여러 번 마음을 강박하게 한 고로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의 죄를 확정하셨다. 바로와 같이 그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여호와에게 대항했던 것이다. 여호와를 거슬러 그 마음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뻣뻣하게 만드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두셨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아주 여러 번 강박하게 하자, 하나님은 그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셨던 것이다.

There are people that are that way where they have refused the gospel so many times, the invitation to the gospel is no longer given. They could not believe. Paul tells us in Romans 1, “The wrath of God will be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who hold the truth of God in unrighteousness.” How do they do that? “When they knew God, they glorified Him not as God; but became vain in their imaginations,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And professing themselves to be wise, they actually became fools, as they worshipped and served the creature more than the Creator, who is blessed forever more. And because they didn’t want to retain God in their mind, God gave them over to reprobate minds. God gave them up to their own vile affections” (Romans 1:18-22,25,26). God just turned them over to that. 복음을 너무도 여러 번 거부하여 더 이상 복음으로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롬 1:18). 저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는도다” (롬 1:21-26). 하나님은 저들을 자기 소욕 대로 내버려두신 것 뿐이다.

And Paul goes on to describe our society today as the result of God just turning them over to their vile lusts and the things that they wanted to do. Having rejected and not wanting God, then given over to all of these things. “Therefore they could not.” It wasn’t they would not believe any longer, they could not believe.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로 현재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묘사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악한 소욕에게 넘겨주셨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두셨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저지르게끔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때문이다.

because Isaiah said, He has blinded their eyes, He has hardened their heart; that they should not see with their eyes, nor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be converted, and I should heal them (12:39,40).

They’ve gone too far. The religious leaders of Israel have taken the nation too far down. They cannot believe. And thus God has confirmed it, He has hardened their hearts,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there is no healing. There is no remedy. 그들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을 너무 심한 과멸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확정 지으셨으니 곧, 저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시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어떤 해법도 없게 만드셨던 것이다.

These things Isaiah said, when he saw His glory, and spoke of him (12:41).

However, John does tell us, 하지만 요한은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

Nevertheless among the chief rulers also many believed on Him; but because of the Pharisees they did not confess Him, lest they sh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For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12:42,43).

John, I think, is being very generous with these people. There is, of course, we know Nicodemus who came to Jesus. There was Joseph of Arimathea who were a part of this council who believed in Jesus. Of course, they had the courage when He was crucified to step forward and to take His body and bury it. All of the disciples had forsaken and fled. But these two men stepped forward in the death, to take the body for a decent burial. And so many of them, he tells us, believed among the chief rulers; but because of the Pharisees they were silent about it because this is a sad, sad thing,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That’s a tragic verse. 내가 보기에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있다. 그는 이 공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를 믿던 자였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앞으로 나아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최후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장례 지낸 사람들이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관원 중에도 믿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서글픈, 참으로 서글픈 일이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은 비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Jesus cried and said, He that believeth on me (12:44).

And now He’s going to talk again about this interrelationship between He and the Father. “He that believeth on Me,”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자

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believeth not on me, but on him that sent me. And he that seeth me seeth him that sent me (12:44,45).

I have come to represent God to you. If you believe on Me, then you believe in God. The One who sent Me.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God. He said that to Philip in the fourteenth chapter. “Have I been so long a time with you, yet haven’t you seen Me, Philip?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how sayest thou then, Show us the Father? (John 14:9)? And so He said,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코자 함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14 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다.

I am come a light into the world, that whosoever believeth on me should not abide in darkness (12:46).

When Jesus called Paul to go to the Gentiles, He said,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From the power of Satan unto God. He that believeth on Me, should not abide in darkness. 바울을 불러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그분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니라.

John later writes that, “If we say that we are in the light, and yet we’re walking in darkness, we lie, and we do not the truth: But if we will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have fellowship with each other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cleansing us from all of our sin” (1 John 1:6,7). 요한은 후에 이렇게 적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6,7).

And if any man hear my words, and believe not, I judge him not (12:47):

This He said to Nicodemus back in the beginning, “I didn’t come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e world through Me might be saved” (John 3:17). This was illustrated when the woman was brought, taken in the act of adultery. And they said, Our law says, Stone her. What do you say? What did He say? He said to the woman after they had all left, Where are your accusers? She said, I guess I have none. Neither do I condemn thee. Go thy way and sin no more. 예수님은 요한복음 초기에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이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의 사건에서 구체화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사람이 사라진 후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가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Jesus is saying, I didn’t come to judge the world. I came to save the world. So many times we picture Jesus as judging us. And we’re almost fearful because we think of Him in terms of judgment. No, He’s there to save. He said, “I’m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I’ve come to be a light, whosoever believes in Me should not abide in darkness. If you hear My words, and believe not, I don’t judge you.”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분을 심판하는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그분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내가 온 것은 빛이 되기 위함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for I came not to judge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He that rejects me, and doesn’t receive my

words, has one that judges him: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he same shall judge him in that last day (12:47,48).

Jesus said what is going to judge you is the word. And in that last day, that is the basis of the judgment, the words that He has said. 예수께서는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될 것이다.

For I have not spoken of myself; but the Father which sent me, he gave me a commandment, what I should say, and what I should speak (12:49).

I haven't come bringing you My words, I've come to bring you the words of the Father. He's the One who has told Me what I am to say, and what I am to speak.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 말을 전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 함이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내게 명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니라.

And I know that his commandment is life everlasting: whatsoever I speak therefore, even as the Father said unto me, so I speak (12:50).

I'm here as God's representative. I'm here to teach you the truth about God. I'm here to show you God's love and God's mercy and God's grace. I'm here to show you God's forgiveness. I'm not here to judge you, I'm here to save you. I'm saying the things that the Father gave Me to say. I'm not speaking of My own self. These are God's words to you and they are life everlasting. So the words of Jesus at this time of crisis.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느니라. 나는 지금 여기 서서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노라. 나는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자 하노라. 나는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자 하노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를 말하고 있노라.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영생이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 된다.

We now move into the night in which He is betrayed. Into the final scene before the cross as John gives us more insight into this night than any of the other gospels. We will be much enlightened as we move into chapters thirteen through seventeen, as John gives us a very thorough, keen, vivid picture of this final night of Jesus with His disciples before His crucifixion.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던 밤으로 향하고자 한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을 향하여 가고자 한다.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요한복음에서 그 밤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 장으로부터 17 장까지 읽는 동안 우리 마음의 눈이 엄청나게 밝아질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그 마지막 밤에 대해 요한은 매우 깊고 예리하면서도 철저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Father, we give thanks to You for Your love for us that was manifested through Jesus Christ. And we thank You for the light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we can walk in the light, even as You are in the light and enjoy this fellowship and this life everlasting. Lord,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when faced with difficult situations that trouble our soul. May we bring all of our cares and cast our cares upon You and commit to You, Lord, the keeping of ourselves. Fully persuaded that what we commit, You are able, Lord, to keep. And so now, Lord, we put our trust in You. We commit our ways unto You. Guide us in Your path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시여,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빛 가운데 계시므로 우리는 그 빛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런 교제와 이런 생명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우리의 영혼이 고민에 빠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라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당신께 의탁하며 당신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신께 맡긴 것을 당신은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이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당신께 맡기고자 합니다.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13

John 13
Tape #8081
By Chuck Smith

John chapter thirteen. 이제 요한복음 13 장이다.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n Jesus knew that His hour was come that He should depart out of this world un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ich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unto the end (13:1).

Or as in the revised standard, “He loved them unto the uttermost.” It’s interesting that John doesn’t give us any of the details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with His disciples. He just tells us that the feast had come and Jesus knew that His hour had come. According to God’s determined counsel and purposes, Jesus was to be crucified on passover. And thus fulfill the shadow that was cast into the Old Testament that brought about the holiday of Passover. 표준 개역 성경에는 “그분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유월절에 대해 상세한 기록이 없는 것이 흥미롭다. 요한은 유월절이 다가왔으며 예수님은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라고만 말한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유월절 축제에 드리워진 구약의 그림자를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Going clear back to Egypt when Moses had been directed by God to demand the release of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bondage in Egypt and the subsequent plagues that the Lord brought upon the Egyptians, that final plague in which God was to take the firstborn of every household in a judgment against the Egyptians, He commanded the children of Israel that they take a lamb out of their flock first year and they were to slay the lamb and put the blood in a basin and sprinkle it upon the lintels and the doorposts of their house. And the Lord declared when He went through the land that night, when He saw the blood upon the lintels and doorposts of the house, He would pass over that house. Hence the term, passover; and hence, the feast. The sacrificial lamb. By it dying, it saved the firstborn in the house from death.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박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 뒤이어서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퍼부어졌으며, 그 마지막은 애굽 사람들을 쳐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게 한 재앙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년 된 어린양을 잡아 죽인 후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실 경우 그 집을 유월(逾越)하여 가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그 축제의 이름이 유월절이 된 것이다. 희생제물이 된 어린양, 그것의 죽음으로 인하여 집안의 장자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It was a beautiful foreshadowing of Jesus, the Lamb of God, dying for us that we could escape death. That is, that spiritual death. And so Paul tells us that the Old Testament holidays, “new moons, and sabbath days: were all a shadow of things to come: the substance is Jesus” (Colossians 2:16,17). And so it was foreshadowing Jesus, the Lamb of God who delivered us from death. And thus, Jesus celebrated with His disciples this Jewish feast of passover but when He celebrated with His disciples He brought to them the full meaning.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행하실 일을 묘사한 아름다운 사건이었다. 바울은 구약의 축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6,17). 따라서 유월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예시(豫示)하는 절기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을 때 그분은 저들에게 이 절기의 온전한 의미를 확연히 전달하셨던 것이다.

He said,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Luke 22:20). “This bread is My body, that is broken for you” (1 Corinthians 11:24). Substance is Jesus. So knowing now that He is going to give Himself on Passover, to fulfill that type and shadow from the Old Testament, He

loved His own unto the uttermost. He loved them. He was close to them.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4). 그리스도가 이 절기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유월절에 죽어 구약에 나온 모형을 성취하여야 할 것을 아시던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친근히 하셨다.

As I said, John doesn't give us any details of the Passover supper. That is given to us by the other gospels. And in the other gospels, we have quite a few details, even of the preparation. How Jesus sent the disciples into the city. There will be a man carrying a jug of water. Follow him into the house and there prepare the upper room that we might have the Passover supper in it. Tells us the interchange between Jesus and the disciples. John leaves all of that out and probably because it was covered in the other gospels. And John wrote his gospel probably forty years after the other gospels were written. So he was familiar with the other gospels and felt that that had been covered and was not necessary for him to cover it in his gospel. 내가 앞서 말한 대로, 요한은 유월절 저녁 식사에 대해 전혀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나온다. 아주 상세히 나온다. 심지어는 그 준비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다른 복음서들이 완성된 후 40년이 지나서였을 것이다. 요한은 그런 복음서들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미 기록된 내용을 반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So we go from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to after supper. Between verses one and two, we jumped a few days probably, a couple of days, jumped here and after the supper.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이전에서 곧바로 유월절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1 절과 2 절 사이에는 수일의 시간 간격이 있을 것인데, 그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는 유월절 저녁 식사 후로 직행하게 된다.

The supper being ended, the devil having now put into the heart of Judas Iscariot, Simon's son, to betray him; J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and that he was come from God, and was going to God; He rose from the supper, and laid aside his garments; and He took a towel, and girded Himself (13:2-4).

Jesus had said to His disciples recorded in Matthew's gospel,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in earth” (Matthew 28:18). “J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What does He do? Here is the power of the universe vested in Him. What does He do with that power? He goes over and He takes a towel and girds Himself.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주의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었다.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The scripture commands us to gird up our loins. What does that mean? And we read so often that they girded themselves. In those days, people wore long robes, clothing. And it was for warmth but it could be cumbersome if you tried to run or to work with a long robe down to your ankles. And so when they were going to work or when they were going to battle, they would gird themselves. That is, they would pull up the robe and they would tie a sash so that then they would have a short type of a tunic. Plenty of freedom of movement. And so when a slave would go to work, they would always take and pull the robe up, gird themselves so that they would have the freedom of movement. And you'd always see a slave with girded robe. 성서는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명령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허리를 동였다는 기록을 우리는 자주 읽게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지만, 긴 옷을 발치까지 늘어뜨린 채로 일하거나 달리려면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러 가거나 전장으로 나아갈 때면 사람들은 허리를 동이곤 하였다. 옷을 끌어올려

끈으로 묶음으로써 짧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만들었으며, 그러면 활동하기가 훨씬 더 편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들이 일하러 갈 때면 언제나 옷을 걷어올리고 허리를 동임으로써 활동하기 편리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옷을 걷어붙인 종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So Jesus went over, took a towel and girded Himself with a towel. And then He came back,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은 후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After that he had poured the water into the basin, and He began to wash the disciples' feet, and to wipe them with the towel that He had used to gird Himself. Then when he came to Simon Peter: Peter said unto him, Lord, dost thou wash my feet?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What I do you do not know now; but you will know (13:5-7).

So Peter objected and rightfully so, I think. I can't imagine the Lord washing my feet and yet, that's just the kind of Lord I serve. It's sort of when He came to John the Baptist to be baptized. John said, Lord, You ought to be baptizing Me. And I'm sure Peter felt, Lord, I should be washing Your feet. And so Jesus just said, Peter, you don't understand now. You will understand. 베드로가 이 일을 말했는데, 내 생각에 그것은 잘 한 일이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고 가정해 보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런 부류의 일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 드렸다: 주여,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 본문의 베드로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주여, 제가 오히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할 텐데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니라.

Peter said unto him, You will never wash my feet (13:8).

I won't allow that. 나는 이 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Jesus answered him, If I don't wash you, you really have no part with me. Simon Peter saith unto him, Lord, not my feet only, but also my hands and my head (13:8,9).

Peter's all gung-ho, all the way. If it means being a part of You, Lord, I want it all. And I love Peter for this. Yes, he's impetuous but you got to love him.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뭐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다. 주여, 만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제 몸 전체를 씻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맘에 든다. 그렇다. 그는 성격이 격렬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

Jesus said to him, He that is washed need not save to wash but his feet, he is clean every whit: and now you are clean, but not all (13:10).

In the Roman baths, which they had Roman baths in Israel at the time up in the area of the Yardenet, not the Yardenet, the area of Galilee. It's the southern part of the sea of Galilee and over on the Golan side. They have a Roman bath that is still being used to the present day. And when they would come from the baths, they'd be there, they would have bathed. But when they came from the baths, as they would come into the house, of course, they have picked up dust on the way and thus, they would wash just their feet. But they were completely clean and all they needed was their feet to be washed. And so Jesus is making an aversion to this. All you need is your feet. "He that is washed needs not save to wash his feet, he is clean every whit: and you are clean, but not all."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식 목욕탕이 있었다. 갈릴리 지역에는 없었으나 그 위쪽 지방에는 있었다. 위쪽 지방이란 갈릴리 바다 북부 골란 지역을 말한다. 거기에는 로마식 목욕탕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목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오곤 하였다. 그들이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경우 길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냥 발만 씻으면 되었다. 몸은 깨끗하므로 발만 재차 씻으면 되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것이었다.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For Jesus knew who should betray him; therefore He said, You are not all clean (13:11).

John lets us know that Jesus knew Judas Iscariot. Earlier in the gospel, John tells us that Jesus said, Have I not chosen twelve of you, and yet one of you is a devil? Jesus calls Judas the son of perdition. And so He says, Are you not all clean, but not all. He knew who would betray Him. Therefore He said, You're not all

clean.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복음서 초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은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So after that He had washed their feet, and had taken his garments, went back over and put on His robe again, then he said unto them, Do you know what I have done to you (13:12)?

Did you get what I’m trying to tell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너희는 파악하였느냐?

You call me Master and Lord: and you say well; for so I am. If I then, your Lord and Mast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13:13,14).

Jesus had said unto them concerning the ministry, “He that is chief among you, let him be the servant of all.” Jesus said “the Gentiles, they love to exercise lordship over others. But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And he that is a minister among you, let him be as one who serves” (Mark 10:42-44). So Jesus now is demonstrating to His disciples what the ministry is really all about. It is serving others. It is the call of God to serve others. And so this is what He was saying to Peter, You don’t understand right now but you’re going to understand because Jesus is going to explain what He’s doing in washing their feet.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막 10:42,44). 이제 예수님은 사역이 진실로 무엇인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시연해보이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어주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분께서 친히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You call Me Lord, you call Me Master. That’s correct, I am that. But if I am your Lord and Master and I wash your feet, then it’s an example, you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주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며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당연히 그 모범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For I have given you an example, that ye should do as I have done to you (13:15).

I’m just giving you an example of what the ministry is about. Peter tells us that Jesus set an example for us that we should follow in His steps. 나는 지금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베드로는 자기 서신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한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neither he that is sent greater than he that sent him (13:16).

I’m sending you. You are My servants. You’re not greater than I am. If I, your Lord, am willing to serve you, then you must be willing to serve others. I’ve set the example for you. 내가 너희를 나의 종으로 파송하겠다. 너희는 나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의 주인인 나도 너희를 섬겼다면, 너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If you know these things, happy are you if you do them (13:17).

There are certain fellowships in the body of Christ who, to the present day, practice foot washing. They have foot washing services. I have never been in one. I have had, on a couple of occasions, people who felt that the Lord had called them to wash my feet. If I had had an advance notice, I would have changed my socks. But there are churches that do practice foot washing services even to the present time. 오늘날에도 발을 씻기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도들이 있다. 그들은 서로 발을 씻기는 봉사를 한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적은 있다: 주께서 자기를 불러 명하셨다고 하면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미리 그럴 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내가

양말을 갈아 신고 기다렸을 것인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하여튼 오늘날까지 발을 씻기는 관습을 견지해오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We do not accept it as general church practice. The reason being is that we really do not find any examples of it in the book of Acts, nor is there any real definitive teaching on it in the epistles. And generally, that which we accept for church practice is something which was practiced by Jesus. We have examples of it in the book of Acts and then we have teaching on it in the epistles. Thus, water baptism. Taught by Christ, commanded by Christ. We find it practiced in the book of Acts and we find teaching by Paul on the subject of water baptism in the epistles. And thus, we accept water baptism as one of the ordinances of the church today. 우리는 이것이 교계 일반의 관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서신서들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가 교회의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께서 행해보이신 일이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서신서에도 그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물세례 같은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며 명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관습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바울이 서신서에서 물세례라는 주제로 교훈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를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The partaking of the Lord's supper. It was taught by Jesus and He said, "As often as you do these," it was practiced in the book of Acts and again we have teaching on it in the epistles. And that is why we practice as one of the ordinances of the church the taking of the Lord's supper. 성만찬을 보자.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성만찬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서신서들에도 나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에도 주의 만찬에 참석하며 이것을 성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But though Jesus set the example of foot washing, as I said, it doesn't live up to the full criteria. We don't really find it as a general church ordinance or practice in Acts nor do we find it really taught, as I said, in a definitive way in the epistles. And thus, we don't practice foot washing today. 한편 발을 씻기는 관습에 대해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례는 필요충분 조건을 다 갖추지는 못했다. 일반적인 교회의 성례나 관례로 굳어진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없으며, 서신서에도 그 관례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예식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In those days, it was a very common practice because people generally wore open sandals. The streets were very dusty or many times there was no paving at all, just dirt paths. And thus, your feet would get dirty. And when you would come in to a home that was all cleaned and all, the servant would be at the door to greet you and to wash your feet. Your sandals would be left then at the door and you would go in barefooted. And even to the present day in many of the Oriental cultures, you don't wear shoes into the house. You take your shoes off before you enter the house. And it's still a custom in the Orient in many places. 그 당시에는 발을 씻기는 것이 아주 흔한 모습이였다. 사람들이 대개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이다. 거리는 매우 지저분하였고, 포장 안 된 도로가 지천이어서 길들은 먼지가 매우 많이 났다. 그러므로 발이 쉽게 더러워졌다. 잘 청소를 해놓은 집으로 들어올라 치면 종들이 문간에 서 있다가 인사를 꾸벅 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여러분은 신발을 문 앞에다 벗어둔 다음 맨발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러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곤 한다. 신발을 신은 채로는 결코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동양에서는 지금도 그런 관습을 유지하는 곳이 여럿 있다.

And so you can see the necessity for it and of course, you can see how that it would be a real example of that of a slave because usually the lowest slave in the house was the one whose duty it was to wash the feet of the guest who would arrive. 그러므로 여러분은 발을 씻겨야 할 필요성을 알았을 것이며, 예수께서 종의 도리를 참으로 잘 보여주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한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직임을 대개 담당하고 있었다.

Years ago here at Calvary Chapel when we had just built the little chapel on the next corner and we have

put this long shag carpeting which was popular then, it was the “in”; and we got a green color because we wanted to give the idea of a lawn, and we had the glass windows and the grass right outside so it was sort of bringing the outside in and we had burnt orange pews so that you get the idea of sitting in a garden to worship God. It was very lovely, very beautiful. 수년 전의 얘기다. 이곳 갈보리 교회의 부속 건물로 작은 예배당 하나를 저편 구석에다 건축한 후 우리는 이 털이 많이 달린 카펫을 깔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것은 안쪽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녹색으로 된 카펫을 깔았는데 이는 잔디밭과 같이 보이고 싶어서였다. 그리고는 창유리를 달았고 바로 그 너머에는 잔디가 있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 잔디 위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의자는 황갈색이었다. 그러므로 정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였다.

And so the fellow who sold us the carpet, because some of the hippies had started coming to the church, and really they helped us in the construction of the chapel very much, and he said, I just want to warn you. He said, The worst thing in the world for a carpet is bare feet. He said, There is an oil in your foot when it mixes with the dirt, it’s practically impossible to get out of the carpet. And so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that with all these barefooted kids coming to church. 그 당시 몇몇 히피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예배당 짓는 일을 아주 많이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카펫을 우리에게 매매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카펫을 깔았을 때 가장 고약한 것은 맨발입니다. 발에는 기름기가 있는데, 그것이 먼지와 함께 섞일 경우 카펫에서 그 때를 벗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맨발의 청춘들이 다니는 교회에 카펫을 까는 일을 재고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So an issue arose whether or not we should allow the kids to come into church barefooted because of this beautiful carpet. And so when some objected and voiced objections to them coming in barefooted and all, I said, Well, if this is going to become an issue, I said, personally I’m in favor of ripping the carpet out and having concrete floors so that we can just say, “Hey, come on in” to anybody, barefoot or not. And if that’s still a problem, next Sunday I’ll be at the front door with a basin of water and I’ll wash these kids’ feet before they come in to church. They were embarrassed about the pastor sitting out with a basin of water. And so they relented and let them come. What’s a little dirt on the carpet. I don’t know. The Lord must have put some kind of a stain guard on that because that carpet just wouldn’t wear out, even when shag went out, it was still good. What can you say! 그리 하여 그 맨발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 아름다운 카펫 때문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맨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금지시키자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맨발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카펫을 제거하고 시멘트 바닥을 드러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하여 아무에게나 신발을 신었든 벗었든 간에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정녕 문제가 된다면 다음 주일에는 내가 물을 대야에 담아 가지고 문간에 서 있다가 그 애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문간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서 있겠다고 하니까 기겁을 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저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카펫에 때가 좀 묻기로서니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주께서 때 타지 못하게 하는 수문장을 문간에 세워 두심으로 카펫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설사 그 양탄자가 없어진다 한들 문제될 게 뭐란 말인가. 그런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But there was a need for washing feet in those days. Thus, it was a beautiful gesture. But as I say, we don’t really find the church practicing that as we come into Acts.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교회 관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Jesus said,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 speak not of you all: I know whom I have chosen: but that the scripture may be fulfilled, He that eateth bread with me hath lifted up his heel against me. Now I tell you before it is come, that, when it is come to pass, you might believe that I am he (13:18,19).

The prophecy of scripture. That “he who eats bread with Me is going to lift up his heel against Me.” That is, He would be betrayed by a close, intimate associate. Because eating bread, as we have mentioned before,

was a very significant experience for them symbolizing a oneness, a closeness. And so the prophecy was He would be betrayed by an associate. And so Jesus said, "I've told you before it comes to pass that, when it does come to pass, you will know that I am He." 성서의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친밀하고 절친한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로 묶는 매우 의미심장한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성서의 예언은 그분이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Actually, prophecy is intended to prove to us that God is eternal outside of time. It is also used to prove that the Bible is inspired by God. For He "declares the end," He said, "from the beginning" (Isaiah 46:10). He laid out history in advance. He told things that were going to be before they ever were so that "when they did come to pass, you might believe" that this was truly God which spoke and that God is eternal outside of time. So He said, 사실상, 이 예언은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분은 "처음부터" "종말에 대해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사 46:10). 그분은 역사를 미리 배정하신 분이다. 그분은 사건이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그에 대해 말씀 하심으로써 "정작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로 믿게 하고자" 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receives whomsoever I send receives me; and he that receives me receives him that sent me (13:20).

So you have been sent by the Lord to bear witness. If a person receives you, they receive Jesus. If they receive Jesus, they receive the Father. In the same token, if they reject you, they're not rejecting you, they're rejecting Jesus; and if they're rejecting Jesus, they're rejecting the Father. When the disciples were rejected, they rejoiced that they were counted worthy to suffer persecution for Jesus' sake.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증인이 되도록 과송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들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된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로 여김을 받은 데 대해 기뻐하였다.

When Jesus had thus said these things, He was troubled in His spirit (13:21),

In the previous chapter, we find Him troubled in His soul. In the emotions. He was troubled at the tomb of Lazarus. And now He's troubled in His spirit, 앞의 장에서 우리는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감정에 복받치는 주님을 보았다.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랬다. 여기서서는 심령에 민망해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and He testified, and sai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one of you shall betray me (13:21).

One who has eaten bread with Me will lift up his heel. 나와 함께 떡을 먹은 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 것이니라.

Then the disciples looked at one another, doubting of whom he spake (13:22).

The interesting thing to me is that the disciples did not suspicion Judas Iscariot. He must have pulled off his role pretty cleverly in that there seems to be no indication that he was a suspect at all above the others. So when Jesus came out direct and said, One of you is going to betray Me, they looked at one another, wondering who it was.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은 점을 보면 그가 얼마나 능란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언급하실 수 밖에 없었다: 너희 중의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누가 그런 사람일까 하고 궁금히 여기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Now there was leaning on Jesus' bosom one of his disciples, whom Jesus loved (13:23).

And as we pointed out before, John's the only one who tells us that he was the disciple that Jesus loved.

In none of the other gospels is John called John the beloved, nor do any of the other gospels say that Jesus especially loved John. He's the only one that tells us that. I think it's great when you know that Jesus loves you. I think it's wonderful that John had that feeling. He loves me. And that's the feeling that we should all have. He loves me. And so John is using this to describe himself, "leaning on the bosom," the closeness of John. He was that kind of a person. Was close to Jesus, leaning there on Him.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대로,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표현도 물론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렇게 칭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데 대해 나는 아주 좋게 생각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모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은 자신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도 사용하였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분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Simon Peter therefore beckoned unto him, that he should ask who it should be of whom he spake. So then he that was lying on Jesus' breast saith unto him, Lord, who is it? Jesus answered, He it is, to whom I shall give a sop, when I have dipped it. And when he had dipped the sop, he gave it to Judas Iscariot, the son of Simon (13:24-26).

The sop was a gesture of friendliness. It's sort of like lifting the cup in a toast. A gesture of friendliness and Jesus gave the sop to Judas. 이 떡 한 조각은 우정의 표시였다. 마치 건배를 청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애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던 것이다.

And after the sop Satan entered into him. Then said Jesus unto him, What you do, do quickly (13:27).

Judas had already been to the high priest. He had already struck his deal. He had already covenanted with the high priest that he would lead them to Jesus in an isolated place away from the public crowds where they could arrest Jesus without stirring the public because the people were looking at Jesus as a prophet. And so Judas had already made his covenant with the high priest. John tells us when He gave him the sop, Satan entered him. Jesus said, "Have I not chosen you, but yet one of you is a devil" (John 6:70)? There are some Bible scholars who believe that Judas Iscariot was not really a man. That he was Satan incarnate. That's hard and difficult to prove, it's just a theory by some theologians but it's something to consider. And so Jesus commanded him, "What you do, do quickly." Jesus is still in control. John tells us and here again, the interesting thing, 유다는 벌써 대제사장에게 갔다 온 상태였다. 그는 이미 거래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가 있는 호젓한 곳으로 저들을 안내해 주기로 그는 이미 대제사장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체포하였다가는 소요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이미 대제사장과 그런 계약을 맺은 유다였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 6:70). 가룟 유다가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경 학자들이 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학자들이다. 그것은 증명하기 아주 어려운 단순한 이론으로서 소수의 신학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이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는 일의 주도권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있다는 증거다. 한편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 번 흥미 있는 사실을 밝힌다.

Now no man at the table knew for what intent he spake this unto him. Some of them thought, because Judas was the treasurer, he kept the money, that Jesus had sent him out to buy those things that they would need for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or, that he should go out and at this time give a gesture by giving something to the poor (13:28,29).

As is often the case at Christmas or Thanksgiving when we think of the poor and as a part of our celebration, we like to give something to the poor. So the disciples thought, Jesus has sent him out to maybe buy something for the preparation for the feast, or maybe He sent him out to give something for the poor. But you see, they didn't suspicion Judas, which is interesting to me.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저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내어보내서 뭔가를 사다가 절기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눈곱 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He then having received the sop went immediately out: and it was night. Therefore, when he was gone out, Jesus said,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13:30,31).

The time has come. 드디어 그 시간이 도래하였다.

If God be glorified in him, God shall also glorify him in himself, and shall straightway glorify him (13:32).

In the previous chapter, Jesus said, “What shall I say? Father, deliver Me from this hour: yet for this hour have I come. Father, glorify Thy name. And the Father responded, I have glorified it, I will glorify it again” (John 12:27,28). So now the time is come.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 12:27,28).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이다.

Little children [in terms of endearment, as little children 이 표현에는 귀엽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yet a little while I am with you. You shall seek me: and as I said unto the Jews, Whither I go, you cannot come; so I say that now to you (13:33).

Just a little while, you're going to be seeking Me: but you can't come.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려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A new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13:34).

That is an amazing commandment. In the first epistle of John, and I would suggest for you, advanced students, that you go ahead and read the first epistle of John this week and notice how John refers to the commandments of Jesus. Jesus in a little bit, in the fourteenth chapter actually, in the next chapter, will also say,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and keepeth them, he it is that loveth Me: and he that loveth Me will be loved of the Father, and we will come and manifest ourselves to them” (John 14:21). 이것은 놀라운 계명이다. 요한 1 서에도 나오는 계명이다. 잘 알아듣는 여러분에게 내가 권고한다. 집으로 가서 이번 주 안에 그 서신을 읽어보도록 하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 요한이 상세히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실은 조금 더 나아가면 다음 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

But in his first epistle, John will make reference to the commandments of Jesus. What is the commandment? That we love one another as He has loved us. One commandment but boy, does that cover everything! Our loving one another as He loved us. 요한 1 서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게 어떤 계명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한 가지 계명이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그런 계명이 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He said,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his, that a man will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John 15:13).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is, with that love that is so deep that we will lay down our lives for each other.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3).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By this shall 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one to another (13:35).

As I look at the church history, my heart aches because there has been so much hatred manifested between different denominations, or different sects. There have been what were termed “holy wars” if there

be such a thing. I don't think any war is holy. But you read *Fox's Book of Martyrs*, you read of the atrocities during the period of the reformation and neither side was totally innocent. We read Calvin's institutes but you read some of the things that Calvin said and Calvin did and nobody is innocent.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마음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단 간에 그리고 종파 간에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소위 '성전(聖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나는 전쟁은 어느 것이든 거룩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직접 '팍스의 순교사'를 읽어 보라. 종교개혁 시절에 얼마나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편도 100% 무죄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읽어 보라. 칼빈의 언행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이다.

And how we could come so far from the commandment of Jesus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I'm not referring just to those in our body here but for the whole body of Christ. That we develop a love for all, even those that don't agree with us on every issue. That we have this kind of love that will bear witness to the world that we are His disciples.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계명으로부터 이다지도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만을 대상하는 하는 얘기가 아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틀어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매사에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Simon Peter (13:36)

Not so interested in this commandment as he is in the things that Jesus has been saying about I'm going away and you can't come, so he,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관심도 없던 베드로였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터인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가 쏠렸던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다.

said unto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Jesus answered him, Where I am going, you can't follow Me now; you will follow me afterwards (13:36).

I think that Peter realized that Jesus was talking about death. When Jesus said this to the Jews, they thought that maybe He was talking about committing suicide. Is He going to kill Himself? And in another place where He told the Jews the same thing, they said, Where is He going? To the Gentiles to teach them? What does He mean? But I think that Peter caught the meaning because,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저가 자살을 하려는가? 라고 수근거린 적이 있다. 저가 스스로 죽으려는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저가 어디로 가려는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는가? 저의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은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He said, Lord, why can't I follow You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r sake (13:37).

Lord, if You're going to lay down Your life, I'll lay down mine. I'll follow You into death. It's interesting that Jesus said, "Where I go, you cannot follow Me now but you will follow Me afterwards." Interesting that all of them did follow Him in death, with the exception of John, the writer of this book. Every one of the disciples suffered violent death at the hands of men for their witness and testimony of Jesus Christ. And when they came to crucify Peter, he said, Look, crucify me upside down, I'm not worthy to die as my Lord. 주여, 당신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흥미롭다. 결국은 이 책의 필자인 요한만 빼 놓고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 죽었으니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사람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갔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려고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So "Peter said, Lord, why can't I follow You?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r sake." 어쨌든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Jesus answered him,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y sake (13:38)?

Peter had made quite a great claim. Jesus is challenging it.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y sake?” 베드로는 대단한 주장을 한 것이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확인하고자 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진정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The cock shall not crow, till you have denied me three times (13:38).

Luke tells us that when Jesus told this to Peter, Luke gives us a little more addition here, He said, “Simon, Simon, Satan has desired you that he might sift you like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And when you’re converted, strengthen your brethren” (Luke 22:31,32). And then He predicted how that the sifting by wheat was going to be Peter’s failure in that test where he denied his Lord. He said you’re going to deny that you even know Me. Peter objected. He said, Lord, if they would kill me, I would never deny You. And yet we know that Peter did deny Him.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32).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밀 까부르듯 하는 시험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언하셨다. 너는 장차 나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니라 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반대하였다. 주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결국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There are issues involved in the denial of Peter that I think led directly to the denial. First of all, I think that this boasting in himself. Lord,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That’s boasting in himself.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직접적인 요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였다. 주여,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과신한 말이다.

The second was his arguing with the Lord. Know this, if you ever find yourself in an argument with the Lord, you’re wrong. He thought he knew himself better than the Lord knew him. He was indignant when Jesus said, You’re going to deny me three times before the rooster crows. He was indignant, Lord, I would never deny You.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And so that boasting in himself and arguing with the Lord. Those are a couple of issues that can get you into trouble.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려고 하였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과 더불어 논쟁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화가 나기까지 했다. 주여, 제가 결단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니 까요.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하는 한편 주님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 서너 가지 이유로 인하여 베드로는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Next we find Peter sleeping in the garden when the Lord told him to pray. “When Jesus had come back to the disciples, He said, Peter,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Watch and pray, lest ye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atthew 26:40,41). Sleeping when you should be praying. 다음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감람산 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 26:40,41). 기도해야 할 때에 잠을 자는 것도 실패의 한 원인이다.

The fourth thing that we see is when Jesus was arrested and led to the house of Caiaphas, the high priest, we read, “And Peter followed afar off” (Matthew 26:58). Attempting to follow Jesus afar off is another thing that can lead to denial. If you’re going to follow Jesus, stick just as close as you can. The closer the better.

Don't try and follow afar off. 네 번째의 이유는 이렇다. 예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좇아갔다” (마 26:58). 멀찍이 예수님을 좇는 것은 실패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좇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바짝 달라붙어서 좇기를 바란다.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좋다. 멀찌감치 뒤떨어져서 좇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

And then finally, where was he when he denied the Lord? He was warming himself at the enemy's fire. Be careful about trying to find warmth at the enemy's fire. Sometimes Christians seek to do that. They seek to go back into the worldly things to find a little warmth, little excitement. And they're in the wrong place. And being in the wrong place can often lead to denial.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부인하였는가? 원수가 피어놓은 불을 쬐고 있을 때였다. 원수의 집에서 불을 쬐고자 하는 행동을 조심하라. 가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잠시의 일락과 쾌락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는 것이다. 그릇된 자리에 가 있으면 자연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So with Peter, you can sort of follow the course that began with self-confidence, boasting of himself. So when Peter said, “Lord, why can't I follow You?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Jesus said, Will you lay down your life for Me?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the cock shall not crow till you have denied Me three times.”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자만과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가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큰소리쳤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I don't like to stop there though I know it's the end of the chapter. I believe that Jesus went right on and said,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John 14:1). I believe that those words were spoken by Jesus to comfort Peter. Peter, you're going to deny Me. You're going to be shaken over this. And he was. When the soldiers said, Surely you are one of His disciples, your speech gives you away. You have a Galilean accent. He began to swear, to curse, and he said, I don't know the man. And the rooster began to crow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s of Jesus,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have denied me three times. And when he thought on these things, he went out and he wept bitterly. His heart was troubled. I had failed the Lord. 실제적으로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 내 생각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내가 믿기로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위로하고자 하신 말이다. 베드로야, 너는 장차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다. 군사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틀림없다. 네 말투를 보면 안다. 네가 갈릴리 말을 쓰는구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때 닭이 울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 났다. 그 말씀이 생각나자 그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저버렸구나.

Actually, we read in one of the gospels that when the rooster began to crow, Jesus who was standing there, looked over to Peter. Caught his eye. And I'm sure that the look that Jesus gave to Peter wasn't one of, I told you so. Nor was it one of, You rotten crumb. You did it, didn't you? But I believe it was a look of tender compassion that broke Peter's heart. I think it was a look that said, Peter, I knew it all the time but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복음서에 보면, 닭이 울기 시작할 때 거기 세 계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굽어보셨다고 되어 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그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낸 눈길은 ‘이 썩을 놈야. 네가 결국은 일을 저질렀구나, 응?’ 하고 꾸짖는 의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동정 어린 부드러운 눈길이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더욱 베드로의 마음은 아프게 되었을 것이다. 그 눈빛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이럴 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It's interesting that Peter carried that. He carried that look. He carried that guilt. When Jesus was

crucified and placed in the tomb, I'm sure it haunted Peter that the very last thing, the very last contact with Jesus was when he had failed. That look of Jesus. I failed Him. I denied Him. I love Him. I'm sure it just haunted Peter. And so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 women, He said, Go tell the disciples and Peter that I have risen. And Peter was one of the first ones that Jesus appeared. On the day of His resurrection, He appeared to Peter. When the disciples came back from Emmaus and met the other disciples, they said, The Lord i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the women and to Peter! The Lord had that personal little talk with Peter afterwards. And then of course, John gives us great insight into the talk at the sea of Galilee with Peter when Jesus sort of recommissioned him and put him back in the business up there at the sea of Galilee.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흥미롭다. 그는 그 눈길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 때의 죄책감 떨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덤에 놓였을 때, 그 마지막 눈빛은 베드로를 무척 괴롭혔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가 실패했을 때 마주친 예수님의 마지막 눈빛이 주에게 자꾸 떠올랐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얼굴이 못내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내가 저 분을 배반하였구나. 내가 저 분을 부인하였구나. 저 사랑스러운 분을 말이다. 이런 생각에 베드로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주어라 고 명하셨던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주셨다.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에서 돌아간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 한 말을 들에 귀를 기울여 보라: 참으로 주께서 살아나셨으며 여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단다!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다. 물론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누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다. 그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재차 사명을 주시며 어부로서의 사명을 재확인시켜주셨다.

So we'll get that as we move through John and get to the last chapter, twenty-first chapter, we'll get the ministry of Jesus to Peter. But even here as He is predicting, He is saying, Look,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Peter, your problem is that you believed in yourself. Believe in Me. Don't believe in yourself.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 장에 나온다.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의 일을 맡기신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그것은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다: 베드로야, 네 문제는 네가 네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네 자신을 믿지 말라.

Believe in Him. Don't believe in your ability, believe in His ability. Trust in Him. 그분을 믿도록 하라.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라. 그분을 신뢰하라.

Father, we give thanks for Your love and we ask that You will put Your love in our hearts. That we might love one another, Lord, even as You loved us so that we might be a witness to the world of what You're all about. That we might be loving, Lord, and not just to those who are a part of our fellowship or agree with us, but to all of those, Lord, who are Your disciples and who love You. Unite our hearts, Lord, in Your love.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오니,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나 우리와 합의하는 사람만 사랑할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 모두를, 당신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14

John 14
Tape #8082
By Chuck Smith

John chapter fourteen. Jesus has finished what is commonly called the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It was the Passover meal where He took the elements of the Passover meal and gave to them a total new interpretation. 이제 요한복음 14 장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통상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식사를 마쳤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였는데, 식사 중 예수님은 잔과 떡을 돌리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셨다.

The Passover meal was a memorial meal. The various things that they ate were to remind them of their experiences in Egypt. The bitter herbs, the salty water, the little pasty mixture of honey and nuts all were symbolic reminding them of the tears, the salty water. The bitter herbs reminding them of the bitter experiences of being slaves, forced labor for the Egyptians. The pasty mixture reminding them of the mortar that was used in the brick buildings that they were forced to make. And so all of these things were reminders of Egypt and then God's deliverance out of Egypt. 유월절 식사는 절기 기념 식사였다. 그들이 섭취하는 각가지 음식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회상 시키는 것들이었다. 쓴 나물, 짠물, 꿀과 견과류를 섞어서 쓴 죽과 같은 음식 등이 있었는데, 짠물은 저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쓴 나물은 종살이의 쓴 경험과 애굽의 강제 노역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죽은 저들의 강제 노역 중 벽돌 만들기에서 사용되던 흙 반죽을 회상 시켰다. 이 모든 것들은 애굽 생활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을 기억 나게 하는 것이었다.

The meal was very symbolic but Jesus changed the symbolism. He made it more than just a memorial service of coming out of the bondage of Egypt. But now it is a new meaning, the broken bread is representing His body broken for us. Unleavened because He was without sin. The cup now is to remind us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that was shed for our sins. And so it's a whole new meaning that Jesus gave to the supper. 그 음식은 매우 상징적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상징을 바꿔 버리셨다. 그분은 그것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리는 의식(儀式) 이상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썩은 떡은 우리를 위하여 부서진 그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무교병은 그분의 죄 없는 삶을 나타내게 되었다. 잔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렇듯 그 저녁 식사에다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다.

Supper's over. He has predicted that one of the disciples is going to betray Him. And then He identifies that disciple as Judas Iscariot and He sends him on his nefarious task. Now Jesus begins to talk to His disciples and in the thirteenth chapter, verse thirty-three, Jesus said, "Little children, yet a little while I am with you. And you will seek me: and as I said to the Jews, Where I go, you cannot come; so now I say to you" (John 13:33). The same thing I said to the Jews I'm saying to you. I'm going to be with you for just a little while and then where I go, you cannot come. 저녁 식사가 끝났다. 그분은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그 제자를 가롯 유다라고 지칭하셨으며 그가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도록 내버려두셨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13 장 33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너희에게도 하겠다. 내가 잠시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가 없느니라.

Jesus went on to say, "I'm going to give you a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nd by this love all the world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John 13:34,35). But Peter is stuck on this previous statement. I'm going to go away, like I told the Jews, and you can't come. And so Peter asked a question and this is the beginning of a question/answer session with the disciples. It actually begins here in chapter

thirteen, it's after the dinner, Jesus is sharing things with them, it's a time of their questioning Jesus of the things that He is saying, and Jesus responds to their questions.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직진의 진술에만 마음이 고착되어 있었다: 내가 잠시 동안은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일련의 질의/응답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여기 13 장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께서는 식사 도중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셨다.

Having said that He's going to go away, in a little while they can't come where He is going, then Peter said unto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First question. Where are you going, Lord? And Jesus answered Him, Where I go, you cannot follow Me now. You will follow Me later. Peter questioned again, Why can't I follow You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And then Jesus predicted Peter's denial before the rooster would crow in the morning. 내가 잠시 동안은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고 질문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니라. 베드로는 다시 질문을 하였다.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Jesus went on to say after predicting Peter's denial,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14:1):

I believe that He is addressing this basically to Peter, knowing that Peter's heart was going to be severely troubled after he denied the Lord. But also knowing that the rest of the disciples are going to have troubled hearts when they see Him hanging on the cross and dying on the cross. Their expectations of the Messiah was far different from His being crucified. Suffering and being put to death. Their expectations was that He was going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immediately, that they would be ruling and reigning with Him over the earth. And they had forsaken everything to follow Him and follow this concept of the Messiah.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는다. 주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임을 알고 주님은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때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임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하면 그들도 메시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좇는 한편 메시아에 대한 이런 관념을 견지(堅持)하고 있었다.

And so He is saying,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They are going to be facing troubling times and troubling experiences the next day as He will be put to death there on the cross. But He said,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날부터 저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14:1).

This is the first remedy for a troubled heart. Believe in Me. Trust in Me, Jesus said. And you know, that is truly a cure for a troubled heart. Whenever you're concerned or worried or you begin to be anxious over situations that you don't understand, you're confused, how wonderful it is just to put your trust in Jesus. He's saying, Just trust Me. Just trust Me.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은 이것이었다: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는 나를 신뢰하라 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것은 고통에 빠진 마음에게 진정한 치유책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쳐 안절

부절 할 때마다, 여러분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처방이 될 것인지.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를 신뢰하기만 하라. 그저 나를 신뢰하라.

But that's oftentimes hard to do. If I don't understand what He is doing, it's hard to trust Him. Sometimes the things that He is doing don't make sense to me. And I find it difficult at times to trust Him. More or less like the fellow who was climbing, doing some mountain climbing and he lost his grip and started sliding down the mountain. And in desperation he grabbed out and got hold of a bush and found himself hanging over this great chasm a thousand feet down. And he was just hanging there. He said, Oh God, help me. And the Lord said, Just let go, son. He held on all the tighter and he said, Lord, I said help me. And He said, Trust Me, just let go, son. And he stopped and hauled and he finally said, Lord, help me! And the Lord said, Just trust Me, let go. He said, Is there anybody else up there? We don't understand what He's saying and sometimes we find it difficult just to trust Him. We'd like to have some other kind of advice maybe than what the Lord is directing for our lives. 그러나 가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내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불성설처럼 보일 때가 있다. 때때로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의사정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산에 오르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놓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등산가들은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늘어지며 발 밑 수천 길 낭떠러지 위로 연결된 밧줄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한다. 그와 같은 자세로 베드로는 여기서 붙들고 늘어지려 하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아들이야, 그냥 손을 놓으려무나. 그는 잡은 것을 더욱 더 강력히 부여잡으면서 말한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나이까? 그분이 대답하신다: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아들이야, 손을 놓아라. 그는 한 번 더 힘차게 끌어당기더니 단말마적인 절규를 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손을 놓아라. 그가 부르짖는다: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끔 그분을 단순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종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조언을 구하게 될 것이다.

So He says,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14:2).

Many abiding places. Just what is meant by this is a matter of theological discussion. I would like to just give you sort of a possibility. This isn't doctrine, this isn't, I'm not going to write any treatises on this, but I think that we have made a mistake in thinking of mansions like something in Beverly Hills with swimming pools and manicured yards and so forth. That's usually our idea of a mansion. Seven bedrooms, five baths and country size kitchen and this kind of thing.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놓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인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므로 나는 이 구절에 대해 무슨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처소를 두고 비벌리 힐즈에 있는 맨션과 같은 것을 상상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가 있는 것 같다. 수영장이 달리고 잘 손질된 잔디밭이 있는 거창한 건축물 말이다. 대개 맨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떠올린다. 침실이 7 개에다가 욕실이 5 개, 광장 같이 넓은 주방 등등이 있는 집 말이다.

I think that in our new bodies, we're not going to require sleep. So why would we need bedrooms? I don't think He's talking about some little cottage down the path or some big mansion down the path. Many abiding places. 우리가 새 몸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침실이 필요하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길 저편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라든가 아니면 길 이쪽 편에 있는 큰 맨션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저 거할 곳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14:2).

Paul the apostle in his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chapter five said, "We know that when this earthly tent, the body in which we presently live, is dissolved"—so he likens this body to a tent—"We know that when it is dissolved," or when this body goes back to dust, the component elements that make up our body,

“that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inthians 5:1). This building of God that he is speaking about is the new body that I’m going to have in heaven, the new heavenly body.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후 5:1). 그는 우리의 몸을 장막 집에 비유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갖게 될 새 몸을 가리킨다. 새로운 하늘의 몸인 것이다.

The Bible teaches that the real me is not this body, the real me is spirit and I live in this body which this present body is a tent. When you think of a tent, you never think of a permanent place to live. You think of a vacation and it’s good for a couple of weeks but oh, it’s so nice to get home again, to the conveniences of the house where you don’t have to heat the water on the stove in order to sponge bath, but you can get in and take a shower or just relax in the tub. So a tent is good for temporary, but you don’t think of it as permanent. You’d think you were abused if you’re husband moved you permanently into a tent. And you would be. 성경은 참된 나는 이 몸이 아니라 몸 안의 영이며 나는 장막과 같은 이 현재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뿐이라고 가르친다. 여러분은 장막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영구적인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휴가도 한두 주는 좋지만 결국은, 목욕을 하기 위해 난로에다 물을 데울 필요가 없는 자기 집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이 가장 좋다는 말이다. 장막도 한 동안은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영구적으로 장막 안에서 살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천대를 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진정 그럴 것이다.

So when this tent, temporary dwelling place for my spirit, goes back to dust, I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a new body. Not with all of the ancestral, genetic kinds of malfunctions that are passed down through the genes, or weaknesses or tendencies towards different things. But a new body,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Paul said, we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reed from the restrictions of the body, not to be an unembodied spirit, just an essence floating in the universe some place, but we desire to be clothed upon with the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realize that as long as we are living in these bodie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but we would choose rather to be absent from these bodies that we might be present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1,2,3,6,8). 하지만 내 영의 일시적 거처인 이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새 몸이 있다. 유전인자나 인간적 연약함 등을 통하여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전적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새로운 몸이 있다.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영구적으로 있다. 바울은 이 몸을 가진 우리는 종종 괴로워하며 몸의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몸이 없는 영이 되어 우주를 떠도는 어떤 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을 덧입고자 함이다.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몸으로부터 떠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위함이다 (고후 5: 1,2,3,6,8).

So just offering as a possibility the mansion that Jesus is talking about could be that glorious new body that He has gone to prepare for you,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So He said,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처소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러 가신 그 영광스러운 새 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말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이는

that where I am, there ye may be also (14:3).

When God created these bodies, He created them out of the earth and He created them for the earth. The same seventeen elements that make up the dirt outside are the same seventeen elements that make up my body. Out of the earth but not only out of the earth but for the earth. Designed fo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planet earth. My body was designed to withstand fourteen pounds of pressure per square inch. My body was designed to take the oxygen out of this atmosphere, seventy-nine parts of Nitrogen, twenty parts of Oxygen, and one percent of trace types of gases, but my body is designed to live in this Nitrogen-

Oxygen balance of the atmosphere. You can be glad it isn't half oxygen and half nitrogen because it would actually slow down your whole body functions or you're thankful that it isn't twice as much Oxygen as it is Nitrogen. Nitrocox, if it were reversed and it was twenty of Nitrogen and seventy-nine Oxygen, you'd have sort of a laughing gas. We'd all go around in uncontrollable laughter. So God designed the body to exist in the environment that we have here on this planet.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으며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17개의 요소가 그대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흙으로부터 만드셨으나 단순히 흙으로부터 만드셨을 뿐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셨다. 지구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 몸을 조성하신 것이다. 내 몸은 평방인치 당 14 파운드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내 몸은 대기로부터 산소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졌다. 79%의 질소와 20%의 산소 그리고 1%의 기타 기체로 이뤄진 이 대기 속에서 내 몸은 산소와 질소가 지금처럼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다. 이 대기가 산소와 질소가 각각 절반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비율로 구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 전체 기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소가 질소의 두 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대기의 배합 비율이 역전되어 질소가 20%이고 산소가 79%가 되었다면, 소기(笑氣) 즉 아산화(亞酸化)질소가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절제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돌아다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이 지구 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다.

But He didn't design it for the moon. Nor for Mars. Nor for Jupiter. Nor for any other place in the universe, as far as we can ascertain. "Of the earth, earthy." God wants to bring me into the heavenly scene. What is the environment there? I don't know. But no doubt superior to the environment here. I don't think there's any smog and pollution and He wants to bring me into that heavenly environment. We may not need oxygen in our new bodies. Just what it is, we don't know the environment of heaven but you see, God could outfit all of us with space suits, pressurized space suits with Nitrogen and Oxygen tanks on our back and maybe if the city of Jerusalem is only fourteen hundred miles squared, then the gravitational pull would be much less so we'd have to have real heavy boots so that we would stay on the surface and could keep a regular gait. And so it could have just outfitted us with space suits and let us go clomping around. But He's got a better plan. He's going to give you a new body designed for the environment of heaven but I think it's probably a universal design where you can go anywhere in the universe in the new body. And even "as we are borne in the image of the earth and have been earthy, so shall we bear the image of the heavens" (1 Corinthians 15:47,49). "A new body,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하나님은 우리 몸이 달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다. 화성에 살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다. 목성에 살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다. 우주의 다른 어느 혹성에 살도록 만드시지도 않았다.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구로부터 지구와 같은 재질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곳은 환경은 어떤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이곳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일 것이다. 거기에는 매연이나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분은 그런 하늘 환경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신다.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면 산소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하늘의 환경이 어떤 것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주복을 입혀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기압에 견딜 수 있게 만든 옷을 입혀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등에는 질소와 산소 탱크가 메이게 될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 도성이 1,400 평방 마일이라고 한다면 중력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므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신발을 신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땅을 딛고 서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주복을 입어야 할 것이며 뒤뚱거리며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 환경에 맞게 고안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치수일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 새 몸을 입고 우주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7,49).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

So when Jesus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abiding places or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I believe that when my spirit leaves this body, my spirit's going to move in to that new body, that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There I'm going to be with my Lord forever in the glory of His kingdom and in the new body that God has created for me. So that's a possibility and in reading all of the other theories on this, I think it's as plausible as any I've read.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영이 이 몸을 떠나게 되면 내 영은 그 새 몸 즉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아도 이것 이상으로 잘 이론을 갖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Now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Jesus is saying]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14:3);

We're getting to the answer of Peter's question. There was a little digression there where Peter, the second question, Lord, why can't I go with You? I'll die for You. Jesus predicted his failure and denial and then encourages him.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And then He answers the first question, Where are You going? And Jesus is saying,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that place, then I'm going to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 즉 '주여 왜 제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약간 케도를 벗어난 언급이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와 부인에 대해 예언하시고 난 다음 그를 이렇게 격려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첫 번째 질문 즉 당신은 어디로 가려 하시나이까? 에 대해 답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that where I am, there ye may be also (14:3).

So that's the answer then to Peter's question. Jesus is going to prepare a place and He'll come again and receive us unto Himself. And then Jesus said,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었다: 예수께서는 장차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And where I go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14:4).

"I'm going to prepare a place. And where I go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Now the second question comes from Thomas, 이제 도마가 두 번째로 질문을 제기한다.

Thomas said un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14:5)?

This is just a discussion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after dinner, sitting around the table there, or reclining around the table which was the posture in those days. And so here He is discussing these things. Lord,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and how can we know the way? If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to get there? 이것은 저녁 식사 후 식탁에 둘러 앉아 나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담 장면이다. 당시의 습관을 좇아 식탁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서 나눈 대화일 수도 있다. 그 논의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다.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우리가 그리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Jesus said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14:6).

The answer of Jesus to the question of Thomas, How can we know the way? Jesus said, I am the way. This is another one of those radical statements of Jesus that we have here in the gospel of John. Radical

statements that caused the world to hate us by saying that we're too narrow and bigoted. For the world would like to think that all roads lead to God. And no matter what path you take, we're all going to arrive at the same destination. 어떻게 우리가 그리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니라. 이것은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과격한 발언이다. 이런 과격적인 발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고 너무 편협하다느니 고집불통 이라느니 하면서 우리를 증오하게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종착역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When we press the exclusiveness of Jesus, they get upset. They get angry even because we dare to say that Jesus is the only way to God. But when we say that, we're only saying what Jesus said. Jesus said this and many other radical things. Things that marked Him as a radical. Things that are so radical that you cannot ignore and you have to either accept them or reject them. They give you no neutral ground to stand on. 우리가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 저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라치면 저들은 금새 화를 낸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입장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과격한 말씀도 하셨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과격분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과격하여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언급들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여 어떤 중간 지대에 설 수가 없다.

Earlier on, He said, "I am the door to the sheepfold. Any man tries to enter in by any other way,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John 10:7,8).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ohn 8:12). He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if you live and believe in Me, you'll never die" (John 11:25,26). He said, "I am the bread of life: if any man eats of Me, he will never hunger again" (John 6:35). He said, "Come unto Me,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28). He sai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And he who drinks of the water that I give, out of his innermost being there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ohn 7:37,38). All very radical statements. 앞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요 10:7,8). 예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들도 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요 8:1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내가 곧 생명의 뜻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요 6:35).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 7:37).

Statements that divide men into two categories. Those that believe and those that don't. When He said to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o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be live: and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He then said, "Martha, do you believe this?" Either you believe it or you don't. And if you believe it, then you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If you don't believe it, you really don't have a basis for the hope of eternal life. Just your own imagination but no real basis for the hope. And so now again, He's making a radical statement that either marks Him as the Son of God or a deceiver, a fraud, a liar, or a lunatic.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fabulous statement. Believe it or not.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을 둘로 나뉘어지게 하였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하였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신 말씀하시고 난 뒤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만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영생의 소망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상상해낸 것에 의지하게 될 뿐 영생의 소망에 대해 전혀 사실적이지 못한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 번 과격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거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보거나 하게 할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험잡꾼이나 거짓말쟁이나 정신 이상자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결정을 해야만 한다.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n an age in which man had despaired of finding truth, the age of philosophy was dying, they had been searching for truth and now, a time of cynicism had arisen because the philosophers could not agree as to what is truth. So you remember when Jesus was facing Pilate, Pilate said very cynically to Jesus, “And what is truth?” Because they have become cynical and had despaired of finding truth. And Jesus is saying, “I am the truth, I am the way, and I am the life. And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Me.” Exclusive claims of Jesus. And we dare not try to broaden the path lest we be false prophets.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당시 사람들은 진리 찾기를 포기한 상태였다. 철학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어 왔으나, 이제 냉소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 철학자들이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매우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다: “그래 무엇이 진리이냐?” 당시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데 실패한 나머지 냉소주의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그 길을 우리가 임의로 확장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You remember in Matthew in the Sermon on the Mount, as Jesus said,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life, few there be that find it. Broad is the way, and broad is the gate,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ere are many who go in thereat. Now beware [He said] of false prophets” (Matthew 7:13-15). That’s in context of telling you the way is narrow. “Beware of false prophets” who will tell you the way is broad. They come as “wolves in sheep’s clothing.” They oftentimes have Reverend in front of their names. And they try to broaden so God is love and He is the Father of all and just think good thoughts and get a good karma. You can be assured of a better life when you come around again. And so they’re trying to broaden the way but Jesus said, Look,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He said it. He made that claim. And you either believe it or not. 여러분은 또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3-15). 그 길이 좁을 것이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계하신 것이다. 그들은 그 길이 넓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리”다. 그들은 종종 자기 이름 앞에다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 길을 넓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니 그저 좋게만 생각하며 좋은 미래를 꿈꾸라고 가르칠 것이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보다 더 나은 내세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그 길을 넓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분이 하신 주장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단하여야 할 것이다.

You believe that you can get there on your own good works, your own good effort, your own sincerity in being religious. He said you can’t get to the Father but by Him. You can get to some god, for there are many gods, but you can’t get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Christ. And He said,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공로와 선행과 노력과 성실한 종교 생활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신을 모시고 있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f you had known Me, you sh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and from now on you know Him, and you

have seen Him (14:7).

That's quite a statement. You know Him, you've seen Him. And so Philip responds to that one, 이것은 대단한 진술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 빌립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Philip said, Lord, just show us the Father, and we'll be satisfied. Jesus said, Have I been so long a time with you, and haven't you seen Me, Philip? [Don't you realize that]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how sayest thou then, Show us the Father (14:8,9)? 만일 네가 나를 보았다면 너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In the book of Revelation, speaking of Jesus Christ, it says, "He is the true and faithful witness" (Jeremiah 42:5). What does that mean? He is a true and faithful witness of the Father. He came to represent the Father to man. To reveal the Father to man. "God, in times past spoke to our fathers in various ways through the prophet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unto us through His own dear Son; who is the outshining of His glory" (Hebrews 1:1-3). So Jesus came to represent the Father, He was a true and faithful witness of what the Father is, and if you want to know what God is, look at Jesus.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 구절이 나온다: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계 3:14). 이 게 무슨 의미인가? 그분은 아버지를 참되고 충성 되게 증거하신 분이라는 말이다. 그분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보이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보이기 위함이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1-3).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참되고 충성 되게 증거 하셨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될 것이다.

I think that oftentimes we have a wrong concept of God because we read of Jesus interceding for us and our advocate and all with the Father, but remember it was God who so loved you that He sent His own begotten Son. And we think of God as sort of aloof and reluctant to answer our prayers or to forgive us our sins and it's good that we have Jesus up there pleading for us. Actually, God was the One who sent Jesus in order to make a way by which you could come to the Father. And so "if you have seen Me," He said, "you have seen the Father." So He came and all the way through the book of John, He is insisting, I'm not doing My own will. I cam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What I see the Father do, that is what I am doing. The works that I do, I don't do of Myself. The Father that dwells in Me, He is doing the work. And so all the way through He is declaring in the gospel of John that He is here to represent the Father. And He represents the Father in the things that He is saying. He represents the Father in the things that He is doing. So all of the love that He manifested, all of the healing of the sick bodies, all of the mending of the broken lives, this is the work of the Father, Jesus is declaring. "If you have seen Me, you've seen the Father." 내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종종 그릇된 개념을 갖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고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내용의 성경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초연하게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거나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꺼리시는 분으로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분이 강조하신 바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본 그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 내가 행하는 일은 나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바는 그분이 이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든 사랑, 병자를 낫게 하신 모든 치유, 깨어진 인생들을 고쳐주신 일들, 이것들은 모두 아버지의 역사였던 것이다. 그분이 선언하신 말씀 그대로다: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You’ve known Me, you sh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And from henceforth, you know Him and have seen Him. Lord, just show us the Father and we’ll be satisfied. And so Jesus said, He that has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Believest thou not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I don’t speak of myself: but the Father that dwelleth in me, he doeth the works (14:10).

So both the words and the works were of the Father. I’ve spoken My Father’s words. I have done My Father’s works. 내 말과 내 행동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고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very works’ sake (14:11).

Again, throughout the gospel of John, He calls His works to bear witness that He was of God and He came from God. His divinity, He calls upon His work to bear witness that He is the Son of God.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신성(神性)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위가 증거 한다고 말씀하셨다.

When Peter on the day of Pentecost preached to the people that gathered, he said, “Jesus of Nazareth, a man who was proved to be of God by the signs and the wonders that He did in the midst of you” (Acts 2:22). The miracles of Jesus were proof that He was of God. When Nicodemus came to Him at night, he said,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because no man can do the works that You do, except God is with Him” (John 3:2). He recognized that. Here once more, Jesus is calling upon His works. If you can’t just believe My words, can’t believe what I tell you, then “believe Me for the works’ sake.” 오순절 날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행 2:22).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3:2).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인식했던 사람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자신의 행위를 불러 증거로 삼으셨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인하여는 나를 믿도록 하라.”

And then Jesus said something quite interesting and it has created a lot of theological debate,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 논쟁이 야기되었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and even greater works than these shall he do; because I go unto my Father (14:12).

That “greater works than these shall he do” is a difficult passage.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that we can accept. When Luke wrote the Acts of the apostles, he begins it with these interesting words: “The former letter I wrote to you, O Theophilus, of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o teach” (Acts 1:1). From His baptism until the time He ascended into heaven. But after His ascension, now He through the apostles is working. So the Acts of the apostles gives you the continued work of Jesus through the lives of the apostles and the works that Jesus did, you’re going to find them doing.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는 받아들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는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는 이런 말로 시작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행 1:1).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후, 이제 그분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지속되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인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They're going to be laying hands on the sick and the sick are going to be recovering. They're going to be praying for the lame and the lame will be walking. They're going to be praying for the dead and the dead are going to rise. “The works that I do shall ye do also.” The problem with the text is “greater works than these shall you do.” How can you do greater work than raising the dead? That's pretty awesome and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greater than raising the dead. So the interpretation often is greater as far as number is concerned because now, instead of just one man, you have all of the apostles going out and doing the works.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절름발이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걷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본문과 관련된 문제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는 말씀이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엄청난 일이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종종 숫자를 들어 해석을 확대하곤 했다. 지금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나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When Jesus was here, living in a body He took on limitations. Actually He was with God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and yet He humbled Himself and took on the form of man. In taking on the form of man, in coming into a body, He took upon Him the restrictions of the body and one of the restrictions of the body is in this space continuum where my body feels this space where I'm standing right now. But as my body feels this space, it can't fill space down the street. Nor even the space where you are sitting. We each one take our space and as one of the characters, I need my space. But we each take up space. But the space where we're at, at that moment. That's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our body. I'm limited by this time space continuum because I'm in a material body. So you have the three dimensions.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서 사실 때는 제한성이 있으셨다. 그분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몸의 제한성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다. 그 제한성 중의 하나가 지금 내 몸이 느끼고 있는 바 이 공간적인 제약이다. 내 몸이 여기서 느끼는 공간은 길 저편까지 포함시킬 수 없으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도 포함시킬 수가 없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또 한 인간으로서 나는 내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 각자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공간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일 뿐이다. 이는 모두 우리 몸의 제한성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나는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차원적인 존재이다.

Jesus said, I'm going to go away but you're going to do greater works than what I did because you see, now they are going to be spread all over. Paul will be healing the sick in Lystra, causing the lame man to walk. While the apostles, others of them will be in Jerusalem. While Matthew will be heading out towards India and spreading out. So greater in that it's spreading further because it's not limited to just Jesus in His body but now Jesus is working through His apostles and thus, greater in its scope, in its outreach.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가겠지만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퍼지게 될 것이다. 장차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며 절름발이로 하여금 걷게 할 것이다. 마태는 인도를 향하게 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도들 이외의 제자들은 천하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점에서는 ‘보다 더 큰 일’인 것이다. 예수께서 한 몸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분의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시니, 그 사역의 규모와 범위가 보다 더 커진 것이다.

Jesus never went beyond Palestine. He spent His own ministry right there in that one locality. He never saw Rome. He never saw the Metropolises of the world. He didn't see Alexandria. He was right there in that one locality. But when the disciples went out, they went to Rome. They went to Spain. They went to India. They went to Persia. They went to Asia. And they carried the Gospel and they were doing the same works that Jesus did. So greater in number but they did raise the dead but what's greater than raising the dead, it's same, whether it's a dead person in Lystra or the daughter of Jairus, it's still raising the dead. So greater works than these. And then, a tremendous promise. 예수께서는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신 적이 없다. 그분은 그 한 지역에서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분은 로마에 가신 적도 없고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을 둘러보신 적도 없다. 그분은 알렉산드리아에 가보신 적도 없다. 그분은 그저 한 지역에만 계셨다. 그러나 흩어지자 사도들은 로마로 갔다. 그들은 스페인으로 갔다. 그들은 인도로 갔다. 페르시아로 갔다. 아시아로 갔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갔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양적인 면에서 확대된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루스드라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상의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And whatsoever ye shall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ask any 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14:13,14).

So Jesus isn't just giving you the credit card and saying, Go out and charge all you want. Because our nature is such that we would go out and just indulge ourselves with so many fleshly things that it would take our minds and thoughts off of the Lord. We'd be soon so carnal and caught up in material things. We wouldn't be thinking about Him. So notice, He said, "in My name." Can you ask for it in His name? Is it for His glory? Is it to bring honor to Him? And notice, "that the Father might be glorified in the Son." That's the purpose of God giving it, in order that He might be glorified through the Son. It's to bring glory to Jesus Christ, not glory to you.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신용 카드를 주시면서 가서 아무 것이든 원하는 대로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본성은 나아가 주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을 내 맘대로 마구 사 들일 것이다. 우리는 곧 세속적이 되고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주님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여기서 또 주의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다.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So you can't go out and pray, God, make me famous, a famous movie star. Or God, do some thing for me like that. He's not talking about things to indulge upon your own flesh or your own desires. But those things that are for God's glory, you can have. And that assurance, "Whatever we ask in His name, that He will do that the Father might be glorified," but as things to glorify the Father. And then He said,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지여,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소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지여, 저를 위하여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 그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육신이나 욕망을 마음껏 채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허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유념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들만 응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14:15).

In John's first epistle, he's going to talk about keeping His commandments. And Jesus is going to speak some more about keeping His commandments here as we move down our text a bit. 예수님은 요한 1 서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하실 것이다.

What are His commandments? Back in the last chapter we read, “A new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3:34). That’s His commandment. When a lawyer came to Him and said,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He sai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mind and strength. And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In these two are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22:35-40). All summarized in these two. Love God first and supremely,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가? 앞의 장에 나온 구절을 다시 읽어 보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이것이 그분의 계명이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5-40).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안에 다 뭉뚱그려져 있느니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Now the Lord doesn’t say, Love yourself. He knows He doesn’t have to command you to do that. You do that automatically. Don’t deny it or remove all the mirrors out of your house. If we would take a photograph, wide angle shot of the whole congregation tonight, blow it up and put it on the wall, who’s the first one you’re going to look for? And you’re going to judge the picture on how you look. That’s a horrible picture. My eyes were closed when the flash went off. And so, it’s not this doctrine that we hear that the Lord is saying, Love yourself. It’s not a self-esteem doctrine. That’s a given. What is tough is to love my neighbor like I love myself. That’s what’s hard. I do love myself but to love my neighbor as myself, that takes the help and the grace of God. That doesn’t come naturally. 지금 주님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그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사랑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부인하려거든 먼저 여러분의 집에서 모든 거울을 치우도록 하라. 오늘 밤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면, 앵글이 큰 카메라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찍어 사진을 확대하여 벽에 붙여 놓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가장 먼저 찾아보려 하겠는가? 여러분은 사진에 나온 자기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진의 호 불호를 판단하려 할 것이다. 플래시가 터질 때 내가 눈을 감았다면 그것은 내게 끔찍한 사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네 자신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들어 온 교리가 아니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하라는 교리를 배운 적이 없다.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교리이다. 그에 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힘든 것이다. 우리는 내 자신은 힘들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사랑은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These are His commandments. And so Jesus said,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And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14:16),

Their hearts are troubled. He said He’s going away. They can’t come. They’ve learned to depend and trust in Him. And so to their troubled hearts, He speaks words of comfort. I’m going to pray, I’m going to the Father. You want to know where I’m going, I’m going to the Father.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I’m going to My Father’s house to prepare a place for you. So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give to you another Comforter.” The word Comforter, Parakletos, is literally, one who is called to come alongside. Kletos is to be called, and para is alongside or with. So one who is called alongside. We don’t have any really English word for this Parakletos, it is used in the Greek for, when you’re in trouble and you call for an attorney, you call for a Parakletos. When you’re needing help, you call for a Parakletos. You call for one to come alongside of you and the given is, to help you. I’m in need of help and so you’re calling for someone to come alongside to help you. 제자들은 심란한 상태에 있었다. 주님은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좇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혼란스러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던지신 것이다. 내가 기도를 드리겠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나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원어 그대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라 불리는 보혜사는 부름을 받아 곁으로 와서 있는 자를 가리킨다. 클레토스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고, 파라는 곁에 또는 옆에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아 곁으로 와서 있는 자 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 파라클레토스에 잘 어울리는 영어 단어는 없다. 이것은 희랍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변호사를 부르거나 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부르면 된다.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부르면 된다. 여러분 곁에 서서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경우, 여러분은 파라클레토스를 부를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청하게 될 것이다.

So 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send someone to come alongside of you to help you.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그러면 그분은 너희 곁으로 다가와서 너희를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Even the Spirit of truth (14:17);

He identifies it as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truth, 그분은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 즉 진리의 영이라고 밝히셨다.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14:17):

The world can't receive the Holy Spirit. “The natural man receiveth not the things of the Spirit.” Paul tells us,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inthians 2:14). And thus we come to a communication block when we try to share the things of Christ with the world, with worldly people, with people who only think in carnal ways. To try and share the truths of God with them is so difficult because the natural man just doesn'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and neither can he know them.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 2:14).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세상, 세상 사람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쓸 때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요 14:17).

but you know Him; and He dwells with you [para], He shall be in you (14:17).

The Holy Spirit is going to come into your life. He's going to begin to indwell you. He said, 성령께서 장차 너희 삶 속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I will come to you (14:18).

This word, comfort, is different.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that word in the Greek is “orphanos.”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not leave you desolate. I won't abandon you. I'm not going to desert you. “I will come to you.” The word actually is “without a father.” I will not leave you as an orphan, desert you. But I will come to you.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위로가 없다’는 표현은 그 함의(含意)가 좀 다르다. 이 말은 희랍어로 “고아”를 뜻하는 말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나는 너희를 황량한 데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방기(放棄)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세상은 사실상 “아비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으며 너희를 저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So I'm going to pray the Father, He'll send the Spirit, but I'm going to come to you.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Yet a little while, and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14:19);

He's going to be put in the tomb and hanging on the cross is the last the world is going to see Him. "And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것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but you see me (14:19):

He's going to appear to His disciples after His resurrection. He'll manifest the fact that He is resurrected by His appearances to the disciples. But He's not going to appear to the world. He's not going to manifest Himself to the world but only to the disciples. And so "A little while, and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see Me." You will see Me, and 그분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현현 하심으로써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보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because I live, ye shall live also (14:19).

What a glorious hope. Peter said, "Thanks be unto God through whom we have been born again 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that is incorruptible, and undefiled, and fades not away, which is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being kept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1 Peter 1:3-5). We've got a living hope. Why? Because He lives, we too shall live.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벧전 1:3-5).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So "the world won't see Me anymore; but you'll see Me: and because I live, you too shall live." Our hope for eternal life rests upo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And that makes it more than a hope, it gives to us a living hope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산 소망을 제공한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In that day ye sha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14:20).

So here we have it all tied up. He's in the Father, the Father's in Him, and He is in us. And so we have the Holy Spirit dwelling in us, we have the Father and the Son dwelling in us. 여기서 우리는 꿈쩍달쩍 할 수 없게 된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시며 그분은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며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다.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14:21),

Again, the commandment is to love one another and to love God. "He who has My commandments," 여기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시 등장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and keeps them, he it is that loveth me: and he that loveth me shall be loved of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will manifest myself to him (14:21).

That one who loves Him proves that love by obedience to the commandments. Walking in love for each other and walking in love for Him, we have the promise that He will come and manifest Himself to us. And so He is going to manifest Himself to the disciples after His resurrection. For a period of forty days, He will be manifesting Himself to His disciples thirty-seven days, He was three days in the grave.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는 약속을 소유하게 된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총 40 일 중에서 그분이 3 일 동안은 무덤 속에 계시겠지만 나머지 37 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보이실 것이다.

Judas said unto him (14:22)

He points out this isn't Iscariot. Judas Iscariot has already gone on out. He has left this little setting, he's out right now making a deal with the chief priests. He's out collecting his thirty pieces of silver and getting ready to lead the soldiers to the garden where he knows Jesus will be going when they leave the supper. He knows where in the garden Jesus would go to pray with His disciples. So "Judas saith unto Him," 요한은 이 유다가 가롯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롯 유다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그는 이 작은 무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으며 지금쯤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은화 30 냥을 얻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을 것이며, 군사들을 인도하여 감람산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예수께서 그리로 가실 것임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서서 늘 기도하시던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을 한 사람은 가롯인이 아닌 유다였다.

not Iscariot, Lord, how is it that You will manifest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14:22)?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and one that we might wonder about. Why didn't Jesus after His resurrection go to the chief priest and say, Okay, now you had it. Why didn't He manifest Himself to the world?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며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사항이다. 부활 후에 예수께서는 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아,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보이지 않으셨을까?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If a man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s: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and make our abode with him (14:23).

We'll come and dwell with him. He really doesn't answer the question of why He isn't going to manifest Himself to the world. And so that leaves it to conjecture and people have made many conjectures about that but that's all it is just conjecture and so as such, we'll leave that alone. 주님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만 말씀하실 뿐 '예수님, 왜 당신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보이려 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많은 억측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지 억측일 뿐이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He that loveth me not (14:24)

He that loveth Me will keep My words. The same idea, he keeps My commandments, he keeps my words. As the result, the Father loves him, I will love him, and We will make our abode with him. Again,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We're going to come and we're going to make our abode with you. We'll love you. "He that loveth Me not,"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keepeth not my sayings: but the word that you hear is not mine, but the Father's which sent me (14:24).

Again a testing that it isn't my words, I'm giving you the Father's words. 여기서 또 다시 시험의 말씀을 주신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니라.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being yet present with you. But the Comforter (14:25,26), Coming back to this promise, "I will pray the Father, He'll give you another Parakletos." "But the Comforter,"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라는 약속을 상기시키셨다. "그 보혜사 곧"

which is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sha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all things to your remembrance, whatsoever I have said unto you (14:26).

So the Comforter, the Holy Spirit, is going to come and He's going to be our instructor.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가 되실 것이다.

Isn't it wonderful to be instructed by the Author of the book? It's to me such a blessing to have the Holy Spirit open up my understanding to a passage of scripture. Maybe I've wrestled with it, searched it out in the Greek and tried to really discover the meaning. What did He mean by that? And then suddenly the Holy Spirit just gives you understanding and teaches you. That's what Jesus said the Comforter would do. In fact, you call Him alongside of you. He's One who's called alongside. And so you call for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nd He begins to unfold the truth of God to your heart. 성경의 저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성령께서 나의 이해력을 여셔서 성경 내용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내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나는 성경을 알기 위해 씨름하고 희랍어 원문을 살피고 하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럴 때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이해력을 증진시키시고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다. 보혜사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실상, 여러분은 그분을 옆에 모시고 사는 셈이다. 여러분 그분은 불러 옆에 모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 펼쳐보이실 것이다.

So He'll also bring to your remembrance. After Jesus rose from the dead, then the disciples remembered how He had said unto them and they remembered all of these things after the Holy Spirit had come upon them. A lot of things that Jesus said went over their heads. Whenever He would talk about His death, it would just go right over their head. When He said He was going to rise again, it went right over their head. When He died, they thought it was all over. They thought that was the end.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억 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제자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후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그들은 그냥 귓등으로 들어 넘겼다. 그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모두 귓등으로 들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그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When He was on the road to Emmaus with the two disciples the day He rose from the dead, He said, "O foolish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He had told them He was going to rise the third day and yet they were speaking disparagingly. He said, Why are you guys so sad? You a newcomer around here? You don't know what's been going 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re was a man named Jesus of Nazareth. He was real cool guy and He was going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manner of sicknesses and we had hoped in Him for the salvation of Israel. We thought He was the Messiah. But they crucified Him. This is the third day. Some of the women this morning got hysterical, they thought they saw Him. They came and said that He was alive. They saw Him. But you know women are like that, they get hysterical. And then Jesus rebuked them. He said, O foolish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ophets have said. Ought not the Messiah to have suffered and died? And He went on and expounded the scriptures to them and their hearts began to burn as He opened up the scriptures to them. (Luke 24:13-32). 그분이 살아나시던 날 그분은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계셨다. 그분은 그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분은 '메시아가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분은 '너희가 왜 그리 슬픈 얼굴 빛을 띄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이곳에 처음 온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다.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으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그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 삼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이성을 잃었으나 봅니다.

자기들이 그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가 살아 계시다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여자들이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오, 이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분은 이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주셨다. 그분이 성경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눅 24:13-32).

So the Holy Spirit then brought to their remembrance the things that he said. And of course, they recorded them for us in the gospels. And we have other quotations of Jesus in the book of Acts that aren't in the gospels as the Holy Spirit brought them to their remembrance. 바로 그 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 말씀들을 복음서에다 기록해 두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온다. 성령께서 기억 나게 하심을 좇아 사도들이 거기다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And then Jesus finally gives them this beautiful bequest of pea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평화의 유산을 남기셨다.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14:27).

He comes back to this theme of the troubled hearts. I'm going to give you peace.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 at peace. Let your heart be at peace. I'm in control. I love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You're going to spend eternity with Me. I'm going to send the Holy Spirit. He's going to help you. He's going to open up the scriptures to you. He's going to remind you of the things that I have said. My Father and I, We will come to you. We will manifest ourselves and We will make our abode with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그분은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떠올리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내용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보일 것이며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You have heard that I said unto you, that I'm going away, and I'm coming again un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have rejoiced, because I said, I'm going unto the Father: for my Father is greater than I (14:28).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고 한 말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요 14:28).

"If you loved Me," Jesus said, "you would have rejoiced." I've told you I'm going away, if you loved Me, you would have rejoiced, because I told you I'm going to the Fathe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I think of our loved ones who walked with Jesus and are now gone to be with the Lord. Why do we weep? If we love them, we would rejoice because they've gone to the Father. That's what Jesus said, If you loved Me, you would have rejoiced. I told you I'm going to the Father. Why should you weep over that?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는가? 만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버지께로 간 것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연유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울 필요가 무엇이나?

We weep because we're going to miss them. We weep because they have given such beautiful input into our lives, we're going to miss that. They've loved us. They've accepted us. And they've added so much to us,

enhanced our lives by their love and by their friendship. We're going to miss that. And thus, we sorrow. 우리가 우는 것은 그들이 그리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 삶 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이요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더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의 삶을 증진시켜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러워 하는 것이다.

But we don't sorrow as those who have no hope. We sorrow because we're thinking about ourselves and what we have lost. And so when we think of what they've gained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if we loved them we would rejoice. So often when a young person is killed in an accident, we say, "Oh what a shame. His whole life was in front of him." If he's walking with Jesus, his whole eternity is in front of him, not in the corruption of this world. He's not going to have to go through the sorrows and the turmoils of this world. If you loved him, you would rejoice.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서러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서러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얻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일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한 젊은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었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이 얼마나 유감 된 일인가. 그가 살아갈 날이 아직도 창창한데 말이야." 만일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이 썩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면전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앞으로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My Father's greater than I." Again, a term that does create some theological debate. I believe that Jesus, more or less, pointed out that He was equal with the Father. He made such statements as, "I and the Father are one" (John 10:30). He said,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John 14:9). And throughout the Bible, there is that teaching of the equality. "He who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n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Philippians 2:6). But now Jesus is in a body and in a body, He is experiencing the limitations of this body and in this state of being in a body, being subject to the will of the Father, having submitted Himself to the will of the Father, to come and dwell in a body in order that He might give His life for the sinners, in this limited condition of a human body,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체로 이런 의미라고 믿는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니라.' 그분이 실제로 이런 언급을 하신 적도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30).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보았다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 14:9). 이런 동등성을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등장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6).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몸 안에 계시다. 그 분은 몸 안에서 이 몸의 제한성을 겪고 계시다. 이런 몸의 상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복종하고 계시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다 굴복시키고 계시다.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몸 안에서 거하시는 것은, 인간 몸의 이 제한된 조건 하에 거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함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because I said I'm going to the Father. In the next chapter, He's going to pray, "Father, glorify Me with the glory that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ever existed" (John 17:5). I want to return to that place and He did. But while He's in the limitations of a body, He said,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이다. 다음 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그분은 내가 그 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위치로 되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이 몸의 한계 안에 계시는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다.

And now I have told you before it comes to pass (14:29),

I've told you in advance. I've prophesied to you what's going to take place.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가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예언하였노라.

that, when it is comes to pass, you might believe (14:29).

That is really the purpose for prophesy in the scripture. It's one of the strongest apologetics that we have that the Bible is inspired by God. It is a proof that God dwells outside of time and space. The transcendent God outside of time and space so that He fills all and in all. Jesus by ascending to the Father is no longer limited by space to one area. So that He is with us here tonight. For He said,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Matthew 18:20). Jesus is with us here tonight. But He is also with the other congregations throughout this time zone who happen to be meeting right now and are gathered in His name. So He's not just limited here. Because He is here, it doesn't mean He can't be over in the other side of Santa Ana in another congregation. He is the transcendent Lord. He is again outside of the limitations of space and time in that eternal. So now He fills all, the whole world and He is in all. He hears the cries of those people who are crying out to Him over in Russia, over in China, over in Europe. All over the world, He's with them as He is with us.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예언의 진짜 목적이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해주는 것 중의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증거 중의 하나다. 사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만유 안에서 만유를 채우고 계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 가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한 지역에 묶여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한다. 그분이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오늘 밤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이 동일한 시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무리들과 함께 계시기도 한다. 그분은 여기에만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모이는 무리와 함께 계시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분은 초월적인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영원 속에서 시공의 제한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다. 그분은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각지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분은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도 한다.

And so, I'm going back to the Father. Going back to the glory. Going back to that state of transcendency so that He might fill all and in all. And so I've told you before it comes to pass so that when it comes to pass, you might believe that the fulfillment of My predictions. You will know that I am indeed the Son of God, sent by God to redeem the world.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영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초월적인 지위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경우 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 때 너희는 참으로 내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Hereafter I'm not going to talk much with you (14:30):

Chapter seventeen tells us of His talking with the Father. We have His final words in chapters fifteen and sixteen but they're getting ready now to leave the place of the supper. They've had the conversation and they're now going to walk from the place of the last supper which traditionally, they say is up on Mount Zion some place. We don't know that but it's traditional. And He is going to walk from there, no doubt walking through the temple precincts. 15 장과 16 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17 장은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이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 자리를 뜨려 하고 있다. 막 대화를 끝낸 후 저녁 식사 자리를 떠나 시온산 어딘가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전통에 의하면 시온산이라고 한다.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신 후 분명히 성전 경내를 통과하실 것이다.

During the feast, the temple precincts were open twenty-four hours and they had big fires and all. The place was lit up. And so He's going to be walking through the temple precincts on the way to the garden of Gethsemane. As they're walking, talking to the disciples now and as they're on the way to the garden, but "I'm not going to talk to you much anymore." 이 축제 기간 중에는 성전 경내가 24 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온통 불을 밝혀 놓고 있었다. 모든 곳에 불을 켜 놓곤 하였다. 예수님은 성전 경내를 지나 겐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실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던 예수님은 동산으로 올라가기 직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for the prince of this world cometh, and he hath nothing in me. 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has commanded me, even so I do. Arise, and let us go (14:30,31).

So the end of the supper, come on, let's go. “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the obedience to the Father, to the will of the Father. Yes, He will be praying, Father, If it'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but yet submitting,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Your will be done.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He said. I'm going to prove that I love the Father by keeping His commandments. By submitting to Him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so I do.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났으니, 함께 가자. “이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실 것이다: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Love is always proved by obedience to the desires of the one that you love. That's the proof of love. Submitting, obeying the desires of the one that you love. Much of what is called love today really isn't love. Much which is passed off for love isn't really love. True love submits to the desires and the wishes of the one that you love.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He gave Me commandments.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That's the proof of it.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써 증명된다. 복종이 바로 사랑에 대한 증명이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분의 뜻에 따르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랑이라 불리는 것 대부분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주는 것 대부분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분의 뜻과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나에게 계명을 주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계명을 주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증명이니라.

This statement, “The prince of this world cometh.” Jesus calls Satan the prince of this world. Originally, God created the earth and thus it belonged to Him. It was His by divine right of creation.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ness thereof” and all they that dwell therein (1 Corinthians 10:26). But when God created man, He gave to Adam dominion over the earth. Over the fish of the sea, the fowls of the air, every moving and creeping thing, I have given it to you, God said (Genesis 1:26). So now for a time the earth was man's to take care of, to enjoy. But when Adam sinned,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He submitted unto Satan's will and Satan's suggestion. And “know ye not, to whomever you yield yourselves servants to obey, his servants you become” (Romans 6:16). And so in yielding to Satan, Satan became the master of this world. And now Jesus addresses him as such, “the prince of this world cometh and he has nothing in Me.” 이런 성구가 있다: “이 세상 임금의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이 세상은 그분의 창조적 권능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고전 10:26). 거기 거하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을 지배하는 권능을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그러므로 이제 한동안 땅은 사람이 향유하며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 범죄 했을 때, 아담은 사단의 뜻과 사단의 유혹에 굴복한 것이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롬 6:16)?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하였을

때,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사단을 “이 세상에 올 임금”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At the beginning of the ministry of Jesus, actually before He began ministering, right after He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river, Satan took Jesus, went in the wilderness and there fasted for forty days and forty nights and afterwards He was hungry. Satan came to Him and said, Command these stones to be made bread. And then he took Him to a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of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he said, All of these I will give to you and the glory of them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예수의 사역 초기에, 실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다. 예수님은 거기서 40 주 40 야를 금식한 후에 굶주리셨다. 그러자 사단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이 돌을 보고 명하여 떡이 되도록 하라 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사단이 그분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말했다: 네가 나에게 허리를 굽혀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

Jesus didn't say, You don't have them. They don't belong to you. They're mine. He acknowledged that Satan's offer was legitimate. He had come to redeem the world back to God. He had come to pay the price of redemption. Satan was saying, You don't have to take God's path to the cross.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I'll give it to you now. Just bow down and worship me. Same thing that Satan is saying to many people today, You don't have to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just worship me. And he holds out this attractive alternative of the world. And so Jesus calls him the prince of this world. He's coming but, He said, he has nothing in Me. Doesn't have anything on Me. I'm going the way of the Father. I'm going to pay the price of redemption.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then I'll come and receive you unto Myself.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You've got a glorious future ahead of you. It's with Me eternally. 예수께서는 ‘저것들은 네 것이 아니다. 저것들은 내게 속한 게 아니다. 저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사단의 제안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분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오신 것이다. 그분은 그 속전을 내려고 오신 것이다. 사단의 말은 이런 의미였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너는 그 일을 즉시 성취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단지 내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경배하기만 하라. 사단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너는 즉시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 단지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라. 그 반대급부로 그는 이 세상을 넘겨주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 예수님도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다: 그가 곧 올 것이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구속의 값을 치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영구히 거하는 것이다.

Father, we thank You for the hope that we have in Christ Jesus tonight. And for these words of comfort from Jesus to those with troubled hearts. Those who are worried about the future. Those that don't know about tomorrow. Lord, we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who has come alongside, who has been sent alongside of us to help us. We thank You, Lord, for Your presence with us. We thank You Lord for the way You've just manifested Yourself to us in so many special ways. Thank You Lord for Your peace, Your love. How blessed we are. Thank You, Father. Amen. 아버지여, 오늘 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여러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주신 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John 15

John 15
Tape #8083
By Chuck Smith

Let's turn now to John's gospel chapter fifteen as we continue our journey through the Word. 이제 성경 전체를 섭렵하는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여 요한복음 15 장으로 넘어가 보자.

In verse thirty-one of chapter fourteen, Jesus is at the site of the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After the supper, they've been in discussion. As we were studying the fourteenth chapter, we find that they were asking Jesus questions and He was answering their questions just sort of that fellowship after dinner, around the table as you're just talking about issues. But now Jesus in verse thirty-one said, "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even so I do. Arise, and let us go hence" (John 14:31). Jesus was talking about His journey now to the cross.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hath given Me commandment, even so I do. Arise, and let's go." He's going to the cross, going first to the garden of Gethsemane where the soldiers will arrest Him, take Him to the house of Caiaphas, the high priest, and then to Pilate, then to the cross. 14 장 31 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다. 그 저녁 식사 후에 주님과 제자들은 토론을 하였다. 우리가 14 장을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식탁에 둘러 앉아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누듯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1 절에 이르자 예수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이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려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군병들이 그분을 사로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이어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십자가로 데리고 갈 것이다.

In Philippians chapter two, it tells us that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yet He humbled Himself or emptied Himself, and came in the form of a man: and as a servant, He was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Philippians 2:6-8).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even so I do" (John 14:31). The Father sent Him in the world to become a sacrifice for our sins. This was the Father's commandment or will for His life. 빌립보서 2 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나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노라" (요 14:31).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아버지의 명령이며 뜻이었다.

So we leave now the upper room and beginning with the fifteenth chapter, Jesus begins His journey with His disciples to the garden of Gethsemane. It is possible that they passed through the temple mount area. During the feast of the passover, the gates of the temple were left open and on the gates of the temple, there were these golden grapes clustered as ornamentation on the gate.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다락방을 떠나 15 장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자. 주님과 제자들은 아마도 성전 경내를 통과하는 등산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성전 문들을 개방해 놓고 있었는데, 누런 포도들이 주렁주렁 달려 문들을 장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In the Old Testament, in Psalm 80, the psalmist said, "Thou hast brought a vine out of Egypt: and you cast out the heathen, and planted it" (Psalm 80:8). Talking about the nation of Israel that God brought out of Egypt and planted in the land of Canaan from which He had driven the heathen. It could be that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walking past the gates of the temple and saw these great golden grapes there on the temple, that this sort of sparked this particular discourse. It is also possible that they were just passing down the slopes of Ophel and that they were passing through some grape vineyards. 시편 80 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시 80:8).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신 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문들을 지나 걸으실 때, 그분은 성전 문에 걸려 있던 그 굵직한 황금 포도들을 보셨을 것이다. 그 포도들을 보신 후 본문에 나오는 강화를 시작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벨 언덕을 내려가다가 예수께서 몇몇 포도나무들을 보셨을 수도 있다.

In the eighteenth chapter of John, we read where they cross the brook Kidron and then they started up on the other side unto the mount of Olives to the garden of Gethsemane. So either on the slopes of the hillside going down into the Kidron valley or perhaps the gate of the temple, Jesus said to them, 요한복음 18 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 강둑을 넘어 감람산 겻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언덕 위나 아니면 성전 문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I am the true vine (15:1),

More literally from the Greek, “I am the vine, the true,” which would give the implication that there is a false vine. “I am the vine, the true.” Many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Jeremiah, Ezekiel, Isaiah, Hosea—all spoke of the nation of Israel as the vine. In Isaiah chapter five, he said, “Now I will sing to my well beloved a song of my beloved touching his vineyard. My well beloved hath a vineyard in a very fruitful hill: And he fenced it, and gathered out all of the stones thereof, and he planted it with the choicest vine, and he built a tower in the midst of it, and he also made a winepress therein: and he looked that it should bring forth grapes, but it brought forth wild grapes. And now, O inhabitants of Jerusalem, men of Judah, judge, I pray you, between me and my vineyard. What could have been done more to my vineyard, that I have not done? Why is it that when I looked that it should bring forth grapes, that it brought forth wild grapes? And now go to; I will tell you what I’m going to do to my vineyard: I will take away the hedge from it, and it shall be eaten up; and I will break down the wall thereof, and it shall be trodden down: And I will lay it waste: and it will not be pruned, nor digged; but there shall come up briars and thorns: I also command the clouds that they rain no rain upon it. For the vineyard of the LORD of hosts is the house of Israel, and the men of Judah his pleasant plant: and he looked for judgment, and behold there was oppression; he looked for righteousness, but behold there was the cry of the oppressed” (Isaiah 5:1-7). 희랍어 원문에 보나 더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가 되는데, 이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호세아---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지칭하였다. 이사야 5 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쩔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돌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 5:1-7).

So the nation of Israel, God said, that’s my vineyard. But He was going to let it go waste. Now Jeremiah chapter two, verse twenty-one, Jeremiah said, “Yet I had planted thee [God is speaking to Israel] a noble vine,

wholly a right seed: how then are you turned into a degenerate plant of a strange vine unto me” (Jeremiah 2:21)? Hosea 10:1 said, “Israel is an empty vine, he bringeth forth fruit unto himself: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his fruit he hath increased his altars; according to the goodness of his land they have made goodly images.”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도록 놓아두셨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이뇨” (렘 2:21)? 호세아 10:1 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In Matthew’s gospel, Jesus picked up the parable of the vineyard and He said, “There was a certain householder, which planted a vineyard, and he put a hedge around it, and he digged the winepress in it, and he built a tower, and then he let it out to husbandmen and he went into a far country: And when the time of the fruit drew near, he sent his servants to the husbandmen, that they might receive the fruits of it. And the husbandmen took his servants, and beat one, and killed another, and stoned another. Again, he sent other servants more than the first: and they did the same.” And so Jesus then said that “the householder then said, I will send my only son, surely they will respect him. But when the husbandmen saw the son, they said among themselves, This is the heir; come, let us kill him, and let us seize on his inheritance. And so they caught him, and cast him out of the vineyard, and they killed him. And when the lord thereof of the vineyard comes, [Jesus said] what will he do unto those husbandmen? They said unto him, He will miserably destroy those wicked men, and he will let out his vineyard unto other husbandmen, which shall render him the fruits in their seasons” (Matthew 21:33-41).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마 21:33-41).

So Jesus is speaking of the nation of Israel, God’s vineyard. He wanted the fruit, God sent the prophets. The husbandmen were actually the religious leaders that were supposed to be developing the people’s relationship with God so that they could bring forth fruit unto God, unto the praise of God. But the religious leaders have become corrupted. So God sent His prophets, some of them they stoned; others they imprisoned, and so then the only Son, of course, would be Jesus. God said I will send My only Son, they’ll respect Him. But they said, Let’s kill him and then the vineyard will be ours. So they slew him. He said, What will then the householder do, the Lord? And they said, He will cast out those miserable husbandmen, he’ll let out his vineyard to others. So that Jesus is now saying that He is “the true vine,”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지칭하셨다.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원하셨으며,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농부는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 중 몇몇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옥에 갇혔다. 그 다음에 보내신 외아들은 물론 예수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외아들을 보내야 하겠다. 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잡아 죽이자 그러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그 아들까지 죽였다. 예수님이 물으셨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대답했다: 그 파렴치한 농부들을 내어쫓을 것이며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 줄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칭하고

게시는 것이다.

and the Father is the husbandman (15:1).

And that now you, the church, the disciples, you will now become God's vineyard. You will become the branches. You will become that which will bear the fruit that the Father is seeking. So "I am the true vine. My Father is the husbandman." It's been taken away from those who He had given it to, and now the Father takes the responsibility of developing the vineyard. 그러므로 이제는, 제자들인 여러분이 즉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포도원을 이전에 세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취하신 후,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그 개발 책임을 떠맡으실 것이다.

Every branch in me that beareth not fruit he taketh away (15:2):

That is, the pruning. The cutting off of those branches that don't bear fruit. 다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 내버리는 것이다.

but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then cleanses it or purges it, that it may bring forth more fruit (15:2).

The purpose of God for your life is that you bring forth fruit that is pleasing unto God. If you don't bring forth fruit, then Jesus said, You will be cut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ringeth forth not fruit, he taketh away," cut off. But if you're bearing fruit, then the Lord wants you to bring forth more fruit. And so He begins that cleansing process.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잘려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는다면, 주께서는 여러분이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깨끗하게 전지(剪枝)하는 작업을 시작하실 것이다.

Now you are clean through the word that I have spoken unto you (15:3).

The word of God, a cleansing power in our lives. Keeping us from sin. Guiding us in the path of God. Helping us that we might bear more fruit as we are washed and cleansed by the Word. Jesus said, "Abide in me," the process by which I can bear more fruit,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권능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권능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Abide in me , and I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except it abide in the vine; no more can you, except you abide in me (15:4).

That is declaring again that the fruit that God wants from our life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produce ourselves. I think that many times we feel sort of an obligation to do, to perform, to bring forth works unto God that we might be pleasing unto Him as the result of our efforts and our works. It's interesting that in Galatians 5 as Paul is writing to the Galatians, he contrasts work with fruit.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these," and he gives you that long list of the works of the flesh. But then he says, "But [in contrast to the works] the fruit of the Spirit." So the fruit is contrasted with works. Now God isn't interested in works, our works of righteousness.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부터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가 생산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자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행위와 열매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육체의 행위는 이러하니"라고 시작한 후, 그는 육신의 행위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와 비교하여]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다시 말하면, 열매와 행위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아 하나님은 행위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God is interested that we bear fruit and fruit comes from a relationship. Abiding in Christ, Christ abiding in me, the natural result of that is going to be my life is going to bring forth the fruit that the Father desires. It comes automatically by abiding in Christ. Now Jesus is saying to His disciples,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의 자연스런 결과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힌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15:5):

In the Old Testament, God had planted the vine, the nation of Israel in a goodly field. Did everything necessary that it would bring forth fruit. Nurtured it, took care of it, watched over it. But it only brought forth wild grapes. Now Jesus is declaring,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And so the responsibility of bringing the fruit that God wants is now upon us, the branches.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름진 밭에다 심으셨다. 그리고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해주셨다. 그것을 돌보셨으며 건사하셨으며 양육하셨다. 그러나 그 나무에서는 질이 나쁜 포도밖에 열리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의무는 이제 가지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He that abideth in me, and I in him, the same will bring forth much fruit (15:5):

Again the secret is abiding in Christ and Christ abiding in you. You will begin to bring forth much fruit. And then again, 다시 말하지만,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15:5).

Apart from Christ, there’s not one thing that you can do that is pleasing or acceptable unto the Father. You can do nothing to please God apart from Chris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거나 아버지께 용납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If a man abides not in me, he is cast forth as a branch, and is withered; and men gather them, and cast them into the fire, and they are burned (15:6).

The nation of Israel did not bring forth the fruit. The prophet Isaiah spoke of them as the vine, he said, was burned. But he said, it’s not really good for even burning. What can you do with the wood of a grape? He said you can’t make a peg out of it. It’s brittle, it’s only good for the fire and it’s not even good in the fire. It sort of burns like a punk. He said it’s just of no value.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에 살라 버릴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포도나무란 뜻이었다. 마른 포도나무를 어디다 쓰겠느냐? 그것으로는 말뚝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서지기 쉽기 때문이다. 불쏘시개로나 사용해야 하는데,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粗惡)하구나. 썩은 나무가 되었으니 전혀 쓸모가 없구나 라고 선지자는 말했다.

Jesus said, “If a man abides not in Me.” Is it possible for a man not to abide in Christ? Evidently so or Jesus would not have even brought up the issue. “If a man abides not in Me, he is cast forth as a branch, and is withered; and men gather them, and they cast them into the fire, and they are burned.” But, 예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게 가능한 얘긴가? 그건 분명히 그럴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If you abide in Me (15:7),

Rather than getting into the theological aspects or debate, just abide in Christ and there’s no problem.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issues. And for one, I have no intention of ever doing anything but just abiding in Him. Because I know that apart from Him, I can do nothing. He is my life, He’s everything. And thus, abiding in Him is all important to me and I have no intention of ever doing anything other than that. So, “if you abide in Me,” 신학적인 논리나 논쟁이 휘말리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문제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며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며 나는 그 이외의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and My words abide in you (15:7),

Here He's saying, "If My words." Earlier He said, "If you abide in Me and I abide in you, then we will bring forth much fruit." Now,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여기서 그는 "내 말이 거한다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앞에서는 그분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데 비하여,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you shall ask what you will, and it shall be done unto you (15:7).

Here in the final discourse that Jesus has with His disciples, He's giving to them some extremely broad promises concerning prayer. Back in the fourteenth chapter, verse thirteen, He said, "And whatsoever you shall ask the Father in My name, that will I do." That "whatsoever," that's pretty broad. "Whatsoever you shall ask the Father in My name, that will I do, that the Father might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shall ask any thing." Any thing is pretty broad term. "If you ask any 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ohn 14:13,14). Now He's giving some limitations.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 abides in you, you can ask what you will and it shall be done unto you."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강론에서,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약속들을 하고 계신다. 14 장 13 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무엇이든지" 는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3,14).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분이 그 범위에 약간 제한을 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There are those who take these broad promises of Jesus concerning prayer and they twist them and they teach that you can have anything you want. They are speaking now generally in a fleshly kind of carnal way. That is, you can have any kind of carnal desire that you might have for a sports car or for a big bank account or for a yacht, any of these things to consume on your own lust. And that's not what Jesus is saying.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광범위한 약속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세상적인 시각에서 육신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스포츠 카, 엄청난 금액의 예금 통장, 요트, 이런 것들을 욕심껏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then you can ask whatever you will." But it follows that what I ask will be in harmony with Him and His will. Because to be a disciple of Jesus, the first thing I have to do is deny self. So these promises, these broad promises that Jesus makes concerning prayer is not opening the door for prayer to be a means of accomplishing selfish ends. But they are doors open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God that now become the chief desire of my heart.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이런 조건이 따른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의 뜻에 맞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의 조건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들은, 기도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광범위한 약속들은 기도의 문을 열어 육신적인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문들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목적들을 최고로 원하게 되어야 한다.

The psalmist said, "Delight thyself also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Psalm 37:4). That's been misinterpreted or misquoted in a way. If you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the psalmist isn't saying, He's going to give you the fleshly desires of your heart. But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That is, He will put His desire in your heart. If you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He then plants His desires in your heart. God said to Jeremiah, “The day is coming, saith the Lord, when I will no longer write my law “on the tables of stone but I will write them in the fleshly tablets of the heart” (2 Corinthians 3:3).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 37:4). 이것도 종종 오해 되고 잘못 인용되는 구절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분은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이렇다: 만일 너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분은 너희 마음 속에다 그분의 소원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나의 율법을 더 이상 돌비가 아니라 오직 육의 심비에 쓰리라” (고후 3:3).

So God inscribes His law, His will, His purpose in my heart. He makes that my longing, my desire. That’s why doing the will of the Lord is such a pleasurable, exciting thing. Because He has first of all worked in me, planting His desire in my heart, making that the longing of my heart. Oh I wish I can live in Hawaii. Where did that desire come from? Be careful now, this one’s tough. But you don’t know. You see, it could be that God has put that desire in there because He’s calling you to Hawaii. So be open, but be careful. Make sure you really have discernment on this one. I would have to confess it would be very hard for me to have discernment. But it’s wonderful how God does work and prepare our hearts for that which He wants for us to do.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 의지, 목적을 우리 마음에다 새기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내가 바라고 원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즐겁고 흥분되는 일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이 먼저 내 안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소원을 내 마음 속에다 넣으시니, 그것이 내 마음에 바라는 바가 되는 것이다. 오, 내가 한 번 하와이에서 살아 봤으면! 그런데 이런 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주의할 것은 그것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 넣어주신 후 여러분을 하와이로 부르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 놓고 기다리되, 조심하도록 하라. 그 일에 대해 먼저 분명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라. 내 경험으로 보면 확신을 갖는다는 게 아주 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분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예비 시키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른다.

People oftentimes have a very false sense of the will of God as though God’s will is something that is awful, terrifying. And so I’ve heard say, Be careful, if you say anywhere, God, you just might find yourself in some jungle filled with all kinds of poisonous reptiles, parasites and everything else. So you’ve got to be careful when you say, Lord, Your will be done. As though God is going to then make you do some horrible terrifying thing that is going to just put your life in total terror, living in fear and terror.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매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곤 한다. 마치 하나님의 뜻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인 양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 보았다. 조심하라.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다가는 독충과 독뱀으로 득실거리는 정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여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을 삼가서 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보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처절함과 비참함에 빠지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If God is going to call you to say, Irian Jaya or New Guinea to work among the native people there, you can be sure that He will, first of all, give you a desire and a longing and an intense interest in bugs.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이리안 자야나 뉴 기니로 가서 그곳 본토인들 가운데서 일을 하도록 시키고자 하신다면, 그분은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과 갈망을 불어넣으실 것이며 곤충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실 것이다.

My son, Jeff and I, were in Irian Jaya and we met a couple of young men there. In fact, we flew into the mission station of this one young fellow, good looking fellow, had two small children, brilliant fellow, college degree. He’s a hundred and twenty miles from the closest road so we had to fly in. And the pilot buzzed the field once to see what direction the wind sock was because you can only land one direction. If

the wind socket isn't for you, you just have to come on out. But the wind socket was coming downhill so we were able to land. But the fact that we have buzzed the field once. By the time we landed, both sides of the runway were lined with the naked natives who, when the plane stopped, came rushing up to the plane and they greeted us very warmly. They later showed us around the village. Beautiful spot up in this canyon. There are two streams that converge, beautiful, crystal clear water. And he showed us the little water system that he had developed for his house where he piped it from upstream where he had the gravity flow of this crystal clear water into his house. He turned to us and his face was just beaming. And he says, Tell me, tell me, look what happens when you yield yourself to the will of God. He puts you in the most beautiful spot in the whole world to raise kids. He said, This place is fabulous. He was absolutely in love with it. And that's what God does. He plants His desires in your heart. So with Jesus you can say, "I delight to do Thy will, O Lord" (Psalm 40:8). 나의 아들 제프와 내가 이리안 자야에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한 젊은 부부를 만났다. 사실 우리는 그 젊은 사람의 선교 현장으로 날아간 것이었다. 그 잘 생긴 사람은 두 어린 자녀를 두었는데, 두뇌 명석한 대졸 학력의 사람이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도로를 120 마일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외진 곳에 살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종사는 들판을 한 바퀴 돌면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알아보았다. 한 방향으로만 착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바람이 순풍이 아니면 착륙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바람이 좋게 불고 있어서 우리는 착륙할 수가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한 바퀴 돌면서 들판을 해냈다. 우리가 착륙할 즈음, 활주로 양쪽에는 발가벗은 원주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비행기가 멈추자 그들은 비행기 쪽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다. 후에 그들은 우리에게 동리 곳곳을 소개해 주었다. 이 협곡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이야. 아름다운 수정 같이 맑은 물을 모여서 두 줄기의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작은 수도관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자기 집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었다. 파이프를 사용하여 상류로부터 이 수정 같이 맑은 물을 그의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며 활짝 웃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게 말해보세요. 그분은 이 온 땅에서 자녀들을 기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곳은 정말로 대단한 곳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을 정말 대단히 사랑하였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 그분의 소원을 주입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 40:8).

Another fellow that we met at that same conference is thirty-five miles from the nearest road. When he wants to go to the store, he has to walk thirty-five miles to get a new lightbulb. But they don't have lights out there. To get a can of tuna or whatever. This fellow was from this area, Garden Grove. Loved to surf, Huntington Beach. And walking from his village to the nearest town, he has to walk along the beach thirty-five miles. He said the most gorgeous surf in the world. And so he said, I have my little walkman, I put on the Maranatha praise tapes, and he said, It is just heaven walking along the beautiful beach, seeing the beautiful surf, and just praising God and listening to the praise music. He said, I'm in the closest place to heaven as you can get. 그 동일한 모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만났다. 그는 가장 가까운 도로가 35 마일이나 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상점에 갈려고 하면 35 마일이나 걸어야 하였다. 그래야 전구 하나라도 겨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사는 곳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통조림이나 그런 것들을 사러 가게에 가곤 하였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의 가든 그로브에서 살고 있었다. 과도타기로 유명한 헌팅톤 해변에서 살고 있었다. 자기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려면 그 해변을 따라 35 마일을 걸어야 하였다. 그는 그 해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작은 카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귀에다 꽂고 마라나다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해변을 지나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You see, God puts these things in your heart. And then when He places you there, you think, This can't be the will of God, this is too nice. This is too good. But that's because Satan has given this false concept

concerning God's will, that the will of God is the most miserable place in the world. That's not so. The will of God is the most blessed place in the world. Walking in the will of God is glorious.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 넣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보내실 경우, 여러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이곳은 너무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개념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 된 장소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And so, Jesus is talking to His disciples and He is telling them, You can ask whatever you will. But the thing is, your will is now His will. He has planted His will in your heart and thus, when you ask according to His will, as John later says in his epistle, He hears us and if He hears us, we have received that which we have asked of Him.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의 뜻은 이제 그분의 뜻이 되었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너희 마음에다 심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분의 뜻을 좇아 구한다면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그분이 들으신다면 너희는 그분께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이 후에 그의 서신에서 한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Herein is my Father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15:8);

That's what God is looking for from your life. That you bear much fruit;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찾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so shall you be my disciples (15:8).

Earlier He said, "You're to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and by this sign the world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nd now, when you're bringing forth much fruit, then you'll know that you are His disciple.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continue in my love.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shall abide in my love; even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abide in his love (15:9,10).

In keeping the commandments, He's relating the keeping of the commandments to loving, to abiding in His love. And that basically is His commandment.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If you keep the commandments, then you abide in His love. 그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연관시키신다. 그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계명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 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These things I have spoken unto you, that my joy might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ight be full (15:11).

He is about to face the cross and He knows it. He knows this ugly experience that He'll be going through tomorrow. Actually, because their day starts at sundown, before this day is over, before the sun goes down tomorrow, He will have been killed upon a cross, He will have been mocked, jeered, buffeted, scourged, insulted, humiliated. He knew all that He was going to go through and what's He talking about "My joy?" 그분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그 다음날 자신이 겪어야 할 그 추한 꼴을 미리 알고 계셨다. 사실 유대인들이 계산하던 방식대로 하면 새 날이 일몰 시에 시작되는 것이었으므로, 오늘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일 일몰 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분은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In the book of Hebrews, we read,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Hebrews 12:2). His joy was the redemption of man. His joy is that ability to say to you, Your sins are forgiven. Enter

into the joy of the Lord. To receive you into the kingdom of God, that's His joy. And for that joy, He endured the cross though He despised the shame.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히 12:2). 그분의 기쁨은 인간의 구속이었다. 그분의 기쁨은 사람들에게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해보라.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여 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쁨이었다. 그런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수치를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이다.

So now facing the cross, He is speaking of “My joy, that it might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That you might have fullness of joy.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분은 “나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었다.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15:12).

Paul gives one rule for marriage to the husbands and that is, “Love your wives,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Ephesians 5:25). That's a pretty incredible love,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That's a self-sacrificing love. A selfless love. A complete love. In a little bit, He's going to say, 바울은 남편들에게 결혼 규칙 하나를 전했다. 그것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엡 5:25)는 것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his, that a man will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15:13).

And then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That's how husbands are to love their wives but that's how we're to love each other.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Now again, as we go to First Corinthians 13, the kind of love He is talking about is described there. It's also described in Galatians 5:22 where Paul is speaking of the fruit of the Spirit. The Father wants you to bear fruit. He wants you to bear much fruit and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which manifests itself in joy and in peace and in patience, long suffering, and gentleness, in meekness, in goodness, in faithfulness, in temperance. That's how God wants you to be.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여야 하며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3 장으로 가 보자. 그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거기에서 설명되어 있다. 그런 사랑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는 갈라디아서 5:22 에도 나온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Now you can't be that. Jesus said, “Apart from Me, you can't do it.”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except it abide in the vine. But if you're abiding in Christ and Christ's word is abiding in you, then this should be the evidence of your relationship with Him in that your life begins to bring forth much fruit. You are being transformed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ithin your life and your life begins to bring forth the fruit that the Father desires from us.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his,” this is the kind of love that He had for us. “That a man will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하지만 여러분 자체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산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산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 계시고 가지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다. 그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다.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soever I command you (15:14).

The fruit of the friendship, obedience to His command. And His command,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He said, 이 친구 관계의 열매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From now on I'm not going to call you slaves; for the slave doesn't know what the lord is doing: but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all things that I have heard of my Father I have made known unto you (15:15).

I'm going to call you now My friends, not My slaves. You're My friends. It's interesting though that each of them as they refer to themselves in their later writings refer to themselves as slaves. Paul, a bondservant of Jesus Christ. James, a servant of Jesus or bondservant of Jesus Christ. Jude, a bondservant of Jesus Christ. Peter, a bondservant. They refer to themselves still as bondservants but the Lord said I'm going to call you My friends. And then He said,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오는 서신들에 의하면, 제자들은 자신을 종이라 칭하고 있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으며,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노예였다. 유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으며 베드로도 노예였다. 주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노예라고 칭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ordained you, that you should go and bring forth fruit, and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that whatsoever you shall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it to you (15:16).

Divine election. You haven't chosen Me, I chose you. Jesus called them. Jesus was going by the sea of Galilee, saw a couple of fellows as they were washing their nets and He said, Come and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chose you. Went a little further, two fellows mending their nets and He said, Come and follow Me and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He chose them. He called Matthew from his place at the customs. He was a custom officer and He said, Follow Me. And Matthew left the custom booth and he followed Jesus. He said, I've chosen you. (Matthew 4:18-22, Matthew 9:9) 신의 선택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몇몇 사람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조금 더 가시다 보니, 두 사람이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 고 또 말씀하시니, 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다. 그분이 저들을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부르셨다. 세관원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다. 마태는 세관을 떠나 예수님을 좇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마 4:18-22, 9:9).

But it also followed that they had to obey the command to follow Him. It's interesting, we're getting into an area that nobody really understands. Some people pretend they do. But it's that sovereignty of God and the human responsibility of man and where are they reconciled? And God only knows. But as someone has said, The Lord gives the call and He said, “Whosoever will, let him come and drink of the water of life freely” (Revelation 22:17). For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So the invitation is given to all, to all men. God hasn't excluded anyone as far as the invitation. Whosoever is whosoever. The invitation is to all.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계명에 순종하여야만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실은 신의 주권이다. 그러면 신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적한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 22:17).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이기” (요 3:16)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 초청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다. 누구든지 오라고 사셨다.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다.

But not all respond to the invitation. So on the outside of the gate it says, Whosoever will, let him enter in to the gate of life. And so you feel the tug of God upon your heart and you say, Yes, I'm tired of this life of sin and this going nowhere. I want meaning and purpose so you enter the gate because it says, Whosoever

and that's pretty broad, it includes you.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잡아 끄시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이 죄 많은 세상이 지겹습니다. 저는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문은 아주 넓으므로, 여러분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And so when you get inside and you have the joy of being here now in the kingdom of God, you look back and you read on the inside of the gate. It says, You have not chosen Me but I have chosen you. How do you discover you're chosen? By entering. And when you enter, you find you have been chosen. If you don't enter, then you weren't chosen. Too bad! You say, Well, that's not fair. But wait a minute, Yes, it is fair. Because He said, Look, whoever wants can come. So you can't blame Him for not being fair, for not choosing you.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온 기쁨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되돌아보면 문 안쪽으로 이런 글귀가 보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들어가보면 알게 된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선택되지 않은 것이다. 그건 너무도 안 된 이야기다! 여러분은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속단하지는 말라. 그건 공평한 일이니까. 그분은 '보라. 누구든 원하는 자는 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므로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는 없다.

The thing is, and of course, here's the whole thing. That we can understand, and that's why it puts it out of our category: He knew who was going to respond because He knows everything. And so "those He did foreknow, He did also predestinate" (Romans 8:29). But you don't know. So the door is open to you and whoever you are, you may come and receive the gift of salvation. No one is excluded from the invitation to come. And thus, you can't blame God because He gives you the invitation. 물론 여기 사건의 전말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왜 우리 이해의 범주 밖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은 누가 응답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롬 8:29).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누구든 여러분은 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오라'는 초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무랄 수 없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초청장을 발부하셨기 때문이다.

If you reject the invitation, He lets you do that but He always knew you were going to reject it. You say, That's sort of difficult. Yes, solve the whole problem, just accept the Lord and you don't have any more problem. You discover that He chose you. "I've chosen you and ordained you that you should go and bring forth fruit." That's what He has chosen you for. "Bring forth fruit and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Abiding fruit. 만일 여러분이 그 초청을 거부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거부하도록 내버려두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거부하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계셨다. 여러분은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문제 전체를 푸는 일은 어렵다. 그러니 그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며 가서 열매를 맺도록 정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을 위하여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것이다.

It isn't just flash, spectacularism. Drawing a big crowd. Making an appeal and having thousands of people come forward. It's not how many come forward, it's how many stick. How many are still walking with the Lord five years later? ten years later? The fruit that abides, and that's the kind of fruit that we're interested in, the abiding fruit that which remains. It's not being sweet for a few days and then going back to your cantankerous old self. But the fruit might remain that you might continue to love. And "that whatsoever you ask the Father, He may give it to you asking in the name of Jesus." 이것은 단순히 번지르르한

외형주의가 아니다. 많은 군중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수천 명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일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추종하는가도 아니다. 5년 후에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또 10년 후에는 어떤가? 열매는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다. 항상 열리는 열매 말이다. 수 일 간은 달콤했다가 다시 그 완고한 옛 자아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열매가 아니다. 열매가 항상 있어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These things I command you [He emphasizes again, I command you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그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that you love one another* (15:17).

Now in contrast, 이제 이것을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라.

The world is going to hate you, you know that it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If you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hi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hates you (15:18,19).

In the early period of the church, the church, of course, was born during the time of the Roman government. And the Roman government looked with disfavor upon Christians because they considered them insurrectionists against Rome. Rome actually ruled from the Euphrates to England. And that whole vast territory. So vast that there was oftentimes difficulty of maintaining the rule over such a vast territory. 물론, 초대 교회는 로마 정부 시기에 탄생하였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해 반기를 드는 자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사실상 유프라테스 지역으로부터 영국까지 다스리고 있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었다. 너무 넓어서 그런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일이 종종 어려워지곤 했다.

Now for the most part, the people who were conquered by Rome loved being under the Roman government because there was a form of justice that they had not known under the feudal kings that once ruled in their areas. Most of the people were very happy for the Roman rule. There was law and order and the people appreciated it. And thus, the Caesars, the rulers and the emperors of Rome ultimately came to be worshipped as god. 대체로, 로마에 복속된 지역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다. 과거 그들의 지역을 다스리던 봉건 영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통치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거기에는 법과 질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군주들과 통치자들과 황제들은 궁극적으로 신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

They first sought to discourage that but then they saw that they could use that for their own purposes by letting the people look upon the emperor as god. Caesar is Lord. And by looking upon him as god, he could have better control over the people. So it developed in time that every year, a person had to bring a pinch of incense and offer the incense and declare, Caesar is Lord. And then you got your certificate that affirmed that you were a true Roman citizen. 처음에는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것을 자기들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황제는 주인이다.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도록 허용하자,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더 쉬워졌다. 그러므로 그런 관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매년 한 사람이 향을 조금 가져와서 분향을 하면서 ‘황제는 주인이다’라고 선언하게끔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가 진짜 로마 시민임을 확인해주는 인증서가 수여되곤 하였다.

But there is no way the Christian would say that Caesar is Lord. And thus, they were looked upon as insurrectionists and it came to the place where it was a capital crime to be a Christian. If you were known to be a Christian, you would be put to death. It was a capital crime to be a Christian because it was considered insurrection against Rome. Not only did Rome hate the Christians but also the Jews hated the Christians. They stirred up a lot of animosity against the Christians.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분자로 취급되었으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는 일이나 다름 없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여러분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기독교인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기독교인이 되면 사형에 처해졌다. 로마 정부만 기독교인들을 증오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큰 앙심을 품고 있었다.

Paul, when he would go out in his missionary journeys, you will read in the book of Acts the problem that he had and later he testified the perils among his own countrymen, among the Jews, how they stirred up the strife and all against Paul and his company who were preaching the gospel. Now Jesus is saying you're to love like I have loved. And His love was an unconditional love for us. But the world is going to hate, it's going to hate you. But, He said, it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If you were of the world, they'd love you because they love their own but because He has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it's going to hate you.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후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당한 위험들에 대해서 증거 하였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항해서 어떻게 그 모든 소요를 일으켰는지를 설명하였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들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세상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보내셨기 때문이다.

Remember the word that I said un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If they have persecuted Me, they're going to persecute you (15:20);

Jesus didn't pull any punches. He let them know what it was going to cost to follow Him. It's going to cost you because the world is not going to like you because you disdain the fleshly things of the world, the fleshly ambitions of the world. And you want to follow after the Spirit. That's not the world's way. And so they will hate you.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셨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를 따르는 일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야심을 떨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령의 뜻을 좇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if they have kept my saying, then they will keep yours also (15:20).

But you're going to have persecution. 그러나 너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니라.

But all of these things will they do unto you for My name's sake, because they know not him that sent me (15:21).

Because they're really ignorant of God. They're going to do this for My name's sake. When the apostles were beaten by the Jewish leaders, religious leaders, they went from the beatings rejoicing that they were counted worthy to suffer persecution for Christ's sake. Jesus said it's going to happen for My name's sake.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인하여 저들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매를 맞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Now here's where we need to keep things in perspective. The hatred that the world has for you, you should not take personally. It's really Jesus Christ that they hate. You happen to represent Him. You happen to love Him. But it's their hatred of Jesus, the hatred against God that you experience. And thus you have that opportunity of suffering for Christ's sake. Now Jesus said here something very interesting, verse twenty-two: 여기서 우리는 진상을 올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본시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여러분은 그분을 대리하는 자일 뿐이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이다. 정작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다. 22 절을 읽어보자.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unto them, they had not had sin: but now they have no cloak for their sin (15:22).

Remember Jesus said, “Woe unto you, Chorazin! woe un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ghty works, which were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in sackcloth and ashes. But I say unto you, It will be more tolerable for Tyre and Sidon at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Matthew 11:21,22). Tyre and Sidon didn’t see the wonderful miracles of Jesus. Thus theirs was the sin of ignorance. This is the sin of open rebellion against God, it’s sin against light.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 11:21,22).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무지의 죄에 해당하였다. 그에 비하여, 본문에 나오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반역의 죄요 빛을 거역한 죄가 된다.

“This is the condemnation, [Jesus said]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They would not come to the light, lest their evil deeds be reproved” (John 3:19,20). Had I not come, had I not done the works, had I not brought the light, then the sin would not be as great because it would still be sin of ignorance. Jesus said in Luke 12, “The servant, which knew the lord’s will, and prepared not himself, neither did according to his will, will be beaten with many stripes. But he that knew not [the ignorant], who had done things that were deserving of many stripes, will be beaten with few. For unto whom much is given, of them much shall be required: to whom He has committed much, to him they will ask the more” (Luke 12:47,48).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 3:19,20). ‘만일 내가 오지 않았다면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요, 만일 내가 빛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죄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의 죄는 무지의 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 12:47,48).

So Peter said, “For if after they have escaped the pollutions of the world through the knowledge of the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hey are again entangled back in the things of the world, and overcome, the latter end is worse than the beginning. For it had been better for them not to have known the way of righteousness, than, after they have known it, to turn from the holy commandment delivered unto them” (2 Peter 2:20,21). With knowledge comes responsibility. So it’s too late for you. You’ve heard. And thus the sin is greater because it’s the sin against light if you reject Jesus Christ.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unto them, they had not had sin: but now there’s no cloak.”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벧후 2:20,21). 지식과 함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때가 너무 늦었다. 여러분은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더 중한 죄가 될 것이다. 빛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For he that hates me hates my Father also (15:23).

If I had not done among them the works (15:24)

That is, the miracles. That’s what He’s saying to Chorazin, If the works that were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remain. More tolerable in the day of judgment for Sodom and Gomorrah than for this generation. ‘아무도 못한 일’은 기적을 가리킨다. 본문은 예수님이 고라신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들은 멸망치

않고 남아 있으리라. 심판 날이 이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세대보다 더 건디기 쉬울 것이다.

but now they have both seen and they have hated both Me and my Father. But this is come to pass, that the word might be fulfilled that's written in their law, They hated Me without a cause (15:24,25).

There are people today who hate Jesus and they really don't know why. And they speak in very hateful terms about Jesus. Next time you hear someone speaking in a very disparaging and hateful way about the Lord, ask them, Why do you hate Jesus so much? See if they can give you a reason. He said, "They hated Me without a cause." That's what the prophecy was. But now He turns from this and He says, 오늘날에도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증오에 찬 말을 한다. 여러분이 다음 번에 주님에 대해서 매우 비난하며 증오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물어 보라: 왜 당신은 예수님을 그렇게도 증오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이유를 대나 들어 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여러 예언의 의미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어쨌든 그분은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차치(且置)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But the Comforter when He is come, whom I will send unto you from the Fath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ich proceeds from the Father, he shall testify of me (15:26):

When the Holy Spirit comes, His witness to you will be of Jesus Christ.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 할 것이다.

And you also [now He will bear witness but you also 이제 그분이 증거 하겠지만 너희도] shall bear witness, because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15:27).

The witness of Jesus to go out into the world. Through the Holy Spirit and through those who had been with Jesus from the beginning. When in the book of Acts, when the disciples were assembled together waiting for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Peter stood up in the midst and he said, You know, it's important that we choose someone to take the place of Judas Iscariot. One to be numbered with us, who can bear witness of the resurrection (Acts 1:15-21). So they said we need to choose a man who has been with us from the beginning who can also testify of having seen the risen Christ. So Jesus is saying to His disciples, You're going to be My witnesses because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You become My witness. Now Jesus said His works bore witness. John the Baptist bore witness of Jesus. 예수에 대한 증거가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퍼지게 될 것이고,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일은 중요하니, 즉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한 명 뽑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수에 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부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행 1:15-21). 이제 그들은 이렇게 응답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한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증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 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수께서는 '내 일이 나를 증거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대해 증거 했다.

You see, Jesus is the Messiah. John is seeking to prove it but like an attorney, he is presenting all of these witnesses that testify that Jesus indeed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The works that Jesus did, he calls them to bear witness. Yes, no man can do these works except He is from God. God the Father bore witness of Him. The disciples are going to bear witness. The Holy Spirit bears witness. All of these witnesses which affirm the fact that Jesus is the Messiah. That's why John in the twentieth chapter will say, "Many other things did Jesus, which I did not write: But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you might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and by believing have life in His name" (John 20:30,31).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메시아다. 요한은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 그는 마치 변호사처럼 모든 증거를 들이대며 예수는 참으로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불러 증인으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장차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도 증거 하십니다. 이 모든 증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20 장을 통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

So here Jesus is giving this final kind of instructions, has to do with abiding in Him, has to do with keeping His commandments, it has to do with prayer, it has to do with bearing fruit and it has to do with love. Loving, that's the ultimate sign. That's the ultimate experience. That's the ultimate evidence. That's the ultimate witness to the world. That love that He has commanded we're to have one for another. And so may the Lord help us to love one another even as He loves us.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교훈을 주신다.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며, 기도하라는 것이며, 열매를 맺어라는 것이며, 사랑하라는 교훈이다. 사랑, 이것은 궁극적인 표징이 될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궁극적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분이 가르치신 교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Father, we hear Your word. We hear Your commandment. And we confess that we have fallen short. But we also declare that our desire, Lord, is to obey. And so we ask in the name of Jesus that Your Holy Spirit might so control our lives that we might love even, Lord, as You loved us. Unconditional love. Self-sacrificing love. Not trying to exalt our own position or place. Not seeking our own way. Not puffed up. But Lord, just loving even as You love. And so put Your love in our hearts that we might indeed be a witness to the world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the only hope and the Saviour of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높이려고 애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길을 추구하려고 애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주여, 당신께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며 구세주시라는 것을 증거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16

John 16
Tape #8084
By Chuck Smith

Let's turn in our Bibles to John chapter sixteen and we continue our glorious journey through the Bible. 이제 요한복음 16 장을 펴고, 성경을 섭렵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여행 길을 계속하도록 하자.

Jesus begins the sixteenth chapter with the words, 예수께서는 16 장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16:1),

He ends the chapter with the very same words,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As we have shared with you, from chapter thirteen we are taking a rather thorough look at the last evening that Jesus had with His disciples. It began with the passover supper with His disciples and the discussion that took place during the dinner and after the dinner. And then it moved in chapter fifteen to their walk from the site of the passover supper to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so chapters fifteen and sixteen seem to be spoken by Jesus to His disciples as they're on the way to the garden of Gethsemane. 그런데 그분은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3 장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저녁 장면을 상당히 철저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다. 그 장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로부터 시작하여, 식사하시는 동안과 식사 후에 이어지는 토론으로 발전한다. 그런 다음에 15 장으로 넘어오면,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떠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신다. 그러므로 15 장과 16 장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듯하다.

It is interesting that John gives us so much insight in this one evening of Jesus. It takes up several chapters. In fact, almost a third of the gospel of John is taken up in this one evening. John at the end of the book said, "I suppose if everything was written that should be written concerning Him, that all of the libraries in the world could not contain the things that could be written concerning Jesus" (John 21:25). And so, we sort of get an example of that in just the one evening that takes up several chapters of John's gospel. 요한이 이 저녁 사건을 아주 깊이 통찰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무려 일곱 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사실, 요한복음의 거의 1/3 이 바로 이 저녁 때의 이야기로 메워져 있다. 요한은 이 책의 끝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 21:25).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일곱 장을 차지한 이 저녁 사건에서도 그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As we pointed out, it's sort of a conversation, the disciples are asking questions and Jesus is giving them answers. And then He is just instructing them. Instructing them mainly about the fact that though He is going away, they will not be without help. The Holy Spirit is going to come. It's not going to be easy. The world is going to hate you. You're going to be going through some heavy trials. "These things," He said, "have I spoken unto you,"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것은 일종의 대화이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다. 기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셨다. 그들에게 하신 교육은, 비록 그분이 떠나기는 하시지만 그들을 도울 자 없이 내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이르노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that you should not be offended (16:1).

Expect these things. Don't think that the world is going to hail you as a champion. They're going to hate you, Jesus said. So I've told you these things that you won't be offended because,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라. 세상이 너희를 반색하며 반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They're going to put you out of the synagogues: yes, the time is coming, that whosoever kills you will think that he is doing God service (16:2).

And this was true. The Jews felt that they must stamp out this new sect. Paul the apostle, as he is recounting to Agrippa his conversion, he said, "I verily thought with myself, that I ought to do many things contrary to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Which thing I also did in Jerusalem: and many of the saints did I shut up in prison, having received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and when they were put to death, I gave my voice against them. And I punished them oft in every synagogue, and compelled them to blaspheme; and being exceedingly mad against them, I persecuted them even unto strange cities" (Acts 26:9-11). Paul speaks of his own persecution, thinking that he was doing God's will. He was serving God in his endeavor to destroy Christianity.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였다.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종파를 짓밟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행 26:9-11).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고 말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느꼈다는 말이다.

We do read that when Stephen was stoned that Paul was consenting or voted for his death. And he's telling Agrippa that he had voted for the death of many of the Christians.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찬동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자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So these things will they do unto you, because they have not known the Father, nor me (16:3).

This is a very interesting statement as Jesus is speaking about the religious Jews who were, they felt, serving God. Today quite often, you will hear people talking of the Jews and their religion. I have had them ask me this. They said, My family worships God. We go to synagogue every sabbath. We observe sabbath. We say the prayers. We keep kosher. Do you mean that just because we do not believe in Jesus that we are going to be lost because we worship God according to the traditions of our fathers?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느꼈다는 한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그들과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갑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It's interesting to me that those Jews in Jesus' day were even more obedient to the law than the present day Jews. They were offering sacrifices for sins. The temple was still standing and the priests were still making the sacrifices and the offerings. But Jesus said concerning those Jews who were going to temple, who were offering their sacrifices, who were going through the forms of worshipping God, that "they really didn't know the Father, nor Jesus." Interesting statement. With all of their religious activities, they really didn't know the Father.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을 것이라는 점이 내게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들은 늘 속죄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들이 언제나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는 유대인들, 희생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아버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며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느니라." 흥미로운 말씀이다.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It's possible that your religion can be a matter of rote. A matter of ritual. A matter of going through

motions but not really knowing God. Paul testified of the Jews of his day, he said, “I testify of them they have a zeal for God, but not according to knowledge” (Romans 10:2). And :having a form of godliness” (2 Timothy 3:5). But that’s all it is, is just a form of godliness.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판에 박힌 것이 될 수가 있다. 의례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몸만 예식에 참석할 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다. 바울은 자기가 살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롬 10:2).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 (딤후 3:5).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그건 그저 경건의 모양일 뿐이었다.

Paul writing to the Romans said “when they knew God, they did not glorify Him as God, neither were they thankful” (Romans 1:21). And so here Jesus is saying, “They’re going to think that they’re doing God’s service when they kill you. but they really don’t know the Father and they don’t know Me.”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1). 본문의 예수님 말씀도 그와 유사한 의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But these things have I told you, that when the time shall come, you will remember that I told you of them. And these things I didn’t say to you at the beginning, because I was with you (16:4).

The revelation of God to our hearts is a progressive revelation. And Jesus did not let them know at the beginning all of the persecution that they would face for His sake. The reason why is that He was with them to shield them and protect them. When they were cornered by the Pharisees and they were being asked difficult questions, they didn’t have the answers. Jesus came and He rebuked the Pharisees, more or less said, What are you talking to them about? He stepped in and He defended them. But He’s not going to be there. I’m going away. You’re going to be without Me. 우리 마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점진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핍박에 대해 처음부터 모두 알려주시지는 않았다. 이 이유는 그분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계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궁지에 빠지기도 했으며, 그들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받기도 했으나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이 나서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곤 하셨다. 그분은 “너희는 저들과 무엇에 대해서 쟁론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개입하셔서 제자들을 옹호하곤 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곳을 떠나실 것이다.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But you’re not going to be without the help of God because I’m going to pray to the Father. He’s going to send you the Comforter, “the Spirit of truth, and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John 16:13). He will be with you to help you. But you’re going to be going through some very severe persecution and severe testings and you’re going to be giving your life. They’re going to take your lives thinking that they are serving God. 그러나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요 16:13) 것이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몇몇 아주 심한 핍박과 심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며, 너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의 생명을 취하여 갈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But now I go my way to him that sent me (16:5);

This is the reason why I’m telling you these things because I’m going back to God,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니 곧,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and none of you asks me, Whither goest thou (16:5)?

I don’t quite understand that because earlier in the thirteenth chapter, when Jesus said I’m going away and where I’m going, you can’t come now. Peter said, Where are you going? Whither goest thou that we can’t come now? And so Jesus when He said, None of you asks, Where are you going? Evidently, there is a

different slant of understanding or meaning here in what Jesus is saying than the question that Peter asked earlier. 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앞서 13 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려는 곳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 하였다: 주여, 어디로 가지렵니까? 어디로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좇아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 앞서 베드로가 질문 한 내용과는 뭔가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But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unto you,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16:6).

Back in the fourteenth chapter, He said,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because I said, I’m going to My Father” (John 14:28). And now He’s saying,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And yet He said, “Don’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John 14:1). And then He said,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John 14:27). And so they are really in a quandary right now. They don’t understand what He is saying. They still cannot accept the cross. They still cannot accept His death that He’s going to be going away from them. They can’t accept that. They are still thinking that the kingdom is going to be set up very soon, right away. 14 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요 14:28). 본문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참으로 당혹스럽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떠나가신다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런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머지 않아 곧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

It’s interesting that after His resurrection and the forty days that He was with them, on and off, ministering to them, He then ascended into heaven and just before He ascended into heaven, He told them to go into Jerusalem or back to Jerusalem. They were at Bethany there on the mount of Olives. He said, Now go back to Jerusalem and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which I’ve been talking to you about because in a few days, you’re going to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They said,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Is it just a few days away? Are we almost there? They were still expecting the immediate establishing of the kingdom of God. This time period that we are presently in, in which the Lord is gathering out from the Gentiles a church, the body of Jesus Christ, they didn’t understand this time gap. “Jesus said, It’s not given to you to know the times or the seasons, that are appointed by the Father. But you’re going to receive power,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cts 1:4-8).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 일 간 함께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수시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 위에 있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해 온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주여,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돌이키실 때가 바로 이 땀니까?”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됩니까? 거의 때가 다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날이 임박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께서 이방인들로부터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을 불러모으시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행 1:7,8).

So “I’m going my way to Him that sent Me; none of you asks where are You going, but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expedient [necessary 필요하다] for you that I go away: for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not come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 (16:7).

As long as Jesus was in a body, He was limited by the body to the material things of the universe, even space and time. When Jesus ascended into heaven leaving space and time, again into that fourth or fifth dimension, now in that eternal timeless, spaceless existence, He can be everywhere at once. “Lo, I am with you always” (Matthew 28:20), He said. Some of you are going to be in Rome. Some of you will be in India. Some of you will be in Africa. But I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are. “Where two or three of you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Matthew 18:20). 예수께서 몸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그 몸으로 인해서 우주의 물질적인 것들의 제한을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 하늘로 오르셔서, 4 차원이나 5 차원의 세계로 회귀하시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존재가 되신 지금 그분은 어느 곳이나 즉시 거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너희 중에 일부는 로마에 가 있게 될 것이다. 또 일부는 인도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 중 몇몇은 아프리카에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The Lord is with us here tonight because He is spirit, and He is with us here but He is also with the other fellowships throughout the area that have gathered in His name to worship Him this evening. And He can be with all of us. He’s not exclusively with one fellowship. It doesn’t mean because He’s here, He can’t also be over on the other side of town. Or up the street. Because He is spirit. Now “it’s expedient that I go away [in order that I might be able to be with all of you, in order that the Comforter might come]: because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not come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 주께서 오늘 밤 여기에 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 저녁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의 모든 무리들과도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수가 있으시다. 그분은 한 무리와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 다른 곳에 계시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마을 저쪽 편에도 계시고 거리 저편에도 계신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And when he is come, he will reprove (16:8).

Or convict or convince. This Greek word is difficult to translate into English. It is a word that is used in a court of law and that is to present the evidence to bring a conviction. He will convict,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할 것이다. 이 회랍어 단어는 영어로 옮기기가 어렵다.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증거를 제시하여 유죄 판결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분은 오셔서 책망하실 것이다.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16:8):

It becomes very interesting at this point because when we think of sin, we usually think of the overt a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us, we think of sin as lying or stealing or cheating or coveting or getting angry, losing our temper, and we think of those things when we think of sin. But Jesus said, 이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외부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 도둑질, 사기, 질투, 분노, 흥분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

Of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on me (16:9);

That, basically, is the damning sin. “All manner of sin and blasphemy shall be forgiven man,” Jesus said (Mark 3:28). He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6). He bore our sins.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2 Corinthians 5:21). Jesus bore Himself every sin you have ever or will ever commit. He is God’s only provision for sin. 죄는 기본적으로 파멸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막 3:28)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다” (사 53:6).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고후 5:21).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리고 장차 지을 모든 죄를 친히 처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책이시다.

All roads do not lead to heaven. There is only one wa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that's through Jesus Christ.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Strait is the gate,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life, few there be that find it. Broad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ere are many going in” (Matthew 7:13,14). 모든 도로가 하늘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14).

There is a constant pressure from the world to try to broaden the gate. We are accused of narrow bigotry. So often people say their major objection against Christianity is our narrowness and our bigotry to say that Jesus is the only way. And they would make Buddha a way. They would make Shintoism a way. They would make just being sincerely religious a way. Surely God will accept all. That's not what Jesus said. And the exclusiveness of Jesus offends people that there is only the one way. But there is only the one way. But He is God's only provision to take care of your sins.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넓은 길로 가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타협 없는 고집쟁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편협함과 외고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너무도 자주 듣는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건 편협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부처도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신도(神道)도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종교 생활만 착실히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길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배타성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니 어찌 하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길이다.

When my Jewish friend asked me about his family who were so religious, I said, What do they do about their sin? You see, God made a covenant with Israel that they could, when they sin, bring a sin offering unto the Lord. He made the provisions for the covering of their sins by the offering of an animal sacrifice, the animal substituting for them, dying for them, so to speak, because of their sin. He had no answer except that they just seek to be good and that their goodness will over balance their evil. 나의 유대인 친구 하나가 철저히 종교 생활을 하는 자신의 가족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면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방책을 마련해 주셨다. 말하자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이다.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자신의 선이 자신의 악을 능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The day of atonement, Yom Kippur, probably the holiest day in the Jewish calendar. That day when the priest would enter the holy of holies and offer the goat sin offering unto God for the sins of the nation. That day today for the Jew is a day of reflection. It is still a solemn day. But now rather than being forgiven and made righteous because of the sacrifice of the goat, they seek to be righteous by their good works. And thus, they sit and they reflect upon the goodness that they have done this previous year. And they vow and promise to seek to be good and to do nice generous things, hoping that their goodness will counter balance their evil. 유대인의 달력에서 가장 성스러운 날은 아마도 속죄일 즉 욕 키프르 일 것이다. 그 날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국민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린다. 현대에서는 그 날이 반성하는 날의 역할을 하는데, 여전히 엄숙한 날이다. 그 염소 희생제물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이상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앉아서 자신들이 지난 해에 행한 선을 되돌아본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좋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 자신들의 선이 자신들의 악을 능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But Paul said,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Romans 3:20). Jesus is God’s only provision for sin. Thus the Holy Spirit testifies of sin. Jesus said, “Because they do not believe Me.” The only sin for which a person will be damned is the sin of rejecting Jesus Christ. Not believing in Him as your Lord and Saviour. Every other sin is forgivable. Every other sin has been borne by Christ. He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It leaves only one issue and that is, Jesus Himself. And as the question was asked by Pilate,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is called the Messiah, is the question that you must face and you must answer. To believe in Him is to be forgiven of your sins.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롬 3:20)라고 잘라 말하였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이다.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다.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문제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빌라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물었는데,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만 한다.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Jesus said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And he that believeth is not condemned: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John 3:16-18). So He testifies of sin. Not of the things that we do daily in missing the mark but basically of your refusal to believe in Jesus Christ as God’s provision for your sin. Secondly, He convicts,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그러므로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 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대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Of righteousness (16:10),

Again Jesus said something strange. He said, “Of righteousness,”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또 다시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because I ascend to the Father (16:10),

Early in the ministry of Jesus, He said to His discipl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something that must have blown their minds. Because He said, “Unless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20). If anybody could find entrance into heaven by works, by good works and by righteousness, it should be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cause they spent their whole lives trying to keep every little aspect of the law. Trying to live by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keeping the law. And they devoted their life to that.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해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준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는 데서 생겨나는 의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거기에다 쏟아 붓고 있었다.

Paul the apostle who was a Pharisee, in describing his life before he met Jesus, declared that he was a Pharisee of the Pharisees. “Concerning the law,” he said, “I was blameless.” He had a tremendous zeal for the law but he didn’t know the Father nor did he know the Son. But when he came to know the Son, then all of the credit that he had gained in his obedience to the law and the rituals, he said, “I counted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for whom I suffered the loss of all of the prestige and all that I had, but I counted all but refuse, that I might know Him.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and be found [he sai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but now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through faith” (Philippians 3:5-9). So our hope for the future is that we might be accepted into the kingdom of God. That God will receive us into glory.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기 삶을 묘사하면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율법에 관한 한 나는 흠이 없었다”고 말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열정은 어마어마했으나, 그는 아버지도 알지 못했으며 물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알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그가 율법과 의식을 준수함으로써 얻었던 그 모든 유익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 3:7-9).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It’s an interesting thing to me how that when anyone dies, we always want to think of them as being in heaven. They may live like the devil but when they die, we try to remember the good characteristics and hopefully, they are in heaven. We want to picture them in heaven. Why? Because that is our desire that when I die, I might be received by God into His kingdom, the eternal habitations of God. 어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가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흥미로운 일이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악마와 같이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장점만을 기억하고자 애를 쓰며, 그가 천국에 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한다. 왜 그럴까? 내가 죽을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아 천국에 거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God has made provisions for my sins through Jesus Christ that when I die, I can enter into heaven. But what is the righteous standard that God will allow into heaven? And the righteous standard is Jesus Christ. His ascension into heaven was God’s declaration that this is the righteousness that I will receive into heaven. Anything less will not do. You have to be as righteous as Jesus Christ. You say, Impossible! Good, you’re learning. It’s impossible for me to be as righteous as Jesus Christ, and thus God has made the provision that He will account me righteous by my faith in Jesus Christ so that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s now accounted to me or imputed to me. And God imputes righteousness to those who believe. This is nothing new. We read, “And Abraham believed God and God ac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James 2:23). His faith in God was accounted by God to Abraham for righteousness.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것은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에 해당된다. 그 외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말할 것이다. 훌륭하다. 여러분은 잘 배운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이전시켜 주신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약 2:23).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이다.

And so with u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rough faith which God imputes to me guarantees me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God. But anything less even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won't get you in. "Except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20). But the righteousness of Christ does exceed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that is imputed unto me and thus I am guaranteed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로 이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그보다 하급의 의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그리스도의 의는 저들의 의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그 의가 내게로 이전되었으므로, 이제 내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장된 셈이다.

The Holy Spirit will testify or convict,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Of judgment (16:11),

Not the judgment to come. We do know that there is a day of judgment coming.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and after that the judgment" (Hebrews 9:27). That judgment seat of God is mentioned by John in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twenty. Jesus speaks about when He returns to the earth, then He will gather together the nations to judge them. And there is a day of judgment coming. People may think that they're getting by. They're not. One day, every man will stand before God, the books will be open, and the Bible says, Everything is naked before Him whom we have to do. You can't hide anything from God. You're an open book as far as your life is concerned. The beautiful thing though is by my believing in Jesus Christ, all of the negative things I've ever done have been blotted out, erased, forgiven. And my page just says, Righteou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at has been imputed to me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이것은 다가올 심판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요한계시록 20 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臺)에 대한 언급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상에 돌아오실 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때 그분은 천하 만국을 모으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용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날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책들이 펼쳐질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 앞에 날날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멋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저지른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내 행위를 기록한 책은 그저 "너는 의롭다"라고 말할 뿐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But Jesus isn't talking about the judgment to come but He's talking about the judgment of Satan that was to take place when He would die upon the cross. Now remember this is the evening before His death. Before noon, He will be hanging on the cross dying for the sins of the world. But by His death, He will be bringing judgment against Satan. 지금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나타날 사단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때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녁이었음을 기억하라. 다음날 정오 이전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은 사단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because the prince of this world is judged (16:11).

Satan was called by Jesus the prince of this world here, and of course, in the fourteenth chapter of John. The Bible speaks of his ruling over the kingdoms of the earth. The kingdoms and the governments of the earth controlled and ruled by the powers of darkness.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nd powers, against the spirit forces that are in high places, the rulers of darkness" (Ephesians 6:12). But Jesus through the cross triumphed over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of darkness. And Satan was defeated as far as his ability to control the world and man any longer. It is only by man's consent that Satan

can control his life. 여기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4 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성경은 사단이 지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상의 나라들과 정부들은 어두움의 권세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2).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두움의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셨다. 사단은 패퇴되었으며,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사단이 인간의 삶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동의 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Through Jesus Christ the power that Satan once had over me is broken. The power that Satan has held over you was broken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His death upon the cross. So that Satan can no longer reign or rule over you. His power is broken. And so the Holy Spirit testifies of that victory, that life of victory that we can know and experience through Jesus Christ by our believing in Him. We are empowered by Him and the darkness no longer holds sway over us. It is the expelling power of the stronger force, the darkness has been expelled by the light. And if you have Jesus Christ dwelling in you,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1 John 4:4). 과거에 나를 지배하였던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졌다. 여러분을 지배하였던 사단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졌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깨어졌다. 그러므로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의 권세는 부서졌다. 따라서 성령은 그 승리를 증거하실 것이며, 승리를 통해 얻은 생명을 증거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으며 어두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어두움은 보다 더 힘 센 존재에 의하여 쫓겨났으며 빛에 의하여 추방되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요일 4:4)는 점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이다.

And so the Spirit’s witness, testimony is that of the victory that you and I can know today in and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don’t have to be held in the power of darkness, in the grip of Satan. But we through Him have been set free. Now Jesus said,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여러분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권세와 사단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I have yet many things to say unto you, but you cannot bear them now (16:12).

I wonder what those things were. Paul the apostle, writing to the Corinthians, said that he wanted to give them meat but they still had need of milk. They weren’t able to really take solid spiritual food. Like babies who needed to be fed with milk because they weren’t yet capable of digesting stronger meat.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주고 싶지만 너희에게는 아직 젖이 필요하다. 그들은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니 보다 더 단단한 식물은 소화시킬 수 없었던 탓이다.

Jesus had still a lot of things to say but they just weren’t yet mature enough where He could share them with them. He knew that it would shatter them if He would reveal them at that time. So the Holy Spirit, He will come and He will then begin to reveal these things to you. 예수님은 아직도 할 말씀이 많으셨지만, 저들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없었다. 만일 그 때 그런 말씀을 다 하신다면 저들은 혼비백산할 것임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Through the New Testament, through the epistles, we have those things that the Holy Spirit shared. The things that they weren’t able at that point to receive. And so later on, the Holy Spirit came and as Jesus said, “I have many things to say unto you, but you cannot bear them now.”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서신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후일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Howbei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is come,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for he shall not speak of himself; but whatsoever he shall hear, that shall he speak: and he will show you things to come (16:13).

Actually, the book of Revelation is the Holy Spirit showing John the things that are going to come. Things of the future. Paul the apostle wrote a lot about the coming antichrist and the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the rapture of the church. These things, Jesus said, you're not able to bear now but the Holy Spirit, He's going to teach you these things and He's going to show you the things to come.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장래의 일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만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실 것이며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For He shall glorify Me: for He shall receive from Me, and He will show it unto you (16:14).

In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of Acts, as Jesus now some forty-three days later after the fifteenth chapter here, just before He ascends into heaven, He is talking to His disciples. Luke tells us, “The former treatise [that is, the gospel of Luke] have I made, O Theophilus [a friend of Luke's to whom he is writing], of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o teach, Until the day that He was taken up.” So all of the things that Jesus taught and all, until His ascension or before His ascension are found in the gospel of Luke. Of all the things that Jesus did and taught, the beginning of the ministry of Jesus until His ascension. But “after that [after His ascension] he through the Holy Spirit had given commandments un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Acts 1:1,2). 사도행전 1 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언급이 있다. 사도행전 1 장은 요한복음 15 장의 사건이 있던 지 43 일쯤 후 즉 예수님 승천 직전에 대한 기록이다. 누가의 말을 들어보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는 누가복음을 가리킨다]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행 1:1,2). 그러므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때부터 그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승천 후에는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하셨던 것이다.

That's exactly what Jesus is saying here. “I have many things to say to you, you can't bear them now. But when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And so after His ascension, the Holy Spirit came to guide them into all truth and to show them things to come as the Holy Spirit would receive from Jesus and impart unto them. Jesus then said, 위의 내용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러므로 예수 승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이다. 성령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A little while, and you shall not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shall see me, because I go to the Father (16:16).

He said,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ohn 14:2,3). A little while, and you're not going to see Me, I'm ascending to the Father. I'm returning to the One who sent Me. But you will see Me.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3).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Then said some of his disciples among themselves, What is this that he is saying unto us,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t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shall see me: and, Because I go to the Father? They said therefore, What is this that he saith, A little while? we cannot tell what he is saying (16:17,18).

I'm sure that this happened a lot. That Jesus would speak about these things they just didn't understand and they get together and say, What does He mean now? What's He talking about now? I don't understand this. And so they were in this little huddle, sort of wondering just what is He saying to us. They still could not accept the fact that He was going to die.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ully what His ascension into heaven would mean and their being gathered together with Him again in the heavenly kingdom.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수군거렸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에 대한 것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분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Now Jesus knew that they were desirous to ask him, and He said unto them, Do you inquire among yourselves of what I said,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t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shall see me?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you're going to weep and lament, but the world will rejoice: you will be sorrowful, but your sorrow shall be turned into joy (16:19,20).

When you see Me hanging on the cross, when you see Me dying, when you see Me being put in the tomb, you're going to have sorrow. You're going to weep and have lamentations. But the world will be rejoicing. But your sorrow is going to be turned into joy. The joy of the resurrection. You will see Me. The joy of the resurrection.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되면,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And then Jesus gave an illustration.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셨다.

A woman when she is in travail hath sorrow, because her hour is come: but as soon as she is delivered of the child, she remembers no more the anguish, for joy that a man is born into the world (16:21).

How quickly the pains of birth are forgotten with the rejoicing of the new life, the child that has come into the world. The Jews believed that the present age of man was going to end in a great cataclysmic judgment. And they often referred to this great cataclysmic judgment as the earth being in travail. Going through the painful experience but after this painful travail, it's going to come into the truly new age. The kingdom of God. but it would be preceded by this period of great tribulation. And so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we find this train, this thought of the tribulation, the great tribulation that is coming upon the earth. Isaiah describes the cataclysmic things that will happen as does Joel and Jeremiah. And Daniel speaks about the time of tribulation that is going to come. But they are the birth pangs. The travail that will lead into the kingdom age, the glorious kingdom of God and His reign over the earth. So Jesus picks up this analogy that was used by the Jews of the earth's travail. And so you're going to be filled with joy when you see the new life, the resurrected life.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신속히 잊혀지는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이 인간 시대가 큰 재난의 심판을 받은 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그 큰 재난의 심판을 가리켜 이르기를 '지구에게 미칠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곤 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후에는 진실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환란에 대한 얘기가 연거푸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상에 임할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요엘과 예레미야 뿐 아니라 이사야도 장차 발생할 재앙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도 장차 닥칠 환란의 때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해산의 고통에 해당할 것이다. 왕국 시대로 이어질 고통인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그분이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으로 이어질 고통인 것이다. 본문은 예수님이 지상에 닥칠 환란에 대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비유를 인용하여 가르치신 말씀이다: 새 생명을 보게 될 때, 부활 생명을 보게 될 때 너희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And you therefore have sorrow now: but I will see you again, and your heart will rejoice, and your joy no man can take from you (16:22).

Because it is the joy in the Lord, not in circumstances. If our joy were in the circumstances, man can take it from us because our circumstances can change. But the joy is in the Lord and our relationship with Him is a constant. It doesn't change and thus, the joy is a constant. No man takes it from you.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 기쁨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와 주님이 맺은 관계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다. 그 누구도 그런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And in that day you shall ask me nothing (16:23).

They've been asking Him all of these questions. It's been a time of questioning. They've been asking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And all of these different questions. "In that day you will ask me nothing." That is, you won't be questioning Me.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그분께 하곤 했다. 질문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갖가지 질문을 제기하곤 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질문의 시대가 끝이 난다는 얘기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atsoever you shall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will give it you (16:23).

Now He's talking about this relationship that He is bringing to us with the Father. "Whatsoever we ask the Father in His name, He will give it to us." And he said,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분으로 인하여 맺어질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분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Hitherto you have asked nothing in my name: ask, and you shall receive, that your joy may be full (16:24).

The prayer. The access that we have is through Jesus Christ. I would not dare to approach God apart from Jesus Christ.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The glorious thing is that I can come to the Father through Him. Paul tells us,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and that's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니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

Even the Jews knew how unapproachable God was. They were reminded of it everytime on Yom Kippur when the priest would go into the holy of holies. He only was allowed into the presence of God, that Shekinah within the holy of holies. The common person would not dare to enter in. You remember in the time of David, even when the ark of the covenant was being returned to Jerusalem, when it was on the cart and the cart began to tip and a couple of fellows reached out to steady it and they died just because it was the ark of the covenant, it was holy. Man could not approach God because of sin. But through Jesus Christ, I can approach the Father.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는 유대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속죄일(욘 카푸르)을 당할 때마다 그런 사실을 상기하곤 했다. 그 날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허용되었다. 지성소 안에는 쉼기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일반인은 감히 그리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여러분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던 중이었다. 마차에 실어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 마차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몇몇 사람들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 떨어지지 않게 하려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것은 언약을 담은 궤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이 불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The scripture Hebrews said, “Therefore let us come boldly to this throne of mercy, that we might receive grace” (Hebrews 4:16). I can come boldly now to God through Jesus Christ. He has brought me and given me access. And whatever I ask the Father in His name, He promised that He would do it that my joy might be full.” And then Jesus said,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나에게 그런 권한을 갖다 주셨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며 따라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in proverbs (16:25):

Or in parables. The word in the Greek is the same word translated “parables.”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이 단어에 대한 희랍어는 “비유”로 번역된 말과 동일하다.

but the time is coming, when I will no longer speak to you in proverbs or parables, and I will show you plainly of the Father. In that day you shall ask in my name: and I don’t say to you, that I will pray the Father for you (16:25,26): 그러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나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한 일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 때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기도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16:25,26).

Actually, you don’t have to ask Me to ask the Father. 사실상,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 드리 달라고 나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For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you have believed that I came out from God (16:27).

Jesus is saying, You don’t have to ask Me to ask the Father. You can just ask the Father because the Father loves you. What a glorious realization. God loves me. We think so often wrongly that God is sort of austere, fierce, unapproachable and that Jesus sort of persuades God to see it our way or to love us or to acquiesce to our desires. No,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There was this breach between man and God because of sin. God wanted that breach to be removed so that you could know Him. So that you could fellowship and know His love. And so He sent His Son Jesus to take your sins and the penalty of your sins, to die in your place. That was God’s plan to open the door so that you could know what it is to fellowship with Him.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 드리 달라고 나에게 청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말이다. 하나님은 엄하고 지독하고 접근 불가한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득하여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게 만들거나 우리를 사랑하시게 만들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상상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이것은 다 그릇된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듯 장벽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장벽이 제거되어, 여러분이 그분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여러분의 죄와 형벌을 가져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 놓으심으로써, 그분과 교제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As John said,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we declare unto you, that you might have fellowship with u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And these things we write unto you, that your joy may be full.” And “if we say we have fellowship with God, and yet we are walking in darkness, we lie, and we’re not telling the truth: But if we will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have fellowship one with the other [that is, with God], as the blood of Jesus Christ cleanses us from all sin” (1 John 1:3,4, 6,7).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씌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3,4,6,7).

That’s what it’s all about. God’s love for you and His desire to fellowship with you, and thus making the provisions so that could be possible. Jesus taking our sin, dying in our place, opening the door that I can come to the Father through Him.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이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Now if Jesus is saying that it isn’t necessary to even ask Him to ask the Father, then where does that put the intercession of Mary or the saints? You see, if I can come directly to the Father, I don’t need Mary’s intercession. Nor do I need the saints. Jesus is saying, You don’t even need mine. “I don’t say to you, that I will pray the Father for you: Because the Father loves you, and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believed that I came out from God.” Because of y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your trust in Him, God just loves you. Because you believe that Jesus came from God to save you from, God just loves you. Oh that we would realize the love of God towards us. 이제 아버지께 뭔가를 구하려고 내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상, 마리아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직접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마리아의 중보기도는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치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도 필요치 않다는 의미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진저.

And so Jesus is now telling them plainly, this is what it is.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I have come into the world (16:28):

“I have come from the Father, I have come into the world.”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세상 속으로 들어왔노라.”

and I am now going to leave the world, and go to the Father (16:28).

Lord, where are You going? He’s telling them very plainly. I’m going to the Father.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은 여기서 명백하게 답을 하신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His disciples said, Oh, now You’re speaking plainly, no more in a proverb. Now we are sure that You know all things (16:29,30),

They had been saying, What does He mean? You’re going to see Me and then you’re not going to see Me. What’s He talking about? Now as He talks to them about the very things they were asking questions among themselves, they say, We know that You know all things. You knew what we were discussing over there in our little corner. Now we know that you know all things. 그들은 줄곧 이런 질문을 던져 왔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 말이다. 주님은 지금 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였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저쪽 구석에서 논의하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야 우리가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and You do not need that any man should ask thee (16:30):

We don't have to ask You the questions. You know our questions before we ask them. 우리가 당신께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벌써 당신은 우리의 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by this we believe that You came forth from God (16:30).

We believe that You are God incarnate. You've come forth from God. 우리는 당신이 성육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Jesus answered them, Do you now believe (16:31)?

Much like Peter. When Peter said, Lord, I will die for you. Jesus said, Will you die for Me? They say, Lord, we now believe. And He said, Do you now believe? 이는 베드로의 경우와 흡사했다. 베드로가 주여 제가 당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죽겠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여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이제 믿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Behold, the hour is coming, yes, it is now come, that you shall be scattered, every man to his own, and you shall leave me alone (16:32):

When He is arrested, they're going to be scattered. The scripture prophesied, "Smite the shepherd, and the sheep shall be scattered" (Zechariah 13:7). And when Jesus is crucified, they are shattered and scattered. "You will leave Me alone," and He said, *그분이 사로잡히고 나면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예언한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슥 13:7).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저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나를 혼자 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16:32).

Never alone. Never alone. You are never alone, you who have faith in Jesus Christ. He's with you.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20). And so Jesus said, 결코 혼자가 아니다. 결코 외롭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These things I have spoken unto you, that in Me you might have peace (16:33).

Remember the end of the fourteenth chapter?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John 14:27).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might have peace." 14 장 말미의 내용을 기억하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In this world you're going to have trouble, you're going to have tribulation (16:33):

It's going to be tough. It's going to hate you. They're going to put you to death and think that they're doing God a service. "In the world, you'll have tribulation."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16:33).

As we mentioned earlier this evening, Jesus through the cross defeated Satan and the power that Satan has over you. The only power that Satan can exercise over you now is that which you allow him to do.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has done, Satan has been dethroned. But you remember in the Old Testament, the case of King Saul when he failed to obey God, God rejected him from being the king over Israel. And God sent Samuel down to the house of Jesse to anoint David to be God's anointed king over Israel. But Saul was still on the throne. David was the anointed king. Saul was on the throne. The kingdom belonged to David but Saul was reigning. And Saul did his best to destroy David so that he could not reign. But God's purposes were accomplished and Saul was deposed and David came to the throne. 오늘 저녁 시간 초두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과 그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패퇴시키셨다. 이제 사단은 여러분의 동의 하에서만 여러분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사단이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의 지위로부터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셨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보좌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권좌 위에 있었다. 나라는 다윗에게 속하게 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여전히 사울이 하고 있었다.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파괴 공작을 일삼았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으니,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이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You have sort of a similar situation. Jesus now is the rightful King over the earth. He has been anointed King.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lness thereof" (Psalm 24:1). But at the present time, Satan is still on the throne but not rightly. The power that he now exercises is usurped power. He seeks to hold by the dent of force that which is no longer his. But when we as a child of God come against the force and the power of Satan in the name of Jesus, through the victory that Jesus has wrought, Satan has to yield. He cannot hold on. He must yield to the authority of the name of Jesus. So that the weakest child of God through Jesus Christ has authority and power over Satan and over the forces of darkness. 그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상의 정당한 임금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시 24:1). 그러나 사단은 아직도 보좌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권좌가 아니다. 그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권세는 탈취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꺾여진 권세를 고수하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와 권력에 대해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할 경우, 예수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주장할 경우, 사단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사단의 권세와 권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As Martin Luther wrote, The prince of darkness grim, we tremble not at him, one little word will fell him. And that is the name of Jesus. He must submit to the authority of the name of Jesus because Jesus is God's appointed and rightful King. 마틴 루터가 기록한 대로, 우리는 그 어둠과 흑암의 임금을 인하여 무서워 떨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마디의 말이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사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정당한 임금이기 때문이다.

Now we have entered the kingdom of God by receiving Jesus as our King. And thus, being a citizen of the heavenly kingdom, Satan has no authority or hold or power over you unless you allow him to. He would like you to think that you're still under his power. He would like to come and scare you and sort of bully you. But you need to recognize your place of authority and victory and power in Jesus Christ. Yours is the victory. All you have to do is come against Satan's powers in the name of Jesus and they must flee. "Resist the devil," the scripture said, "and he will flee from you" (James 4:7). He has to. That's one of your rights as a child of God.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이 된 여러분을 사단은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사단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이 아직도 사단의 권세 하에 있다고 오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며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권세와 권위를 얻은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은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 4:7). 그는 여러분으로부터 도망할 수밖에 없다. 사단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권세이다.

Father, we thank You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our lives and in the world. We thank You for the victory that we have through Jesus Christ. We thank You, Lord, for the time that we can spend together as

we study and learn more about Your love for us. Your plan for our lives. Your will, that which You would have us to be and that which You would have us to do as servants of Jesus Christ. So Lord, again, we present 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that You might use us however You desire to bring glory unto the name of Jesus, our Lord. In Hi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승리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품성과 과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시 한 번 산 제물로 드리오니, 당신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17

John 17
Tape #8085
By Chuck Smith

Let's turn in our Bibles to the seventeenth chapter of John. As I mentioned this morning, as we come into chapter seventeen, it is like entering into the holy of holies as Jesus is praying to the Father. 이제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17 장으로 가 보자. 내가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7 장을 읽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These words spake Jesus, and He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is come (17:1);

From the first part of John's gospel, Jesus was aware of the hour that was coming. When at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He was in Cana of Galilee at the wedding feast and it ran out of wine and His mother suggested by the statement, They're run out of wine, that He may correct the situation, He answered and said, Woman, what have I to do with thee? My hour is not yet come (John 2:1-4). Premature. 요한복음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줄곧 이 다가올 때에 대해 인식하고 계셨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분은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신 적이 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분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린 후 그분이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니다 (요 2:1-4).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In the seventh chapter, the thirtieth verse, it said, "They sought to take Him: but no man laid hands on Him, because His hour was not yet come" (John 7:30). The eighth chapter verse twenty, "These words spake Jesus in the treasury, as He taught in the temple: and no man laid hands on Him; for His hour was not yet come" (John 8:20). John 12:23, "And Jesus answered them, saying, The hour is come, that the Son of man should be glorified." Of course, this was at the passover meal with His disciples there on the same evening. 요한복음 7 장 30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 장 20 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 12:23). 물론 본문의 구절은 그날 저녁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기념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다.

John 12:27, "Now is My soul trouble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but for this cause came I unto this hour." John 13:1,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n Jesus knew that His hour was come that He should depart out of the world un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ich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unto the end," or to the uttermost. And now in John 17, "These words spake Jesus, as He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is come."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 12:27).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이 구절에서 '끝까지'라는 말은 '전력을 다하여'라는 의미이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Jesus has had His final words with His disciples prior to the cross. He finished those words in the sixteenth chapter of John as John in the last verse makes mention.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that in Me you might have pe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That was His final words. They were words of comfort. They were words of peace. They were words of encouragement, "Be of good cheer." They were words of victory,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 장에서 마무리되었다. 16 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이 마지막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다. 평안을 주는 말씀이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 “담대 하라.”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Now He no longer talks to His disciples but now He is talking to the Father. “These words spake Jesus, as He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is come.” 이제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아버지께 말씀 드리기를 시작하신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glorify thy Son, that thy Son also may glorify thee (17:1):

This prayer of Jesus that the Father would glorify the Son is really a prayer that He might go to the cross. It isn't praying that He might receive the glory that He had before the world ever existed. He will pray for that presently. But in this first petition, He is praying about the cross. It is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that God's love is to be manifested to the world.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였는데, 실제로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이것은 아들이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분은 잠시 후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 첫번째 간구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였기 때문이다.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God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1 John 4:10). “For God has commended His love towards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Romans 5:8). And God will be glorified through the cross because there is God's manifestation of the extent of His love for you. “If God spared not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Romans 8:32). So in the cross of Christ Thy glory.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롬 8:32).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Paul said,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save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Galatians 6:14). Jesus is praying now concerning the cross. “Father, glorify Thy Son,” through the death upon the cross so that “Thy Son also may glorify Thee.” In verse four, He said, “I have glorified Thee on the earth” (17:4). And now He is praying for this that He might glorify Him.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 6:14).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4 절로 가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7:4). 그러므로 지금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As thou hast given him power over all flesh (17:2),

Jesus in the last part of Matthew said,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in earth” (Matthew 28:18). “As You have given Him power over all flesh,”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였다.

that he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You have given him (17:2).

Jesus gives us eternal life. “This is the record,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this life is in the Son. And He who has the Son has life” (1 John 5:11,12). John said, “He that believeth on the Son of God hath everlasting life” (John 3:36). Notice that He makes mention of those that “Thou has given Him.”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1,12).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요 3:36). 본문에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데 유의하라.

Throughout this seventeenth chapter as He is talking to the Father, over and over again He makes reference to those that the Father has given to Him. In verse six, “I have manifested Thy name unto the men which Thou gavest Me out of the world: Thine they were, and You gave them Me; and they have kept Your word” (17:6). Verse nine, “I pray for them: I pray not for the world, but for them which thou hast given me” (17:9). Verse eleven, “And now I am no more in the world, but these are in the world, and I come to thee. Holy Father, keep through thine own name those whom thou hast given me” (17:11). Verse twelve, “While I was with them in the world, I kept them in thy name: those that thou gavest me I have kept” (17:12). And then in verse twenty-four,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which thou hast given me” (17:24). Over and over again He is referring to those that the Father has given to Him. 17 장 전체에 걸쳐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동안, 그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신다. 6 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 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 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24 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Jesus said, “No man can come to Me except the Father draw them” (John 6:44). If you have come to Jesus Christ, rejoice. Because it means that you are one of those that the Father has given to Him. This age-old debate concerning divine election, the sovereignty of God and the human responsibility of man is one that will never be resolved in argument. People usually take one side or the other. And then they argue that side ad infinitum. Goes on and on and on. It has been a very divisive argument in the church. There are those today who are pursuing the argument to tearing down the body, lashing out against anyone who does not agree fully with their position. And their attitude is totally wrong. It goes all against what Jesus is praying for the church here in the seventeenth chapter.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 6:44).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자라면, 기뻐하기 바란다. 그것은 당신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신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을 둘러싼 이 해묵은 논쟁은 언쟁을 통해서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쪽 편에 서거나 아니면 저쪽 편에 서곤 한다. 그리고는 그 편을 들면서 한도 끝도 없이 논쟁을 한다. 그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겨댄다. 예정론을 둘러싼 논쟁은 교회를 크게 분열시켜 온 것들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그 논쟁을 지속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맹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태도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그것은 여기 17 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드리신 기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다.

His prayers that we might be united, that we might be one, and yet they are willing to bring the division by their insistence that theirs is the only correct position. I will frankly confess that after years in the ministry and the study of the Word, I cannot reconcile in my mind the sovereignty of God with the human responsibility of man. I am convinced that the Bible teaches both. I cannot understand how they both can be true but I believe they are because God did not call me to understand, only to believe. And so He understands

and I'm satisfied with that. And so Jesus is speaking here and as He speaks here, He is speaking on the aspect of God's chosen, God's sovereignty, God giving them to Me. "All that You have given to Me." 그분은 우리가 연합하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함으로써 교회를 가차없이 분열시키고 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 오고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나는 아직까지 예정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신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믿으라고 부르신 것 뿐이지 이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실 것이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Someone asked me this morning about the verse,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Matthew 22:14). I believe that God has called all men to repentance. I believe that God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salvation" (2 Peter 3:9). I believe that God has opened the door of salvation to every man. I don't believe that anyone who has ever come to Jesus Christ has been rejected. I believe that the door is wide open for every man to come.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Jesus said, "And he that cometh un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John 6:37). And so though I believe that the invitation is to all men, I realize that all men have not accepted the invitation. Not all men have responded to the love of God. Not all men have submitted their lives to Jesus Christ. I also realize that God being omniscient knows those who will and those who will not. So those that will respond, Jesus refers to those as those that Thou hast given Me.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내게 이 구절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 22:14).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행하여 회개하라 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벧후 3:9)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치고 거부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요 6:37).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믿는다: 모든 사람이 초청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또한 이렇게 믿는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누가 응답할 것이며 누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응답할 자들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고 칭하셨던 것이다.

There were many people who began to follow Jesus but not all continued. When He began to say some difficult things, they followed Him no more. So here is the one side of the coin. Those that Thou hast given Me. I'm still glad that the Father chose me and gave me to be one of the disciples, one of the followers of Jesus. "As Thou hast given Him power over all flesh that he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Thou hast given Me." Fascinating scripture in Acts that says, "And as many as were ordained to eternal life believed" (Acts 13:48). Again the sovereignty of God. And yet, there is that human responsibility. I must come. I must surrender. God is not going to save me unless I repent, unless I surrender my life to Jesus Christ. So how do you explain it, I can't.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 모두가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다. 예수님께서 몇몇 어려움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좇지 않았다. 여기 동전의 한 면이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책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여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매혹적인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행 13:48)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인간의 책임도 있다. 내가 다가와야만 한다. 내가 굴복해야만 한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나는 그것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가 없다.

And this is life eternal [this is the path 이것이 바로 길이다], that they might know thee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thou hast sent (17:3).

That's eternal life, knowing the only true God. That acknowledges that there are many false gods. Again God is not a name. God is a designation. Lord is not a name. Lord is a title. God is a designation of whatever it is that masters your life. That's your god. Lord is a title of that one which rules over you. There's only one true God. There are many false gods. The Bible says, "The gods of the heathen are many". And of course, you get into some of the polytheistic religions and they deified everything. Even the emotions, they had a god for every emotion. The god of anger, the god of joy, the god of peace. Every emotion they had a god for. But there's only one true God and eternal life only comes by knowing the One true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who He sent into the world.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거짓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영생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부여하는 칭호이다. 주님은 일개 명칭이 아니다. 주님은 권한을 부여하는 호칭이다. 하나님이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그를 가르치는 칭호이다.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란 여러분을 통제하는 존재에 대한 호칭이다.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거짓된 신들은 많이 있다. 성경은 "이방인의 신들이 많다"라고 말한다. 다신론주의 적인 종교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만물을 신격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감정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 분노의 신도 있고 기쁨의 신도 있으며 평안의 신도 있다. 모든 감정에 대해 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영생은 그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세상에 강생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수 있을 뿐이다.

Now Jesus said,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I have glorified thee on the earth: I have finished the work which thou gavest me to do (17:4).

Back in the fourth chapter as Jesus is talking to His disciples at the well there in Samaria where He had just met the woman and she had gone back into town to get her live-in lover and the other people that come out and hear the words of Jesus, the disciples when they returned from town with the food, they offered to Jesus and He didn't eat and He said, "I have meat that you don't know about.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o finish His work" (John 4:34). 14 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 가에서 담화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거기서 그분은 한 여인을 만나셨었는데, 그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 자기의 동거 애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물가로 나아왔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으나 그분은 드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We read in Genesis that in seven days or six days,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life forms that are in them and on the seventh day, God rested from His work. But when man sinned and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man and death by sin, then God began a redemptive work. He first of all chose a family, the family of Abraham through which to send the Redeemer. Then later on, He narrowed it down to the family of David. But God's work of redemption to redeem the world back to God, to give redemption for mankind, that work God began right after man sinned, the plan of redemption. And Jesus came to finish the work of redemption so that man would not have to be a slave to the flesh or to sin but could be redeemed from the power of sin to serve the living God. Jesus is declaring here, "I have finished the work which Thou gavest Me to do."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6 일 동안 일하시면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7 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다고 한다. 사람이 범죄 하여 죄가 사람을 통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사망이 죄를 타고 들어오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먼저 한 가문을 선택하셨으며,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구속자를 보내시려 하셨다. 시간이 지나자 그 가문은 다윗 가문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 하지만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하는 구속 사역은 인간이 범죄 한 직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 계획은 그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인간은 더 이상 육신이나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하였습니다.”

We remember in the nineteenth chapter there as Jesus is hanging on the cross, it said He bowed His head and said, “It is finished” (John 19:30).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Luke 23:46). I’ve done it. He has accomplished it. He’s talking about the cross in these first few verses: “Father, glorify Me that I might glorify You. I’ve finished the work that You gave Me to do.” 19 장으로 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은 고개를 숙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이루었다” (요 19:30). 또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이는 ‘내가 그 일을 다 하였습니다. 내가 그 일을 성취하였습니다’라는 의미이다. 요한복음 17 장의 처음 몇 절에서 그분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And now, O Father (17:5),

Now He’s referring to the heavenly glory,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광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이다.

glorify thou me with thine own self 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thee before the world was (17:5).

We can only imagine the glory that was His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14). 우리는 그 영광이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14).

We are told in Colossians that “He is before all things, and by Him were all things created, and for him: [the object of creation] And by Him all things are held together” (Colossians 1:16,17). We are told in Philippians that He was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The glory that He had with the Father before the world ever was. He’s asking now for a return to that place. “Being in the form of God, thinking it not robbery or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He humbled Himself, or emptied Himself, and He took on the form of man: became a servant, obedient unto the Father,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Wherefore then God hath also highly exalted him” (Philippians 2:6-9).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 1:16,17). 또한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빌 2:6-9).

He’s praying now that He might again have that glory that was once His that He left to come to this earth, to be despised and rejecte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sin. And now Father, allow Me to return to that

place of glory. And we read that “God has highly exalted Him, given Him a name above all names: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ippians 2:9-11). So God’s glory, the Son’s glory, that’s what it’s all about. Give Him glory, all ye people. For He said, 예수님은 지금 이전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 영광을 버리고 그분은 이 땅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 죄의 속전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이제 아버지여, 그 영광스러운 지위로 나를 복귀시켜 주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도 읽을 수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이런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만민들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I have manifested thy name unto the men which thou gavest me out of the world: thine they were, You gave them to me; and they have kept thy word (17:6).

He’s talking now about the disciples. Those that the Father has given to Him out of the world. They were yours, You’ve given them to Me; and they have kept Your word. 그분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뽑아내어 그분에게 주신 자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이었는데, 당신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Now they have known that all things whatsoever thou hast given me are of thee (17:7).

The disciples began to realize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Whatever belongs to the Father belongs to the Son. Whatever belongs to the Son belongs to the Father. They’ve come to know that whatever has been given to Jesus really belongs to the Father. We all belong to Him.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관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은 모두 아들에게도 속한 것이로구나. 아들에게 속한 것은 모두 아버지에게도 속한 것이로구나. 그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모두 실제로 아버지의 것이로구나. 우리도 모두 그분께 속한 것이로구나.

For I have given unto them the words which thou gavest me; and they have received them, and they have known surely that I came out from thee, and they have believed that You did send me (17:8).

He’s speaking of the disciples and of the faith that they had come to in believing that He was sent and that He brought to them the word of God. 그분은 지금 제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준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I pray for them: I pray not for the world (17:9),

Remembe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But here Jesus says, I don’t pray for the world. That is, He’s not praying for the world right now. I’m praying for them. The reason why He wants us to be one, that the world may know. His heart is still for the world.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But right now, Lord, I’m praying for these that You’ve given to Me, for the disciples. I’m not praying for the world generally right now.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 3:16)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지금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그분이 그토록 원하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오니, 그들은 당신이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but specifically for those which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And all mine are thine, and thine are mine; and I am glorified in them (17:9,10).

There is an interesting passage in Ephesians that speaks about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Ephesians 1:6). Here Jesus said, I am glorified in them. They’re Yours but they’re also Mine, and they are Mine and they’re also Yours. Again, the Father and the Son inseparable. But we become His and He is glorified in us. How? By our faith and by our trust and by our obedience to His word. By my faith and trust and obedience, the Father’s glorified. He’s just, Well that’s My Boy! 에베소서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엡 1:6)에 대해 말한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저희는 당신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나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신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아들과 아버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다. 나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분은 ‘참으로 잘 했구나,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You remember with Job how God was bragging about Job. Have you seen my servant Job? Good man, upright. He loves good, he hates evil. God was glorified in Job because of his commitment.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God has manifested His grace on you. God receives glory through your praise at the recognition of His grace. Whenever God manifests His grace, He does these wonderful, beautiful things for us and from our hearts, there just rises that spontaneity of praise and thanksgiving. O Lord, You’re so good. Thank You, Lord. God, You’re so wonderful. God’s glorified through those praises that we offer to Him. In the spontaneous response to the manifestations of His love and His grace towards us. Here Jesus is praying and He declares in the prayer, I am glorified in them. 여러분은 옴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옴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의 종 옴을 보았느냐? 선하고 올곧은 사람이다. 그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옴의 헌신 된 삶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고 찬미를 올릴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보이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는 찬양과 감사가 자연적으로 울어 나오게 되어 있다. 오 주여, 당신은 너무도 선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통하여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우리가 즐거이 반응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은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시다 라고 선언하신다.

And now I am no more in the world (17:11),

His already committed to the cross. And so He talks of the cross as though it were a past fact. He speaks of it as “I have finished the work.” He’s committed and He speaks of it as though it was already done because He knows He’s going to do it. “I am no more in this world.”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인 양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빗대어 이르시기를 “내가 일을 다 마쳤습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이다. 자기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but these are in this world (17:11),

I’m going to be leaving this world but they’re going to be here.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나, 저희는 여기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Holy Father, keep through thine own name those whom thou hast given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17:11).

And so now He prays that the Father will keep us through His name. As I mentioned earlier, God is not His name, that’s His designation. Lord is not His name, that is His title. Yahweh is His name. Today we use the term Jehovah. We are referring to the same but Yahweh is His name. And the name Jesus is one of those compound names of Jehovah. It is a shortened form of Jehovah Shewa, which means Jehovah is salvation or

Yahweh is salvation. Yeshua in the Hebrew, and it's just the shortened form of Yahweh Shewa. Yahweh is salvation or we use the "j" pronunciation today, Jehovah Shewa.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일 뿐이다. 주님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일 뿐이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이다. 오늘날에는 여호와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이름들을 혼동하여 사용하지만, 실은 야훼가 그분의 이름이다. '예수'는 여호와와의 복합 명칭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여호와 쉘와'의 준말인데, 그 의미는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 쉘와'의 축약형일 뿐이다. 그 의미는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제이(j)" 발음을 살려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다.

"Keep through Thy name." We are kept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 and the name of God. "The name Jehovah," in the proverbs, says,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neth into it, and are safe" (Proverbs 18:10). In the time of temptation, have you ever run into the name of Jesus? Have you said, Oh Jesus? Time of difficulty. Time of danger. Have you fled into that name? How many I flee into that name! I see danger approaching, I say, Oh Jesus, help. The strong tower, the righteous right into it and are safe.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킴을 받고 있다.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 18:10).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의지해 본 적이 있는가? '오 예수님' 하고 말해 본 적이 있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 이름 아래로 피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피신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면 나는 '오 예수여, 도우소서'라고 말한다. 강력한 망대가 있으니, 의인이라면 곧바로 그리로 달려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으려 할 것이다.

While I was with them in the world, I kept them in thy name: those that You have given to Me I have kept, and none of them is lost, but the son of perdition;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17:12).

Those that You gave to Me, talking about the twelve disciples, I have kept, none of them is lost, except the son of perdition; which is a reference of course to Judas Iscariot.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Judas Iscariot. Jesus said, "Have I not chosen twelve of you, and yet one of you is the devil" (John 6:70)? It's interesting that here Jesus refers to Judas Iscariot as the son of the devil, son of perdition. Interesting inasmuch as that is also the title of the antichrist. '저희를 내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열 두 제자를 가리킨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지키었으니, 오직 멸망의 자식을 빼고는 그들 중 하나도 멸망치 않았습시다.' 멸망의 자식이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다. 가룟 유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 6:70) 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악마의 자식, 파멸의 자식'으로 지칭하신 것은 흥미롭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In Second Thessalonians chapter two, as Paul is talking about the antichrist, he refers to him as the son of perdition and those are the only two places where this title is used. Jesus referring to Judas Iscariot and Paul referring to the antichrist, which gives rise to the opinion of some that Judas Iscariot will somehow be the antichrist, the son of perdition. It's sort of a long shot but who knows? 데살로니가후서 2 장을 보면, 바울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멸망의 아들로 지칭한다. 본문과 그 구절은 성경에서 그런 호칭이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런 호칭을 사용하셨으며, 바울도 적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그런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어떤 식으로든 적그리스도 즉 멸망의 자식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이것은 물론 가망성이 희박한 예측이기는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는지 말이다.

And now I come to thee; and these things I speak in the world, that they might have my joy fulfilled in themselves (17:13).

The fullness of joy, that they might be fulfilled, Lord in this joy. 저희로 하여금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I have given them thy word; and the world hates them, because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17:14).

Back in the fifteenth chapter verse nineteen, you remember that Jesus said, “If you a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hates you” (John 15:19). In chapter sixteen,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that you should not be offended because they’re going to put you out of the synagogues: the time is going to come, when whoever kills you will think that they’re doing God a service. And these things they’re going to do unto you” (John 16:1-3). So He speaks to the disciples about how that the world hates Him and of course, they’re going to manifest that hatred on the morrow. Actually, it’s on the same day in the Jewish reckoning. They would be manifesting that hatred by putting Him on the cross. He is now in His prayer for them. Praying that and He’s making mention of them, “I’ve given them Thy word and the world hath hated them because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여러분은 15 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19). 16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 16:1-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그분을 미워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물론 세상은 그 다음날 곧바로 그런 증오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사실, 그 날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하면 동일한 날에 해당하였다. 그 날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인해서 그 증오심을 노출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I don’t pray that You should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would keep them from the evil that is in the world (17:15).

We are here in the world to fulfill the purpose of God and that’s the reason why God leaves us here. If God did not have a purpose for us being here, He surely wouldn’t leave us in this dark world. But He leaves us that we might be a light to this dark world. That we might be as salt. That is a preserving influence in the world. As Jesus sai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Matthew 5:13,14). And so that we might bear witness of God’s love, that we might show the world through our love for each other and our love for Him that Jesus Christ indeed is the Son of God sent into the world to be the Saviour of all who will believe in Him. We are here for that one purpose, to glorify Him and give testimony and witness to the world of Jesus Christ.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다 남겨두신 것이다. 만일 우리를 여기에다 남겨두실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남겨두신 것을 보면, 이 어둔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하시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일 것이다.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3,1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하여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이 진정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이런 목적이니 즉,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함이다.

God loves you so much, He really doesn’t want to leave you in this mess, in the world. But it is necessary that He have a light in the world and so you are here for that one purpose of bringing light and bringing hope and bringing the word of God to others. Any other thing that you do is just really, I can’t think of the word that I want to use, but it’s superfluous or unnecessary. There’s one necessary purpose for you and that’s to bear witness of Jesus Christ to the world. That’s it. So He didn’t pray that God will take you out of the world yet. There’s a purpose and a plan that God has for you and that you might fulfill that purpose. But

in the meantime, that you might be kept from the evil that is in the world.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 혼란 속에다 남겨두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세상을 비출 빛을 남겨두셔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외의 일은 (이 말이 적절할는지 모르나, 나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그저 덤으로 하는 것 뿐이다. 여러분이 해야 할 필수적인 일 하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하나님께 아직 간구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계획이니, 곧 여러분은 그 일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Our world is so fraught with evil. It is more prevalent than I think at any time in the history of man. Because of the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this generation is exposed to more worldliness, more sin, more evil than any other generation since Adam. Now the time of Noah it got so bad that the thoughts and the imagination of man'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But they didn't have the means of permeating their world so fully and completely as our world is permeated with evil. And so the prayer of Jesus is that you might be kept from the evil. Those forces of evil that dominate the world system.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으로 꽂 들어차 있다. 내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이 만연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를 사는 이 세대는 아담 이후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죄와 악에게 노출되어지게 된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든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온통 사악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철저하게 악에 물들지는 않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전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17:16).

Ever feel like you're sort of an alien? Have you ever said, I really don't belong here. When I read of stuff that's going on, I feel I can't believe this. It's so prevalent that the evil. Reading of this little girl having a party and waiting in the front of the house for the guests to arrive, and car drives up and they shoot her, kill her. And her friend that's in the yard with her is shot. And then drive off. I can't imagine that. I read of those things and I think, Where did they come from? These people that have such little regard for someone else's life. Senseless killings. Where do they come from? The world in which we live is a violent, corrupt place. 여러분은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진정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살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조그만 한 소녀가 파티를 벌여 놓고는 집 문간에서 손님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그녀를 향하여 총을 난사하여 즉사 시킨다. 그녀와 함께 뜰에 서 있던 남자친구에게도 방아쇠를 당긴다. 그리고 저격자들은 유유히 사라진다.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을 때 나는 도대체 저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을 티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출신들인가? 무모한 살인을 저지르는 저들은 대체 어디서 온 자들인가?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다. 극악무도하고 타락한 지구촌의 사람들이다.

In the times of Noah,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it said. Jesus said that when He comes,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shall it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Luke 17:26). Surely the Lord is coming soon. Even as God judged the world of Noah's days, so He will judge this world because of its sin. "They are not of the world," thank God for that,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노아 시대 때, 세상은 난폭하기 그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오실 시대를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눅 17:26).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세상도 심판하실 것이다. 모두가 죄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So set them apart through thy truth: for thy word is truth (17:17).

Set them apart from the world. Separate them from the world, Lord, through Thy truth. The word of God that washes us, that cleanses us from the defilement of the world. How important it is. Jesus said, “Now you are clean through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unto you” (John 15:3).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소서. 주여,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기며,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 15:3).

As I was saying this morning, we’re exposed all day long in the workplace or at school or whatever to the corruption of the world, to the filth of the world, till when we come home having lived in the world, corruption. We feel like we need a bath inside just to get cleansed. To sort of wash out the pollution that has been poured into our minds. The garbage that’s been dumped on us. And thus we need to get into the word daily, into the word that it might have that cleansing effect in our lives. Jesus said,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아침에도, 우리는 학교에 있든 직장에 가 있든 끊임없이 세상의 부패와 오염에게 노출되고 있다. 우리가 분향에 도달하기 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부패와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목욕을 하여 몸을 씻은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고 느껴질 것이다. 우리에게 퍼부어진 쓰레기를 닦아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As thou hast sent me into the world, even so have I also sent them into the world. And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I set myself apart 내가 나를 따로 떼어놓아오니], that they also might be sanctified through the truth (17:18,19).

The truth of God that sets you apart, that frees you, washes you.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으며, 자유롭게 하며, 깨끗하게 할 것이다.

Neither do I pray for these alone (17:20),

The first petitions were concerning Himself. The next petitions were concerning His disciples. And these final petitions He goes out beyond just that immediate little band. 첫 번째의 간구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의 간구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간구는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무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but to all of those who will believe on Him through their word (17:20);

So if through the reading of the Bible, you have come to a faith in Jesus Christ, then you are included in the final petitions of this prayer of Jesus. He now reaches out to all of those who will believe on Him through their words. And what is His prayer? 만일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드리신 이 마지막 탄원의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분은 지금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That 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 (17:21):

How the divisions in the church, squabbles, the fightings, how they must hurt the heart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whose prayer is that we might be one. It doesn’t mean that we have to agree on every point. Surely there is room fo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scripture. And surely there is a place for each of the denominations. And the gathering together with likeminded people.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신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인가. 이 말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각각의 교단이 설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일 수도 있다.

I had a lady come up to me after service this morning who was quite upset because during the singing of the choruses, she decided she was going to stand up and one of the ushers asked her to sit down and she was

very ungracious in her response but she came up to me afterwards and was really quite upset and angry. Why don't we allow people to stand up when we are worshipping? And I said, Because by your standing by yourself, it draws attention to you. We're not interested in the people having their attention drawn to you. We want their attention focused on Jesus Christ. And it is distracting. Well then, is it a rule of the church? Where do you find it in the Bible? Well, the Bible says if my liberty causes a weaker brother to be offended then I won't exercise that liberty as long as the world lives. And I said, it offends people when you stand up and draw attention to yourself. She went on. 오늘 아침 예배가 끝났을 때 한 부인께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모습이였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일어서서 그 찬송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서 있는데 한 안내 집사님이 앉아 있으라고 제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런 조치가 매우 무례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예배 후에 나에게 항의하러 온 것이였다. 참으로 화가 난 모습이였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서서 경배하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일어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의가 흩어지기 때문이지요. 회중이 당신에게 주의를 하게 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규칙인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규칙이 들어 있습니까? 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유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런 자유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일어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 시킨 것에 해당합니다 라고 나는 일러주었다. 그녀는 계속 자기 주장을 폈다.

I said, Look, why don't you go to the Vineyard? Because they stand up there. That's where the practice sort of originated. So why don't you go over there and worship there? They're good people. They love the Lord. They do things that we wouldn't do. To me they're a little far out and weird but I love them and they love the Lord and they're a part of the body of Christ. But it's good that there is a place where if she feels she wants to stand up and all, that she can go. She doesn't have to come here. And so, God has a place for the different churches to attract and appeal to the different temperaments of people.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자매님, 비냐드 교회로 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예배 습관이 거기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리로 가시면 선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좀 괴팍하고 과격적인 사람들입니다만, 저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녀는 굳이 우리 교회로 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갖가지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다.

But we shouldn't be divisive. We should see the whole body. We should see the oneness of the body of Christ and we should seek to promote that oneness of the body of Christ by loving all that are in the body.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의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몸이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Lord's been doing a real work in my life in this issue. I used to be a rabid anti-Notre Dame. I mean, anybody that beat Notre Dame I was all for. And it was the old Catholic-Protestant thing. Not any more. I share a lot of faith with the Catholics. Not everything, I have definite differences. But yet we share so much in 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so God is helping me to, maybe it's age or whatever but, to mellow out and not to insist that everybody see it as I see it or believe it as I believe it. But to just see the oneness and the unity, and to seek for the unity in the whole body of Christ.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은 내 삶을 참으로 진지하게 다뤄 오셨다. 나는 노틀담을 극렬히 반대하던 사람이였다. 누구든지 노틀담을 박살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적극 지지했을 것이다. 그것은 케케묵은 구교의 잔재에 지나지 않았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구교의 것과 공통된 점이 많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좀 유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시고 있는 듯하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보는 대로 봐야 하고 내가 믿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며 단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단합을 추구하게 되었다.

I would hate to be guilty of really bringing division in the body because then I would be working directly against the prayer of Jesus who is praying that we might be one. 나는 몸의 분열을 초래하는 범죄를 참으로 증오한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at the world might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17:21).

That oneness of the body that we might be a witness to the world that Jesus Christ indeed is the Son of God, sent into the world. 몸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 사실을 증거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And 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17:22);

That's pretty strong statement. He is willing to share His glory with you. He wants to share His glory with you. "Come, ye blessed of the Father," He said, "inherit the kingdom that's been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Matthew 25:34).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1 John 3:2), "and if sons, heirs; and if heirs, then we are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Romans 8:17). He is willing to share the glory, the inheritance with you. "The glory which Thou gavest to me I have given to them," 이것은 극히 강력한 진술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흔쾌히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34).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일 3:2).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롬 8:17). 그분은 기꺼이 영광을, 유업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that they may be one, even as we are one (17:22):

Even as the Father and the Son are inseparable, one thought, purpose, action, activity; so He wants us to be one.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 목적, 행동, 활동에서 모두 하나가 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I in them, You in me, that they might be made complete or perfect in one (17:23);

No one church, no one denomination is complete or perfect. We all need each other. We're all a part of the total. But it takes all of the parts to make the whole. And we need to recognize that and to see that and to acknowledge and to live by that.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나 완전한 교단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 모든 부분이 모여야 전체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and has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17:23).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Father, that they might know that You love them, just like You love M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소서.'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17:24),

Father, I want them to be there. I want them to behold My glory. You remember when Peter and James and John were with Jesus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and His garments began to glisten like there were lights behind them. White and glistening. There appeared Moses and Elijah talking to Him. And so Jesus had said, Not all of you are going to die until you see the Son of man in glory. And then He took them up in the mountains and they saw Him glorified. His desire is that you might see Him in His glory. The glory of His reign, His eternal reign. The glory that shall be bestowed upon Him when He completes the work of redemption by laying claim to that which He purchased, the redemption of this world. "That they might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ight behold My glory," '아버지여, 나는 저희가 거기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머물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 그분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분의 옷은 마치 뒤에서 빛이 나오거나 하는 것처럼 번쩍이기 시작했다. 밝고 희게 빛이 났다는 말이다. 그러던 중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몇몇 사람은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으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분 자신이 영광에 싸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영원한 통치에서 나오는 영광을 보게 되기 원하신다. 그 영광은 그분이 구속 사역을 마치실 때 그분께 부여될 것이다. 이 세상을 구속하신 그분은 자기가 산(買)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실 것이다. “저희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which thou hast given me: for You have loved me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17:24).

Always have loved me but that You've loved them, too. Like You love Me. ‘당신은 나를 언제나 사랑해 오셨으며,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사랑하셨습니다’

O righteous Father (17:25),

Earlier, “O holy Father.” Now “O righteous Father.” 앞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신다.

the world has not known thee: but I have known thee (17:25),

Isn't it interesting so often the world thinks they know Him? Isn't it interesting all of the false concepts that people have concerning God? The wrong ideas that they have concerning God? Satan has surely been out working overtime to distort the truth of the nature of God in the minds of people. And they really don't know God. So often they think of God only in the terms of fierce judgment, harshness, hardness. And they don't know that He is a compassionate, merciful, gracious God. They really don't know You, Jesus said. “But I have known You,”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모든 거짓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왜곡된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을 쓰고 있다. 실은 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흔히 가지게 되는 관념은 무서운 심판, 까다로움, 고약함 등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아버지를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and these have known that thou hast sent me (17:25). And I have declared unto them Your name, and I will declare it: that the love wherewith thou hast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17:26).

Sort of the final petition here. I've declared Your name, I will declare it. For what purpose? That the love wherewith the Father loves Him may be in us as Jesus dwells in us. What a beautiful, beautiful prayer. The prayer of our Lord for Himself, for His disciples, and for us who have come to believe in Him. 여기서 주님은 마지막 간구를 올리신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릴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기도인가.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셨을 뿐 아니라, 장차 그분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셨다.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love. Your love for Your Son. Your love for us. And Lord, we thank You that we have this hope of being with You to behold Your glory, the glory that You had before the world ever was. To be there around the throne, to join with that innumerable multitude as they worship the Lamb and Him who sits upon the throne. Lord, how empty this world is. How shallow are its joys. How fickle is its fame. But Lord, You endure. Your word endures and the glory is Thine forever and ever. Lord, draw us into an ever, deeper and deepening relationship. Draw us to yourself. Fill us with Your love and with Yourself.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이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은 창세 전부터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던 것입니다. 보좌 주위에서 거하게 되는 것, 무수한 무리와 더불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주여, 이 세상은 얼마나 공허한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은 얼마나 알팍한지요. 그 영예는 얼마나 덧없는지요. 하지만, 주여,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의 말씀도 영원하고 당신의 영광도 영원무궁합니다. 주여, 우리와 더불어 보다 더 깊고 언제나 깊어만 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당신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아니 당신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18

John 18
Tape #8086
By Chuck Smith

Chapter eighteen, the gospel of John. 이제 요한복음 18 장이다.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went forth with his disciples over the brook Cedron, where there was a garden, into the which he entered, and his disciples (18:1).

This means that this prayer in the seventeenth chapter of John was spoken before they got to the garden of Gethsemane. Somewhere between where they had the last supper, the end of chapter fourteen, they left the house where they had had the supper. So up to chapter fourteen, you have the conversation of Jesus there in the room where they had the passover feast. And then chapter fifteen and sixteen, we're on the way to the garden of Gethsemane, as also was the prayer of Christ. Evidently, they stopped somewhere along the way and Jesus uttered this fabulous prayer that we studied last Sunday night, the seventeenth chapter. At the end of chapter fourteen, it says, Arise, let's go; and so they left the upper room where they had the passover supper and the conversations on the way, the prayer of Jesus. And now they are getting to the mount of Olives. You have to cross the brook of Cedron to get over to the mount of Olives and there was a garden there called Gethsemane. The word means an olive press. 이 구절의 의미는, 요한복음 17 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 요한복음 14 장이 끝나기 이전 어느 때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을 잡수시던 집을 나오셨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14 장 이전의 것은 유월절 축제를 지내셨던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담화(談話)의 내용이다. 15 장과 16 장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주신 주님의 교훈이며, 그리스도의 기도도 그 노중에서 드리신 것이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노중(路中)에서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신 게 분명하다. 지난 주일 밤에 우리는 17 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살펴본 바 있다. 14 장 끝에 보면,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던 다락방을 나오신 게 분명하며, 그분은 담화도 기도도 모두 노중에서 하신 게 틀림없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도달하셨다. 감람산으로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였다. 건너편에는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이 있었다. 겟세마네란 말은 감람유 짜는 기계를 의미했다.

Evidently, some wealthy person had given Jesus the key to the garden. The mount of Olives was covered with private gardens. The wealthy people of Jerusalem had gardens on the mount of Olives. They could not really have gardens within Jerusalem. They had some kind of rule that you couldn't use fertilizer within the city. And so they had their gardens over on the mount of Olives and they were private gardens. Gated gardens. No doubt someone had given to Jesus the key to the garden. He used it often as a place that He would go and spend the night with His disciples and it was a place that was familiar to them. So He crossed the brook “where was the garden, in which He entered and His disciples.” 분명히,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갖다 드렸을 것이다. 감람산에는 온통 개인 소유의 정원들이 널려 있었다. 예루살렘의 부호들이 그 동산에다 정원을 마련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정원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도성 안에서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건너편 감람산에다 정원을 마련해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원들은 모두 개인 소유였으며 문들이 달려 있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정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열쇠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분은 종종 그 열쇠를 사용하여 정원으로 들어가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며 기도를 드리셨으며, 제자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분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후, “거기 동산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And Judas also, which betrayed him, knew the place: for Jesus oftentimes resorted thither with his disciples (18:2).

It was a place that was well known to all of the disciples. It was a place that they went quite often. 제자들도 모두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모두들 그곳으로 매우 자주 가곤 했기 때문이다.

Judas then, having received a band of men (18:3).

The word “band” here in the Greek is *speira*, and it is an interesting word because it refers to a unit of Roman soldiers. It could refer to as few as 600. Also it could refer to a unit of 1,200 with 200 cavalry men. And it also referred to a unit up to 1,600. So taking the smaller number, there was quite a number of soldiers that came with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and all to the garden to arrest Jesus. “Having received the band,” *speira*. So they came with the,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는 말은 희랍어로 ‘스페리아’인데, 이것은 ‘일단(一團)의 로마 군사들’을 가리키는 흥미로운 단어이다. 이 말은 600명 정도의 군사를 가리킬 수도 있었다. 또한 이것은 200명의 기병을 포함하여 1,200명의 군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킬 수도 있었다. 나아가서, 이 단어는 1,600명의 군사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키기도 했다. 그러므로 작은 부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군인이 대제사장 가신(家臣)들과 함께 왔을 것이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동산에 왔던 것이다. 그들은 “군대를 데리고” 왔으며 또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왔다.

officer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came with their lanterns and torches and weapons (18:3).

They probably figured that Jesus was going to try to hide somewhere and so they had lanterns and torches. There was a full moon because this was passover. And passover took place on the third full moon after our new year. After the Jewish calendar, April was their first month of the year and so the passover always took place on the full moon of the first month. This was passover and they had the full moon so it was quite bright. So they figured no doubt that Jesus would be lurking somewhere, in a cave or hiding. So they had lanterns and torches with them as well as their weapons.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그 동산 어딘가에서 숨어버릴 것이라고 추측했던 모양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횃불을 들고 왔던 것이다. 당시는 유월절 시기였으므로 보름달이 밝았을 것이다.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치면 세 번째 만월이 있는 날에 해당하였다. 유대력으로 보면, 4월은 한 해의 첫 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언제나 첫 번째 달의 만월 시에 다가오게 되어 있었다. 이 때는 유월절 즉 만월이 뜨는 날이었고 따라서 밤에도 매우 밝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동굴이나 음침한 곳에 피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등과 화 뿐 아니라 병기도 가지고 왔던 것이다.

Jesus therefore, knowing all things that should come upon him, He went forth, and said unto them, Whom seek ye (18:4)?

He didn't try and hide someplace but He went right forth, met them. And just asked them,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seeking?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진해서 앞으로 나아가 그들은 맞으셨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They answered him, Jesus the Nazarene. Jesus said unto them, Ego Eimi, I am (18:5).

The word “he” is in italics note, which means that it was added by the translators. Jesus just said, I am. He used that name of the eternal God, Yahweh. The “I am that I am.” And when He spoke that name, I am, there was such force, such power that, 영어 성경에서는 “그”를 찾으러 왔다 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그’라는 단어는 이탤릭 체로 되어 있다. 그 의미는 번역자가 첨기(添記)하였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니라”고 답하셨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에 해당한다. “내가 ...이니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명칭을 들어 응답하시자 엄청난 힘이 작동하였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As soon as He had said unto them, I am, they went backwards, and fell to the ground (18:6).

Here is a manifestation of just that when He would utter the words, I am, so dynamic, so powerful that they fell over backwards.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현시(顯示) 되고 있다. 그분이 “내가 ...이니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강력했던지 군사들이 뒤로 나가 동그라졌다.

And so He asked them again, Whom seek ye? And again they said, Jesus the Nazarene. He answered, I have told you that I am: and if therefore you seek me, let these go their way (18:7,8):

Notice how that Jesus is more or less taking charge. He's ordering them. They've come to arrest Him and all but yet they recognize that He has authority. So He's ordering them, If you're seeking Me, then let these fellows go. Let them go their way. Again, the protection of Jesus for His disciples. Looking out after them. You can arrest Me, that's part of the plan. But also a part of the plan is that they be set free. So "I told you that I am: therefore if you seek Me, let these go their way." 여기서 예수께서 스스로 책임을 떠맡으려 하셨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분은 저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잡으려 온 자들은 그분이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만일 나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도록 하라. 그들로 자기 길을 가게 하라.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려 하셨다. 그들을 돌봐주려 하셨다. '너희가 나는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계획된 일의 또 다른 부분은 나의 제자들을 놓아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That the saying might be fulfilled, which he spake, Of them which thou gavest me have I lost none (18:9). The prophecy was, "Smit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Zechariah 13:7). And Jesus said,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his night because of Me. It was the scattering of the disciples. They fled. 예언은 이와 같이 되어 있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슌 13: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그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But Simon Peter having a sword drew it (18:10),

They had, remember, speira of soldiers, quite a few, At the least 200. That's a smaller unit. Then speira, but the smallest unit would be 200. Peter's ready to take them on. You may fault Peter for his denying the Lord under the pressure but hey, Peter's ready to take on the whole band. I mean, he's going to swing. I'll go down swinging. 저들에게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군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최소한 200 명은 되었을 것이다. 적게 잡아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당시의 '스페리아'는 작은 단위 부대의 군사가 200 명쯤 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들을 대적하려 하였다. 여러분은 궁지에 몰리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을 두고 베드로를 비난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 모든 군사를 대적하려 나섰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 말은 그가 고군분투 하려 했다는 얘기다: '내가 내려가 저들과 좌충우돌하리라.'

I like Peter. I really like him. He's my kind of a guy. If we're going to go down, let's go down swinging. At least let's put up an effort. And so he drew his sword, 나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나는 정말로 그를 좋아한다. 그는 내 맘에 쏙 드는 사나이다. '만일 우리가 기어이 내려가야 한다면, 저들과 좌충우돌하면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칼을 빼 들었던 것이다.

and he smote the high priest's servant, and cut off his right ear. The servant's name was Malchus. Then said Jesus unto Peter, Put up thy sword into the sheath: the cup which my Father hath given me, shall I not drink it (18:10,11)?

John doesn't record for us the prayer of Jesus in the garden. He no doubt felt that it was not necessary because the other gospels had already been written and were widely circulated. And the other gospels all record for us the prayer of Jesus in the garden which He repeated three times when Jesus said,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Matthew 26:39). The cup referring to the cross. 감람산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였다. 그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까지 적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은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는 다른 모든 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여기서 '잔'이라고 표현된 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If man can be saved by good works, then let's set out the criteria of works that they must do. If man can be saved by being religious, let's set out the form of religion. If man can be saved by any other means, let this cup pass from Me. If it's possibl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So now having resolved the issue, He says, "the cup that the Father has given Me to drink, shall I not drink it?" Referring to the cross and His going to the cross. He is committed now to the will of the Father. 만일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그 기준을 정보하도록 하자. 만일 사람이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의 형태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자. '만일 사람이 다른 어떤 수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실마리를 푸신 듯,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가리킨 말씀이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던 것이다.

As we are told in Philippians, He "emptied Himself, became as a servant,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Philippians 2:7,8). Submitting Himself to the will of the Father. "I did not come," He said,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John 6:38), and "to finish His work" (John 4:34). So "the cup which the Father has given me to drink, shall I not drink it?"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 2:7,8).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위임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8,39). 그러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Then the band [that is that speira again 다시 '스페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and the captain and officers of the Jews took Jesus, and bound him (18:12),

I think of this, how foolish it was for them to bind Him. It was totally unnecessary and those handcuffs or whatever they put on Him, however they bound Him with the ropes or whatever, that's not what held Him. He could have easily had dispensed of whatever it was that they used to bind Him. As He said, Don't you realize I could call twelve legions of angels to deliver Me? In fact, I have sort of a suspicion that God had to use tremendous restraint on the angels at that point. I'm sure that they wanted to just enter the scene and just really wipe them out. The demeaning, horrible humiliation that their Lord was being subjected to by man. It wasn't the cords that held Jesus, it was His love for you. They didn't need to bind Him, He was bound by cords that were stronger than the ropes that they used. He was bound by His love for you in providing redemption for you. 저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수갑 같은 것으로 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포승 줄로 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어느 것도 그분을 붙잡아 두지는 못할 것이니 말이다. 그들이 그 무엇을 사용하여 그분을 묶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손쉽게 빠져 나오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 보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극도로 제재하고 계셨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천사들은 그 장소에 나타나 저들을 말끔히 쓸어버리고자 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의 주께서 사람들에게 굴복을 하시다니 그것은 끔찍한 수치였다. 실상은, 오랏줄이 예수님을 잡아둔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사용하던 밧줄보다 더 강력한 줄에 의하여 그분은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에 의해 스스로 묶여서 우리를 구속하려 애쓰고 계셨던 것이다.

It was His love for me that nailed Him to the tree, to die in agony for all my sin. It was for my guilt and blame, the great Redeemer came. Willing to bear the shame of all my sin.

And it was His love that bound Him. He was committed now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He was going willingly. He could have disappeared. He did on another occasion when prematurely they were going to try

and force Him to be king. He disappeared from their midst. Another time when they tried to take Him, He just disappeared. He could have disappeared now. But He was committed now to the Father's will to go to the cross and provide redemption for us. 그분을 속박하고 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으며 따라서 흔쾌히 그 길을 가셨던 것이다. 그분은 사라지실 수도 있었다. 이전에,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붙들고 강권하여 왕으로 모시려 하자 그분은 실제로 사라지신 적도 있다. 군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셨던 것이다. 또 한번은 사람들이 그분을 체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때도 그분은 사라지시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They led him away to Annas first; for he was the father in law of Caiaphas, which was the high priest that same year (18:13).

Annas was the high priest from the year 6 to the year 15. He was a Sadducee, a materialist and he became an extremely wealthy man. He made his wealth by setting up little booths in what was known as the Gentile court of the temple. In these booths, he would sell certified sacrifices. If you brought say a couple of turtledoves to offer as a sacrifice, the sacrifices had to be without spot or blemish. And so the priest that would examine the turtledoves, they would look carefully, they would go over it inch by inch until they found some kind of a defect in it and then they would refuse it for sacrifice and they'd send you over to the booths of the high priest to buy certified sacrifices. Doves that had already been certified by the rabbis as acceptable.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는 사두개인이요 유클론자로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가 재물을 끌어 모은 내력은 이랬다.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다가 작은 상점을 차려두었다. 거기서 그는 품질이 인증된 제물을 팔았다고 한다. 만일 여러분이 산비둘기 두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했다면, 그것은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였다. 제사장이 나와서 제물로 바칠 비둘기를 검사할 것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또 살피다가 마침내 제사장은 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비둘기를 제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인증된 제물을 파는 작은 상점으로 안내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그 상점에서는 이미 랍비들로부터 무흠(無欠)하다고 인정된 제물들을 팔고 있었다.

The only problem was out on the streets you could buy a couple of doves for a quarter. But they were charging eighteen dollars for the two doves that were certified. And so the profit was going to Annas. It was his little merchandising scheme. That was the area that Jesus came into and He drove out those that were selling the sacrifices. Those that were changing the money. He drove them out and so Annas had it in for Jesus. The high priest had it in because Jesus had upset his businesses and so he was determined that he was going to get Him and get rid of Him. 문제는 저자에 나가면 여러분이 그런 비둘기 두 마리를 단돈 250 원에 살 수 있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도 성전 안에서는 그런 비둘기 두 마리를 인증 받았다는 구실로 시장가보다 72 배나 더 받고 있었다. 그 모든 이득금은 안나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치졸한 상술이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쫓아내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돈을 환전해 주던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어쫓으신 경력이 있었으므로 안나스가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만무하였다. 예수께서 자기 사업을 망쳐놓았으므로, 그 대제사장은 그분을 붙잡아다가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In about the year 15, Annas came into disfavor with the Roman government. And so he was deposed by the Roman government and he had five sons and each of his sons served as high priest for a period of time. But at that time, it was so corrupted they would use bribery and they would purchase the office. Much like in one period of the Catholic church when the office of the Pope was put up for bid and it was sold to the highest bidder. It was that kind of corruption that existed then and they would use bribery and all to gain the office of the high priest because it meant a lot of money because of the merchandising that was attached to it. 대략 15년 후가 되면 안나스는 로마 정부의 눈에 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대제사장을 해먹었다. 당시는 너무도 사회가 타락한 때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뇌물을 주고 그 직위를 샀던 것이다. 한 때 카톨릭 교회 내에서 교황의 직위가 경매에 붙여져 가장 큰 금액을 거는 사람이 교황이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와 흡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그런 부패가 존재했으므로,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내주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였다. 대제사장이 되면 성전 제물을 파는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d so over a period of time, all five of his sons had served as high priest but each of them came into disfavor. And so Caiaphas had married his daughter and he was now the Roman appointed high priest. However, the Jews did not really recognize Rome's appointments and they still recognized Annas as the high priest. So they brought Jesus first to Annas and John tells us of the trial there, it really wasn't very much before they sent Him over to Caiaphas. So they brought Him bound unto Annas first, he was the father in law of Caiaphas, who was the high priest. 그리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의 다섯 아들도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또한 로마 정부의 눈 밖에 나게 되었다. 그러자 안나스는 자기 딸을 가야바와 결혼시켰는데, 이 때는 가야바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것이다. 요한이 본문에서 전하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넘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Now Caiaphas was he, which gave counsel to the Jews, that it was expedient that one man should die for the people (18:14).

That was Caiaphas who was the appointed high priest and he was the one who earlier, as they were saying, What are we going to with this fellow? All of the people are listening to Him and all. He said, Don't you realize, don't you understand anything? It's necessary that one man should die that we might save the nation. 그런데 당시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문제였다.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꼬?' 하고 물은 적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에게 쏠려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느냐? 한 사람이 죽고 그대신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And Simon Peter followed Jesus, and so did another disciple (18:15):

Who was that other disciple? We don't know. It was probably John but it has been suggested that maybe it was Nicodemus, who was a secret disciple of Jesus. It said that he was known to the high priest and surely Nicodemus, a wealthy man and a respected teacher, a Pharisee, would be known unto the high priest. Some have suggested that possibly it was Joseph of Arimathea. But most commentators accept that it was John. But how could John know the high priest and how could John have access? Where would the connection be? Because John was from Galilee.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잘 모른다. 요한일 수도 있지만, 비밀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기도 한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그는 부자였고, 존경 받는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대제사장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가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게 되었으며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그리 할 수 있었을까? 요한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John's father, Zebedee, was a very prosperous fishing magnate. In those days, fish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diet. It was impossible, of course, to keep the fish fresh. The main source for fish was the sea of Galilee. It was teeming with fish as it is today. And so they would catch the fish in the Galilee and then they would salt them to preserve them and then they would ship them down to Jerusalem. So it is quite possible that John was a merchandiser working for his dad and that he would bring the fish to Jerusalem. It would appear that John had a home in Jerusalem and perhaps delivered fish to the high priest because only the wealthy could afford them and they were considered very much of a delicacy in those days. The wealthy enjoyed the fish and so it's possible that John had come into acquaintance with the high priest because of the business that he had in the selling of the fish. But at any rate, as I say, most believe that it was John. So Simon Peter followed Jesus and so did another disciple.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매우 잘 나가던

어업계의 거물이었다. 그 당시 물고기는 중요한 식품이었다. 물론 물고기를 신선하게 그대로 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물고기의 주요 산지는 갈릴리 바다였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곳은 언제나 물고기가 풍부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 이를 소금에 절여 보관한 뒤 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했다. 따라서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물고기를 실어 날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한은 예루살렘 시내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던 듯하며 대제사장의 집에도 물고기를 공급한 사람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물고기는 그 당시 매우 귀중한 진미로 간주되던 터라 부자들만이 그런 음식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부자들만이 물고기를 맛볼 수 있었다면, 물고기 판매 일을 도맡아 하던 요한이 대제사장과 안면을 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내가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제자 하나’를 요한으로 보고 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았고 또 다른 제자도 그리 하였다.

John really never did refer to himself much by name. But he referred to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and here the other disciple. When he talks about running to the garden and he said that they both ran together but the other disciple outran Peter showing us that he was a faster runner, but he said he stayed outside and Peter went in; but he didn't name himself in the record. Just referred to himself as the other disciple or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요한은 자기 자신을 실명으로 거론한 적이 결코 없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든지 아니면 본문에서처럼 ‘다른 제자’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다. 자기가 동산으로 달려가던 일을 전할 때도, 그는 ‘두 사람 모두가 함께 달려갔으나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렀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더 빨리 달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그가 더 빨리 달리는 하였지만 ‘무덤에 도착한 후에는 밖에서 서 있었고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함으로써 끝내 자기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단지 자기를 ‘다른 제자’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할 뿐이다.

that disciple [the other one 다른 제자] was known to the high priest, and went in with Jesus into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18:15).

He followed right on in because he was known to them. 그는 예수님을 쫓아 곧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But Peter stood at the door outside. Then went out that other disciple, which was known unto the high priest, and spake unto her that kept the door, and he brought Peter in to the courtyard (18:16).

The fact that earlier in the record, he knew the name of the servant, Malchus,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the fact that he knew the name of the servant who Peter had whacked his ear off, indicates again a familiarity not only with the high priest but with the household,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So he brought Peter in and, 우리가 앞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귀를 쳐 떨어뜨린 종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도 그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the damsel that kept the door unto Peter asked, Art thou also one of this man's disciples? And he said, I am not (18:17).

It would sound like she knew that John was. Are you also one of the disciples? And Peter denied saying, I am not. 이 여종은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듯이 보인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했다.

And the servants and officers stood there, who had made a fire of coals; for it was cold: and they warmed themselves: and Peter stood with them, and warmed himself. The high priest then asked Jesus of his disciples, and of his doctrine. Jesus answered him, I spoke openly to the world; I ever taught in the synagogue, and in the temple, whither the Jews always resort; and in secret I have said nothing (18:18-20).

There's no secret conspiracy. Everything I've said I've said openly. ‘비밀리에 진행된 음모는 전혀 없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

Why do you ask me? ask them that heard me, what I have said unto them: behold, they know what I said

(18:21).

According to the law, they had sort of the Fifth Amendment kind of a clause in their law where a prisoner could not be asked a question that would bring about self-incrimination. So it was actually not legal for him to ask Jesus this question because it would require self-incrimination. Jesus is more or less pointing out the fact that that's not a legal question to ask Me. If you want to know the story, ask the witnesses. According to the law, the witnesses are supposed to come and bear witness of what they heard. The prisoner himself could not be forc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So Jesus was calling to him a point of order concerning the law. 저들이 가지고 있던 법 제 5 수정 관에 의하면, 죄수에게 스스로 죄를 입증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그것은 죄수 스스로 자기 죄를 입증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듯하다. 네가 정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 증인들에게나 질문을 하라. 저들의 법에 의하면, 증인들도 출석하여 각자 들은 바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죄수 자신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다.

And when he had thus spoken, one of the officers which stood by struck Jesus with the palm of his hand, and he said, Do you answer the high priest so? Jesus answered him, If I have spoken evil, bear witness of the evil: but if well, why do you smite me (18:22,23)?

Here is a totally illegal process taking place and Jesus, who is just and who is righteous and who is concerned in true righteous judgment, is upset with this irregularity according to their own laws. And so He is standing up and challenging them. 여기서 전적으로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진실하고 정직한 심판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께서서 저들의 비리를 보고 분개하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법에 비춰 보더라도 불법인 짓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력히 항의하셨던 것이다.

Now Annas had sent him bound unto Caiaphas the high priest (18:24).

That was about all that was done there. They then sent Him over to Caiaphas. 거기서는 그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권을 가야마에게 이송하였다.

And Simon Peter stood and warmed himself. They said therefore unto him, Art not thou also one of his disciples? He denied it, and said, I am not. One of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being a kinsman or a relative of the man whose ear Peter had cut off, said, Did not I see you in the garden with him? Peter then denied again: and immediately the cock crew (18:25-27).

An interesting sidelight here. A possibility and that's all it is. Something to consider. They weren't really allowed to keep roosters in the city limits of Jerusalem. It's much like some of the ordinances that we have in our cities today where you can't keep roosters in your yard because they have a tendency of crowing in the morning and waking up neighbors, and so most cities have ordinances against keeping roosters. Such was the case in Jerusalem. But it is possible that someone had kept a rooster and that it was actually a rooster crowing. But there's another possibility and it's just interesting and I just throw it out and you can do the same. 여기서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부가적으로 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번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닭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마당에서 닭을 키울 수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울면 이웃 사람들이 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닭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닭이 실제로 운 것을 보면 누군가 닭을 키우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신임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oman had four watches during the night. First one began at nine o'clock, then twelve o'clock, and then three o'clock and then six o'clock. And at the changing of the watch, they sounded a trumpet. The sound of the trumpet at the three o'clock in the morning change of watch or change of guard was called the cockcrow. And so it could be that it was the sound of the trumpet of the Romans to change the guards at

three in the morning that Jesus had said, Before the cock crows, or before that three o'clock in the morning sound of the Roman trumpet, you will have denied Me three times. That is a possibility. Something to, interesting, sort of one of those little Chuck Missler kind of tidbits. Been around Chuck too long. 당시 로마 사람들은 밤을 4 경으로 나누고 있었다. 제 1 경은 밤 11 시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2 경은 12 시에, 3 경은 3 시에, 4 경은 6 시에 시작되었다. 경이 바뀔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오전 3 시에 울리는 나팔 소리는 경이 바뀌는 시각임을 알리기도 했지만 파수가 바뀐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 이 때의 나팔소리를 ‘닭 우는 소리’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언급하신 얘기는 오전 3 시 파수가 바뀔 때 로마인들이 불던 나팔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닭이 울기 전에’ 즉 ‘오전 3 시 로마인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조그만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경고로서, 재미있는 표현이다. ‘그 집에서 너무 오래 놀지 않도록 해라’고 경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Then led they Jesus from Caiaphas unto the hall of judgment (18:28):

We are told by John nothing of the trial before Caiaphas. The other gospels tell us of the trial before Caiaphas, how that Jesus was brutally treated, how that He was mocked, how that they put a sack over His head and began to hit Him and say, Prophecy, who is it that hit You? And so the other gospels tell us of the trial before Caiaphas. And how finally, Caiaphas said, Are you then the Messiah, the Son of God? Jesus said, You said it. So he tore his clothes and said, What need we of further witnesses? We've heard Himself. And what do you say? They all say He's guilty of death. And so then they took Him over to the Roman court of Pilate in order that they might get the sentence of death. So John leaves out all of that trial before Caiaphas. 요한복음은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들은 가야바 앞에서 심문을 받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한다. 그분은 아주 천하게 취급을 받으셨으며 조롱을 당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머리에다 부대를 뒤집어 씌우고 나서는 그분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네 머리를 쳤는지 알아 맞춰 보라. 마침내 가야바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예수께서는 ‘네가 말 했느니라’고 응수하셨다. 그는 옷을 찢으며 이렇게 소리 질렀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직접 저의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분을 빌라도의 로마 법정으로 송치하였다. 사형 선고를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 뜰에서의 재판 장면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The whole purpose was to develop charges against Jesus that could be taken to the Roman government. The charges before the Roman government could not be charges on religious grounds. Rome didn't care. They had to be charges of some kind of insurrection of Jesus against Rome. And so there were false charges, they said that Jesus was advocating a tax revolt. He was teaching that they shouldn't give taxes to Caesar. That's wrong. They tried to trap Jesus on that issue. Remember they said,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axes to Caesar? And Jesus said, Show me a coin. And He said, Whose image is that? And they said, Caesar's. Well then give Caesar that which is Caesar's, give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Mark 12:14-17). 이 모든 과정은 로마 정부 앞으로 예수님을 송치하기 위하여 고발 거리를 찾기 위함이었다. 로마 정부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문제 이외의 혐의를 찾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가 관심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거나 하는 등의 혐의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 죄를 덮어씌운다는 것이, 예수께서 납세 거부 운동을 옹호했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분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를 들어 예수님을 엮어 매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는가?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동전 하나를 보여 달라. 이 화상의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라 (막 12:14-17).

But now they are saying He was advocating not paying taxes and then they were saying that He was an insurrectionist. He was going to rise up against Rome, that He was claiming to be the King of the Jews and

was going to lead a revolt of the Jews against the Roman authority. So those were the charges that they decided to bring against Jesus when they brought Him to Pilate. So “they led Jesus from Caiaphas to the hall of judgment,” 그런데도 지금 저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장하였다고 말하며 그분을 반란의 선동자로 몰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제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서려고 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였으며, 유대인들을 이끌고 봉기하여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덮어씌우기로 작정하고 빌라도 앞으로 그분을 끌어왔을 때 내놓은 혐의 내용이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더라.”

and it was early; and they themselves did not go into the judgment hall, lest they should be defiled; but that they might eat the passover (18:28).

This is one of those cases where these guys are doing such a totally corrupt thing. You can't imagine anything more corrupt than this. They are conspiring to see a man put to death who has not done anything wrong. Wicked, vile, evil. And yet, they are careful not to go into the Roman court because this is passover day actually, and you're not to be where there is any leaven and it's possible that there was leaven within the court because the Romans didn't care about the bread not having leaven. And so religiously just keeping the letter of the law, and yet so totally corrupt. 이 일은 이 사람들이 저지른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였다. 여러분은 이보다 더 고약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 하고 있다. 사악하고 간교하고 극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로마 법정에 들어가려 하지를 않고 있다. 이 날은 실제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이다. 누룩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날 말이다. 그런데 그 법정 안에는 누룩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로마인들은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거침없이 먹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율법 조문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It's interesting how corrupt religious people can sometimes be. How they are so careful in the little religious things. As Jesus said, “You strain at a gnat, but you swallow a camel” (Matthew 23:24). And this is so true of religious people. They are so interested in some of the little fine details of the religious traditions and yet they violate so completely real judgment and real honesty and integrity. 사람들이 때때로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마 23:24).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꼭 들어맞는 말씀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세밀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재판과 정직과 순결에서는 얼마나 철저히 범과(犯過) 하는지 모른다.

Pilate went out unto them, and said, What accusation do you bring against this man?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If he were not a malefactor, we would not have delivered him up unto thee (18:29,30).

There was no love between Pilate and the religious people. In fact, Pilate had been in trouble with them before. They had complained to Caesar concerning Pilate. When Pilate first became the governor over the area, the capital of the area for the Roman government was in Caesarea. But the governor oftentimes came to Jerusalem because that was sort of the center of the nation. And when he first came to Jerusalem with his soldiers, on the tops of the poles with the flags that they would carry the different legions, they had a little image of Caesar. And so as he came to Jerusalem, the religious leaders were out there and they said, We won't let you come into the city unless you take the image of Caesar off of the banners there. Pilate refused to do it. And so there was quite a confrontation. And finally, Pilate went back to Caesarea and they followed him back arguing all the way. They were about 200 of them and Pilate sort of threatened them. You don't like it, I'll kill you. And they all just held out their necks and they said, Go ahead, slice them. And he was so moved by that that he couldn't just kill innocent people like that so he gave in and they didn't, they took the little images off when they went to Jerusalem. That was one issue and it was reported to Caesar. 빌라도와 종교적인 사람들은 서로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 빌라도는 이전부터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들은 황제에게 빌라도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았다. 빌라도가 처음 그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지역의 수도가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렇지만 총독은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예루살렘이 그 지역의 실제적인 수도였기 때문이다.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각 군단을 상징하는 깃발의 끝에는 황제의 상이 작게

그러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깃발들을 보게 되었다. 저 깃발에 있는 황제의 상을 지우기 전에는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하여 상당한 시비가 일게 되었다. 결국 빌라도는 가이사랴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내내 빌라도를 쫓아오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는 다 해야 고작 200 명 남짓이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을 약간 협박하였다. 너희가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너희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목을 길게 늘어뜨리며 어서 목을 치라고 대들었다. 그런 담대한 행위에 감동한 그는 차마 그렇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는 양보하였으나 그들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황제 상을 제거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전말은 후에 황제에게 전해졌다.

There were a couple of other similar type of issues where Pilate came into disagreement and disfavor with the religious leaders and thus they were constantly reporting him to Caesar. That's why in the next chapter when he is arguing with them to let Jesus go, they said, If you let Him go, you're not Caesar's friend. Ultimately, Pilate was recalled upon the complaints of the religious leaders back to Rome and before he got back there, the Roman Caesar at the time died and so he disappeared from history. We really don't know what happened to Pilate after that. But there was bad blood between Pilate and the religious leaders. 그와 유사한 유형의 일들이 뒤 번 더 있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불화하며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자초지종을 황제에게 보고하곤 하였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빌라도와 논쟁하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 가면 나온다. 결국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호소에 의하여 본국으로 소환되었는데, 그가 임지로 복귀하기 전에 당시의 황제가 붕어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어쨌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는 좋지가 않았다.

"He went out, and he said, What accusation are you making against this man?" And rather than answering his question, they just said, "If He were not a malefactor, we would not have delivered Him up to you."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신 이런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 하였겠나이다."

And Pilate said unto them, Then you take him, and judge him according to your laws (18:31).

In other words, washing my hands.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You go ahead and judge Him according to your laws. 그는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The Jews therefore said unto him, It is not lawful for us to put any man to death (18:31):

They are revealing their hand. They are not bringing Jesus to be tried. They are bringing Jesus in order to get a sentence of death. They're not interested in a trial before Pilate. All they're wanting is a sentence of death against Jesus. The power of capital punishment has been taken from the Jews. Just not too long ago from this incident, they had lost the power of capital punishment. So they would, though, you remember Stephen, they stoned Stephen, and the manner of the Jews putting a person to death was by stoning. They could have stoned Jesus but they would have had to answer probably to Rome and so they didn't want stoning. They wanted a cruel, torturous death. They wanted to see Him suffer. They wanted to see Him crucified which is one of the most torturous means of putting a person to death. And they wanted to see Him suffer. So they wanted the sentence to come from Rome because the Roman form of execution was crucifixion. They said "it's not lawful for us to put a man to death," 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 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 언도가 내려지도록 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것이었다. 최고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가 버렸다. 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그들은 그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러분은 스테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임의대로 스테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처형하고 말았다. 예수님께도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선 로마의 법에 따라야 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을 원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으로 알려진 십자가 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괴로워서 몸부림 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처형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That the saying of Jesus might be fulfilled, which he spoke, signifying what death he should die (18:32). Jesus said, “And I,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unto Me. And this He said, signifying by what death He should die” (John 12:32,33). That is, being lifted up on a cross. They are wanting death by crucifixion.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요 12:33).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의미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다는 사형 방식을 원하고 있었다.

Then Pilate entered into the judgment hall (18:33),

He was outside talking to the Jews. Jesus was inside. 그는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안에 계셨다.

and he called Jesus, and said unto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Jesus answered him, You say this of yourself, or did others tell you of me (18:33,34)?

Is this a sincere question? Do you really want to know? Is it an honest question? Are you desiring to really know this? Or have others told you? Is this just something that you’ve heard? Is that what they are saying out there? ‘너는 지금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진실로 그 대답을 듣고 싶으냐? 네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냐? 정말로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저 반복하는 것일 뿐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말을 전해주더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냐?’

Pilate answered, Am I a Jew? Your own nation and the chief priests have delivered You unto me: what have You done (18:35)?

Pilate is interrogating Jesus, trying to find out just what’s going on here. What have You done? Why are they so upset? Why are they so angry? Why are they wanting to see You crucified? What have You done?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고자 애썼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왜 저들이 저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이냐? 왜 저들은 너를 십자가에 달고 싶어하는 것이냐?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러느냐?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then would my servants fight, that I should not be delivered to the Jews: but now is my kingdom not from here (18:36).

Jesus is now affirming that He is a King, that He has a kingdom but it isn’t of this world. I’m not forming a conspiracy against Rome. I’m not trying to conscript men to rebel against the Roman authority. My kingdom is a spiritual kingdom. It’s not of this world. It isn’t a material kingdom that I’m going to establish at the present time. I’m going to establish a spiritual kingdom. It will be in the hearts of men, the transformed hearts of men. Lives who will be transformed in My kingdom. It’s not of this world.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모의하고 있지 않다. 나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여 봉기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물질적인 게 아니다. 나는 영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며, 변화된 마음 속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나의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Pilate therefore said unto him, Are You then a king? Jesus answered, You said it. To this end was I born, and for this cause came I into the world, that I should bear witness unto the truth. Every one that is of the truth heareth my voice (18:37).

Yes, I'm a King. This is why I was born.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shall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upon his kingdom, to order it, and to establish it in judgment and in justice from henceforth even for ever" (Isaiah 9:6). Yes, I'm a King. "To this end I was born, for this cause I came into the world." For what cause? To establish a kingdom.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in the hearts and in the lives of those who will submit to His authority. 그렇다. 나는 왕이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그렇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일까?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다. 사람들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다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So that you who have received Jesus Christ as your Lord, you have surrendered your life to Jesus. You said, I want You to take over my life. I want You to be the Lord of my life. You have entered the kingdom. You are a part of the kingdom of God. This spiritual kingdom that Jesus came to establish. My kingdom is not of the world. It's a spiritual kingdom. He rules in the hearts of those who have heard His voice and have responded to His call. It's so good. It's so wonderful to be a part of the kingdom of Jesus Christ.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며,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저는 당신께서 제 삶을 맡아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신령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셨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왕국이다.' 그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좌정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As the scripture says concerning Abraham that he considered himself just a stranger and a pilgrim here. He was "looking for the kingdom, a city which hath foundation, whose maker and builder is God" (Hebrews 11:10). "Our citizenship," Paul said, "is in heaven; from whence we look for our King,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Who when He comes He's going to change our vile bodies, that they might be fashioned like unto his own glorious image" (Philippians 3:20,21). Yes, I'm a King bu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t's a spiritual kingdom that I'm going to establish in the hearts of people. Not by sword but by love. My kingdom will be established and the power of love will be stronger than the power of the sword and shall overcome the sword. 성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여겼다. 그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히 11:10).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 3:20,21).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의 왕국은 칼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 따라서 칼을 정복하게 될 사랑의 힘에 의하여 세워지게 될 것이다.'

Pilate said unto him, What is truth (18:38)?

Jesus had mentioned, "I came to bear witness of the truth that every one that is of the truth hears my voice." What is truth? This, I think, was said with great cynicism because for years, centuries, the Greek philosophers had searched for truth. They had come up with many concepts of truth. But one by one their concepts were argued out by newer concepts. Until finally the age of philosophy was dying because they had despaired. They figured that truth did not exist. That there was no universal truth. That truth is a relative thing and it is individual and thus, what is true to you is true to you but not necessarily true to someone else. So they got into the existential philosophy where everybody experiences themselves what is true to them and thus, truth is only relative to your background, who you are, where you were raised, the mores of the society

in which you live and whatever. That is what establishes truth. There is no such thing as universal truth. And knowing that the philosophers had despaired to discover truth, Pilate said cynically, What is truth?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 하러 왔으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나? 빌라도는 이 질문을 매우 냉소적인 어조로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희랍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할 때마다 낡은 것들은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결국 철학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실망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인 진리 뿐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진리인 것은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존적인 철학에 빠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진리는 각자의 배경에 따른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나는 어떤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등에 따라 진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철학자들이 진리 찾기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물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나?

Jesus had earlier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ohn 14:6). Here is Pilate asking the truth, What is truth? Jesus is truth. And over and over again we read through the gospel of John where Jesus sai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e word “verily” is truly. He came to bring us the truth of God. What is the truth of God? 예수님께서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14:6). 여기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나? 고 묻고 있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서”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The truth of God is that God so loves you in spite of your rebellion. In spite of your foolishness. In spite of your carelessness, God so loves you that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take your sins and to die in your place, that if you will believe in Him, you might have eternal life. That’s truth. God’s truth. 하나님의 진리란 우리가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주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지고가게 하시며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다.

Pilate didn’t wait for an answer. He figured there was no answer.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ut he went out and he said to the Jews, I find in him no fault at all (18:38).

The man’s innocent. I don’t find any fault in Him.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It is interesting how that God was protecting the witness of the innocence of Jesus. When Judas brought back the money, he said,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Matthew 27:3,4). His witness, Jesus is innocent. When Pilate was in the process of judging Jesus, his wife sent a message to him and said,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just man (Matthew 27:19). The witness that Jesus was just. When the thieves were hanging beside Him on the cross, and the one thief was deriding Him, the other rebuked him and said, Don’t you fear God? We’re here because we deserve to be her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amiss (Luke 23:39-41). Further testimony to the innocence of Jesus. And now the testimony of Pilate. “I find no fault in Him.”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증거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해두고 계셨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가롯 유다는 돈을 도로 가져와서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마 27:3,4)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거 했던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마 27:19) 하고 전언하였다. 이것 역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였다.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는 그분을 조롱하였으나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눅 23:41).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었다.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증언을 한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If justice is to be served, at that point he should have brought down the gavel and said, Case dismissed. That’s justice. But as is so often the case, justice is not served. Nothing new. Goes way back. 만일 공의를 집행하고자 했다면, 그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소는 각하되었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게 바로 공의인 것이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여기서도 공의는 집행되지 못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But you have a custom, that I should release unto you one at the passover: will ye therefore that I release unto you the King of the Jews (18:39)?

He is saying it in a snide way, sort of rubbing it in. 그는 경멸적인 어조로 재차 짓궂게 물었다.

And they cried again, saying, Not this man, but Barabbas. Now Barabbas was a robber (18:40).

Shows you how low they have gotten. Here is Jesus, nothing amiss. Nothing wrong. The Bible said He went about doing good. Healing all manner of sicknesses and all. And yet when given a choice, Jesus or Barabbas, they said, Release unto us Barabbas. We wonder how can people be so hard? How can people be so foolish as to choose Barabbas over Jesus? A man who was known to be a criminal. Known to be a robber. A man who was dangerous to the public. Dangerous to be out on the streets. And yet they had rather take their chances with him than with Jesus. Release unto us Barabbas. 이 구절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보여준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릇된 일을 한 적도 없으시다. 성경은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고 말한다. 온갖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한다. 그런데도 예수와 바라바 사이에 선택을 하라고 하니,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해질 수 있는지를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은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은 이름난 강도였는데도 말이다. 그는 잘 알려진 죄인이었다. 대중을 위협하던 존재였다. 그로 인하여 거리에 나다니기가 위험했던 그런 자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그런 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바를 놓아 주시오.’

This business of King of the Jews, Pilate does get the last word. When Jesus is hanging on the cross, he has it written above the cross, King of the Jews. He had it put in three languages, Latin and Hebrew and Greek, so that they could all understand it. And that upset the high priest. Remember they came and said to him, Don’t put King of the Jews. Put, He said I’m King of the Jews. And Pilate, this thing was going on. It was bad blood here. He just said, What I’ve written I have written. He was anxious to get his licks in against them. He was being put in a very awkward position. There was a sense of justice in the Roman courts. A sense of justice, at least. He was being pressured to do something that he knew was wrong. 유대인의 왕이라는 직함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그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그 말을 라틴어, 히브리어, 희랍어의 세 가지 언어로 적어 놓았는데, 이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표찰이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표를 달아 놓으라고 청한 일이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빌라도는 짜증이 났다. 그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고 대응했다. 그는 유대인들과 맞설 기회를 찾고 있었다. 자기가 매우 궁색한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법정에는 공의가 있어야 했다. 최소한 공의를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그는 그릇된 일을 행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That’s always a difficult position to be in when some foolish person in the crowd is trying to push you into that which you know in your heart to be wrong. It always is difficult. They seem to always be there.

Those that are leading a person downward. Those who seem to have no interest in the gospel or in Jesus Christ or in their own destiny. They're sort of like the Pharisees that Jesus said, "You will not enter in, but you would hinder those who would enter in" (Matthew 23:13). They're always there. And they are now seeking His death. They are seeking to force Pilate to make a decision that in his heart he knows is wrong. And so he's upset with them. They've always been upset with him. And so it's a lot of pressure and all that's going on in these chapters, in this interchange between the Jews. 군중 속에 어떤 어리석은 자가 섞여 있다가 여러분이 그릇된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일을 행하도록 밀어붙인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참으로 곤란해질 것이다. 그런 처지는 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언급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이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마 23:13). 어딜 가나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가 옳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결정을 그로 하여금 내리도록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 하기가 그들은 언제나 그를 괴롭혀 왔다. 그러므로 이 몇몇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모두 그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It continues on into chapter nineteen. So as we go into chapter nineteen, we see this whole bantering back and forth as Pilate is determined to release Jesus and they are insisting on His death. So we'll follow that on up next week.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19 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19 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공방(攻防)의 전모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벌어지는 그 논쟁의 전모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Father, we thank You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e opportunities that we have of submitting ourselves unto the King. Bowing our knee before our Lord Jesus Christ. Confessing Him as Lord and King of our lives. Surrendering ourselves to follow Him and to live after the kingdom of God. Lord, establish Your reign within our hearts. We're here, Lord, ready to obey and to serve You. We pledge, Lord, our hearts, our lives, our allegiance to You and to Your kingdom. And Lord, we just pray that Your kingdom will soon come. That Your will will be done her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Lord, how we long for that day when the kingdoms of this world will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Messiah and He begins His reign forever and ever. Hasten that day, Lord, we wait for it in eager anticipation. And now, Lord, guide us as we submit our lives to You. Show us what You would have us to do. Lead us, Lord, in Your path.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임금님께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님과 왕으로 고백하고 모셔 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쳐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의 왕국 법을 좇아 살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주여,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충성을 다 바쳐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기로 다짐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뤄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변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며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게 됩니까? 주여, 그 날이 신속히 임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옵니다. 이제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당신께 굴복시킬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당신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19

John 19
Tape #8087
By Chuck Smith

Then Pilate therefore took Jesus, and scourged him (19:1).

The scourging by the Roman government was a method by which they elicited confessions from accused criminals, usually from convicted criminals. It was a very torturous thing, a prisoner was tied to a post in such a way that his back was extended. And then they would lay across the back this whip that had little bits of glass and lead embedded in it that was designed to sort of rip the flesh as it was pulled off. Very painful and it was used by the Romans, as I said, to elicit confessions. The idea being that if a person would confess of a crime, they would be a little more lenient on the next time they brought the whip on his back. There would be a scribe standing by to write down the confessions of the crimes and this way, they were able to clear the books on many of the unsolved crimes in the community. 채찍질은 기소된 죄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로마 정부가 사용하던 한 방법이었다. 대개는 기결수에게 매질을 가하곤 하였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처벌로서, 죄수를 기둥에 붙들어 매고 등가죽이 터지도록 때리곤 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유리 조각들과 납 조각들이 박힌 채찍을 들어 잔등을 이리저리 쳤다. 그럴 때마다 등이 갈라지고 살점이 채찍에 묻어나오곤 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로마 사람들은 그런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내곤 하였다. 죄인이 자백을 하면 다음 번에는 채찍을 약간 더 약하게 가하곤 했다. 그 옆에는 서기가 대기하고 서 있다가 자백을 할 때마다 받아 적곤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 미제의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It was a common practice to scourge the prisoners before they were crucified. Again, clearing up a lot of the unsolved crimes. It was unlawful to scourge a Roman citizen without his being already condemned but they would use it as sort of a third degree torture to get the prisoners to confess to crimes.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기 이전에 채찍질 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였다. 다시 말하는데, 그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 여러 미제의 범죄 사건을 해결하곤 했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민을 채찍질 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치졸한 고문 방식을 사용하여 죄수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곤 하였다.

In ordering Jesus scourged, it was no doubt to get Him to the confession of His guilt concerning the charges that were brought against Him by the Jews.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Pilate was convinced of His innocence and yet had Him scourged. But when we read in the Old Testament, Isaiah chapter fifty, that “He would give His back to the smiters” (Isaiah 50:6), and as we read in Isaiah 53,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and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stripes we were healed” (Isaiah 53:5), we realize that even though it was inconsistent with Roman justice, to subject an innocent man to this kind of torture, it was something that was designed and planned by God that not only should His Son suffer death upon the cross but that His Son should also be scourged. But Isaiah in speaking of this scourging, in prophesying it, said, “And as a lamb before its shearers is dumb, so He opened not His mouth” (Isaiah 53:7). He had nothing to confess. And thus, there is cause to believe that He received the full brunt of the whipping because the idea was, if they did not confess the next lash would be harder. And continually harder until a person would be forced by the pain to cry out the confessions of his crimes. Jesus bore that suffering but as Isaiah sai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예수에게 채찍질하도록 명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죄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소한 일과 관련하여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빌라도가 그분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채찍질을 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사 50: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5).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죄한 사람을 그런 고문에 처하는 것은 로마의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채찍질을 당할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채찍질 당하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 53:7). 그분에게는 자백하실 일이 하나도 없었고 입을 여실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그분은 그 심한 채찍질을 그냥 그대로 다 당하셔야만 하였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 번 채찍질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점점 더 심해져서 마침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못 배길 지경으로 만들곤 하였다. 예수님이 당한 고초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He was suffering for us. One of the consequences of sin in the world is suffering. All of the suffering of the world can be traced back to the introduction of sin. It is sin that brings suffering to humanity and Jesus is there suffering for us because of the sin, that we might be healed.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의 결과 중 하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인류에게 고통이 주어진 것이 죄로 인한 것이기에, 예수님도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던 것이다.

And the soldiers platted a crown of thorns, and put it on his head, and they put on him a purple robe, And they said, Hail, King of the Jews! and they smote him with their hands (19:2,3).

Jesus is now being mocked. Jesus is now being abused by the Roman soldiers. They made a crown of thorns and pressed it on His head. Interesting. Where did the thorns come from? Going back to the garden of Eden when man disobeyed God, and God was announcing to man the results of sin and disobedience, He said, “Cursed be the ground. Thorns and thistles shall it bring forth” (Genesis 1:17,18). The thorns are the result of the curse. They say that a thorn is an undeveloped blossom. When the curse is removed, can you imagine how beautiful the desert will be? When every thorn becomes a blossom once again. But the thorns came from the curse of sin. And thus, quite appropriate. He came to suffer for sin. To take the curse of sin. And thus, thorns caused by the curse are placed upon His brow as the soldiers mockingly hail Him the King of the Jews, as they put on a purple robe and do feigned obeisance and then they smite Him with their hands. 예수님은 지금 조롱을 당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학대를 당하고 계신다.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다 씌웠다. 흥미로운 일이다. 그 가시가 어디서 유래하였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 유래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인간에게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선언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 3:17,18). 가시는 저주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가시는 발달하지 못한 꽃봉오리라고 한다. 저주가 제거된다면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모든 가시들이 다시 한 번 꽃봉오리가 된다면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가시는 저주 받은 죄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 때문에 고난 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은 극히 적절한 일이었다. 죄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주로 인해 생겨난 가시를 그분의 이마에다 놓은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 후 군병들은 그분을 보고 희롱 조로 ‘유대인의 왕이시여’라고 말하며 그분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흉내를 냈다. 그러다가는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곤 하였다.

Pilate therefore went forth again, and said to them, Behold, I bring him forth to you, that ye may know that I find no fault in him (19:4).

Quite a confession because if he found no fault in Him, then why would he have Him scourged? It is thought that Pilate felt that the scourging would placate their bloodthirsty desire for His death. That they would be satisfied if He were subjected to this horrible torture of the scourging. According to the historians, many times the prisoners would not even survive the scourging. Many times they would bleed to death or die during this torture. He said, I’m bringing Him forth to declare to you, I find no fault in Him. Again God protecting the innocence of Jesus. Making sure that we know that He was innocent. That He was the innocent one suffering for the guilty. Judas said,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Matthew 27:4). Pilate said, I find

no fault in Him. Pilate's wife sent a message to him and said,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just man: I've suffered many things in a dream because of Him" (Matthew 27:19). And the thief on the cross said, He has done nothing amiss" (Luke 23:41). 이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이다. 만일 그가 그분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가 왜 그분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허용했는가 말이다. 채찍질을 하다 보면 그분을 죽이려 하는 저 피에 굶주린 폭도들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으리라고 빌라도가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분에게 그 끔찍한 형벌을 가하도록 내버려두면 저들의 마음이 흡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경우 죄수들은 그 채찍질을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많은 경우 그들은 그런 잔혹한 형벌을 받는 동안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고 한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변호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분은 무죄하신 자로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안다. 유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 27:4). 빌라도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언하였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마 27:19).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눅 23:41).

Then came Jesus forth, wearing the crown of thorns, and the purple robe. And Pilate said unto them, Behold the man (19:5)!

A man like Pilate had never met before. It's interesting as you read this story of Jesus before Pilate, it is more or less like Pilate is the one that is on trial here rather than Jesus. Jesus has sort of taken control. It says, Though He is in control which indeed He was of the events, Pilate was the helpless one. Pilate was the puppet. He was the one that was caught up in this whole movement and he was the helpless one. Jesus was the one who was in control. 빌라도 이런 사람을 난생 처음 취조하고 있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심문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인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신 듯이 보인다. 그분이 통제권을 가지고 일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반면, 빌라도는 무력한 존재처럼 보인다. 빌라도는 꼭두각시인 듯하다. 그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끼여서 움작달작을 못한다. 예수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When the chief priests therefore and the officers saw Jesus, they cried out, saying, Crucify him, crucify him. Pilate said unto them, Take ye him, and crucify him: for I find no fault in him. Then the Jews answered him and they said, We have a law, and by our law he ought to die, because he made himself the Son of God (19:6,7).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the Messiah would be the Son of God. Because the prophecy said,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s: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Isaiah 9:6). A scripture that they recognized as prophetic of the Messiah. A Son is given. God is giving His Son.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예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로 인정하는 책이었다.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게 되어 있었다.

When Peter responded to the question of Jesus, "Who do you say that I am? He sai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Matthew 16:15,16). When Jesus was being interrogated by the high priest, He said, Are you the Messiah? Jesus answered, You said it. He said, Are you then the Son of God? Because the Messiah according to their belief would indeed be the Son of God. And Jesus again answered, You've said it. The priest tore his robe and said, Why do we need any further witnesses? You've heard himself. You've heard from his own mouth the blasphemy. What do you say? They said, He is worthy of death" (Matthew 26:63-66).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5,16). ‘네가 메시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응수하셨다. 그는 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하고 물었다. 그들의 믿는 바에 따르면 메시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말했다: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이 어떠하뇨?’ 그들이 대답하였다: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마 26:63-66).

When Pilate though heard the claim of Jesus, he was even more afraid (19:8);

He was fearful of Jesus. He never had a man quite like this before. Behold the man! I believe he really admired Jesus.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서웠다. 그는 이전에 그런 인물을 대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보고 찬탄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And so he went again into the judgment hall (19:9),

Took Jesus back inside for further interrogation. 그는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 추가 심문을 하고자 했다.

and he said unto Jesus, Where are You from? But Jesus did not answer him. Then Pilate said unto him, Don't you speak to me? don't you know that I have the power to crucify you, and I have the power to release you (19:9,10)?

Here Pilate is really inditing himself because he's acknowledging, I have the power. I can have you crucified or I can release you. He's acknowledging that he possessed that power. Thus in allowing Jesus to be crucified, he has to take responsibility because he had the power to release Him. 여기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 달 수도 있고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그는 자기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그 책임 또한 져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었기 때문이다.

But Jesus answered [and His answer wasn't very comforting to Pilate 그런 이 대답은 빌라도에게는 크게 위안이 되는 게 아니었다], You could have no power at all against me, except it were given to you from above: therefore he that delivered me unto you has the greater sin (19:11).

You're sinning but they have the greater sin. Theirs is a sin against knowledge. Pilate really doesn't know quite what's going on. And theirs is the greater sin. 너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너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몰라서 짓는 죄가 있다. 빌라도는 진실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에 비하여 저들의 죄는 더 큰 것이었다.

And from that time Pilate sought to release Jesus: but the Jews cried out, saying, If you let this man go, you are not Caesar's friend: whosoever makes himself a king speaks against Caesar (19:12).

They're pulling out their trump card. They had already made complaints against Pilate. There had been official complaints against him. There wasn't any real love lost between the Jews and Pilate. There was a lot of irritation there. And another complaint to Caesar would put Pilate in bad light. They knew it. They knew that they had Pilate more or less over the barrel. They were playing their cards out well as they bring up the issue of Caesar. You will not be looked upon as Caesar's friend if you allow a man to claim Himself the King. 유대인들은 이제 비장의 무기를 빼어 들었다. 그들은 이미 빌라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빌라도에 대해선 공식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었다. 유대인과 빌라도 사이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 서로에 대해서 짜증만 많이 내고 있었다. 가이사에게 한 번만 더 호소한다면 빌라도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를 움작 달작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잘 요리하고 있었다. 가이사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When Pilate therefore heard that saying, he brought Jesus forth, and sat down in the judgment seat in a place that is called the Pavement, but in the Hebrew, Gabbatha. And it was the preparation of the passover, and it was about the sixth hour: and he said to the Jews, Behold your King! But they cried out, Away with

him, away with him, crucify him. Pilate said unto them, Shall I crucify your King? The chief priests answered, We have no king but Caesar (19:13-15).

Quite a statement for the religious leader of the people. Quite a statement. Quite a confession. You see, the chief priests were not really spiritual men. They were using religion for their own profit and their own gain. They were extremely wealthy men because they had learned a way to profit off of religion. Their king really was their desire for power, for money. Pilate realized that the charges against Jesus were just trumped up charges. They were fearful that if Jesus were allowed to continue to minister, that all people would go after Him. They would lose their power. They would lose their position. And so this acknowledgment, “We have no king but Caesar.” 종교 지도자가 한 말치고는 이견 엄청난 발언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이다. 고약한 고백이다. 보다시피, 이 대제사장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사실은,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왕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고소는 날조된 것일 뿐임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놔둔다면 머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좇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권력을 잃게 될 것이고 지위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런 성명(聲明)을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It's interesting that in the subsequent years, there did develop in Rome the deifying of the Caesar. Every year, a person would have to offer incense to the image of Caesar and declare that Caesar is lord. It was required of those in the Roman community. The Christians would refuse to acknowledge that Caesar was lord. It was a capital offense not to acknowledge Caesar as lord. Thus when the Christians would refuse to acknowledge that Caesar is lord, they would be put to death in very cruel and torturous ways. 후대에 이르러 로마에서 가이사 즉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사람들은 매년 황제의 신상 앞에서 분향하며 황제를 주님으로 선포하여야 하였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매우 잔인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가곤 했다.

There's a very interesting book called *Fox's Book of Martyrs* and he lists in his book the martyrs for Jesus Christ in the first few centuries of the church and many of the accounts tell of how that the executioner pleaded with the person to just say Caesar is lord because the executioner had pity on them and did not want to execute them. But the Christians would refuse to do so and millions of them actually went to their death for refusing to say that Caesar is lord. 팍스가 쓴 ‘순교자들’이란 책이 있다. 흥미로운 책이다. 그는 그 책에다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그 책 속 여러 군데서, 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말만 하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한편 그들을 구해주고 싶어서 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유를 따르기를 거절한다. 실제로, 수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죽음을 선택했다.

But here the chief of the Jews' religious system were saying, We have no king but Caesar. They refused to acknowledge the kingdom of God in their lives.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라. 유대 종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Then delivered he him therefore unto them to be crucified. And they took Jesus, and led him away (19:16).

The custom was, there were four soldiers that were given the duty of crucifying the person. The person was required to carry his own cross and there would be a soldier that would go in front of him holding a sign which was the accusation and the charge for which he was being crucified. They would go outside of the city because under the law they could not crucify them within the city but they would usually take sort of a circuitous route through the city to go outside so that more people could see the prisoner and see the charges against him to put the fear of the law in the hearts of the people. Three soldiers would march behind the

prisoner and they would make their way through the streets of Jerusalem and then out to the place called Golgotha, the place of the skull, where they would then nail him to the cross that they had carried and put the cross in the ground and the prisoner would hang there until he died. 관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 군사가 필요했다.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였으며, 한 명의 군사가 그 앞에서 행하며 죄목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아갔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였다.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십자가 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개 그들은 도성 안을 이리저리 한참 돌다가 성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이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와 그의 고통을 보여주어 그들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다. 세 명의 군사는 죄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거리를 돌아다닌 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장소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죄수가 지고 온 십자가를 세운 뒤 그 위에다 죄수를 달아 죽기까지 내버려 두었다.

The Romans would let the prisoner just hang there until they died of suffocation ultimately. And sometimes they would hang there for days before they would die. It was a horrible, torturous method of putting people to death. But the Jews had a law, interestingly enough, a law that dealt with hanging on a tree. 로마 사람들은 죄수를 십자가에다 단 후 질식사 할 때까지 내버려두곤 했다. 가끔 죄수들은 수일 간 거기 달려 있다가 죽곤 했다. 십자가는 사람을 처형하는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었다. 그러나 아주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것과 관계되는 한 율법이 있었다.

In Deuteronomy, chapter twenty-two, there was this law given that if a person was hanged that they should not allow them to stay overnight. In other words, they were to see that death came and they weren't to keep them overnight. Twenty-one, twenty-two: "And if a man has committed a sin worthy of death, and he be to be put to death, and you hang him on a tree: His body shall not remain all night upon the tree, but thou shalt in any wise bury him that day; (for if he is hanged on a tree he is accursed of God;) that the land be not defile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for an inheritance" (Deuteronomy 21:22,23). So if they hung a person on a tree, they were not to allow him to be there overnight and they were to bury him that day. It's interesting that the Jews to the present day have the custom of burying the person the day they die. Rabin was sort of a special case as they were waiting for all the dignitaries to get there. but it is traditional in the Jewish culture to bury the person, because of this scripture, the day they die. 신명기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와 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을 그 날 밤이 지나도록 거기다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것이 판명났으면 그 날 밤이 되기 전에 나무에서 끌어내리라는 것이다. 21 장 22 절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 21:22,23). 사람을 나무에 달라 처형하였다면, 그 시신을 밤새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 날 안으로 매장하도록 해야 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당일에 매장하는 관습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빈의 장례식은 예외였다.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매장을 하지 않고 기다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 문화에서는 고인을 죽은 그 당일에 매장하게 되는데, 이는 방금 지적한 성구 내용 때문이다.

Paul makes mention of this particular verse in Galatians as he is saying that "Christ suffered the curse for us: because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that hangeth upon the tree" (Galatians 3:13).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특이한 성구를 지적하며 언급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3).

So they led Him away to be crucified. Now the sign that the soldier would carry in front of the cross was then nailed on top of the cross above the prisoner's head so that everybody that saw them hanging there would know the charges against them. 어쨌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십자가보다 앞서 진행하는 군사가 메고 가던 팻말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 바로 머리 위에다 못으로 박아 놓았다. 그리하여 지나가던 사람은 누구나 다 그가 무슨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So Jesus bearing his cross went forth into a place called the place of a skull, which is called in the Hebrew Golgotha (19:17):

In Latin, it is Calvary. 라틴어로는 ‘갈보리’이다.

Where they crucified him, and two others with him, on either side one, and Jesus in the middle (19:18).

Greek, it's Calvary. Latin, this would be Cranium. 희랍어로도 ‘갈보리’인데, 이 말은 라틴어로 ‘두개골’이라는 의미이다.

And Pilate wrote a title, and put it on the cross. And the writing was [and this is the accusation 이것이 바로 죄명이었다],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This title then read many of the Jews: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o the city: and it was written in Hebrew, and Greek, and Latin. Then one of the chief priests of the Jews came to Pilate and said, Don'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at he said he was the King of the Jews.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19:19-22).

It's interesting, Pilate is real adamant in this, in a minor thing. The major thing was he gave in on the major thing and that was the crucifixion. Here on the minor thing, he's holding tough. And it's an inconsistency that we often see in life. People can allow major. Like Jesus said, "You strain at a gnat, but you swallow a camel" (Matthew 23:24). And that's quite often the case with people. They hold tight on little non-consequential issues but on major issues, they cave in. So "Pilate decla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흥미로운 것은, 빌라도는 이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결단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사항은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양보를 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소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가 끝까지 밀고 나아갔다. 이런 부조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사람들은 곧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 23:24). 사람들은 아주 자주 그렇게 처신한다. 그들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만다. 본문에서도 그랬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The soldiers, when they had crucified Jesus, took his garments, and they made four parts, to every soldier a part (19:23);

As I said, there were four soldiers involved in getting the prisoner from the judgment hall out to the place of crucifixion. And thus, there were five parts to the Jewish garment and each one threw dice for which part he would get. But then they came to the tunic, the robe and it was special. Now generally, they just cut it in four pieces and the guy would get a fourth of it. But they said, This is too nice to cut. Let's go ahead and throw dice to see who gets the robe. And so they cast lots to see who would get the robe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is again was the fulfillment of prophecy in Psalm 22. It declared, "They will part my garments among them, but for my vesture they will cast lots" (Psalm 22:18). That was written a thousand years before the crucifixion of Jesus. 내가 앞서 얘기한대로, 죄수를 재판 법정에서 끌고 나와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는 데는 네 명의 군사가 필요했다. 유대인의 옷은 다섯 조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 군사들은 각자가 그 중 어떤 조각을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주사위를 던졌다. 그런데 속옷이 문제였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속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고 한 사람이 그 하나씩 취하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 옷은 찢어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한 사람이 다 갖기로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가질 자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서 다시 흥미로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 시편 22 편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저희가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 22:18). 이 성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A note here,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o the city. Today in Jerusalem, across from the wall of the city that goes between the Damascus gate and Herod's gate, there is across the valley there a short distance of maybe two hundred feet, the side of the mountain which was Mount Moriah. Because the temple was built on the site of Mount Moriah. It is the top really of Mount Moriah, the valley has been formed because of a quarry, the stones there are just naturally sort of in stratum and they made great building

stones because they were flat and lying in strata. So all they had to do is drill holes, put the wooden pegs in and soak the wooden pegs until they swelled and they could split these rocks. They used them for Solomon's temple and they used them for much of the building in Jerusalem. Herod used the stones and there was this large quarry in this particular area on the north side of the city of Jerusalem because it did lend so well to making building blocks. And thus this valley was formed.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 도성 근처라는 점이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 보면, 다메섹 문과 헤롯 문 사이의 성벽 맞은 편 골짜기 건너편으로 200 피트쯤 되는 짧은 거리에 모리아 산이었던 산록이 있다.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다. 성전은 원래 모리아 산 꼭대기에 건립되었으며, 골짜기는 채석장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거기 있는 돌들은 원래부터 층으로 쌓여져 있었으며, 대단한 건축 자재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평평하게 층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석수들은 그저 구멍을 뚫고 거기다 나무 못을 박은 뒤 물을 붓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무가 팽창하여 마침내 그 돌들이 쪼개졌다. 그런 돌들을 사용하여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상당 수도 그런 돌들을 사용하여 지은 것이었다. 헤롯도 이 돌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지었다. 예루살렘 도성 북쪽의 이 특정 지역에는 큰 채석장이 있었다. 거기서는 건축 자재가 아주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골짜기가 형성되게 되었다.

Originally, Abraham's time, it was just a straight mountainside up to the top but when Jerusalem became then a city, this was the area where the stone was quarried for the city and it's quite easy to see when you are there. On the wall, as you look at the wall from the street side, the modern street side, you see that the bedrock goes way on up. You can see that the actual natural hillside, the wall was built on top. And then you can look over the other side where the top of Mount Moriah is and you see the same thing that the cliff there has been formed as a result of the quarry. The side of the mountain has the appearance of a skull. It looks like the eyes and the nose, the bridge of a skull and many believe that that is the place of the skull or Golgotha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a skull there on the side of the mountain. Very possibly the actual site of the crucifixion of Jesus. If so, then people on the wall of the city of Jerusalem, looking across could see Him hanging there and of course, could hear Him as He uttered His seven sayings from the cross. 원래 아브라함 시대에는 산 꼭대기까지 산줄기가 곧장 뻗어 있었던 것인데, 예루살렘이 도시가 되고 나자 이 지역은 그 도성 건설에 쓸 돌을 캐내는 곳이 되었다. 그곳에 가면 쉽게 그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벽에 올라 도성 거리를 내려다 보면, 현대식 거리를 쳐다보노라면, 돌을 캐낸 자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릉지 위에도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이다. 모리아 산이 있는 건너편을 쳐다보면, 돌을 캐낸 결과로 절벽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허리는 앙상한 해골 모양을 하고 있다. 눈도 있고 코도 있으며 마치 두개골을 연결해 놓은 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해골의 곳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산록에 해골 모양의 것이 있어서 이곳이 골고다 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랐던 사람들은 건너편을 쳐다보다가 거기에 달려 있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서 토로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The place there is right next to an ancient garden, a garden that was replete with cisterns and all for the watering of the plants and the garden was also a place where in the rock wall they had hewn out certain tombs. I say that because as we get to the end of the chapter it says, "Now in the place where He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sepulcher, wherein never man had been laid. And they laid Jesus therefore because the Jews' preparation day; and the sepulcher was close at hand" (19:41,42). Many believe that what is today called the garden tomb is indeed the garden that was nea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and that that is actually the site of Golgotha, it does have a lot of merit to that.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옛날의 동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동산에는 우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동산 식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산에는 또한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들이 있었다. 이 장의 끝에 가면 이런 성구가 나온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 19:41,42). 오늘날, 동산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옆에 즉 골고다 옆에 있던 동산 안의 무덤이라고 여러 사람들은 믿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믿을 만하다.

So the prophecy was fulfilled as they did not tear His robe but they cast lots,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은 것은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다.

And thus the scripture fulfilled, They parted my raiment among them, and for my vesture they did cast lots. These things therefore the soldiers did. Now there stood by the cross of Jesus his mother, and also his mother's sister, and Mary the wife of Cleophas, and Mary Magdalene (19:24,25).

Four ladies standing by the cross. First of all, His mother Mary. You remember when Mary and Joseph brought Jesus into the temple to present Him to the Lord and this godly man who served the Lord was promised by God that he would not die until he had seen the Lord's salvation, the Messiah. When Mary and Joseph brought Jesus then, he lifted Jesus up and he said, Now Father, let Thy servant depart in peace for I have Your salvation. And then he turned to Mary and he prophesied to her of the greatness of her child but he said, A sword shall pierce also through your heart (Luke 2:25-35). And I'm certain that as Mary was standing there watching her Son being abused and crucified that a sword pierced her heart as she stood there watching Him. 당시 십자가 옆에는 네 명의 여인들이 서 있었다.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주께 바치려고 성전을 찾았을 때, 주님을 섬기던 한 노인이 살아 생전에 주님의 구원을 즉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노인은 아기를 번쩍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그는 마리아를 향하여 그 아기의 위대함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눅 2:25-35). 나는 확신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찌르듯이 아팠을 것이다.

Mary's sister was there. From the other gospels we know that it was Salome. Salome happened to be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which means that James and John were cousins to Jesus. Their mother was the sister of Mary. So they had known Jesus probably then from childhood because they were cousins to Jesus. She was there plus Mary, the wife of Cleopas. We know that one of the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when Jesus appeared after His resurrection, one of them was named Cleopas and so this perhaps was his wife. And of course, Mary Magdalene and what we know about her is that Jesus had cast seven devils out of her. She was from Magdala, that little village on the shores of the Galilee. Her life was miserable, she was tortured prior to meeting Jesus and she was devoted completely to Him because He had set her free. And she just followed Him and was totally devoted to Him. So the four women and we know that John, the disciple, was there. 마리아의 여동생도 거기 있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간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의 자매였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았을 것이다. 서로 사촌 간이었으니 말이다. 그 다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서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였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닌가 한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여인이다. 그녀는 갈릴리 연안의 한 작은 마을 막달라 출신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비참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고난을 당했으나 예수님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신 후에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이렇게 네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서 있었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제자 요한도 거기에서 있었다.

When Jesus therefore saw his mother [standing there, no doubt weeping 분명히 거기 울면서 서 있었을 것이다], and the disciple standing by her, whom He loved (19:26),

Again, it's interesting, John is talking about himself but he doesn't call himself by name, he just refers to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And we get this distinction concerning John. He's called John the beloved and we are told that he is the disciple that Jesus loved but we are told that only by John. We're not

told that in any of the gospels. It was just John sets that up for himself and says, I'm the disciple that Jesus loved. I believe that John no doubt felt that Jesus loved Him more than the others. And I believe that Peter probably felt that he was loved by Jesus more than the others, as did Matthew and the rest of them. I believe that Jesus had a way of dealing with people that every one of them felt special. They every one of them felt that Jesus was going to make them one of the chiefs in the kingdom. Because they were always arguing over that. Why would they argue over that but what they all felt that I'm special to Jesus.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ey were all right. They are all special. And you are special. It's important though that you know it. To refer to yourself, I'm the one that Jesus loved. You're right. He loves you. You're special to Him and He wants you to know that you're special to Him.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do know that. You're very special to the Lord. There's no one in the world like you, as far as He is concerned. You're very special to Him. He loves you and He wants you to know that. John came to that recognition. I'm the disciple that Jesus loved.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면서도 그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요한은 이런 표현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내가 바 있다. 그는 사랑 받는 요한으로 불려졌으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졌지만, 그런 명칭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하고 다녔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믿었을 것이며 마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하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기에 모든 제자들은 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왜 그들이 그렇듯 논쟁을 벌였을까? 그들 각자는 자기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느낌은 실은 모두 옳은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 그것은 옳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며 그분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주님께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그분의 눈으로 보는 한, 세상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은 그분께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요한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He said to his mother, Woman, behold thy son (19:26)!

He's not saying, Look at Me! But He is indicating John at this point. 예수님은 나를 보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And He said to the disciple, Behold your mother (19:27)!

In other words, He is saying, Okay John, take care of her. Watch over her. The relationships that we have in Christ are often far closer than the human relationships that we have in our family. The brothers of Jesus at this point did not believe in Him. They did not believe until after His resurrection. And so there was a closer bond between John and Mary because of their common belief in Jesus as the Messiah. So John is commissioned by Jesus to take care of Mary. And John tells us,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다. 그렇다. 요한아, 이 분을 돌봐 드리거라. 그분을 지켜드려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된 관계가 우리의 인간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밀접할 때가 종종 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친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믿었다. 요한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봐 드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것이다. 다음 구절을 읽어 보라.

from that hour that disciple took her unto his own home (19:27).

He took the commission of Jesus to take care of Mary. 요한은 마리아를 돌보라는 직임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After this (19:28),

That is, after taking care of the final filial relationships, taking care of His mother, now He enters into the

spiritual dimension and aspects of the cross. “After this,” 다시 말하면, 자식 된 도리를 마지막까지 다한 후에. 어머니를 돌봐드리도록 부탁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대하셨다. “이 후에.”

Jesus knowing that all things were now accomplished (19:28),

The purposes of God are being fulfilled.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아시고.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He said, I thirst (19:28).

In Psalm 69:21, it declares that “They gave me vinegar to drink in my thirst.” That was the prophecy concerning the Messiah and so in order that it might be fulfilled, Jesus said, “I thirst.” 시편 69:21 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 “(시 69:21)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Now there was a vessel full of vinegar that was set there: and they filled a sponge with vinegar, and put it upon hyssop, and put it to his mouth.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he said, It is finished (19:29,30):

There was one little item of prophecy that had not yet been fulfilled and so Jesus said, I thirst, get that final item set and now that that’s accomplished, now that He tasted the vinegar, that scripture is fulfilled and so He said, It’s finished. It’s completed. It’s done. The prophecies are fulfilled.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말이다.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19:30).

Or gave up the spirit. It’s a definition of death that is accepted today. When a person no longer has any brain activity, the heart can still keep pumping artificially but when the brain goes flat, the spirit is departed and a person is considered dead. And so He gave up His spirit. Luke’s gospel tells us that He sai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Luke 23:46). And “He bowed his head and dismissed His spirit.” Jesus had said,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I give my life. For I have the power to lay down my life, and I have the power to take it up again” (John 10:18).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That sort of puts an end to that debate that’s been going on through the years as who is truly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Jesus: the Romans or the Jews? Jesus said, No man takes my life from me. I give my life. I have the power to lay it down. I have the power to take it up again. And so Jesus dismissed His spirit. 그리고는 그분의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정의로서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표현이다. 어떤 사람의 두뇌가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을 때, 인공적으로 심장을 작동시키지만 두뇌가 정지했다면, 그 영혼은 떠나간 것이며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혼도 떠나갔다는 말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다고 한다 (눅 23:46).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요 10:18). 그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오래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로마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그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내 생명을 버린 것이다. 나는 그것을 버릴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 것이었다.

The Jews therefore, because it was the preparation, that the bodies should not remain upon the cross on the sabbath day (19:31),

We already looked in Deuteronomy twenty-one there, and saw that it was the Jewish law that they weren’t to leave them hanging but were to bury them the same day. “That the body should not remain upon the cross on the sabbath day,” 우리는 앞에서 신명기 21 장을 살핀 적이 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법이 죽은 자를 밤새도록 매달아두지 말고 그 날로 묻어라 고 명하고 있다. “그 시신을 십자가에 달아 안식일을 지나게 해서 안 되느니라.”

(for that sabbath day was a high day (19:31),)

The first day after passover was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atever day it fell on, was a sabbath day and was to be treated as a sabbath day in that all of the laws that pertain to the sabbath day were fulfilled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us it was a high sabbath day. It is my belief that Jesus was crucified on a Thursday, rather than on the traditional Friday. That, that Friday was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 thus the high sabbath day or the holiday of unleavened bread. The following day, Saturday, was the common weekly sabbath day so that His body then remained in the grave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according to His own prediction. I think that the fact that John points out that that sabbath day was a high day, he points out that it was a special sabbath day, not the regular weekly sabbath but the sabbath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유월절 후 첫째 날은 무교절의 첫 날이었다. 무교절의 첫 날은 그 날이 무슨 요일이든지 간에 안식일로 지켰으며 안식일처럼 그 날을 지내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을 무교절의 첫 날에도 그대로 지켜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 날은 큰 안식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목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금요일은 무교절의 첫 날 즉 큰 안식일이었으며 무교병을 먹는 축일이었다. 그 다음 날 즉 토요일은 통상적인 안식일로서 그 날까지 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분 자신의 예언처럼 무덤 속에서 3 주 3 야를 보낸 것이었다. 요한이 본문에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 날이 통상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무교절의 안식일이었다는 것이다.

In the Jewish calendar, the day begins at sundown. So Jesus had the feast of the passover with His disciples on Wednesday night. The passover would go until Thursday night sundown. Then as I pointed out, Saturday would be the sabbath day and then Sunday He rose from the dead, the first day of the week. That's just my opinion and you can take it or leave it.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한 날은 일몰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요일 밤을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며 보내셨다. 유월절은 목요일 일몰 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지적하였듯이, 예수님은 토요일이 지난 후 즉 통상적인 안식일이 지난 후 일요일에 즉 그 주의 첫 날에 부활하셨던 것이다. 이런 계산법은 내가 제창한 것으로서,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So in order to hasten the death, they would take a mallet and they would break the legs of the prisoners. They would crush the bones and it would just bring on death. And because they didn't want the bodies hanging there on the sabbath day, they came with the mallets and they broke the bones of the thieves that were crucified with Jesus.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하여 군병들은 곤봉을 가지고 치기도 했으며 죄수의 발을 꺾기도 했다. 그들은 뼈를 부스러뜨리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죽음을 재촉하게 되었다. 시신들을 안식일까지 나무에 매달아두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곤봉을 가지고 왔으며 예수님과 함께 달린 도적들의 뼈를 부수었다.

But when they came to Jesus, and saw that He was already dead, they did not brake his legs: But one of the soldiers with a spear pierced his side, and there came forth blood and water (19:33,34).

There is a sac around the heart and when the heart ruptures, it fills with fluid and with blood. And there are doctors who have ascertained that Jesus died actually of a ruptured heart and that when the soldier pierced His heart, the idea was to make sure that He was dead. He appeared to be dead. Make sure, thrust the spear through His heart. And as he hit the little sac around the heart, the watery fluid with blood came forth and it's perhaps a good hint to us of His cause of death, a ruptured heart. 심장 주변에는 액낭(液囊)이 하나 있는데 심장이 파열되면 그 주머니에 물과 피가 가득 차게 된다. 예수님은 실제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군병들이 그분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분은 죽은 듯이 보였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분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심장 주위에 있던 그 작은 액낭이 터지면서 물 같은 액체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로 보건대 그분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 할 것이다.

This is all a part of God's plan, because these things were done that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였기 때문이다.

Because these things were done, that the scripture should be fulfilled, A bone of him shall not be broken (19:36).

That was prophesied in Psalm 34:20 and in Numbers 9:12. 이런 예언은 시편 34:20 과 민수기 9:12 에 기록되어 있다.

And there is another scripture that says, They shall look on him whom they have pierced (19:37).

That's in Zechariah chapter twelve. So these things were not just done happenstance. This was just not the capricious action of a Roman soldier. This is a part of God's divine, ordained plan that God wrote about over five hundred years and over a thousand years in advance of the actual happening. It's like us sitting down and writing about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to a man who will be on the earth a thousand years from now or five hundred years from now and start giving details of how this person is going to be put to death. And add all of these little extra interesting kind of details and then have it come to pass five hundred years later. You see how impossible that would be. It proves that the scriptures are divinely inspired by God and it proves that Jesus indeed was the promised Messiah. No one else could fulfill these prophecies or have fulfilled them, only Jesus. 이것은 스가랴 12 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예정된 계획의 일부였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500 여 년 전에 아니 일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이는 마치 지금 자리에 앉아서 향후 일천 년 후에 또는 오백 년 후에 지상에 태어나게 될 사람에게 발생할 일을 기록해 두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그 모든 일어날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오백 년 전에 흥미진진하게 기록한 뒤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하겠다.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거룩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라는 점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그 누구도 이런 예언들을 성취시켰거나 성취되게끔 할 수 없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Now after this Joseph of Arimathaea, being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for fear of the Jews (19:38),

We were told earlier that there were many among the Pharisees who believed in Jesus but secretly because they feared the Jews because the Jews had already decided that if anybody believ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not be allowed in the synagogue. And so there were these secret disciples and it's interesting how that His disciples had forsaken and fl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Smit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Zechariah 13:7). So they had fled. But here now, the secret disciples step forward. 우리는 앞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비밀리 믿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있었다. 본문에 나오는 은휘하던 제자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그 모두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슥 13:7).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그런 연고였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비밀리에 믿던 제자들이 드러나게 행동을 취하고 있다.

Again that's interesting and it's a lot like human nature. There are some people who in minor things fall apart but in major things, they really stand out. My dad was that way. He could take any kind of a major catastrophe and handle it well. But the little things would drive him buggy. He could get irritated over the smallest things. But let something really major happen and man, he was just the man of the hour. He was cool, he was collected, he was able to just handle things and direct traffic and everything else. But it was just the little things that he couldn't handle in life. 이것 역시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흡사하게 그려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조그만 일에는 뒤로 물러가다가도 큰 일을 당하면 홀연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부친이 그랬다. 그분은 중대한 일이 터질 때마다 앞장 서서 차분하게 일을 잘 처리 하곤 하였다. 그러나 작은 일이 터질 때면 그분은 공연히 흥분을 하곤 했다. 극히 작은 일인데도 안절부절못하였다. 하지만 진짜 중대한 일이 터지기만 하면 그분은 그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한편 교통 정리까지 깔끔히 해치우는 분이였다. 그러나 인생에서 당하는 작은 일들은 그분이 도무지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Here's Joseph of Arimathaea, a secret disciple because of the fear of the Jews. But here at this time, he steps forward. He goes to Pilate and,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있다.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비밀리 제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때를 당하자 그는 과감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청했다.

Asks permission to take away the body of Jesus (19:38):

Pilate was surprised that Jesus was already dead. He inquired of the centurion and he was confirmed by the centurion to be dead and so, 빌라도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백부장에게 물어보았다. 백부장은 그가 죽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he gave Joseph the body of Jesus. And there came also Nicodemus (19:38,39),

We know that name back in John chapter three. He was a ruler of the Jews, he was among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he was of the Sanhedrin, that is the religious ruling class. He came out also. He was the one, John tells us, 우리는 요한복음 3 장에서부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공회원들 중의 일원이요 종교적인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도 앞으로 나아왔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었다.

who came to Jesus by night, and he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a hundred pound weight (19:39).

That would not be a hundred pounds our pounds, but this was a measure of weight that was translated pounds.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형으로 환산하면 100 파운드가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Then they took the body of Jesus, and wound it in linen clothes with the spices, as the manner of the Jews is to bury (19:40).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다 (19:40).

They would take this linen cloth and they would wrap it around the body. Around and around and around. And they would put the spices in between the wrappings. They would wrap it and then lay spices and wrap it and all. That was their traditional way of embalming a body, so to speak, before they put it in the sarcophagus or the tombs, which were of limestone. The reason why they were called sarcophagus is that the limestone does cause the flesh to disintegrate very quickly. Sarcophagus in Latin is flesh eater. So a sarcophagus would be used over and over again because they would eat up the flesh very rapidly and so you could put the next generation in the same sarcophagus. So they were quite handy burial places. And so they "wound it in the linen clothes with the spices, as the manner of the Jews is to bury." And then John tells us, 그들은 그 세마포를 가지고 시신을 싸다. 두르고 또 두르고 또 둘렀다. 그러면서 세마포 사이 사이에다 향품을 넣었다. 향품을 넣고 두른 다음에 꼭꼭 싸다. 그들은 석회로 된 석관(石棺)에다 즉 무덤에다 매장하기 전에 향을 넣어 시신을 입관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좇아서 그리 했다. 그것을 석관이라고 부른 이유는 석회가 시신을 아주 신속히 썩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틴어로 석관은 '고기를 뜯어먹는 자'란 의미이다. 그 석관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석관에다 넣으면 시신이 아주 신속히 부패하게 되므로 다음 세대의 사람을 그 동일한 석관에다 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석관은 매우 편리한 매장도구가 되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그 다음 구절을 보라.

Now in the place where He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sepulchre, in which was never a man yet laid. There they laid they Jesus therefore because of the Jews' preparation day; for the sepulchre was nigh at hand (19:41,42).

I trust that you'll be able to go to Jerusalem with us. We're going again in February. It's very graphic to

sit there in the garden and to look on the hill above you, see the red poppies there on the hillside and realize that that is very possibly the site where the cross was and the garden tomb that you see down in front of you is quite possibly the tomb in which Jesus was laid for the three days. We describe it as best we can with words but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nd I think just sitting there is worth ten thousand words as you just can get the whole picture of the place where He was crucified, the garden nearby and in the garden, the tomb where He was laid. So let's pray that God will provide for you. It's a trip of a lifetime. One that will leave lasting impressions. It's worth a year of seminary, at least, just to be there. 나는 우리가 다 함께 예루살렘을 가 보게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오는 2월에 한 번 더 갈 예정이다. 거기 동산에 앉아서 건너편 언덕을 쳐다보면 매우 생생한 그림이 펼쳐진다. 붉은 양귀비가 출렁이는 구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장소였을 것이며 눈 앞에 바짝 다가와 보이는 동산의 무덤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흘 간 누워 계셨을 장소이리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거기 앉아 있노라면 일만 마디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장소, 그 근처의 동산과 동산 안의 무덤 등을 세밀히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여행이 될 것이다. 그 여행에서 얻어진 감명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거기 한 번 가 보는 것은 일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Father, we thank You again for the love that You manifested towards us when You allowed Your Son; in fact, You sent Him to fulfill all of the prophecies knowing that He would be despised and rejected, knowing that He would be physically abused, knowing that He would be submitted to the tortures of the scourging and the tortures of the cross. And yet Lord, Your love for us is so great that You were willing to give Your only begotten Son in order that He might make possible our coming to You and fellowshiping. O Lord, our Lord, how excellent in Your name in all the earth! How marvellous are Your works, how infinite Your love. Lord, we love You and we thank You that You first loved us and gave Your Son for our redemption. Thank You, Jesus, that You were willing to obey the Father, go to the cross and make the way to eternal life. Lord, help us that we might adequately express our love to You by our deeds and by our actions. Not hoping that through them we can be saved but Lord, just letting them b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for what You have don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 보여주신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당신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물리적으로 학대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도 크므로 당신은 흔쾌히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께로 다가가서 당신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시여, 온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당신의 행사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당신의 사랑이 어찌 그리 무한한지요! 주여,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시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당신께서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당신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여, 그것은 당신께서 하신 일에 대한 단순한 표현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John 20

John 20
Tape #8088
By Chuck Smith

To the twentieth chapter of John as we continue our journey. Next Sunday night, we'll finish the gospel of John and then we'll launch into the book of Acts. So John chapter twenty. 우리의 여행을 지속해서 요한복음 20 장에 도달하였다. 다음 주일 밤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20 장을 살펴보자.

The first day of the week [that will be Sunday morning]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 아침에 해당할 것이다] *cometh Mary Magdalene early (20:1)*,

The word translated “early” there is the word for the fourth watch, the Roman soldiers had the night set up into four watches. The first watch went from six to nine, then nine to twelve, twelve to three, the fourth watch was from three to six in the morning. So early in the morning, 여기서 “이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 4 경을 말한다. 로마 군인들은 밤을 네 개의 시간 단위로 나누었다. 제 1 경은 6 시부터 9 시이고, 2 경은 9 시부터 12 시, 3 경은 12 시부터 3 시, 그리고 4 경은 아침 3 시부터 6 시에 해당했다. 아침 일찍 즉,

when it was yet dark, unto the sepulchre, and seeth the stone taken away from the sepulchre (20:1).

In reading the various gospel accounts concerning the resurrection day, there do seem to be discrepancies in the accounts. In some of the other gospels, they have Mary Magdalene coming with the other ladies. In the other gospels, they have the other ladies on their way back from the tomb, meeting Jesus, holding Him by His feet and worshipping Him. So what probably is the chronological events on Easter Sunday morning is that Mary started off with the other ladies for the tomb. In her eagerness and desire to get there, she went ahead of the other ladies. When she came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was rolled away, her immediate surmised was that they had moved the body of Jesus. She, without waiting for the other ladies to get there, ran to tell Peter and John that the body of Jesus was moved or that the stone was away from the door of the sepulcher. The other ladies then arrived. They saw the angels who told them that Jesus was risen and told them to go tell the other disciples. In the meanwhile, Mary arrives where Peter and John are staying and she tells them that the stone is rolled away. They come to investigate. They are running. In fact, we'll read that tonight as John tells us that they were running to the tomb together and that Mary no doubt decided to come back to the tomb. But by the time she got back, of course, Peter and John saw the tomb and then they left. Mary then came back, not knowing that the other ladies had seen the angels, and at this time she looks into the tomb, sees the two angels and then meets Jesus as we will read in John's gospel. 부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음서 기사를 읽어보면, 그 기술(記述)에 서로 상이한 듯이 보인다. 몇몇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왔다고 되어 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활 주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시간적으로 나열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무덤에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성급 함에서, 그녀는 다른 여자들보다 앞서 달려 나아갔다. 그녀가 무덤에 도착하여 돌이 굴러진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즉각적인 추측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 버렸다는 것이었다.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갔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며 돌이 무덤 입구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였다. 그때쯤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면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에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돌이 굴러가 버렸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달려갔다. 오늘 밤 우리가 읽게 될 요한복음의 내용에 의하면,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으며 마리아도 물론 무덤으로 다시 가 보기로 하였다. 그녀가 무덤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무덤에 왔다가 떠나버린 뒤였다. 다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사건을 모르는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So that's probably the chronological events which really there is not then a discrepancy with the other gospel accounts. So let's look at John's account as we have started. Then, when she saw that the stone was taken away from the sepulcher, that's all she saw and the surmised was, They've moved Jesus.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면 아마도 위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상반되는 내용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기왕 우리가 시작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무덤으로부터 돌이 옮겨진 것을 본 마리아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옮겨간 줄로 추정하였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하였다.

So she ran, and came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John], whom Jesus loved (20:2),

As we mentioned, John is the only one that describes himself that way. You don't read that in the other gospels. It's only in the gospel of John that you read,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And John knew that the Lord loved him. I believe that he believed that the Lord loved him more than anybody else, like I'm sure He loves me more than the rest of you. And you are sure that He loves you more than He does the rest of us. The Lord has that unique way of relating to us where we each one of us feel very special to Jesus because we are each one of us very special to Him.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표현한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란 말을 읽을 수 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있었다. 요한은 주님이 자기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실제로도, 우리 각자는 그분에게 있어서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and she said unto them, They have taken away the Lord (20:2)

This is just a surmised on her part. This is just her observation and her immediate judgment of the situation. "They've taken away the Lord," 이것은 마리아 혼자만의 추측일 뿐이다. 발생한 사건을 살펴본 뒤 그녀가 즉각적으로 내린 판단은 이러했다: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out of the sepulchre,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laid him. Peter therefore went forth, and that other disciple, and they came to the sepulchre (20:2,3).

John has to get in a little bit here. He said, 요한은 여기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한다. 그는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So they both of them ran together: and the other disciple outran Peter, and he came first to the sepulchre. And he stooping down, and looking in, saw the linen clothes lying; yet he went not in. Then cometh Simon Peter following him, and he went into the sepulchre, and seeth the linen clothes lie, And the napkin, that was about his head, not lying with the linen clothes, but wrapped together in a place by itself (20:4-7).

The Greek language here would indicate that the linen wrappings were still in their folds. That it was as though He just sort of evaporated out of. If you were going to unwrap somebody, you would unwrap him. But the wrappings were as though the body were still in it, they were still in their folds but the body of Jesus was not inside of the wrappings. The napkin that they had over His head was over in a place separate by itself. So they realized that the body of Jesus was not there, that He was not under the wrappings.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 마치 그분이 방금 증발해 없어진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의를 벗기고자 한다면, 그것을 풀어 제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마치 몸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세마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라고 말한다. 그분의 머리에 씌워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으며 그분은 수의에 싸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John, it would appear immediately caught the significance of it. He realized that they hadn't moved the body of Jesus. Had they moved the body of Jesus, they would have moved it with the wrappings. Or at least

the wrappings would be all disheveled on the floor. But the way the linen wrappings were, he immediately realized that Jesus had risen. And so it says, 요한은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즉시 알아챘던 듯하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만일 시신을 옮겨간 것이라면, 그들은 수의에 싼 채로 옮겨갔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수의가 땅바닥에 널려져 있든지 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세마포 수의가 놓여진 형태로 보아 요한은 즉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Then went in also that other disciple, which came first to the sepulchre, and he saw, and believed (20:8).

He immediately perceived what the meaning was. 그 제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For as yet they knew not the scripture, that He must rise again from the dead (20:9).

That's of course an interesting thing. It shows the blindness of preconceived ideas. Jesus had told them over and over that He was to be crucified. When Jesus spoke of His crucifixion, Peter rebuked Him. Don't want to hear that! And it's interesting when you don't want to hear something, how you can just sort of close that out of your mind. You believe that you have a precept that is correct. The Messiah is going to rule and reign over the earth. That is a correct precept. But He did not come in His first coming to rule and reign. In His second coming, He will come to rule and to reign. 물론 이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선입견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 차례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충고까지 드렸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마음 문을 닫아 버리면 그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분은 초림 시에는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재림 시에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But they thought that the reigning Messiah was the only Messiah. They had sort of spiritualized the prophecies of His suffering. And so this idea of Him ruling was so strong in their minds that they even dismissed it everytime Jesus talked about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At the last part of this chapter, John tells us that Jesus did many other signs which He did not record. But these are written, in other words, John was selective in choosing the miracles and all that Jesus did. This happens to be the seventh sign that John records and the greatest sign of all, the resurrection of Jesus from the dead. 그들은 다스리는 메시아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분의 고난에 대한 예언들을 영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개념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뒷등으로 들곤 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이적도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모든 일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본문은 요한이 기록해 놓은 7 번째의 이적인데, 모든 이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기적이기 때문이다.

When Jesus began His public ministry, He began it by going to Jerusalem and cleansing the temple. You remember He went in and looked about and saw them as they were merchandising there, He made a little whip out of some cords. He began to drive them out and the disciples remembered the scriptures, The zeal of Thine house has eaten Him up. And the rulers came to Him and said, What sign do you show us that You're doing these things? Who gave you the authority to come in here and clean up this place? What sign do You give us? And Jesus said unto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ebuild it. They looked at Him rather incredulously and they said, We've been forty-six years building this thing and You say You're going to built it again in three days? We are told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He was talking about His body (John 2:13-21). The temple of His body. Destroy it and in three days, I will rebuild it. He's talking about His resurrection. That was at the beginning.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써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그분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다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분은 저들을 내어쫓기 시작하셨으며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회고하였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합니까? 이곳으로 들어와 이곳을 청결케 할 권세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만에 그것을 다시 지으리라. 저들은 그분을 어이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 건물을 46년째 건축하고 있는데, 당신의 말은 이것을 3일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자기 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 2:13-21). 이것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몸 된 성전을 지칭하는 말씀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은 공생애 초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But the disciples did not catch on.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Later on when Jesus was asked for a sign, He said, "A wicked and an adulterou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so sha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Matthew 12:39,40). The supreme sign of Jesus as the Messiah, that He is indeed the Messiah is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and that is the heart of the Gospel message.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후에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 12:39,40).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최고의 표적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표적은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실인데, 이것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As we go into Acts in just a few weeks, you will see in the book of Acts that in practically every message that was preached, they preached the resurrection of Jesus from the dead. "You with your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hat He could be held by it" (Acts 2:23,24). Every time they preached, their preaching was of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that's the heart of the Gospel. So as Paul is writing to the Corinthians, he said, "The gospel that we preach unto you, how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was buried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rose again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inthians 15:1-4). That's the message of the Gospel. That's the heart, the soul of the Gospel. So here is the story of the resurrection. 이제 몇 주 후면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 책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선포한 거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행 2:23,24).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 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전 15:3,4).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진수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부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Now in the book of Acts chapter one, it tells us that "He showed Himself alive after His death by many infallible proofs" (Acts 1:3). And thus the resurrection. As far as the disciples were concerned was a proved fact because they were eyewitnesses, they saw Him. So the story of the resurrection. "Yet they knew not the scriptures, that He must rise again from the dead." They really thought it was over. They weren't waiting for the third day, anxiously, Alright, tomorrow, that's it, man. They weren't waiting for that. They really thought it was over. As far as they were concerned, it's done, it's over. We had hoped in Him for the salvation of Israel. But they put Him on a cross and this is the third day. And they said, Some of the women said that they saw Him but, you know. And Jesus said, "O fool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scripture says"

(Luke 24:25). They believed only part of what the scripture said. They only believed the part of the ruling, reigning Messiah but they didn't believe that part that He would be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and bruised for our iniquitie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That God would lay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And that He would be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in His death (Isaiah 53:3,5,6,12). And they would pierce His hands and His feet. "They would part His garment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His vesture" (Psalm 22:18). They didn't believe all that the scriptures said, only part. 사도행전 1 장에 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행 1:3). 그러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을 본 사람들이요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참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바심이 생겨서 제 3 일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다: 내일이면 다 끝장이야. 그들은 3 일 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모든 게 끝난 줄로 알았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끝장이 나 있었다. 모든 게 끝난 것이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이 제 3 일이다. 몇몇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분을 보았다고는 하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눅 24:25). 그들은 성서가 말하는 내용의 일부분만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메시아만을 믿었을 뿐,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은 믿지를 않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사 53:5,6).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게 되었다" (사 53:12). 사람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찔렀다. "저희가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예비뵈나이다" (시 22:18). 그들은 성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일부분만을 믿고 있었다.

Now we read that,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된다.

The disciples then went away again to their own home (20:10).

According to tradition, John had a home in Jerusalem. We talked about that last week, that he was known to the household of the high priest and that he had a home there in Jerusalem. That his family was wealthy and his father was a fish merchant and that John was probably one of the salesmen in Jerusalem, bringing the fish from the Galilee and it was a tremendous delicacy in Israel. And so it is thought that John had a home there. "They went to their own home."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요한은 예루살렘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주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요한은 대체사장 집안에 알려진 사람이었으며, 그는 거기 예루살렘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부유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생선 장수였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갈릴리로부터 생선을 가져다가 팔던 상인들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 생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즐기던 진미였다. 그러므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만도 하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But Mary stood without at the sepulchre weeping (20:11):

It could be that they were there when Mary came back or that they had left before Mary came back but she was standing there by the sepulcher weeping, 마리아가 무덤으로 다시 왔을 때 그 제자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마리아가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떠나 버렸고 마리아는 거기 무덤 가에 혼자 서서 울고 있었을 것이다.

and as she wept, she stooped down, and she looked into the sepulchre, And she saw two angels in white, they were sitting there, the one at the head, and the other at the feet, where the body of Jesus had lain. And they said unto her, Woman, why weepest thou? She said unto them, Because they have taken away my Lord, and I know not where they have laid him (20:11-13).

Several things that are of interest here. Even though He had been dead for three days as far as Mary was

concerned, He was still her Lord. She had a love that death could not quench. And rightly so. Jesus said, “Those that are forgiven much love much” (Luke 7:47). Mary, prior to meeting Christ, had a miserable life. We know from the scriptures that He had cast seven devils out of her. We cannot imagine the torment of a person who is possessed by an unclean spirit. The absolute torture and torment. She knew it firsthand. Her life was one of abject misery, hopelessness. When she met Jesus, her life changed. He by a word drove out the darkness and brought in the light. He delivered her from the powers of darkness that had enslaved her. He set her free. And she in response and in gratitude committed her life to Him, fully, completely. Tremendous love. And though He has been crucified, she stood there by the cross watching it. Yet He’s still her Lord. 여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분이 3일 동안 죽은 채로 계셨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분이 여전히 주님이셨다. 그녀는 죽음도 끄지 못하는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눅 7:47) 법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녀로부터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셨다고 한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는 짐작하기 힘들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일 것이다. 그녀는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비천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삶은 변했다. 그분은 말씀 한 마디로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빛을 불러들이셨다. 그분은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셨다. 그분은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는 감사에 넘쳐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바쳤다. 그것은 굉장한 사랑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녀는 십자가 곁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은 여전히 그녀의 주님이셨던 것이다.

And when she had thus said, she turned herself back (20:14),

That’s interesting to me. When you’re looking for the Lord, even angels won’t do. I imagine if you look in a sepulcher and see a couple of angels and they start talking to you, man, you’d be so excited and you’re angels, wow! But they might be wonderful but they’re no substitute for the Lord. And so she turned from them, 내가 보기에 이 구절은 흥미롭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구할 때는, 천사들도 여러분에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서너 명의 천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 자네는 매우 흥분했겠네. 와, 천사들을 만나다니 말이야! 천사들이 놀라운 존재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던 것이다.

and she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know it was Jesus (20:14).

Again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You can see figures but they’re not necessarily recognizable, especially if your eyes are filled with tears and the prism of the tears is blurring your vision.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들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거나 눈물이 빛을 분산시켜 시야를 가렸을 경우 그럴 것이다.

Jesus said unto her, Woman, why weepest thou? Who are you looking for? She,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said unto him, Sir, if you have borne him from here, if you’ll just tell me where you’ve laid him, I will take him away (20:15).

That’s a pretty strong statement for a little gal. I believe that Jesus was a good size man. Here she is saying, just tell me where you’ve taken Him, I’ll carry Him away. The strength of love. I’m sure she could have because of the strength of love. But I think that at that suggestion, Jesus probably saw some humor in it. And 이것은 연약한 여인이 한 말 치고는 매우 강력한 진술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마리아는 이렇게 제안하였다: 당신이 그분을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내게 알려주기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다른 데로 모시고 가리이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었다. 사랑의 힘 때문에 그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한편 그런 제안 속에 담긴 우울한 기분을 예수님은 아마 인식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And He said, Mary. She turned herself to Him and said, Rabboni; which is to say, Master. Jesus said

unto her, Touch me not;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I ascend unto my Father, and to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 (20:16,17).

There's a couple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here. There is a difficulty here to be sure because Matthew's gospel tells us that as the other ladies were going from the sepulcher, Jesus met them and they held Him by the feet and worshipped Him. When Jesus appeared to the disciples, He said, "Behold my hands, my side. Handle me. touch me, see if it isn't Me" (Luke 24:39). And yet He is saying to Mary, Touch me not.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상이한 해석이 있다. 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확신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부터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렸다 라고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눅 24:39). 그에 비하여,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The word here in Greek is in the present imperative which could be translated, "Don't cling to me." What Jesus is possibly saying is, Don't cling to Me, Mary, but go and tell the disciples that I'm risen. It's my feeling that when she saw Him, she probably got a death hold grip around His neck. And sort of, You got away from me once but you're never going to get away from me again. I'll never let You go again. In her excitement, in her thrill, I believe that she really just grabbed Him, clung to Him. And He said to her, Don't cling to Me, Mary, but just go and tell my brethren and tell to them that I'm ascending to the Father,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여기서 사용된 회랍어는 명령법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나에게 달라붙지 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정도의 내용이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라.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분의 목을 사정 없이 끌어안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 드렸을 것이다: 이전에는 저를 버리고 가셨지만 다시는 저를 떠나지 못하실 겁니다. 다시는 주님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흥분과 전율을 느끼던 그녀는 강력하게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며 그분께 달라붙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마리아야, 나에게 달라붙지 말고 오히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라.

Another possibility is that He was going to and did ascend to the Father immediately upon the resurrection to present the blood of the sacrifice but that's a little difficult because it would have been a very quick trip. 또 다른 가능성은, 부활 후 예수님은 즉시 아버지께로 올라가 희생의 피를 바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아주 서둘러야 했을 것이다.

Mary Magdalene came and told the disciples that she had seen the Lord, and that He had spoken these things unto her (20:18).

Thus it is interesting that the first one commissioned to share the glorious gospel of the resurrection was a woman. And God had chosen Mary Magdalene to be the first one to share the good news. 어쨌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위임 받은 첫 번째의 사람이 여인이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여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첫 번째의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이다.

Later on, a short while later, Jesus appeared to the other ladies. They hel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And later on in that afternoon, He appeared to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That evening He appeared again to the disciples here in Jerusalem. The other disciples made mention of the fact that some of the women said that He was risen but they made mention of that in an unbelieving way. They didn't really believe the story of the women. 조금 후에 예수님은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 그 날 오후 늦게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 날 저녁에 그분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다른 제자들은 몇몇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고 전했으나, 불신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들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못했던 것이다.

That same day at evening (20:19),

Remember it was at evening that He left the two disciples in Emmaus. As they had come to Emmaus, they said, Abide with us because the evening is drawing on. So He went into the house and He sat down with them. And you remember He broke bread, and as He broke bread they suddenly realized it's Jesus. Probably they saw the nailprints in His hands. And they recognized it was Jesus and immediately He disappeared (Luke 24:13-31). 주님이 그 두 제자들을 엠마오에 남겨두고 떠나신 게 저녁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들은 저녁이 가까워 오니 저희와 함께 거하시지요 하고 주님께 권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으시게 되었다. 여러분은 그분이 떡을 떼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분이 떡을 떼실 때 그들은 갑자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손에 난 못 자국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분은 떠나가버리시고 말았다 (눅 24:13-31).

Now this first day of the week, the same day at evening, when the doors were shut where the disciples were assembled because of the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in the midst of them, and saith unto them, Peace be unto you. And when He had so said, He showed unto them His hands and His side (20:19,20).

And as the other gospels said, He said, Handle Me, see if it isn't Me.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분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고 말씀하셨다.

Then were the disciples glad, when they saw the Lord (20:20).

They have now more than just the testimony of the women. Actually Jesus appeared to Peter sometime during that day but now they have seen Him for themselves. 저들은 이제 여인들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날 중 한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Then said Jesus to them again, Peace be unto you: as my Father hath sent me, even so send I you.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He said unto them, Receive ye the Holy Spirit (20:21,22):

I believe that it was at this time that they received the second of the threefold relationship of the believer with the Spirit. Jesus had said in the fourteenth chapter concerning the Spirit that was going to come, "I will pray the Father, He'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even the Spirit of truth;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ever; whom the world cannot se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dwells with you [para], He shall be in you" (John 14:16,17). He shall be in you. So when Jesus said, "Receive ye the Holy Spirit," I believe that they experienced at that point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and at that point were probably born again by the Spirit. 바로 이 때 그들은 신자와 성령 간의 3중 관계의 두 번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성령에 관해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희랍어로 '파라']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 그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 순간 아마도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Jesus had said to Peter earlier, "When thou art converted, strengthen thy brethren. Satan's asked for you, he wants to sift you like wheat: I've been praying for you: when you're converted, strengthen your brethren" (Luke 22:31,32). So I believe that at this point the Spirit began to indwell them. A born again, born of the Spirit experience. It was imperative that Jesus go away because the Spirit could not come, He said, until He had gone away. This third relationship where they would then be empowered.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and here the third preposition, upon you, "epi". When He comes upon you, you will be empowered to witness, to be my witnesses. And so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ye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32). 그러므로 내가 믿기로는 이 순간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것이며,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거듭나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세 번째의 관계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고 하셨는데, 여기에 세 번째의 전치사가 등장한다: ‘너희에게’의 ‘에게’(희랍어로 ‘에피’)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다.”

I don't think that Jesus could breath on you and say that without something happening. And I believe that it was at that point that they did receive the indwelling, “He shall be in you,” and they received the indwelling of the Spirit.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로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으니, 그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Then this difficult statement,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어려운 구절이 등장한다.

Whose soever sins you remit, they are remitted unto them; and whose soever sins you retain, they are retained (20:23).

Does that mean that I have the power to forgive someone their sins? Or I have the power to retain their sins?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말일까? 그들의 죄로 하여금 그대로 있게 할 권한을 내가 가지게 된단 말인가?

When they had let that man with the palsy down in the presence of Jesus as He was teaching in the house; you remember they removed the roof and let the guy down, and Jesus said unto him, Thy sins are forgiven thee. And the Pharisees that were there immediately were rankled because they said, That's blasphemy.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nd the truth of the matter, no one can forgive sins but God. And so Jesus, to prove that He had the power to forgive sins, said, What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Rise and take up your bed and walk? And so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 He turned to the man, He said, Take up your bed and walk. And the man took up his bed and walked (Mark 2:4-12). But the whole premise was only God can forgive sins. 예수께서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그분 앞으로 달아 내린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 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이는 참람한 일이다. 하나님 외에 누구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사실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어서 그분은 그 병자를 쳐다보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명하니, 너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막 2:4-12). 이 사건 전체의 전제(前提)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When David was praying in the fifty-first psalm concerning his sin, he said, “Against Thee, and Thee only, have I sinned, and done this great evil in Thy sight.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Thy tender mercies blot out my transgressions. For against Thee, Thee only, have I sinned” (Psalm 51:1,4). Sin is against God and thus only God can forgive sins. 다윗은 시편 51 장에서 자기 죄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 51:1,4).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Then what is Jesus saying, what does He mean when He said, Whosoever sins you remit, they are remitted; and whosoever sins you retain, they are retained. When I meet a person who has been hassled by Satan because he has sought to convince them that they are still guilty before God, and I ask them if they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y answer in the affirmative; do you believe that He died for your sins? Yes. Do you believe He rose again? Yes. Do you believe it with all your heart? Yes. Have you asked Jesus to forgive you your sins and be the Lord of your life? Yes. Well then I say unto them, Then your

sins are forgiven. I speak to them a word of faith. Upon the basis of their confession that Jesus is the Lord and their belief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I declare to them, Your sins are forgiven. Not that I have forgiven them but I'm just declaring to them what God's word has to say. There are lot of sensitive souls who just need that kind of assurance of just someone saying to them, God has forgiven your sins. They just can't quite accept the scripture. If a person is stubborn in his resistance to Jesus Christ, if he refuses to acknowledge Jesus as Saviour or Lord, if he says that he doesn't want anything to do with Jesus, then I say to him, Well, you, if you continue will die in your sins. You see, I couldn't say to someone of that nature, Your sins are forgiven anyhow. But I can declare to them what God's word has to say and I can speak to them God's truth. Your sins are remitted, or your sins are retained. But it all is dependent upon if you have confessed your sin, we know that He'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you and to cleanse you from all unrighteousness. So I can say to them on the authority of God's word, Your sins are forgiven. 예수께서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 게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네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사주하고 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라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그렇다 고 대답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는가? 그렇다. 당신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가? 그렇다. 당신은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는가? 그렇다. 당신은 예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라고 요청해 보았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그를 향하여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당신의 고백과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당신의 신앙에 근거하여 내가 당신에게 선언하나니,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노라!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에게 선포한 것 뿐이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런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신경과민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들은 성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항한다면, 만일 그가 예수님은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만일 그가 자기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소.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당신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어떤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는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는 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든지 아니면 당신의 죄가 그대로 있다든지 하는 판단을 전해줄 수는 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자기 죄를 고백하였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Now we read concerning Thomas, 이제 우리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된다.

Thomas, one of the twelve, called Didymus (20:24),

The word "Didymus" means "twin," whether he had a twin brother or sister we really don't know. "디두모"라는 단어는 "쌍둥이"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가 일란성 쌍둥이였는지 이란성 쌍둥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 없다.

he was not with them when Jesus came. The other disciples therefore said unto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unto them, Except I shall see in his hands the print of the nails, and put my finger into the print of the nails, and thrus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20:24,25).

His was a confession of unbelief. Until I can see it for myself. Thomas is a very practical sort, he's sort of a melancholy. But he's a very practical sort. When Jesus was down at the Jordan river and got the news that Lazarus was sick and He stayed around the Jordan for a couple of days and then said, Let's go on up to Lazarus. They started talking a little bit about it and Jesus said, He is sleeping. One of them said, That's good sign, if he's sleeping, he probably getting better. Jesus said, No, he died. And I'm glad for your sake that I wasn't there. And now let's go on up that I might awaken him from his sleep. And the disciples said, Lord,

the last time You were there they tried to kill You. But Jesus was going so Thomas said, Okay, let's go and die with Him. He was at least willing to put his life on the line. If you go, Lord, I'm going with you. He was willing to put his life on the line. 그의 고백은 불신앙적인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도마는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었으며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요단강 가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요단 근처에 며칠 더 머무신 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가 자고 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 거 잘 되었습니다. 그가 자고 있다면 저절로 깨어날 게 아닙니까.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러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를 잠으로부터 깨우자꾸나. 제자들이 말했다: 주여, 지난 번에 당신이 거기 계실 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가고 계셨다. 그러자 도마가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서 죽으렵니다. 도마는 최소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려 했던 사람이다. 주여, 당신께서 가신다면 저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 하였다.

Later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at He was going away to prepare a place for them. That where He was there they might be also. And He said, If I go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And where I'm going,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Here's old straight Thomas, the other disciples were going, Yeah, yeah. But Thomas said, Hey Lord,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And how can we know the way? So here he is again, I don't believe it. I won't believe it until I can see for myself.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예의 그 직설적인 도마가 등장한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좋습니다'만 연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We talked this morning about the cost of unbelief. It cost him seven days. We read here eight days so it was actually the eighth day because it was the following Sunday that Jesus appeared and Thomas was present. But he went through the eight days of misery. Unbelief can make you miserable. It can leave you in the pit. Here the other disciples are all rejoicing, they're excited, they're thrilled, they're happy. They're just, Oh yes! And here's Thomas going around, It's over, man. Unbelief. It keeps you in the depth of despair when you should be rejoicing. God has done a work. You should be rejoicing. But unbelief will keep you in that despondent state even though God has already worked.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불신의 대가(代價)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도마에게 있어서 그것은 7일이 되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드레가 지났다는 말을 읽게 된다. 실제로 여드레였다. 예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은 그 다음 주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8일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다. 불신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렁에 빠뜨릴 수 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흥분하며 감격하며 좋아했다. 그들은 오 잘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여기 도마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다. 그의 불신 때문이었다. 불신은 여러분이 즐거워해야 할 때에 여러분을 낙담의 심연에 빠뜨린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불신은 여러분을 낙심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성취하셨는데도 말이다.

And after eight days again his disciples were with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en came Jesus, the doors being shut, and He stood in the midst of them, and He said [the same thing He said earlier 그분은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다], Peace be unto you. Then He said to Thomas, Reach hither your finger, and behold my hands; and reach hither thy hand, and thrust it into my side: don't be faithless, but believing (20:26,27).

This is interesting to me. I believe that Jesus was for forty days in which He appeared to them in

different places, on different occasions, in different ways, I believe that He was during this forty days suddenly appearing, disappearing, appearing, disappearing, I believe that He was wanting to get them accustomed to the fact that He was there with them even though they didn't see Him. He had said, "Lo, I am with you always" (Matthew 28:20).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there I am in the midst" (Matthew 18:20). He taught that He would be present with them. But He was seeking to get them used to the fact that He was present with them even though they didn't see Him. So when He appeared on the second Sunday and Thomas was there, and immediately He just said, Peace be unto you. Thomas, go ahead, put your finger in the spot there. Put your hand in my side. Where was Jesus when Thomas was saying, Unless I can do that I won't believe? He was right there and He heard it. He heard his expressions of unbelief and doubt. 이것은 내가 보기에 흥미로운 사건이다. 예수님은 40 일 동안 여러 계제에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다. 그분은 그 40 일 동안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는 갑자기 사라지시고 다시 나타나셨다가는 다시 사라지시고 했을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이 비록 그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찌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 18:20).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비록 그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언제나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제자들이 친숙해지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 후 두 번째 일요일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어서 앞으로 나와서 네 손가락을 여기 이 자리에 대어 보아라. 너의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내가 그렇게 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고 도마가 말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바로 그 자리에 와 계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의 도마의 그 불신과 의혹에 찬 목소리를 들으셨다.

I think that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develop the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Jesus, though we don't see Him. I believe that Jesus is here tonight. Two or three of us are gathered together. He's here with us tonight. I believe that. I do believe that when we come into the consciousness that Jesus is here, Jesus is with me, that that is probably one of the greatest incentives to holy living that we'll ever have. The Lord is here. I think that that is the greatest thing to inspire faith. You say if I could just see Him. That's what Thomas was saying. I need to see.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은 오늘 밤 여기에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기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가장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주님은 여기 와 계시다. 이것은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은 '내가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하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도마가 한 말이기도 하다: 나는 내 눈으로 꼭 보아야 하겠다.

So Thomas answered and said unto him, My Lord and my God (20:28).

Here again is one of those places where Jesus is called God. In the first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John 1:1-3). So John calls Him God in the beginning of the book. Here at the end of the book, and I really believe that the book ends right here in chapter twenty. I think that chapter twenty-one is sort of an appendix to the book.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구절 중 하나이다. 요한복음 1 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그러므로 요한은 이 책의 서두에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의 말미에서 그는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믿기는, 이 책은 바로 여기 20 장에서 사실상 끝이 난다는 점이다. 남은 21 장은 이 책의 부록에 해당할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John decides to add this one extra story. And probably because of a false rumor that had become quite prevalent in the church that Jesus was going to return before John died. I think that John wrote this last

chapter to sort of put to rest that rumor that Jesus was returning before John had died. 요한이 21 장의 이야기를 추가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마도 초대 교회 내에 상당히 퍼져 있던 한 거짓 소문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소문 말이다. 요한이 이 마지막 장을 첨가한 것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풍문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고 나는 생각한다.

Here he says, “My Lord and my God.” In Hebrews chapter one, as the author of the book of Hebrews is introducing to them the person of Jesus Christ, “Who in these last days spoken unto us by His Son, whom He has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by whom He made the worlds; Who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and upholding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when He had by Himself purged our sin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Being made so much better than the angels, as He by inheritance hath obtained a more excellent name than they. For unto which of the angels said He at any time,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And again, I w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And again, when He bringeth in the firstbegotten into the world, He saith, And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 And of the angels He said, Who makes His angels spirits, and His ministers a flame of fire. But unto the Son He saith, Thy throne, O God, is for ever.” The Father or God is speaking to the Son and calling Him God. “Unto the Son He saith, Thy throne, O God, is for ever and ever: a sceptre of righteousness is the sceptre of thy kingdom” (Hebrews 1:2-8). 본문에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1 장을 보면, 그 책의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였도다”(히 1:2-8).

If God calls Him God, that’s good enough for me. May not be good enough for the Jehovah Witnesses but I’ll buy it. “My Lord and my God.”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면, 나는 그것 이상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Jesus said unto him, Thomas,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ut blessed are they that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20:29).

Peter later writing his epistle said, “Whom having not seen, you love; and though you do not yet see him, yet you rejoice with the joy that is unspeakable and full of glory” (1 Peter 1:8). The old Missouri adage is, Show me. Seeing is believing. But Jesus said, “If you can believe, you will see.” Believing is seeing. If you can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베드로는 후에 자기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벧전 1:8). 오래된 미주리(Missouri) 격언이 하나 있다: ‘나에게 보여 주시오. 보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니라.” 먼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니라. 만일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Now John tells us that,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Many other signs Jesus did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20:30):

Jesus did a lot of other things. In the next chapter he’ll say, If all of the things that Jesus did were recorded, all of the things were written about Him which could be written, he said, all of the libraries in the world could not hold the books. So John is admitting that he has, first of all, been selective. He didn’t record

everything Jesus did. Out of the many, many, many things that Jesus did, John was selective and he chose certain things, certain signs. And as you go through the Gospel of John, there are seven signs that John brings out of what Jesus did. He did a lot of others but these seven John chose. And he chose them with a purpose.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다음 장으로 가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 기록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도서관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책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아주 많은 일들 중에서 요한은 취사선택을 하였으며 몇 가지 사건들과 표적들만 기록해 놓았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요한이 7 가지 표적만을 뽑아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요한은 그 7 가지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가 그것들을 선택한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The purpose of his writing this Gospel was to convince people that Jesus is the Messiah in order that they might believe that He is the Messiah and thus have life, the life of Christ, life through Him. So in Isaiah 55 we read, "As the rain cometh down from heaven, and returns not thither, but it waters the earth, to give seed to the sower, and bread to the eater: So is My word that goeth forth out of My mouth [saith the Lord]: it shall not return unto Me void, but shall accomplish the purposes for which I have sent it" (Isaiah 55:10,11). What is the purpose of the gospel of John?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 시키기 위해서 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과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 55:10,11).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you might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and by believing have life through His name (20:31).

It is always wise to encourage a person to read the gospel of John who doesn't believe in Jesus Christ. If you can just get them to read, challenge them. Get them to read the gospel of John. Because God said, "My word will not return to Me void. It will accomplish the purposes for which I have sent it." And if this Gospel was sent to cause a person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at by believing that they might have life through His Name, then it's a great book to get people to read.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언제나 현명한 일이다. 여러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읽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힘써라.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도록 권고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 것이니라."

It's tragic that so many people have such completely biased prejudice against Jesus without ever knowing Him or really knowing about Him except from enemies of Jesus. All they know is what they've heard others say and they begin to parrot what others have said. Like when Pilate said,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Jesus said, You ask this of yourself, or are you just parroting what you've heard others say (John 18:33,34)?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se unbelief is based upon negative things that they've heard about Jesus but they've never read as much as the gospel of John. It is really wrong to have an opinion on something before you really examine the facts. And it is foolish to have an opinion on an issue that is important as your eternal salvation without truly giving an honest examination of the facts.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듯 완전히 비뚤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그들은 예수의 원수가 가르쳐준 것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배운 것 뿐이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되뇌일 뿐이다. 빌라도처럼 말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하셨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요 18:34)?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요한복음조차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 전에 어떤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그릇된 것이다. 사실 여부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조사해보지도 않고 영원한 구원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To develop a prejudice against Jesus is sheer folly unless you have personally examined the facts and then have made up your mind. I cannot respect a person's judgment who has already prejudged a situation before he has been able to examine all of the facts. Like I've often said, if I see a person sit down at a meal and immediately take the salt shaker and start salting all of his food without first tasting it, I don't respect his judgment. He's already prejudged it's not salty enough. But how do you know that the cook didn't drop a lot of salt and tried to get it out and could not get and it's so salty it's going to just bite you when you eat it. And here you are salting it down before you ever try it. But there are people who have prejudged Jesus Christ, the Bibl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out ever having personally thoroughly examined it.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본 연후에 마음을 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밝혀진 모든 사실을 검토해보기 이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판단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종종 언급하는 어떤 사람의 태도와 같다 하겠다. 그는 식탁에 앉으면 음식을 맛보기 전에 먼저 모든 음식에다 소금부터 친다. 나는 그런 사람의 판단을 존중할 수가 없다. 그는 이 음식은 싱겁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소금을 듬뿍 넣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는 소금을 덜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짜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맛보기 전에 미리 소금을 넣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철저하게 음미해 본 적도 없이 막연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If you have personally thoroughly examined it and you say, Well, I still don't believe it, then I say, I respect your right to have an opinion. But if you have an opinion without really looking at the evidence, then I don't respect that at all. I don't respect your opinion. And so it's good to get people to read the gospel of John. If that's all of the Bible they ever read, that's important and that'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book for an unbeliever to read. They're always interested in the beast and the horns and everything else and they turn to the book of Revelations, then they say, You can't understand the Bible. 만일 여러분이 직접 철저하게 살펴보았는데도 당신이 아직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그런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증거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당신의 의견부터 말한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들이 읽어 본 성경이 요한복음 뿐이라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책이므로 읽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요한복음은 아마 불신자들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일 것이다. 늘 짐승이나 뿔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대한다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말할 것이다.

But read the gospel of John. Encourage them to read the gospel of John. Read it and then let's discuss it. And the entrance of the word so often just brings light. God's word will not return void. And so John does write with a definite, slanted view and with a definite purpose in mind, convincing peopl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at by their believing that, they can have eternal life through His name.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어 보라.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 보라고 권하라. 그런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해 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빛을 얻게 되는 일이 아주 종종 발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요한은 이 책을 쓸 때 확고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자 함이요, 그들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었다.

Thank You Father for the record that You have given to us and that You have left for us. Thank You for Your word which has become a lamp unto our feet, a light unto our path. May we walk in its light. Lord, we ask that our hearts will ever be open, that You might teach us, Lord, wondrous things out of Your word. Ever

open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You want to accomplish in our lives. And that work of the Spirit that You want to accomplish through our lives. May we become instruments, Lord, through which You can accomplish Your will. And Father, help us we pray to become so keenly aware of Your presence that no matter where we are, in what circumstances or situations, we'll realize that You are with us. You are there beside us. And thus Lord, may we never do anything that we would not want to do right in plain sight of You. Lord, help us to remember You're there next time we're tempted to blow up over a situation. Next time we start to react or respond in our flesh, Lord, just remind us You're there. Tap us on the shoulder, Lord. Let us know Your presence so that we will not do those things that would offend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책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서 행하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성취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성취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당신의 임재를 아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거기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면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지 않을 일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결코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밀려 유혹에 빠질 때, 그 때도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다음 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응하려 할 때, 당신께서 함께 거기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깨닫게 하셔서,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끔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Now after these things Jesus showed himself again to the disciples at the sea of Tiberias; and this is how it happened. There were together Simon Peter, and Thomas called Didymus [the twin], and Nathanael of Cana in Galilee, and the sons of Zebedee [James and John], and two other [unnamed] disciples. Simon Peter said unto them, I'm going fishing. They said unto him, We'll go with you (21:1-3).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쌍둥이) 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요한과 야곱) 과 또 다른 제자 둘(이름이 알려지지 않음) 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1:1-3).

Now, here's a classic example of human leadership. Simon was evidently a natural leader, and he said, "I'm going fishing." And they all said, "We'll go with you." In a sense, Simon is going back to the old life. He had been a fisherman before he ever met Jesus. That's the way he made his livelihood, that's the life he knew and no doubt enjoyed. He was fishing when Jesus called him to leave his nets and to follow Him. "And I will make you to become fishers of men." Jesus had told the women to tell the disciples to go up to Galilee, He would meet them up there. And they had, no doubt, come up to the Galilee, but Jesus hadn't shown up yet. Peter, being the impetuous, impatient person that he was, when the Lord didn't show, he said, "Well, I'm going fishing. This is probably all over. It was a great time; it was a marvelous experience, it was an exciting life. But, hey, we can't live forever in memories; we've got to get on with living. I'm going back fishing. I'm going fishing." They said, "Well, we'll go with you." And so, they got into the ship and they fish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인간으로서 지도자의 전형적인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몬은 분명히 타고난 지도자 였으며 그 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전에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불렀을때 그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만나리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은 의심치 않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성 급하고 참을성 없는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끝장 난것 같다. 좋은 시간이었어. 훌륭한 경험이었지. 그렇지만 기억속에서만 살수는 없잖아. 살길을 찾아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도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갈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오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But when the morning was now come, Jesus was standing on the shore; but the disciples didn't know it was Jesus. And Jesus said unto them, Did you catch anything? (21:4-5)

Typical question to ask fishermen.

And they answered him, No. He said unto them, Cast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ship, and you will find (21:5-6).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21:4-5).

어부들에게 묻는 전형적인 질문 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21:5-6).

Notice how sure Jesus is.

They cast therefore, and now they were not able to draw it in for the multitude of fish. And therefore that disciple whom Jesus loved, [John] said unto Peter, It is the Lord. When Simo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he girt his fisher's coat unto him, (for he was naked,) and dove into the sea and swam to shore (21:6-7).

They were only about a hundred yards out.

And the other disciples came in a little ship, (for they were only about a hundred yards away,) and they were dragging the net with fishes (21:8).

예수께서 얼마나 확실하신지를 주목하십시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21:6-7).

그들은 약 100 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21:8).

They had fish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they weren't going to let this catch go, dragging the net with fish.

And as soon as they were come to land, they saw a fire of coals there, and there were fish laid thereon, and bread. And Jesus said unto them, Bring the fish which you have now caught. And Simon Peter went up and drew the net to land full of great fish, a hundred and fifty-three: and for all there were so many, yet was the net not broken (21:9-11).

Now, you remember the last time that Jesus told them to cast the nets on the other side, there were so many fish as they tried to draw them in, the nets began to break. But now, they draw it in, and though there was all of these great fish in it, yet the net was not broken.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지만 이제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어 당깁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21:9-11).

예수께서 지난번에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던것을 기억 하실 겁니다. 그때도 그들이 그물을 당길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큰물고기인데도 그물이 찢어지지않았습니다.

Now, why the number one hundred fifty-three? I'll leave Chuck Missler to deal with those issues. It is interesting how that the mystiques always look for some significance in the numbers. And Augustine worked out a formula for the hundred and fifty-three. And his formula is interesting in that he puts together: ten is the number of something and seven is the number of something, so you get seventeen. And you take all of the numbers from one to seventeen and add them up, and you get a hundred and fifty-three. You can play with numbers all kinds of ways and get all kinds of ideas out of them. But just why a hundred and fifty-three, I personally don't know. And I don't really put much stock into this juggling of numbers, and say, "Now, the real mystery here is..." I leave that for other fellows. I'm just too practical. I just say, "Hey, a hundred and fifty-three, that's interesting! I wonder why they counted them." Someone has suggested that that is the symbolic number of the church.

왜 153 마리 일까요? 신비가 들은 숫자에서 의미를 찾는걸 보면 참 재미 있는것입니다. 어거스틴은 153 에 대한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만든 공식은 흥미롭습니다: 10 과 7 과 13 의 숫자가 각각 의미를 가집니다. 1 에서 부터 17 까지의 모든 수를 합하면 도합이 153 이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리 저리 맞추고 의미를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왜 153 이냐? 난 모르겠습니다. 또 숫자를 맞추고 흔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신비한것은 여기에 ..." 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하도록 남겨 두겠습니다. 나는 너무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여보게, 153, 그거 흥미 있네! 왜 그걸 헤아렸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Now, we do know that there are symbolic numbers; that seven is the number of completion. Seven days in a week, seven notes on the scale. And seven is called the perfect number, the number of completion. Whereas eight is the number of new beginning. Because if you come to a complete seven, then the next note would be the eighth note, but you're beginning a new scale. Or you come to seven days, a complete week; and the eighth day is the beginning of the new week, so you come to a new week. And so, the number of new beginning is the number eight.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 은 완전의 수 입니다. 일주일이 7 일이고 악보에도 7 음 이있습니다. 그래서 7 을 온전한 수 또는 완전의 수 라고 합니다. 8 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 입니다. 완전히 7 번이 되면 그 다음 악보는 8 번 악보로 새 음정의 시작이 됩니다. 혹은 7 일이되었으면 완전히 한 주간이 되며 여덟째 날은 새로운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주간 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숫자는 8 입니다.

Now, significantly because Jesus is a new beginning for men, every name of Jesus in the Greek language, when the numeric value of the letters of the name are totaled, they are always divisible by eight. The

Christos, the Curios, the Jesus and all...when you total the numeric value of the letters, they're always divisible by eight. We know that thirteen is the symbolic number for Satan. And all of the names for Satan in the New Testament, when you add the numeric value of the names, they are always divisible by thirteen. There are those who have written some very interesting books on this particular subject. One of them is "Biblical Numerics" by Pannon. And more recently, Jerry Lucas has written one called "Theomatics." But again, I leave it to others to get involved in these number kind of things.

헬라어의 글자에 숫자를 예수의 이름에 적용하여 전체 숫자를 합치면 엔제나 8로 나누어 지며 예수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나 '쿠리오스' 또는 예수 등등 글자 한자 한자에 대응되는 수치를 합치면 그숫자는 8로 나누어 집니다. 13은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의 수를 합하면 13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제목을 다루는것을 쓴 책들이 여러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성경적 분수들 (Biblical Numerics)" 이라는 책이며 파논 (Pannon) 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리 루카스 (Jerry Lucas) 가 "하나님에 관한 수학 (Theomatics)"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숫자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 놓겠습니다.

Forty, for instance, is the number of judgment. Twelve is the number of human government. Twelve apostles, the twelve tribes...though there were actually thirteen, but always referred to as twelve tribes...the number of human government. Six is the number of man, imperfection. And the numbers do have a symbolic meaning.

예를 들면 40은 심판을 상징하며 12는 인간이 만든 정부를 상징합니다. 12 제자들 과 12 지파들 ... 실제로는 13 지파들입니다만 항상 12 지파라고 하며 인간들의 정부를 상징 합니다. 6은 사람과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숫자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one-fifty-three, they say, is the symbolic number of the church, which I find to be interesting. That the net was full, and yet it didn't break. Jesus said, "All that the Father hath given Me are Mine. No man can pluck them out of My hand." Now, in the earlier net-breaking thing, you have maybe the evangelism, where you're gathering in all kinds, and you don't hold onto them all. But once they are truly in, no man plucks them out. "The net, yet for its number of great fish, yet it didn't break."

그들이 말하기를 153은 교회를 상징하는 수 라고 하는데 흥미 있는일입니다. 그물에 가득찼지만 찢어 지지는 않았습디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것이 내것이온대 저희를 내손에서 빼앗을자가 없느니라." 일찌기 그물이 찢어진것에 관하여는 당신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곳에서 전도를 할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하는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그속에 들어 갔다면 그들을 빼내어 올자가 없습니다. "이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I find it interesting that what they could not all do in their own efforts out in the boat when they tried to pull the net into the boat, Peter was able to do by himself because Jesus told him to do it. Jesus said, "Now go draw the net," and Peter, because Jesus had commanded it, was able to do it by himself though all of them weren't able to do it earlier. The strength of the commands of Jesus. The very fact that He has told me to do it, if I will just endeavor, I can do it. Because He gives me the ability to obey any command that He gives to me. And so, service offered to the Lord. You see, we can sometimes go out and try and do things on our own and are

totally unsuccessful. "I'm going fishing." "We'll go with you." Human energy, human effort. They knew how, they knew how to throw the nets. They knew where the fish usually were. But going out on their own, they were totally unsuccessful. Jesus comes along, and He says, "Hey, cast it over on the right side and you'll find." Now their service is directed by the Lord. And notice the difference; when you're doing something that the Lord is directing you to do, rather than just doing something out of your own impulses. Service directed by the Lord is so totally rewarding, you can't even pull in the nets.

나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드리려고 노력했으나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을때 혼자라도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서 그물을 끌어 올려라" 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할수없었던것을 베드로 혼자서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것을 우리가 실행할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명령 하셨을때 우리에게 순종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며 그 봉사가 하나님께 드러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슨일을 시도하고 애써보지만 완전 실패로 끝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것들은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법도 알았고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도 알았으며 또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완전 실패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봉사는 주님이 지휘하신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기보다 주님이 지휘 하시는것을 우리가 행할때 일어나는 차이점을 보십시오. 주님이 지휘 하시는 봉사는 완전히 상급이 따를뿐만 아니라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정도로 결실이 큼니다.

And I often, when I go out and talk to people who want to hear about what God has done here at Calvary Chapel, I say to them, "Look, when the nets get so full, you can't pull 'em in any more, you know there's only one reason for it. Like John said, it's the Lord! It's just service directed by God, and it is always fruitful; it's always productive. It's the Lord! It isn't man's genius. It isn't some fancy program that we have. It isn't our great and glorious organ that we paid \$500,000 for that has the largest pipes in the world. It isn't our marvelous choirs. It's the Lord!" People have a difficult time understanding this. But it's God-directed service. Jesus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and directing the activities. They are fruitful.

갈보리채플 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물에 가득찼을때 당신이 그들을 끌어 들일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요한이 말한것 처럼 "주 시라!" 그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신 봉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많고 생산적입니다. 주님이 하신것이며 인간의 비상한 제주로 된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프로그램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500,000 불썸이나 주교 최신식 파이프 올겐을 사다놓은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성가대가 있어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봉사입니다. 예수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활동을 지시 하십니다. 그결과는 좋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Jesus said unto them, Come and ea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to ask him, Who are you? knowing that it was the Lord. Then Jesus came, and he took the bread, and he gave it to them, and the fish likewise (21:12-13).

He had done this before, divided bread and fish among them.

Now this is the third time that Jesus showed himself to the disciples, after he was risen from the dead (21:14).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21:12-13).

주님은 그전에도 이렇게 하셨던것 처럼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21:14).

So, John records the first three times. Jesus did appear on other occasions after this, but this was the third time in order.

When they were through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more than these? (21:15)

The word love here is *agapas*. It is a Greek word of deep love used of God's divine love. It is a supreme love. It is a giving love. "Lovest thou Me?" *Agapas*, divinely, fervently, more than these. What were the "these"? Maybe the one hundred fifty-three fish still flopping in the nets over there. "Do you love Me more than your livelihood? Do you love Me more than the greatest success in your chosen profession? Having the height of success in your chosen field, do you love Me more than that, Peter? How much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래서 요한은 처음 세차례를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건 이후에도 나타나셨으며 이것이 순서대로는 세번째 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1:15).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용하는 헬라어로서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는 사랑입니다. “네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것들” 이 무엇입니까? 그물에서 뛰는 153 마리의 생선일 수도 있습니다. “너의 생활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네가 택한 직업에서의 대 성공 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베드로야, 너의 택한 분야에서 가장 성공하는것보다 날 더 사랑 하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 하느냐? 이것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Or the "these" could be referring to the other disciples whom Peter had avowed that he loved the Lord really more than them in an off-handed way. For Jesus had said to His disciples,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onight because of Me." And Peter said, "Lord, though they may all be offended, I will never be offended." In essence saying, "Lord, I am more faithful, and I love You more than the others." And Jesus said, "Peter, before the cock crows, you'll deny Me three times." "Impossible, Lord. If they would slay me, I would never deny You." But he did. And Jesus could be recalling that failure when He said, "Peter, lovest thou Me more than these?" And He could be referring to the other disciples there. We don't know the "these" because we weren't there to see what Jesus was looking at, or beckoning or motioning towards.

혹은 “이것들” 이 베드로가 생각없이 모든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맹서 했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킬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을때 베드로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기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말한것은 “주여, 나는 더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주님을 더 사랑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오늘밤 닭 울기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 하리라” 고 했을때 그는 “주님, 말도 안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라고 물으신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상기 시키기 위한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가리킬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무엇을 쳐다보셨는지 무엇을 향해 손짓을 하셨는지 알수 없기때문입니다.

Peter said,

Yes, Lord; you know that I phileo you (21:15).

Now, he did not use Jesus' word for love, but he used another Greek word, which is a word of fondness, or affection. "Lord, you know I am fond of You." Jesus didn't say, "Peter, are you fond of Me?" He said, "Peter, do you love Me...divinely, fervently?" Peter said, "Lord, you know that I am fond of You."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 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21:15).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호한다 또는 좋아한다 또는 애정의 뜻을 가진 헬라어를 사용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좋아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좋아하니?” 라고 하지 않았습디다.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 하느냐? 고 물으셨습디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좋아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And Jesus said unto him, Feed by lambs (21:15).

“You're not to be out here fishing, Peter. I told you to leave your nets and to follow Me. I'll make you to be fishers of men. Now, feed My lambs.” The Lord is interested that His lambs be fed. Jeremiah said that, "The Lord will give them in that day pastors after His own heart, who will feed them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would be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od. When I read that passage in Jeremiah after having been a pastor for many years, I realize my failing. And I repented before God. And I determined from that day on I wanted to be a pastor after God's heart who would feed the flock with the knowledge and the understanding of God. "Feed My lambs," Jesus said. "Do you love Me? Feed My lambs."

예수께서 ...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1:15).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돼. 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거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의 양들을 잘 먹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그의 마음 에 합하는 목자를 그들 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저희를 양육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가리킵니다. 내가 오랜동안 목회를 하고난후 예레미야 3 장 15 절을 읽었을때 내가 목회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후 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양떼를 먹이는 하나님과 마음을 닮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고 예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The second time Jesus said unto him, Simon, son of Jonas (21:16),

Lovest--using the same Greek word as He did before, *agapas*,

lovest thou me [divinely, fervently]? And he said unto him, Yes, Lord; thou knowest that I phileo you (21:16).

I am fond of you, Lord.

And he saith unto him, Feed my sheep (21: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21:16).

사랑하다 – 먼저 사용했던 같은 헬라어 아가페 (Agape) 를 사용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좋아 합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21:16).

The word *feed* here is a different Greek word, and it literally means "to tend my sheep, or to watch over my sheep, to be a shepherd over my sheep, take care of my sheep."

And he said unto him a third time,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21:17)

And this time Jesus used Peter's word, *phileo*. "Peter, are you fond of Me?" And Peter was grieved because this third time, Jesus used his word and said, "Are you fond of Me?" It hurt Peter deeply that Jesus had reduce Himself to Peter's level.

여기있는 “먹이다” 는 또 다른 한 헬라어 단어로 그것의 의미는 “양을 치다, 내 양을 지키다. 양무리의 목자가 되다, 양을 돌보다” 입니다.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21:17).

이번에는 주님이 베드로의 단어 필레오 (Phileo) 를 사용 하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것이 세번째 이므로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단어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니?” 예수께서 자신을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추었을때 그것은 베드로 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God will always meet us on whatever level we will meet Him. But it is tragic when we bring God down to our level, rather than our rising to His level. But God will meet us on whatever level we will meet Him, and He will do His best for us on that level. I'm convinced that we often limit that work of God in our lives, because we won't rise to the level that God wants us to dwell upon.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될 그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끌어 내려서 만나는것은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어떠한 수준에서든지 만나 주시며 그 수준에서 가장 좋은것으로 행하십니다. 빈번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 가지 않기때문입니다.

God made concessions for the children of Israel. God wanted to be their King. He wanted them to be unlike all of the other nations, in that they would not have any visible king; but that the world would know that God ruled over these people. But they didn't want that. They came to Samuel and they said, "Appoint a king over us like the other nations." And Samuel was grieved. And the Lord said unto Samuel, "Don't grieve because they haven't rejected you, they have rejected Me from being king over them. And now, you anoint the one that I will show you to be the king." You see, God is now making a concession. He's coming down to their level. It's sad, though, when we bring God down to our level, rather than rise to His level, because we're not living then on the highest plane. And God would have us to live life in the highest plane. He'd draw us to His level if we would only but do so.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양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이백성을 다스리시는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요청 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할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못하게 하려함이라.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하는자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보다시피 하나님이 한걸음 양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 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기 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수준 까지 끌어 올리시려 합니다.

But Jesus came down to Peter's level. "Peter, are you fond of me?" And Peter was grieved because the Lord had to come down to his level. And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Despite what TV preachers say on Channel 40. "And you know that I am fond of You." He wouldn't come up, because he couldn't come up. He would love to, I'm sure. But Peter was always guilty of speaking impulsively and getting rebuked for it.

그러나 예수 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좋아하니?” 주께서 그의 수준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 했습니다. 채널 40 에 서 텔레비전 설교가들이 하는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좋아하는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는 높은 수준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수준에 올라갈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수준에 오라가기를 원하는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항상 충동적으로 말하는 잘못을 저질러곤 했으며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When Jesus said, "Who do men say that I am?", Peter said, "Well, thou art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Jesus said, "Blessed art thou, Simon Bar-Jonah.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at unto you, but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And I'm sure Peter puffed up and said, "Hey, fellows, you hear that? Revelation! I'm tuned in! You heard that, didn't you fellows?" And Jesus at that point, began to tell His disciples how that He was going to go to Jerusalem and be turned over to the hands of sinners and they would crucify Him and slay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ould rise again. And Peter said, "Oh, Lord, never, never, be that far from you!" And Jesus said, "Get thee behind Me, Satan. You're an offense unto Me.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what comes from God and what comes from man." His foot in his mouth, speaking

impulsively!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his night because of Me." "Oh, Lord, though they're all offended, I'll never be offended." "Peter, before the cock crows, you'll deny Me three times." "Though they kill me, I'd never deny You." Speaking impulsively, having to eat his words.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물었을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시니라.” 분명히 베드로는 우쭐해져서 “얘들아, 너희들 들었니? 계시를! 나는 감을 잡았어! 너희들 들었지, 확실히 들었지?”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어져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것을 가르치기 시작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 주님, 결코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청 했습니다. 그 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로다. 너는 하나님께로서 오는것과 사람에게서 오는것을 분별 못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충격적으로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 하셨을때 베드로는 “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야, 오늘밤 닭울기전에 세번 나를 부인 하리라.” 베드로는 “그들이 나를 죽일지언정 주를 부인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한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Now, Jesus had said,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he it is who loves, agapas, Me." With a divine, fervent love. How is it shown? By keeping His commandments. Peter wasn't keeping His commandments. "I'm going fishing." Jesus didn't say, "Peter, go fishing." He said, "Wait in Galilee. I'll meet you there." He said, "Leave your nets and follow Me." And he was in the very act of disobeying the command of Christ, going back to the nets. And therefore when Jesus said, "Agapas, do you love Me divinely, fervently?" he could not say, "yes," because Jesus would then have said, "Then what are you doing out there in that boat leading these other fellows on this fishing venture when I didn't tell you to?" And Peter knew that he was trapped, and he knew that he couldn't say, "I love you divinely, fervently." And so, he had to use that lesser Greek word, "I'm fond of You," and tragically had to bring Jesus down to that level. And it hurt.

예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아가페) 하는 자니라” 고 하셨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께서 “베드로야, 물고기 잡으러 가라” 고 하시지 않았습시다. 그는 “갈릴리에서 기다려라. 거기서 만나리라” 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로 가서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 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하니?” 라고 물었을때 “예” 라고 대답할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네게 하라고 시키지 않은것과 다른 제자들을 물고기 잡으러 나오도록 하여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거지?” 라고 물으실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가 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 합니다” 라고 말할수 없는 형편인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단계 낮은 헬라이어 “나는 주님을 좋아 합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불행히도 예수께서 그 수준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Jesus said, "Feed My sheep!" This is the word *feed* again. So, you have "feed My lambs, take care of My sheep, and feed My sheep." "Do you love Me?" This is what the Lord would have you to do. This is His command: feed the sheep.

And then He said unto him,

I tell you the truth, when you were young, you girded yourself [you dressed yourself], and you went wherever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forth your hands, and

another will gird you, and they'll carry you where you won't want to go. And this Jesus was speaking, signifying by what death he should glorify God (21:18-19).

그리고 난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18-19).

He was telling Peter that He's going to be crucified. "When you were young, you dressed yourself and you went where you wanted, but one of these days others are going to dress you and they're going to take you where you don't want to go." They're going to take you to a cross. And sure enough in years to come, when Peter was in Rome, he was sentenced to die on a cross. And Peter said, "I have one request. Please crucify me upside down; I'm not worthy to die as did my Lord." And he was crucified upside down. But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Jesus here tells him by what death he's going to die.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들이 너를 십자가에 끌고 가리라. 몇년후에 때가 왔을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때 그는 십자가 처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나를 십자가에 꺼꾸로 메달아 주세요. 나는 내 주님이 돌아 가신것처럼 죽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후에 그는 십자가에 꺼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흥미로운것은 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And immediately after telling him what death he's going to die, he said, Follow me (21:19).

"You can go back fishing, but follow Me. It's going to be tough; it's going to be a cross. You're not going to drive a Rolls Royce. You're not going to live in a fancy mansion. It's not going to be easy, Peter. But follow Me."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19).

“네가 물고기 잡으러 돌아갈순 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그것은 어렵고 십자가가 될것이다. 네가 롤스로이스 를 운전하게 되는게 아니다. 또 호화로운 저택에 살게 되는것도 아니다. 베드로야, 이게 쉽지는 않아. 그러나 나를 따르라.”

Then Peter, turning about, seeing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following; ...he said unto him, What about him, Lord? (21:20-21)

Peter, back in the same old position, speaking out of turn again. "What about him, Lord? What shall this man do?" And Jesus in essence, said, "Peter, that's none of your business. I'm talking to you about you. You worry about yourself. Don't worry about him."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21:20-21).

옛날의 위치로 돌아간 베드로는 자기의 차례가 아닌데도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나? 나는 네게 너에 관한것을 말하고 있는거야. 너는 네 걱정이나 하고 그에 대해서는 걱정마라.”

If I should will that he lived until I come again, what difference does that make? (21:22)

“You just hope, Peter. You're going to be crucified.” "Oh, but what about him, Lord?" Jesus said, "Hey look, Peter, you take care of yourself, your relationship with Me. If I will that he should live until I come again, what's that to you? What difference does that make to you?"

You follow me (21: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21:22)

“베드로야, 네가 원하는대로 너는 십자가에 죽을것 이다.” “오, 그렇지만 저 사람은요, 주님?”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예, 베드로야, 너와 나의관계를 잘 돌보아라. 내가 돌아올때 까지 그를 머물게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네게 무슨 차이라도 있니?”

너는 나를 따르라 (21:22).

Now, the Lord always wants to deal with each of us personally, and that personal relationship with us. The Lord will talk to me and tell me about me, and the Lord will talk to you and tell you about you. I put very little stock in people coming up to me who say, "The Lord told me to tell you..." I wonder when He forgot my number. "What about him, Lord?" "No, Peter, I'm talking about you. It doesn't matter what I've intended for John. You follow me."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우리들과 개인적 관계도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이야기하시고 나에 관하여 말씀해 주실것입니다. 또 당신에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당신에 관하여 말씀 하실것입니다. 내게 와서 “주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전화 번호를 잊어 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여,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아니야, 베드로야, 나는 너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내가 요한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나? 나를 따르라” 고 하셨습니다.

Now, because Jesus said, "If I will that he remain till I come," many picked up that statement and misinterpreted it. And they said Jesus said that He was going to come before John died. But John is careful to correct that misunderstanding. And John points out that is not what Jesus said. Jesus only said, "If I will that he should tarry till I come." And so, John seeks to correct that common mistake that had gone out within the early

church, "Oh, the Lord is going to come before John dies." John said, "No, no, that's not what He said. He said, 'If I will that he tarry,' but he didn't say he will tarry."

but, If I will that he tarry, what is that to you? (21:23)

예수께서 “내가 올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이 죽기전에 예수께서 오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조심스럽게 이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이 그뜻이 아니며 그가 말씀하신것은 “내가 올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에 퍼진 공통적인 오해인 “오,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은 “아니야,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가 말씀 하신건 ‘내가 그를 머물게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하겠다’ 라고 하신것이 아닙니다.”

Now John tells us that he knows that the things he is writing are true because he witnessed them himself. And then he goes on to tell us that there are so many other things that actually happened, that could have been related. As he said earlier, "Many other things did Jesu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And now he says,

There are a lot of other things that happened, and I suppose that if you would write down everything that could be written about Jesus, that the whole world could not contain the books that should be written on the subject (21:25).

이제 요한은 자신이 증인이므로 그가 쓰고 있는것이 모두 사실인것을 그가 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그와 관련되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의 행하신일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것도 많다” 고 합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줄 아노라 (21:25).

It's a subject that is so vast that we will never fully comprehend it on this side of eternity. But it is a subject that is so vast, it'll take all eternity to comprehend it. I look forward to eternity as a growing experience, a learning experience. As Paul tell us in Ephesians, "And God, through the ages to come, shall be revealing unto us what is the exceeding richness of His love and grace and mercy towards us in Jesus Christ" (Ephesians 2:7). God's love for you and His mercy towards you is so vast, He's going to take all eternity to reveal its fullness. Throughout the ages to come, we'll be learning of how much God does love us. So, impossible to write it all in a book, or in books. The world isn't big enough to contain the libraries that should be written on the subject of Jesus Christ. It's an ever-enlarging revelation to our own hearts, that work of God's Spirit, that work of God's love in our lives. Shall we pray.

주제가 너무나 방대 하므로 영원의 이쪽에 관한것도 완전히 이해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가 방대 하기때문에 그것을 이해 하는데 영원이 걸릴것입니다. 배우고 자라는 경험으로서의 영원을 기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엡 2:7).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완전히 계시 하시려면 영원한 세월이 걸릴것입니다. 닥아올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 하시는지를 배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책이나 여러 권의 책에 다 쓰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주제로 쓰여질 모든것을 담기에는 이 세상도 너무 작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 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끝없이 더 커져가는 계시입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are and all that You've done. We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who died and rose again, and who lives tonight making intercession for us. Lord, bless us we pray, as we learn of Thee and as we learn of Your love. And as we grow in this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n whose name we pray. Amen.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give you a beautiful week. May you just sense His presence to such an extent that you won't need any kind of an artifact or relic to remind you that the Lord is with you. But may you come to that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His presence by the things that He is doing in Your life. May things happen in such a way that you realize, "Ooh, the Lord is here with me." That's always a neat flush when you get that, ooh!...you know? The Lord is here. May you experience that this week, as you walk with Him in an ever-deepening and enriching fellowship through His Holy Spirit.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행하신일을 감사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시니 감사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한주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재 하심으로 인해 그분이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줄 부적이나 형상이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그의 임재 하심을 깨닫고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일을 깨달을수 있도록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것은 항상 새로운 경험입니다. “우.. 주님이 여기 계시네.” 그러한것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때 성령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